

#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신창호 ]



시 정 연  
2007-R-29

##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t  
Semi-industrial Areas in Seoul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진

---

연구책임 신 창 호 •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연구원 한 미 량 •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

자문위원 김 갑 성 • 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 군 수 • 경기개발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장  
김 번 옥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남 기 범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사회학과 교수  
조 인 동 • 서울시 산업지원과장

---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I. 연구의 개요

### 1. 연구배경

- 현재 준공업지역은 대규모 공장들이 서울 밖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공장 이전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 등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주거용으로 잠식되고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준공업지역의 토지이용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어 경공업 위주의 준공업지역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전략 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연구목적

-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함
- 준공업지역이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물론이고 사업서비스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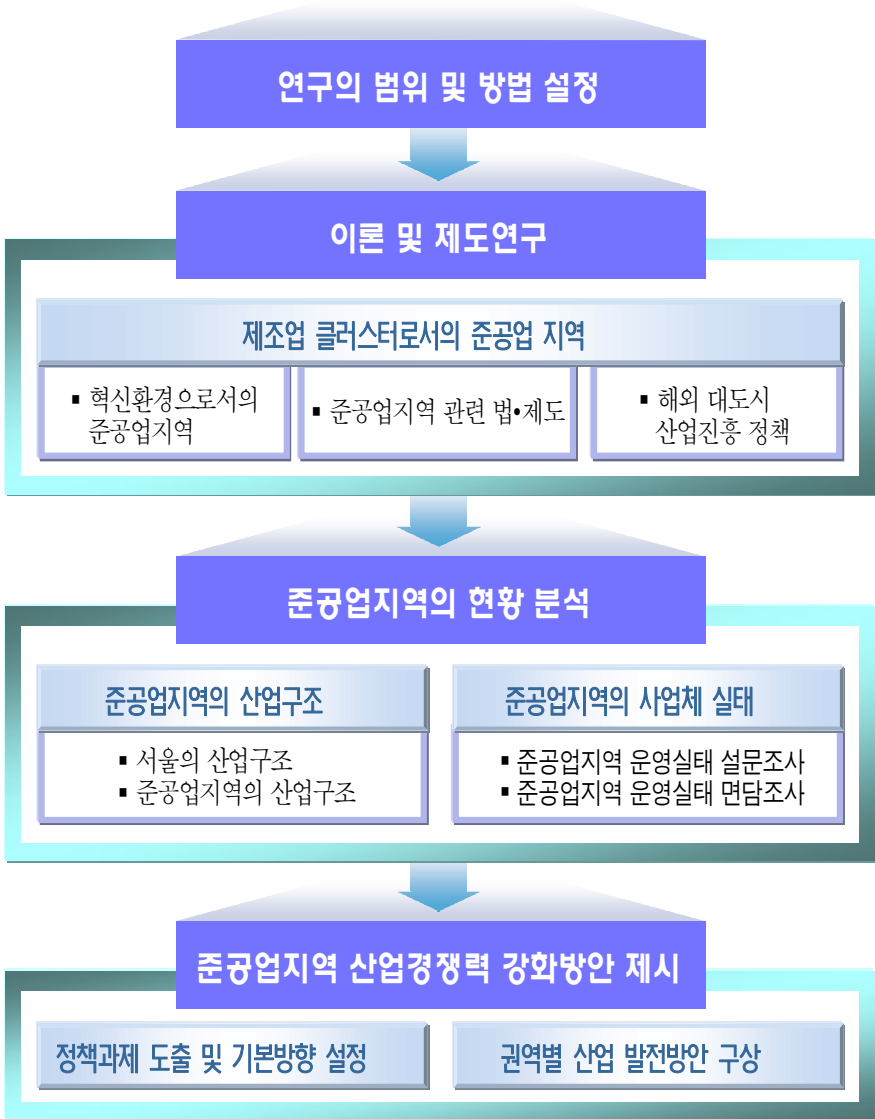
### 3.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 중 준공업 지역의 면적이 미미한 중랑, 양천, 광진 세 개구는 대상에서 제외한 영등포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6개구를 연구대상으로 함
- 내용적 범위
  - 준공업지역 문제 중 산업 재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하기 위해 준공업지역 산업 지식기반화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와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현장 기업의 운영실태 분석 등을 포함함

### 4. 연구방법

- 문헌 및 통계 조사
- 기업체 설문 및 면담조사
- 전문가 및 실무자 간담회 실시

## 5. 연구체계



<그림> 연구의 흐름도

## II. 제조업 클러스터로서의 준공업지역

### 1. 혁신환경으로서의 준공업지역

- 혁신활동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 공간 수준에서의 혁신활동이 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체제 구축, 산업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경제의 세계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혁신환경으로서 대도시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증대시킴
- 제조업의 질적 변화를 촉진하고 신산업을 수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전략거점으로 개발할 필요 있음

### 2.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 준공업지역 관련 상위 계획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2006~2020)
    - 서울을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
  -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
    -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계획함
  -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 기존 준공업지역 내 집적해 온 공업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공장부지의 총량은 가능한 현상 유지토록 하며 특히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기능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타 용도의 침투를 억제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래형 산업입지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주거용도 침투로 인한 주거혼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주거입지는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계획함

- 민선 4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
  - 4대 산업벨트 조성
    - 서울을 4대 산업벨트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육성전략 수립 추진
    - 산업벨트 내의 주요 거점별 연계체계 강화로 시너지효과 창출
  -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정비
    - 체계적인 산업재개발로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유치로 부가가치 제고
    - 지역별 특성을 살려 거점개발, 수도권 및 세계 주요 산업지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 산업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수단의 확보
    -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운영
    - 산업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
    - 클러스터의 핵심거점 역할 수행 및 인접지역과 유기적 연계
    - IT 산업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첨단산업단지 정착
    - 산업자원부(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추진 계획
    - 서울시의 활성화 추진계획
- 산업개발진흥지구
  - 서울시 조례상의 정의
    -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
  - 조례상의 지원사항
    - 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시세 감면 등이 있음

### Ⅲ.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1. 서울의 산업구조

- 서울의 총 사업체수는 1995년에서 2005년 동안 708,025개에서 741,229개로 33,204개 증가한 반면, 종사자수는 3,874,597명에서 3,843,010명으로 31,587명이 감소하여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음
- 지난 10년간 건설업과 제조업 등 2차산업의 비율은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사업서비스와 통신업 등 3차산업의 비중은 크게 증가함

#### 2. 서울의 제조업

- 2005년 서울의 제조업은 전산업 3,843,010명 중 473,643명(12.3%)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5년~2005년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조업을 주로 오피스에서 이루어지는 사무적 활동과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의 생산활동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차이를 알 수 있음
  - 먼저 사무적 활동과 생산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둘 다 크게 감소,
  - 5인 이상 공장의 수는 약간 감소, 공장 종사자수는 크게 감소
  - 1인 이상 공장의 수는 미미한 감소율을 보이고 공장 종사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서울 전체 제조업 종사자와 5인 이상 공장의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줌
- 이상의 결과들은 전체 제조업 활동 중 기획, 생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은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줌
- 대규모 공장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종업원은 이주가 어려워 준공업지역에서 창업

- 준공업지역이 창업하기 용이하며 혁신공간으로서의 집적이익이 있음을 나타냄

### 3.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 준공업지역 역시 지난 10년간 제조업과 건설업의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3차 산업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함
- 준공업지역의 사업체수는 1995년 150,317개에서 2005년에는 161,832개로 10년 동안 7.7%(11,515개)가 증가하여 서울의 증가율인 4.7%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동 기간에 종사자수는 서울이 0.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은 0.3%(2,809명) 증가하여 서울의 산업성장에서 준공업지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큼
- 서울 전체와 비교해 준공업지역에서의 사업서비스업 비중이 더 작긴 하지만 지난 10년간 준공업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더 빨리 그 비중이 늘고 있음
- 사업서비스업 중에서도 ‘연구 및 개발업’의 경우 서울과 비교해 준공업지역이 업체당 종사자수가 1995년에는 10명 이상, 2005년에는 15명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연구 및 개발업’업체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4.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 2005년을 기준으로 준공업지역에는 서울 제조업 사업체의 31.9%와 제조업 종사자의 33.7%가 분포해 있음
-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역시 서울 전체와 마찬가지로 지난 10년(1995~2005)동안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종사자수

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는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임

- 사업서비스업은 1995년 229,942명에서 2005년에는 319,769명으로 135.2% 증가했고, 통신업은 21,920명에서 38,719명으로 104.7%나 증가하였으며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에는 각각 5.9%, 0.6%였으나 2005년에는 8.9%, 1.1%로 증가함
- 입지상 계수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첨단제조업과 기반기술적인 산업이 준공업지역에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5. 권역별 특징

- 준공업지역을 도봉구와 성동구를 묶어 동북권으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를 묶어 서남권으로 나누어 분석함
- 제조업의 실태
  - 동북권 : 2005년 현재 서울 제조업 사업체의 9.4%, 종사자의 9.0%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제조업 사업체수 1.6%, 종사자수 25.1% 감소
  - 서남권 : 2005년 현재 서울 제조업 사업체의 22.4%, 종사자의 24.7% 분포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제조업 사업체수 6.0%, 종사자수 41.6% 감소
- 권역별 주력 산업의 특징
  - 동북권은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의 소비지입지형 산업 발달
  - 서남권은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발달해 있음

## IV.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 분석

- 준공업지역의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190건의 설문조사와 8건의 면담조사

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함

## 1. 설문 및 면담 조사

### ○ 현황 및 특성

- 준공업지역은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위치로의 이전은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 매력적인 사업환경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업체들의 평균 운영년도가 14년이 채 안 되어 업체 생명력은 길지 않음
- 정부의 지속적인 공장 규제, 지가 상승, 주변 주민의 이전 압력, 젊은 인력의 공장노동 이탈, 생산 연계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으로 인해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밀어내려는 힘과 이에 버티지 못하고 빠져 나가려는 움직임 발생

### ○ 입지환경

- 입지요인으로 ‘거래업체간, 동종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라는 응답과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실 확보’와 ‘교통·통신연락의 편리’ 등 물리적 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82%로 나타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사업 환경에 대한 기대로 준공업지역에 입지함.
- 하지만, 사업비용(임대료, 임금 등)과 교통·통신 인프라 수준,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쾌적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가 그 중요도에 비해 낮아 현재의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의 대부분이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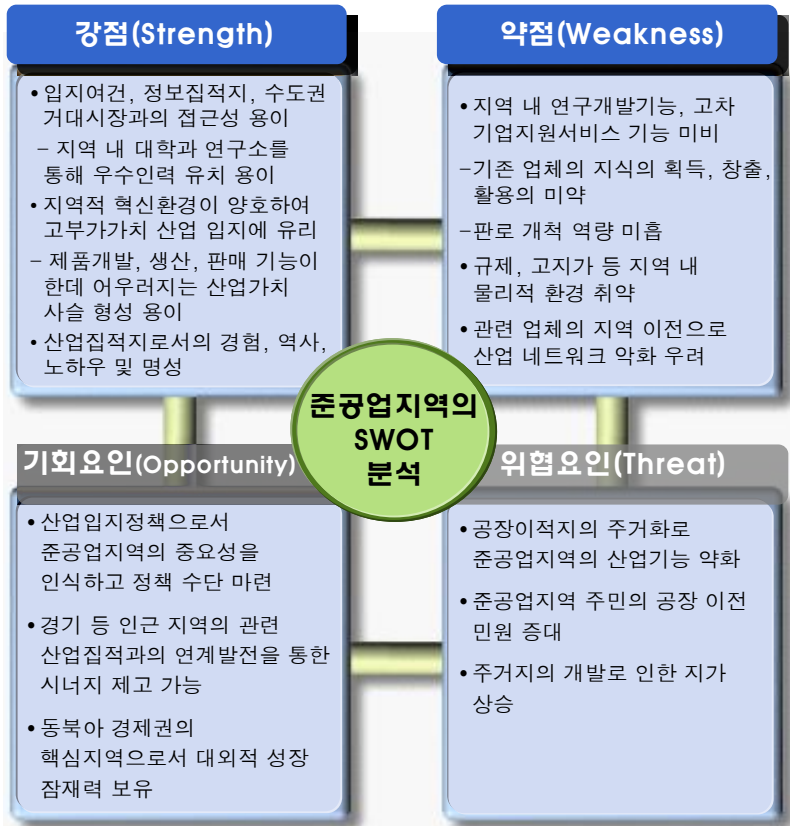
### ○ 사업환경

- 사업 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상승, 자금부족, 업체 간 경쟁심화 순으로 나타남

- 주변지역의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압박에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음
- 그럼에도 협력업체와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고 동종업종의 집적에 대한 불만족비율은 매우 낮아 업체들은 준공업지역을 산업집적지로서 만족해하고 있으며 높게 평가함
- 준공업지역은 대부분 직접 방문을 통해 거래를 맺고 업체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연계가 잘 발달되어 있음
- 산업집적지로서 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의 위상을 중요시함
- 기술 및 연구개발
  - 준공업지역 사업체는 단순 생산에 머무르지 않고 제품개발 및 설계에 많은 노력 기울임 (전체 사업체의 66.5%)
  - 신상품 개발을 위해 노력 중이며, 업체당 평균 종업원의 수는 줄지만 평균 연구 인력은 증가함
- 산학협력
  - 조사사업체의 26.8%가 산학협력 경험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산학협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
  - 산학협력의 애로사항으로는 전문지원기관·기능 미흡, 기업 내 산학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 등을 들고 있음
- 산업관련시설
  - 기업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경영·기술 플랫폼을 원하고 있음
- 정부지원
  - 대부분은 금융, 세제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 SWOT 분석 정책과제 도출

○ SWOT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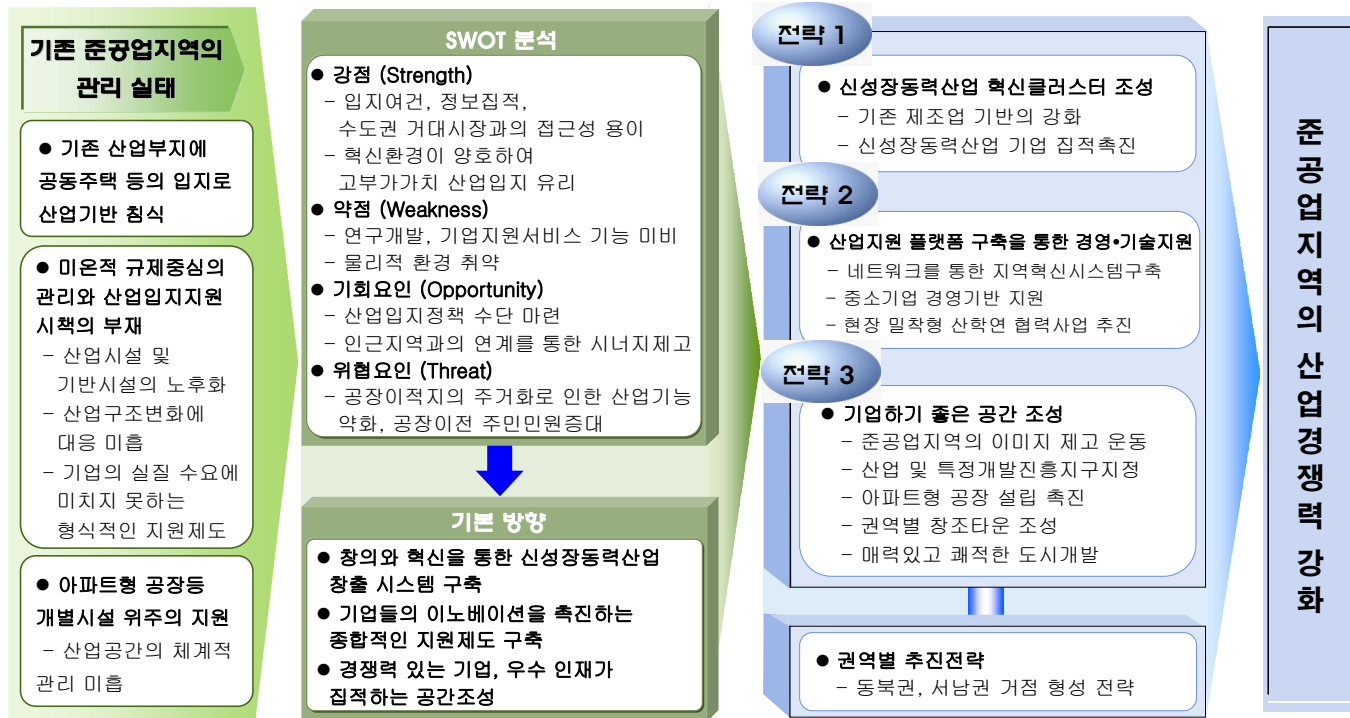
○ 정책과제

-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여 준공업지역이 새로운 산업의 수용공간이 되도록 함
- 기존 생산기능 위주의 활동에 가치사슬의 전반·후반 기능을 보완하여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함
- 준공업지역을 기업 활동하기 좋고, 생활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경쟁력 있는 기업, 인재들이 모여들어 집적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V.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1. 정책의 기본 방향

- 기존산업의 고도화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 창출
  - 준공업지역 내 기업의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성장동력 산업이 창출되는 시스템 조성
-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으로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
  - 새로운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제품개발,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 새로운 거래처 발굴, 마케팅 능력 제고 등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기능을 대학, 연구소, 산업지원기관, 서울시 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원할 추진주체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종합지원 플랫폼 역할을 하게 함
- 매력 있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으로 미래 신산업이 집적할 여건을 조성하며, 지구의 명칭을 첨단적이고 매력 있는 이미지를 내포하는 것으로 명명
  - 고차 기업지원서비스, 호텔, 컨벤션 시설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고, 문화적이며 어메니티가 높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우수 인재가 선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함



<그림> 준공업지역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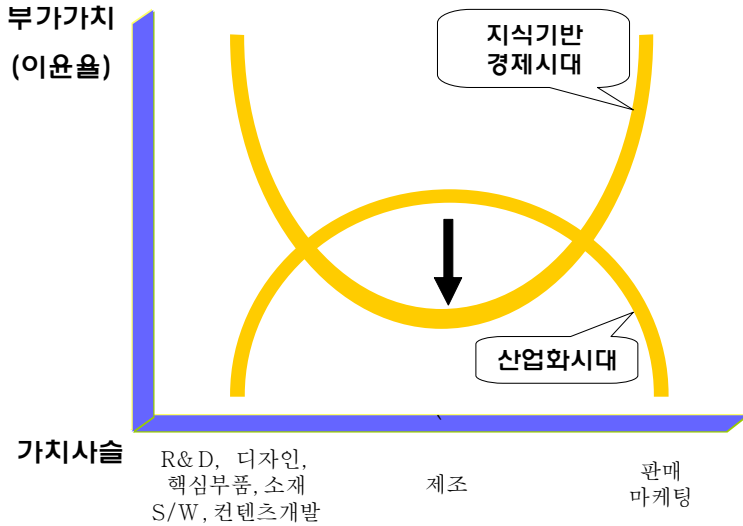
## 2. 추진전략

### ○ 신성장동력 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서울의 장점을 살려 혁신공간 조성
- BT, NT, IT, CT 등 지식기반 하이테크산업과 컨설팅업, 연구개발업 등과 같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
- 결과적으로 기존 제조업은 새로운 기술과 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신성장동력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되어 준공업지역이 혁신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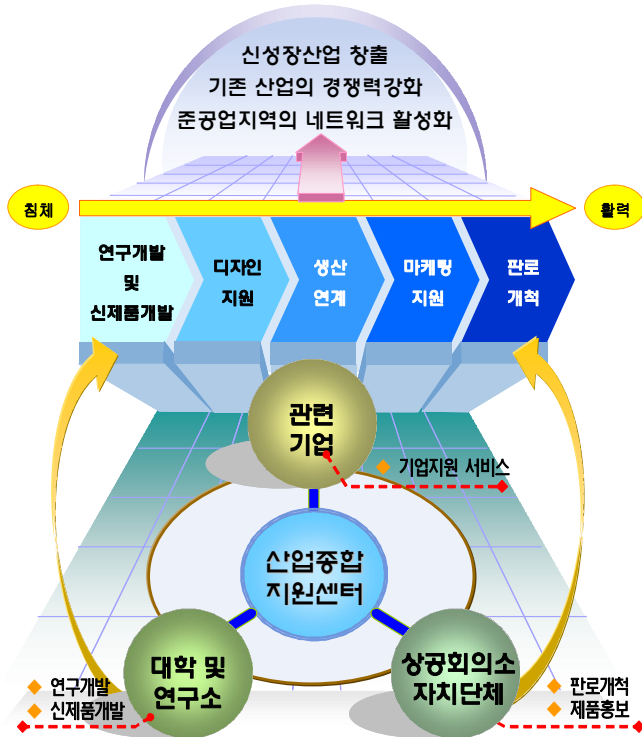
### ○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U자형 가치사슬 구조에 적절한 정책 형성이 필요함
  - 과거에는 가치사슬 형태가 중간단계인 제조부문의 이익이 높아 ‘역 U자’형 구조였으나, 지식기반경제 하에서는 가치사슬의 전반인 연구, 디자인, 기술개발 등과 후반인 마케팅 등의 서비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U자형 곡선으로 변화함
  -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들도 단순제조 위주의 사업모델만으로는 경쟁력을 잃게 되므로, 가치사슬의 전반, 후반기능의 지원이 필요함



<그림>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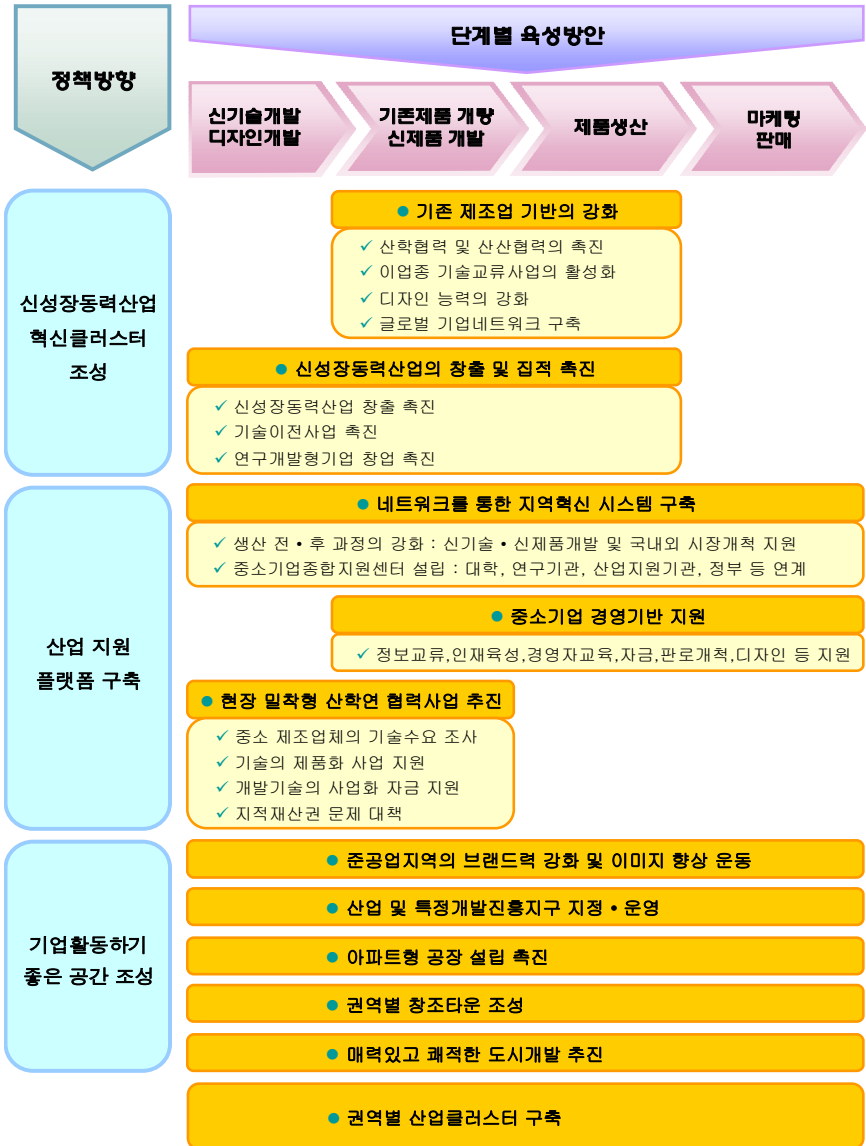
- 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기술·경영 지원 플랫폼 구축
  - 준공업지역을 산업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해 가치사슬의 전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존 제조부문을 강화하고, 기술개발 등 전반 기능과 글로벌 마케팅 등 후반기능을 보완 지원함
  - 연구개발, 기술개발, 제품개발, 디자인 개발 등 창의와 이노베이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 시책, 기업들의 생산연계를 원활히 하는 네트워크 전략,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강화 및 생산자 서비스업 입지를 촉진 지원함
  - 권역별로 대학, 연구기관, 각종 기업지원기관 등 기업 외부의 요소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플랫폼 조직을 만들어 지원함



<그림> 산업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산업융합지원센터

-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 조성
  -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개발수법과 산업지원체계의 조화가 필요함
  - 기업활동의 입지애로 사항을 최소화하는 방향의 지원이 필요한데, 산업개발 진흥지구 지정과 같은 제도 도입으로 기업입지여건 개선
  - 과거 준공업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 기업 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 국제적 교류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정비하여 우수한 인재나 정보가 모여드는 매력 있는 지역, 쾌적하고 안심하게 기업 활동 할 수 있는 지역,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지역을 만들

### 3. 추진시책



<그림> 준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도

○ 신성장동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업집적 촉진

-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존 기업이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해 쉽게 적응하도록 지원
  -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촉진
  - 기술이전 사업 촉진
  - 연구개발형기업 지원

- 기존 제조업 기반의 강화

- 기존 제조업체의 기술, 디자인, 기획 등의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 산학협력·산산협력의 촉진
  - 이업종 기술교류사업의 활성화
  - 디자인 능력의 강화
  - 글로벌 기업네트워크 구축

○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혁신주체들 간 연계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권역별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시스템으로 발전시킴
  - 생산 전·후 과정의 강화 : 신기술·신제품의 개발과 시장개척의 일체적 지원
  - 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 중소기업 경영기반 지원

- 정보교류
- 인재 육성
-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의 정비
- 자금지원
- 판로개척 지원
- 제품개발의 디자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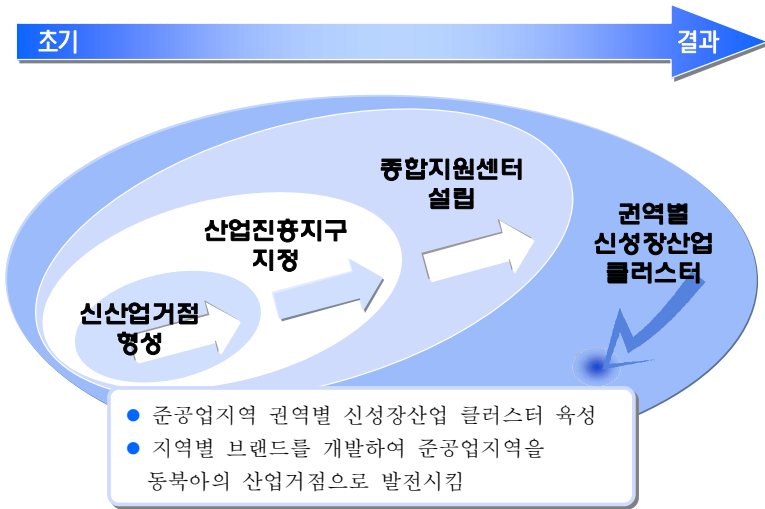
- 현장 밀착형 산학연 협력 사업 추진
  - 중소 제조업체의 기술수요 조사
  - 기술의 제품화 사업 지원
  -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
- 기업활동 하기 좋은 공간 조성
  - 준공업지역의 이미지 향상 운동
    -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와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 모색
    - 전략산업의 클러스터 형성,
    - 지역 브랜드화, 장소마케팅 전략으로서 산업개발진흥지구의 명칭을 공모하여 긍정적이고 품격있는 이미지 제공
  -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 신산업의 수용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 신개발 지역 또는 기존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 조성
    - 성장가능성, 잠재력, 비교우위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대상지와 권장업종을 선정하고 기업수요와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지원수단 확보
  - 아파트형공장 설립 촉진
    - 업종과 산업연계를 고려하여 관련기업 간 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와 복합화를 통해 집적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기업들의 입주 유도
  - 권역별 창조타운 조성
    - 권역별로 창조타운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부여하고, 산학연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지원거점 역할을 함
  -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개발 추진
    - 지역과의 양호한 관계 형성이나 지역주민의 이해를 위해 지역·사업자·행정 등에 의한 협의회를 설치함
    - 기업이 양호한 조업환경을 조성한 다음, 지역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산업 이벤트에 대해 지원함으로써, 지역 단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색이나 각광받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함

- 공장이전 적지 등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집객시설 등을 유치함으로 창의적인 인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함

#### ○ 권역별 추진전략

##### - 거점 형성 전략

- 준공업지역의 각 권역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클러스터로서 발전하기 위한 초기 단계의 수단으로서 집적지역 이미지의 핵이 되는 신산업거점을 형성
- 준공업지역 중 산업 집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산업의 지속적 집적을 촉진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집적 지역 내 기업에 대해 경영·기술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경영·기술 플랫폼 구축



<그림>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 동북권, 서남권(영등포·강서), 서남권(구로·금천)별로 전략산업을 설정하고, 권역별 산업개발진흥지구 지정, 경영·기술 종합지원 플랫폼 구축

- 동북권

-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의 소비지입지형 산업이 발달
- 혁신자원으로 공릉NIT 미래산업단지, 홍릉 벤처밸리, 건국대(의대, 축산대, 생명공학과), 한양대(의대, 생화학), 세종대(생명공학과), 시립대, 광운대, 산업대, 경희대 등 BT, NT, IT에 우세인 대학이 집적해 있음
- 추진방향
  - 지역에 집적해 있는 대학들의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지식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체제를 마련
  -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하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IT, NT 기술융합형 산업(정밀의료, 의료소프트웨어 등)과 신약, 신의료용구, 인공장기 산업 등의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
  - 준공업지역의 산업집적지역 일부를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
  - 공릉동 NIT단지를 거점으로 지원센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성동지역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치하여 경영·기술지원 지원하고 거점기능 역할

- 영등포·강서권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전자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과 같은 첨단제조업 발달
- 강서구·영등포구 인근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우수 대학이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IT, BT, NT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마곡 R&D 산업단지가 조성 중
- 추진방향
  - 기존의 기계금속산업을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의 NT, IT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을 촉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NT+기계+IT)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하고
  - 향후 마곡 R&D 시티의 NT, IT, BT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경기도 부천, 인천지역의 기계,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 산업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
  - 영등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 경영·기술지원 플랫폼을 설치하거나 향후 조성될 마곡첨단단지에 플랫폼 조직 설치

- 구로·금천권

- 기계, 금속, 전자 등이 밀집되어 있으며,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중심의 벤처타운으로 변모하며 첨단 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화
- 남부권 대학(서울, 숭실, 중앙 등) 및 수도권 산업지역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IT, BT, NT 관련 R&D 수행 및 신기술 연계 신상품을 개발
- 추진방향
  - 기존 전자부품, 기계 장비산업에 IT, NT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제조업, 첨단기계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며, 기존의 디지털산업단지, 경기 산업지대와 연계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지로 육성
  -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는 IT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 BT(신약개발, 바이오메디컬 산업), NT(나노재료, 나노소자, 나노공정 및 장비, 나노시스템 등)이 대상임
  - 기존 준공업지역의 산업집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경영·기술지원 플랫폼을 거점 시설로 설치함
  - 설치 방안으로는 기존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상공회, 대학, 기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음

# 목 차

---

|                                           |    |
|-------------------------------------------|----|
| <b>제 I 장 연구의 개요</b> .....                 | 3  |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 3  |
| 1. 연구 배경 .....                            | 3  |
| 2. 연구 목적 .....                            | 4  |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 5  |
| 1. 연구의 범위 .....                           | 5  |
| 2. 연구의 방법 .....                           | 6  |
| 3. 연구의 흐름 .....                           | 7  |
| <br><b>제 II 장 제조업 클러스터로서의 준공업지역</b> ..... | 11 |
| 제1절 혁신환경으로서의 준공업지역 .....                  | 11 |
| 1.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                      | 11 |
| 2. 혁신환경으로서의 대도시 .....                     | 13 |
| 3. 대도시의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제조업 .....             | 16 |
| 제2절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                   | 21 |
| 1.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황 .....                    | 21 |
| 2. 준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 .....                    | 23 |
| 제3절 해외 대도시 산업진흥 정책 .....                  | 38 |
| 1.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                       | 38 |
| 2. 미국의 산업진흥 정책 .....                      | 50 |
| 3. 프랑스의 지역자립형 클러스터 .....                  | 61 |
| 4. 중국의 창의산업 클러스터 .....                    | 65 |

|                                 |                |
|---------------------------------|----------------|
| <b>제Ⅲ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b>       | <b>73</b>      |
| 제1절 서울의 산업구조                    | 73             |
| 1. 산업구조의 현황 및 변화                | 73             |
| 2. 제조업 구조의 현황 및 변화              | 81             |
| 제2절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 96             |
| 1.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96             |
| 2.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구조 변화             | 99             |
| 제3절 요약                          | 114            |
| <br><b>제Ⅳ장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 분석</b> | <br><b>121</b> |
| 제1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설문조사              | 121            |
| 1. 조사의 개요                       | 121            |
| 2. 업체현황 및 입지여건                  | 122            |
| 3. 사업여건                         | 134            |
| 4. 정부지원                         | 138            |
| 5. 기술개발                         | 141            |
| 6. 산학협력                         | 144            |
| 7. 디자인 활용                       | 150            |
| 제2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면담조사              | 153            |
| 1. A기업                          | 153            |
| 2. B기업                          | 158            |
| 3. C기업                          | 162            |
| 4. D기업                          | 167            |
| 5. E기업                          | 174            |
| 6. F기업                          | 178            |
| 7. G기업                          | 181            |
| 8. H기업                          | 186            |

|                         |     |
|-------------------------|-----|
| 제3절 요약 및 정책 과제 .....    | 192 |
| 1. 요약 .....             | 192 |
| 2. 준공업지역의 SWOT 분석 ..... | 200 |
| 3. 정책과제 도출 .....        | 203 |

## 제 V 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207

|                                       |     |
|---------------------------------------|-----|
|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                    | 207 |
| 제2절 추진전략 .....                        | 209 |
| 1. 신성장동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 209 |
| 2.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 211 |
| 3.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 조성 .....              | 213 |
| 제3절 추진시책 .....                        | 215 |
| 1. 신성장동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 215 |
| 1)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업집적 촉진 .....             | 215 |
| 2) 기존 제조업 기반의 강화 .....                | 218 |
| 3) 외국 사례 : 동경도의 모노즈꾸리 신집적 형성 사업 ..... | 221 |
| 2.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 222 |
| 1)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 224 |
| 2) 중소기업 경영기반 지원 .....                 | 227 |
| 3) 현장 밀착형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           | 232 |
| 3.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 조성 .....              | 236 |
| 1) 준공업지역의 이미지 향상 운동 .....             | 236 |
| 2) 산업 및 특장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          | 238 |
| 3) 아파트형공장 설립 촉진 .....                 | 240 |
| 4) 권역별 창조타운 조성 .....                  | 241 |
| 5)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개발 추진 .....             | 242 |
| 4. 권역별 추진전략 .....                     | 245 |

|                    |     |
|--------------------|-----|
| 1) 거점 형성 전략 .....  | 245 |
| 2) 동북권 .....       | 246 |
| 3) 영등포 · 강서권 ..... | 249 |
| 4) 구로 · 금천권 .....  | 251 |

|                  |     |
|------------------|-----|
| 참 고 문 헌 .....    | 257 |
| 부        록 ..... | 263 |

# 표 목 차

|                                                                 |    |
|-----------------------------------------------------------------|----|
| <표 2-1> 각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면적 및 분포 현황 .....                           | 23 |
| <표 2-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목표4 .....                         | 26 |
| <표 2-3> 4대 산업벨트 사업내용 .....                                      | 27 |
| <표 2-4> 준공업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                                | 32 |
| <표 2-5>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항 개요 .....                   | 34 |
| <표 2-6>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사항 .....                          | 37 |
| <표 2-7> 특정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주요내용 .....                               | 41 |
| <표 2-8> 특정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주요내용 (계속) .....                          | 42 |
| <표 2-9>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조세지원내용 .....                               | 44 |
| <표 2-10>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융자지원내용 .....                              | 45 |
| <표 2-11> Enterprise Zone 지원사례 .....                             | 52 |
| <표 2-12> Enterprise Zone 지정기준 사례 .....                          | 53 |
| <표 2-13> 아이오와 주 Enterprise Zone의 Eligibility Requirements ..... | 54 |
| <표 2-14> 아이오와 주 Enterprise Zone의 혜택 .....                       | 55 |
| <표 2-15> Empowerment Zone 선정요건 .....                            | 57 |
| <표 2-16> 미국 Empowerment Zone의 파트너쉽 .....                        | 57 |
| <표 2-17> Empowerment Zone 지원사례(New York) .....                  | 60 |
| <표 3-1> 2·3차 산업 증감 현황 .....                                     | 76 |
| <표 3-2>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변화추이 .....                                | 77 |
| <표 3-3>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비중변화 .....                                | 78 |
| <표 3-4>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1995년 .....                           | 79 |
| <표 3-5>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2005년 .....                           | 80 |

|                                           |     |
|-------------------------------------------|-----|
| <표 3-6> 서울 제조업 변화 .....                   | 82  |
| <표 3-7> 서울의 제조업 비중 변화 .....               | 85  |
| <표 3-8> 통계조사별 제조업 증가 업종 .....             | 88  |
| <표 3-9> 서울 5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 .....        | 91  |
| <표 3-10> 서울 1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 .....       | 92  |
| <표 3-11>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5인 이상 공장) .....    | 94  |
| <표 3-12>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1인 이상 공장) .....    | 95  |
| <표 3-13>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변화추이-준공업지역 .....   | 97  |
| <표 3-14>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비중변화-준공업지역 .....   | 98  |
| <표 3-15> 업체당 종사자수 변화추이 .....              | 99  |
| <표 3-16>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특화도(1.5이상) .....      | 100 |
| <표 3-17>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비중 변화 .....           | 101 |
| <표 3-18> 준공업지역 제조업 증가 업종 .....            | 103 |
| <표 3-19>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 내역 .....         | 104 |
| <표 3-20> 동북권과 서남권의 입지특성별 제조업 현황 .....     | 105 |
| <표 3-21> 동북권과 서남권의 제조업 변화 .....           | 106 |
| <표 3-22> 입지특성별 제조업 사업체수 변화추이 .....        | 107 |
| <표 3-23>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       | 108 |
| <표 3-24> 준공업지역의 자치구별 제조업 특화도(1.5이상) ..... | 112 |
| <표 3-25>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 변화-종사자 .....       | 113 |
| <표 4-1> 응답업체의 업종별 구성 .....                | 122 |
| <표 4-2> 응답업체의 소재지 .....                   | 122 |
| <표 4-3> 응답업체의 대표자 연령 .....                | 123 |
| <표 4-4> 응답업체의 설립년도 및 이전년도 .....           | 123 |
| <표 4-5> 업종별 설립년도 및 이전년도 .....             | 124 |
| <표 4-6> 응답업체의 건물소유형태 .....                | 125 |

|                                                |     |
|------------------------------------------------|-----|
| <표 4-7> 지역별 건물소유형태 .....                       | 125 |
| <표 4-8> 건물소유형태에 따른 임대료 부담정도 .....              | 126 |
| <표 4-9> 사업형태(해당 분야 모두 기재) .....                | 127 |
| <표 4-10> 입지요인(3개까지 중복응답) .....                 | 128 |
| <표 4-11> 중요도 및 만족도(비율, %) .....                | 130 |
| <표 4-12> 현 입지에서의 향후 사업전망 .....                 | 131 |
| <표 4-13> 업종별 사업전망 .....                        | 132 |
| <표 4-14> 업종전환 의향 .....                         | 132 |
| <표 4-15> 이전 의향 .....                           | 132 |
| <표 4-16>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                     | 133 |
| <표 4-17>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3개까지 중복응답) .....          | 134 |
| <표 4-18> 장애요인(3개까지 중복응답) .....                 | 135 |
| <표 4-19> 거래업체 수 .....                          | 135 |
| <표 4-20> 업체당 평균 거래업체수 .....                    | 136 |
| <표 4-21> 거래업체 분포(수주업체) .....                   | 136 |
| <표 4-22> 거래방법 .....                            | 136 |
| <표 4-23>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의 사업관련서비스 이용방법 ..... | 137 |
| <표 4-24> 업체당 종업원 수와 연구인력수 .....                | 137 |
| <표 4-25> 연구인력의 비중 .....                        | 138 |
| <표 4-26> 정부지원 수혜 여부 .....                      | 138 |
| <표 4-27> 있다면 어떤 지원이었는가(3개까지 중복응답) .....        | 139 |
| <표 4-28> 부담정도 .....                            | 139 |
| <표 4-29> 부담정도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                 | 140 |
| <표 4-30> 산업관련시설(3개까지 중복응답) .....               | 141 |
| <표 4-31> 신기술 도입방법 .....                        | 141 |
| <표 4-32>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 142 |
| <표 4-33> 신기술 도입방법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 143 |

|                                               |     |
|-----------------------------------------------|-----|
| <표 4-34> 기술개발의 힌트 .....                       | 143 |
| <표 4-35>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한 생각 .....                | 144 |
| <표 4-36> 산학협력 여부 .....                        | 145 |
| <표 4-37> 산학협력의 형태 .....                       | 145 |
| <표 4-38> 산학협력 여부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 146 |
| <표 4-39> 산학협력시 애로사항 .....                     | 146 |
| <표 4-40> 사업화시 애로사항 .....                      | 147 |
| <표 4-41> 산학협력의 문제점(3개까지 복수응답) .....           | 148 |
| <표 4-42> 산학협력에서 가장 도움받고 싶은 지원 .....           | 149 |
| <표 4-43> 산학협력 지원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        | 149 |
| <표 4-44> 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인(2개까지 복수응답) ..... | 150 |
| <표 4-45> 제품생산에 있어 디자인 활용여부 .....              | 150 |
| <표 4-46> 업종별 디자인 활용 여부 .....                  | 151 |
| <표 4-47> 제품생산시 디자인을 활용하는(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 | 152 |
| <표 4-48> 디자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2개까지 복수응답) ..... | 152 |
|                                               |     |
| <표 5-1> 동경도의 모노즈꾸리 신집적 형성 사업 .....            | 222 |
| <표 5-2> 제조기업의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               | 232 |
|                                               |     |
| <부록 1> 서울의 산업별 변화 .....                       | 263 |
| <부록 2> 사업체수로 본 서울 제조업 현황 .....                | 264 |
| <부록 3> 종사자수로 본 서울 제조업 현황 .....                | 265 |
| <부록 4> 서울 5인 이상 공장의 제조업 업종별 현황 .....          | 266 |
| <부록 5> 서울 1인 이상 공장의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         | 267 |
| <부록 6> 각 자치구별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 변화(종사자) .....     | 268 |
| <부록 7> 서울 제조업의 자치구별 분포 변화 .....               | 269 |
| <부록 8> 서울 제조업 각 업종의 자치구별 분포-사업체 .....         | 270 |

|                                          |     |
|------------------------------------------|-----|
| <부록 9> 서울 제조업 각 업종의 자치구별 분포-종사자 .....    | 271 |
| <부록 10>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변화 .....              | 272 |
| <부록 11> 사업체수로 본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현황 .....      | 273 |
| <부록 12> 종사자수로 본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현황 .....      | 274 |
| <부록 13>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사업체 .....         | 275 |
| <부록 14>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사업체(계속) .....     | 276 |
| <부록 15>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종사자 .....         | 277 |
| <부록 16>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종사자(계속) .....     | 278 |
| <부록 17>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각 업종별 분포-사업체 .....    | 279 |
| <부록 18>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각 업종별 분포-종사자 .....    | 280 |
| <부록 19>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사업체 .....     | 281 |
| <부록 20> 준공업지역의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종사자 ..... | 282 |
| <부록 21> 권역별 제조업 업종의 변화-사업체 .....         | 283 |
| <부록 22> 권역별 제조업 업종의 변화-종사자 .....         | 284 |
| <부록 23>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사업체 .....        | 285 |
| <부록 24>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종사자 .....        | 286 |

# 그림목차

|                                           |     |
|-------------------------------------------|-----|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 7   |
| <그림 2-1> 지역혁신체계 구성요소 .....                | 15  |
| <그림 2-2> 준공업지역의 위치 .....                  | 22  |
| <그림 2-3> 서울의 4대 산업벨트 .....                | 28  |
| <그림 2-4> 지역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체계 .....          | 40  |
| <그림 2-5> 동오사카시 제조클러스터 추진 사업의 흐름도 .....    | 49  |
| <그림 3-1> 지난 10년간 사업체수가 증가한 산업 .....       | 74  |
| <그림 3-2> 지난 10년간 사업체수가 감소한 산업 .....       | 75  |
| <그림 3-3> 지난 10년간 종사자수가 증가한 산업 .....       | 75  |
| <그림 3-4> 지난 10년간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 .....       | 76  |
| <그림 3-5> 제조업 기능별 사업체수의 변화 .....           | 83  |
| <그림 3-6> 제조업 기능별 종사자수의 변화 .....           | 83  |
| <그림 3-7> 서울의 제조업 비중 변화 .....              | 85  |
| <그림 3-8>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사업체 .....         | 86  |
| <그림 3-9>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종사자 .....         | 86  |
| <그림 3-10> 특화도가 1.3이상인 서울 제조업 업종-사업체 ..... | 89  |
| <그림 3-11> 특화도가 1.3이상인 서울 제조업 업종-종사자 ..... | 90  |
| <그림 3-12>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변화 .....             | 100 |
| <그림 3-13>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비중 변화 .....          | 101 |
| <그림 3-14>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사업체 .....     | 102 |
| <그림 3-15>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종사자 .....     | 103 |

|                                                    |     |
|----------------------------------------------------|-----|
| <그림 3-16>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사업체수 변화추이 .....               | 107 |
| <그림 3-17>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               | 109 |
| <그림 3-18> 제조업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2005년) ..    | 110 |
| <그림 3-19> 준공업지역 각 구별 제조업 비중 현황(2005년, 종사자기준) ..... | 111 |
|                                                    |     |
| <그림 4-1> 주력품목인 DPS-1 .....                         | 164 |
| <그림 4-2> rendering system에 사용하는 펌프 내부단면도 .....     | 167 |
| <그림 4-3> rendering system 개략도 .....                | 170 |
| <그림 4-4> 종류별 부품 .....                              | 182 |
| <그림 4-5> H기업 위치도 .....                             | 187 |
| <그림 4-6> 준공업지역의 SWOT 분석 .....                      | 202 |
|                                                    |     |
| <그림 5-1> 준공업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                | 210 |
| <그림 5-2>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의 변화 .....                   | 212 |
| <그림 5-3> 산업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산업종합지원센터 .....               | 223 |
| <그림 5-4> 준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도 .....                 | 244 |
| <그림 5-5>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             | 246 |

## 제 I 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연구 배경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인건비를 비롯한 생산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노동집약적인 생산기능은 중국을 비롯한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 앞으로 제조업의 경우는 신제품개발이나 상품기획 분야, 3차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의 지식집약적 산업분야를 육성하지 않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서울의 산업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경공업 위주의 준공업지역의 위상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대규모 공장들이 서울 밖으로 이전해 나가면서 준공업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토지이용도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또한 준공업지역의 산업정책 방향 역시 명확하게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그 결과, 공장이전적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 등으로 인해 준공업지역의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잠식되고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 연구결과(신창호, 2006)에서는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대한 입지수요를 제조업 클러스터(제조업,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운수업) 차원에서 추정한 바 있는데, 이 추정 결과에 의하면 서울의 준공업지역에는 2020년까지 2.417km<sup>2</sup>의 추가적인 산업입지 수요가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 제조업의 감소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산업을 수용하는 그릇으로서의 준공업지역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민선 4기 서울시의 시정운영 4개년 계획(2006-2010)에서는 서울을 경제 도시로 건설하기 위해 경제활력 분야의 5개 시책 4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여기서 5개 시책은 4대 산업벨트의 전략거점 개발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 전략산업 육성, 기업하기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편안하고 안전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5개 시책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각 시책들 간에는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첫 번째 시책인 4대 산업벨트의 전략거점 개발 및 종합지원체제 구축과 두 번째 시책인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추진은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전략거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기존 준공업지역의 산업적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연구 목적

산업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준공업지역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준공업지역이 제조업은 물론이고 사업서비스업 등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첫째, 준공업지역의 공장이적지 내지 공장용지에 대해서는 산업적 이용과 공동주택적 이용간의 입지 경쟁이 존재하며 현재는 공동주택적 이용의 압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서울경제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준공업지역의 공장용지를 산업적으로 재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산업적 토지이용이 경쟁우위에 서게 하는 제도적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된다. 즉 준공업지역의 산업 입지적 제약을 보완하고 지원체제를 마련하여 신산업의 자생적 집적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즉, 제조업 내에서 재래산업에서 지식기반 산업으로, 단순 생산에서 창의적 생산으로, 또 제조업에서 고차 서비스업으로, 기업의 독자적 활동에서 산학연 협력 체제로 변화를 지원하여 준공업지역을 미래 산업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다.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1) 공간적 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서울시에서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로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총 면적은 2005년 현재 22.9km<sup>2</sup>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8%를 점하고 있으며 9개의 자치구(영등포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중랑, 양천, 광진)의 일부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이 중 준공업지역의 면적이 미미한 중랑, 양천, 광진 세 개구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고 영등포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을 대상으로 한다.

#### 2) 내용적 범위

준공업지역 문제 중 토지이용과 관련된 물리적 사항 보다는 산업 재활성화와 관련한 내용을 위주로 검토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산업 지식기반화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와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그리고 현장 기업의 운영실태 분석 등을 포함한다.

## 2. 연구의 방법

### 1) 문헌조사

지식기반경제, 혁신환경, 산업클러스터 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보고서와 국내외 대도시의 산업진흥 정책에 대한 자료를 통해 개념을 정립하고 이론적 배경을 조사한다.

### 2) 설문 및 면담조사

설문을 통한 준공업지역 소재 사업체의 실태 조사와 사업체 사장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를 실시한다.

### 3) 통계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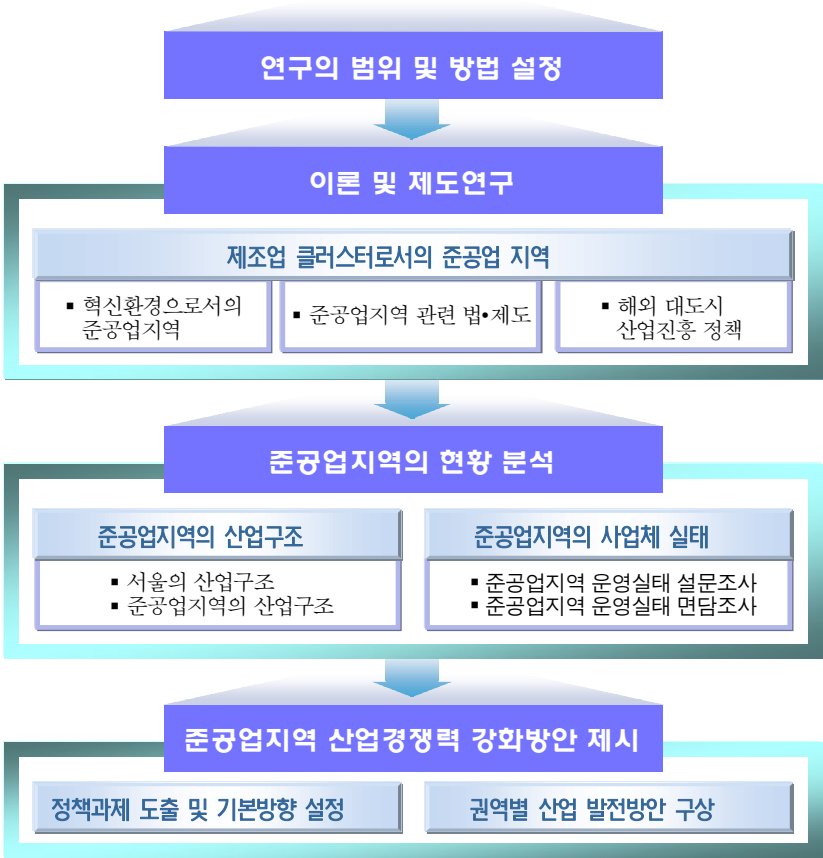
사업체 통계조사, 광공업통계 조사, 산업총조사 등을 이용하여 준공업지역 각 조사의 특성별로 산업특성을 분석한다.

### 4) 전문가 및 실무자 간담회 실시

연구의 방향과 설문조사의 내용 구성 및 결과, 준공업지역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와의 토론을 실시하여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예정이다.

3. 연구의 흐름

본 연구의 구성 및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 제Ⅱ장 제조업클러스터로서의 준공업지역

제1절 혁신환경으로서의 준공업지역

제2절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제3절 해외 대도시 산업진흥 정책

## 제1절 혁신환경으로서의 준공업지역

### 1. 세계화와 지식기반경제

경제의 세계화는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와 시장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무한경쟁의 심화로서, 기업들은 국내외 시장에서 무수한 해외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기업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대됨에 따라 다양한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에 더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공산품은 물론 서비스제품의 수명주기를 극도로 단축하고 있어 동일 시장에서의 동일 상품에 대한 시장수요 조차도 급변하고 있을 정도로 시장의 분절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기업들에게는 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경제의 세계화로 인한 세계시장에서의 무한경쟁 심화와 시장불확실성의 증대는 기업들로 하여금 생존과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역량을 갖추도록 강요하고 있다.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수많은 경쟁자들과 대면하게 되었으며 이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혁신을 통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부 입장에서라도 세계경제에서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혁신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지식집약적인 산업에 산업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있다. 세계화, 정보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지식기반경제로 이행하는 것은 이미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 되었다.

지식기반경제에서 지식은 대안적 자원들 중 하나이기 보다는 개별 경제 주체 및 국민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 자원이다. 또한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한다고 할 때, 동원·투입된

지식이 새로운 지식들을 생성한다는 점에서 지식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이 경제활동에 동원되는 가장 중요한 투입요소이며, 이의 동원 및 활용 능력이 국가 및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기업의 성장을 좌우하기 때문에 지식기반경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의 축적 및 고급 기술·지식 인력의 풀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제상황의 변화는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원천을 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즉 비용절감과 대량생산 능력이 경쟁력의 원천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혁신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역량이 경제주체들의 경쟁력 기반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제품(또는 서비스)의 개발을 위한 R&D 및 기술투자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고급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이들을 활용한 첨단산업의 육성, 벤처기업의 육성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술 및 지식의 축적, 기술인력 및 고급 지식노동자, 국가차원의 첨단산업 육성의 필요성 등이 강조되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기반경제 논의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주요 변화를 지식기반화로 특징지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가장 잘 발생하고 있는 첨단산업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부문의 중요성을 주로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반해 오늘날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변화는 경제활동을 조직하고 수행하는 방식의 변화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변화를 ‘학습경제’의 도래로 인식하고 있다. ‘학습경제’의 논의에서는 ‘지식’을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의 투입요소로서,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을 가장 중요한 경제활동 과정으로서, 지속적인 ‘혁신창출 역량’을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설명하고 있다.

OECD 역시 지식기반경제에서 고용과 성장 요인으로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학습경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인간의 학습을 지식기반경제가 요구하는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이해한다는 점에서 학습경제적 관점을 보

여주며, 또한 그 틀 안에서 노동자들의 평생 개발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이다(한승희, 2000). 이와 비슷하게 세계은행은 「발전을 위한 지식」이라는 보고서에서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 격차의 주된 원인은 지식 격차에서 비롯되며, 따라서 경제 부흥과 개발 촉진을 위해서는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 등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World Bank, 1999).

## 2. 혁신환경으로서의 대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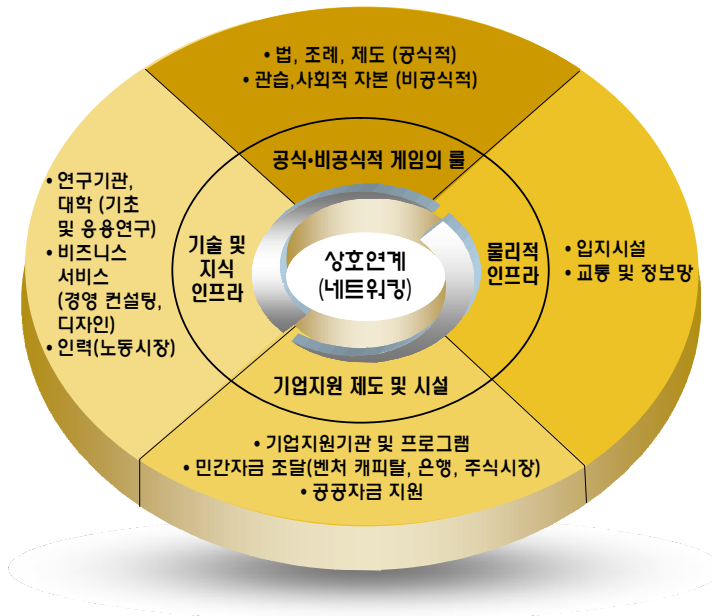
기업들이 대도시에 입지하려는 기본적인 이유는 집적경제의 이익을 향유하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집적경제란 다수의 기업 또는 산업이 일정 지역에 집적함으로써 기업 활동에서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키고 상호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다시 지방화경제와 도시화경제로 구분하기도 한다. 기업들은 지방화경제를 통해 해당 기업에 필요한 숙련노동력, 원료, 전문서비스 등의 구득비용과 운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으며, 도시화경제를 통해 다양한 산업에 속한 기업이 대도시의 풍부한 사회간접자본 및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운송비, 판매비 등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대도시는 이러한 집적경제의 이익을 얻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기업들의 주요 입지공간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업들은 경제활동의 주요 투입요소인 지식이 풍부하게 축적되어 있고 이들 지식을 경제활동에 동원하는 과정으로서의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이 활발한, 혁신창출의 가능성이 높은 혁신환경에 입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다. 혁신환경을 선호하는 기업들의 입지경향은 20세기 후반 주요 대도시의 집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오늘날 세계의 주요 대도시는 금융산업, 고차의 사업서비스, 첨단제조업, 지식기반제조업, 문화산업 등 첨단의 지식기반적인 산업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이러한 집중은 대도시의 기업환경이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풍부한 혁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산업입지와 관련된 논의들 역시 순수 집적경제의 이익 이외에, 상호의

존성 등의 네트워크 관계가 줄 수 있는 경제적 이점, 즉 네트워크 경제의 이익을 강조하고 있다. 기업들은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신뢰와 호혜성, 수평적 협력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호학습 과정을 통해 지식과 정보,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혁신창출의 가능성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활동의 집적과 네트워크화는 대도시 입지가 줄 수 있는 혁신환경의 토대를 이루고 있다. 즉 집적을 통해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함께 기업 간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수 있는 한편, 네트워크 관계를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을 사회화함으로써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상호학습과정을 극대화하여 혁신창출 가능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혁신활동에 있어서 지리적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지역 공간 수준에서의 혁신활동이 보다 중요시됨에 따라 지역 차원에서의 혁신체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산업클러스터 또는 지역혁신체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클러스터는 동일한 산업에 속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공진화(co-evolution)하는 다양한 산업부문의 기업들과 관련 단체·조직들 및 공공부문, 제도적 요소들까지 포괄함으로써 앞서 언급한 대도시의 집적경제와 네트워크 경제를 극대화하는 혁신환경을 형성한다.



<그림 2-1> 지역혁신체계 구성요소

Crevoisier(1999)는 대도시는 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기술변화와 혁신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주장한다. 그 독특한 특성이란 대도시가 상호작용과 학습의 공간을 제공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혁신창출의 가능성을 증대시킨다. 혁신창출의 전제가 되는 상호작용 및 상호학습 과정이 발생하는 장소나 기관(공공기관, 박람회, 협회조직, 교육·훈련기관, 연구센터 등)이 어느 곳 보다도 대도시에 풍부하게 입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없는 대도시란 상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습공간의 집적지로서 대도시가 갖는 함의는 대도시가 필연적으로 경제적 혁신의 발생처가 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자원을 동원하고 혁신적인 경제 주체들을 서로 접촉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체계의 진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대도시에는 어느 지역보다도 경제주체들 간의 다양한 네트워크 관계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들 관계가 일종의 규칙과 규범으로 작용하면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제도로써 발

전하게 된다. 대도시에서의 다양한 제도들은 이른바 객관화되어 다양한 경제적 상호작용들을 조절하며 객관화된 방식에 의해 경제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이처럼 대도시에서 형성되는 다양한 상호작용의 제도들은 객관화의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적 상호작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참여주체들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게 된다.

한편 이들 제도들은 건조환경으로서의 학습공간에 투영되어 나타나게 된다. 학습공간의 변화에 의해 제도들이 변화하기도 한다. 따라서 제도의 합리적 작용과 이에 따른 경제주체들 간 활발한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은 대도시 내 학습공간의 역할 확대 및 더욱 더 많은 학습공간을 요구하게 되며, 반대로 학습공간의 활발한 활용과 합리적 운용은 경제주체들 간 상호작용 및 학습과정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혁신창출의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한다. 즉, 학습공간이 대도시에서 갖는 주요 기능은 경제활동에서의 혁신가능성을 높이는 혁신창출의 공간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 3. 대도시의 경제적 기반의 변화와 제조업

경제의 세계화는 경제활동 주체들의 경쟁력 원천을 변화시켰으며,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경쟁력의 원천인 혁신역량을 증대할 수 있는 혁신환경으로서 대도시에 입지하고자 하는 경향을 증대시켰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주요 대도시들의 산업구조는 어떠한 변화를 겪고 있는지, 이에 따라 대도시의 기능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변화로 대도시 제조업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결론적으로 대도시 제조업의 변화에 대한 설명은 제조업이 대도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보다 고도화, 정보화된 과학기술 실험의 도시형 제조업은 그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경제의 세계화와 서구 선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발생했던 도시경제의 탈

산업화 현상이 심화되자 이들 대도시경제에 대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문이 제기되었다. 하나는 대도시의 탈산업화로 인해 경제적 하층민들이 실업이나 고용형태의 불안정성 등 부정적인 영향을 입게 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문제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이들 하층민들이 과연 대도시경제에 통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른 하나는 제조업기반이 주변지역으로 이전되는 한편, 새롭게 부상하는 하이테크산업 마저도 중심도시가 아닌 교외지역에 대규모로 형성되어 기존 대도시들이 갖고 있던 산업중심지 역할을 잃게 되면서 제기된 문제로 중심 대도시들이 지니는 경쟁력 있는 기능 또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 중 특히 후자의 경우는 탈산업화를 경험하게 된 대도시들이 경제적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 과연 오늘날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달리 말하면 대도시의 경제기반은 과연 무엇으로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제기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존 프리드만(John Friedmann)의 경우 그의 ‘세계도시 가설’(World City Hypothesis)을 통해 주요 대도시들의 역할을 세계경제에 대한 조직과 통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대도시들의 성장기반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의 본사와 관련 조직·제도들의 집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사센(Saskia Sassen)의 경우 존 프리드만의 논의에 대해 세계도시라 할 수 있는 주요 대도시들의 역할이 초국적 기업들의 집적을 통한 세계경제의 지휘본부 기능에 있다기보다는 복합적인 국제교역의 중심지 기능에 있다고 반박하였다. 사센이 말하는 국제교역 중심지로서의 대도시란, 국가 간 무역 및 해외투자의 중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세계무역에서 서비스부문, 특히 생산자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전문적인 사업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주로 대도시에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심 대도시의 기능과 역할은 대도시경제의 성장기반 및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스콧(Allen J. Scott)은 대도시에서 생산 활동의 근본적인 중요성이 여

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사무직 및 서비스산업이 도시경제의 성장하는 부문임은 분명하지만 이들의 중요성은 생산활동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또는 조건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대도시경제의 기반으로 제조업의 중요성이 사첸이 강조하는 전문화된 고차 생산자서비스 부문보다 우선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특히 스콧은 LA의 의류산업, 인쇄산업, 애니메이션, 영화산업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의 하이테크산업 집적지의 발달 등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활동을 대도시 경제성장의 기반으로 대도시 경제변화를 이끄는 주요 인자로 분석하고 있다. 스콧 외에도 후지타(Kuniko Fujita)는 일본의 제조업체들이 미국의 기업들 보다 본사, R&D, 생산기능 간의 근거리 입지 경향이 강하며, 이러한 이유로 도쿄는 서구의 대도시들과는 달리 탈공업화로 인한 산업활동의 감소나 도심실업 등의 문제가 크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스콧의 논의 중 서비스활동이 단순히 생산활동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존재이며 따라서 제조업이 서비스업에 우선한다는 논의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해 사첸은 대도시 경제활동을 경험적으로 관찰한 결과 오히려 고차 서비스 활동들의 집적이 대도시 기반의 제조업 활동을 자극한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면 인쇄, 사무기계, 통신장비 등의 제조업은 대도시에 집적해 있는 고차 서비스 활동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도시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이 스콧의 논의와는 반대로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대도시에서 제조업, 특히 생산활동이 감소해 왔으며, 따라서 대도시 경제기반으로서의 비중 또한 줄어든 것이 사실이지만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은 여전히 무시할 수 없다. 대도시에서 제조업의 중요성은 특히 고용이나 소득 측면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1980년대 제조업의 쇠퇴로 인한 고용의 극심한 감소와 도시경제의 하락을 경험한 뉴욕의 예에서도 볼 수 있다. 뉴욕의 경우 제조업의 감소로 인한 영향을 생산자서비스 부문의 증대를 통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지만 제조업의 감소로 인한 고용감소를 절반 정도밖에

회복하지 못했었다.

제조업이 대도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외에도 경제활동의 전반적인 특성 변화와 함께 대도시 제조업 생산활동 또한 그 질적인 특성이 변화하였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에 대해 Castells(1998)은 제조업과 고차서비스산업간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이들 두 산업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식기반화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즉, 생산이나, 유통, 소비, 경영 등 모든 경제활동의 효과성이나 생산성을 조건 지우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근본적인 활동은 바로 정보·지식의 처리과정이라는 것이다.

결국,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대도시경제는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의 변화를 비교적 급격히 경험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이제는 금융이나 고차 사업서비스 등 생산자서비스가 대도시경제를 이끄는 선도산업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제조업이 대도시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고 해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마저 낮다고는 할 수 없다. 특히 대도시경제에서 제조업이 갖는 중요성은 경제기반으로서의 역할 이외에도, 서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인식된다. 따라서 제조업이 고차의 서비스산업에 비해 생산성은 일반적으로 낮을지라도 그것이 대도시 시민의 소득기반으로서 갖는 역할은 지대하다는 측면에서, 또한 생산성 자체도 대도시 제조업의 질적인 특성변화에 의해 향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정책이나 산업정책에 있어 중요한 경제적 기반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도시 산업육성정책에 있어 어떠한 제조업종을 지원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된다. 이와 관련해 최근 대도시 제조업의 특성은 소프트화(기술·지식 집약화)와 복합화(생산활동 이외의 다양한 기업활동과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성)의 경향으로 요약될 수 있다. 소프트화란 대도시에 입지하는 제조업이 주로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소량생산하면서 기술·지식 집약화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섬유산업의 경우 기존의 대량생산을 하는 공장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벗어나 지가가 싸고 대규모 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하는 반면, 대도시에 입지하는 섬유 제조업은 보다 디자인이나 기술 집약적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생산활동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디자인 창출, 기술혁신 등 지식활동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기업활동이 보다 소프트화 되어 가고 있다. 소프트화와 더불어 최근 대도시의 소규모 제조업들은 단순히 생산활동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기획·구상 활동, 연구개발 활동, 유통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도 하며 이러한 활동을 수행하는 타 기업들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전략적으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다양화·분절화 되는 시장수요를 적시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을 둘러싼 전 가치체인의 다양한 주체들과 지속적인 상호작용적 학습과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끊임없이 제품 생산활동에 투입하여 혁신을 창출하는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경제의 서비스화, 지식기반화로 인해 서울의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공장이전적지의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 등으로 인해 준공업지역의 많은 부분이 공동주택으로 잠식되고 산업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공업용지 부족문제의 완화와 도시환경 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민 소득증대 등은 물론이고 앞서 언급한 대도시 제조업의 질적 변화를 수용·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의 하나로 준공업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열악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지식기반산업의 전략거점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준공업지역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 후 해외 사례와 국내 관련법을 검토함으로써, 새로운 산업이 창출되고 성장하는 공간으로서 특색있는 산업클러스터로서 준공업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절 준공업지역 관련 법·제도

### 1.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현황

#### 1) 준공업지역의 연혁

준공업지역은 1962년 도시계획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업, 준공업, 주거, 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이 구획되면서 처음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당시 면적은 29.4km<sup>2</sup>이었으며, 1964년과 1966년에 각각 22.8km<sup>2</sup>와 35.1km<sup>2</sup>가 증가하여 1966년에는 87.4km<sup>2</sup>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12.25%를 차지하였으나, 1970년대 들어 점차 감소하면서 2000년에는 28.8km<sup>2</sup>로 서울시 전체면적의 4.79%를 차지하였고, 2005년 22.9km<sup>2</sup>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3.8%를 점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공장이전적지들이 아파트 단지 등 공업이외의 기능으로 개발되면서 기존의 공장은 신규투자를 꺼리고(기존 공장의 사용은 가능하나 증축, 신축은 불허) 노후시설을 방치하여 도시환경문제(도시기능 및 미관의 저해, 재해위험 등)가 발생하고 새롭게 개발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주거환경 문제로 집단민원을 제기하여 기존의 공업 용도를 축출하는 등 도시 내 생산기반의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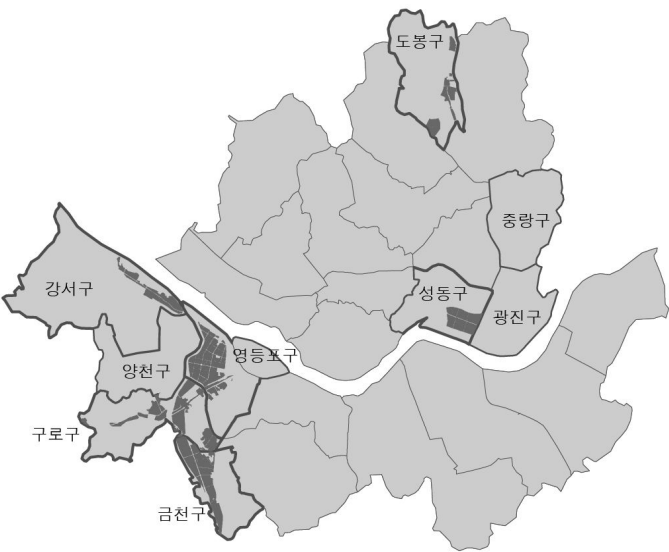
서울 대도시권 공간구조 구성에 따라 도심에서 서울 동부로의 발달 축에 포함되는 성동구와 남서부 부도심권에 포함되는 영등포구의 위상이 변화하여 공업 외 용도의 개발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봉구 준공업지역은 소규모 산업시설을 제외하고는 준공업지역의 대규모 공장부지가 상계동 지역과 연계하여 대부분이 아파트로 전환되었다.

서울시 서남부 지역의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강서구의 준공업지역은 전체 준공업지역의 81%를 차지하여 외견상 준공업지역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시 도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성동구 준공업지역은 상대적으로 준공업지역의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 형태를 갖추고 있어,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준공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서울시 준공업지역은 9개 자치구(영등포구, 구로, 금천, 성동, 도봉, 강서, 중랑, 양천, 광진)의 일부지역에 걸쳐 지정되어 있다. 그 면적은 2005년 현재 22.9 km<sup>2</sup>로서 서울시 전체 행정구역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2-2> 준공업지역의 위치

2005년 현재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면적 구성비를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30%가 구로구에 위치하며, 영등포구(24%), 금천구(20%), 성동구(9%), 도봉구(8%), 강서구(7%)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는 세 자치구의 준공업지역 면적 총합이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1.7 %에 해당하는 미약한 공업 기반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2-1> 각 자치구별 준공업지역 면적 및 분포 현황

(단위:km<sup>2</sup>, %)

| 자치구  | 2000년       |                       | 2005년       |                       |
|------|-------------|-----------------------|-------------|-----------------------|
|      | 준공업지역<br>면적 | 서울시 준공업지역<br>면적 대비 비중 | 준공업지역<br>면적 | 서울시 준공업지역<br>면적 대비 비중 |
| 성동구  | 3.22        | 11                    | 2.12        | 9                     |
| 영등포구 | 9.55        | 33                    | 5.48        | 24                    |
| 구로구  | 7.63        | 26                    | 6.87        | 30                    |
| 금천구  | 4.60        | 16                    | 4.58        | 20                    |
| 도봉구  | 1.90        | 7                     | 1.85        | 8                     |
| 강서구  | 1.77        | 6                     | 1.70        | 7                     |
| 양천구  | 0.25        | 1                     | 0.25        | 1                     |
| 광진구  | 0.04        | 0.1                   | 0.04        | 0.2                   |
| 중랑구  | 0.02        | 0.1                   | 0.02        | 0.1                   |
| 계    | 28.8        | 100                   | 22.9        | 100                   |

자료: 각 구청 통계연보(2000,2005)

## 2. 준공업지역과 관련한 제도

### 1) 준공업지역 관련 상위 계획

#### (1)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2006~2020)

정부는 1972년 이래 30여 년간에 걸친 국토개발 과정에 있어 최상위 계획으로 적용하여 왔던 국토종합개발계획에서 인구와 산업기능의 수도권 집중현상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 성장의 문제점 해소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이후 새로운 국내외 여건변화 대응이라는 목표 아래 2006년 ‘제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위 계획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2020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울특별시: 세계일류도시’라는 제목으로 서울을 산업혁신을 주도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산업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다.

- 동북아의 산업경제 거점도시로 육성

- 국가의 산업혁신 중심지로 육성
-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산업도시로 육성
-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

## (2)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관련 정책은 1960년대 중반부터 서울로의 급속한 인구 및 산업집중 등으로 인해 야기되는 수도권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지속적으로 제안되어 왔다.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처음으로 제정되었고 1984년 수도권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계획화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부터는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1997년 제2차 수도권정비기본계획 수립 후, 2006년 현재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이 수립되었다.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이전 계획과 마찬가지로 수도권을 3대 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권역에 대한 규제 방안 및 지원시책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은 3대 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수도권 내 산업배치에 있어서 서울 및 그 주변지역은 동북아 금융·업무기능 중심으로 특화하고, 지식기반 산업 및 도시형 제조업 중심으로 「업무 및 도시형 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을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 3차 수도권정비계획 역시 공장용지에 대한 총량관리와 공업의 배치 및 관리에 대해 규제에 대한 이전 계획의 기본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으로 수도권 규제가 차등 적용되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하여 수도권 과밀억제시책 운용의 부작용을 최소화 할 것을 계획하였다. 「정비발전지구」는 수도권정비를 위해 불가피한 지역을 대상으로 세 가지 유형으로 지정하며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한 정하여 수도권 과밀억제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규제 및 조세 중과조치 등을 선택

적으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하였다. 세 가지 「정비발전지구」 유형은 다음과 같다.

- 도심정비형 : 행정·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의 이전 후 종전부지 등 도심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
- 낙후지역개발형 : 접경지역을 비롯한 저(低)발전지역
- 산업클러스터형 : 기존 공업지역의 정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지정

지구 지정의 절차는 시·도지사가 정비발전지구개발계획을 첨부하여 지구지정을 신청하면, 관계부처의 협의 및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였다.

### (3)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은 1980년 ‘서울 도시개발 장기구상·중기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현재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까지 수립되어 왔다.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은 ‘2011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수정·보완 계획으로 급격한 도시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현안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21세기 세계화·지방화·다원화 시대에 대비한 도시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위 계획에서는 서울시 준공업지역과 관련된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상의 목표 및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표 2-2>. 기존 준공업지역 내 집적해 온 공업기능을 적극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기반을 유지하고, 이를 위해 공장부지의 총량은 가능한 현상 유지토록 한다. 특히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산업기능 집적지역에 대해서는 타 용도의 침투를 억제하고 활성화를 도모하여 미래형 산업입지를 유도하고, 무분별한 주거용도 침투로 인한 주공혼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대규모 주거입지는 선별적으로 허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표 2-2> 202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 목표4

| 구분   | 내용                                                                                                                               |
|------|----------------------------------------------------------------------------------------------------------------------------------|
| 목표 4 | 용도지역의 지정취지 강화                                                                                                                    |
| 과제1  | 용도지역 조정원칙의 재조정                                                                                                                   |
|      | <b>전략:</b> 중심지 위계와 지역특성을 살리는 용도지역 구현<br><b>시책:</b> 2011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중심지 위계별 용도지역 조정방안을 참고하되 중심지 성격부여와 지역여건별 공간적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 |
| 과제2  | 준공업지역 내 산업집적기반 유지                                                                                                                |
|      | <b>전략:</b> 산업기반 유지와 주공혼재 완화<br><b>시책1:</b> 산업집적기반의 활성화 및 미래형 산업입지 유도<br><b>시책2:</b> 입지의 선별 허용 및 주공혼재 문제개선                        |
| 과제3  | 상업지역의 지정취지 견지                                                                                                                    |
|      | <b>전략:</b> 지역별로 중심지 육성을 도모하는 개발 유도<br><b>시책1:</b> 상업지역 토지이용의 업무상업용도로 개발 유도<br><b>시책2:</b> 중심지 내 개발가능지의 계획적 관리                    |

#### (4) 민선 4기 시정운영 4개년계획

##### ■ 4대 산업벨트 조성

서울을 4대 산업벨트 권역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육성전략 수립하여 추진하며 각 산업벨트 내의 주요 거점별 연계체계 강화로 시너지효과 창출을 지원한다.

<표 2-3> 4대 산업벨트 사업내용

| 권역명           | 권역내 산업지역                                                                                                      | 특화육성 및 산업                                                                                                                                                    |
|---------------|---------------------------------------------------------------------------------------------------------------|--------------------------------------------------------------------------------------------------------------------------------------------------------------|
| 도심<br>창의산업벨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대문 디자인 클러스터</li> <li>◆ 상암 DMC 단지</li> <li>◆ 여의도용산 국제업무단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디지털 콘텐츠산업 : 방송,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li> <li>- 디자인 산업, 의류/패션 산업, 귀금속 산업, 인쇄/출판 산업</li> <li>- 금융 및 사업서비스 산업 등</li> </ul> |
| 서남<br>첨단산업벨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곡 MRC</li> <li>◆ 구로디지털단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NT/B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기기, 의료소프트웨어 등</li> <li>- 기존 준공업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나노메카트로닉스 등</li> </ul>                             |
| 동북<br>NIT산업벨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릉 NIT 미래산업단지</li> <li>◆ 성동 준공업지역</li> <li>◆ 홍릉벤처밸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NT 기술융합형 산업 : 정밀의료, 의료소프트웨어 등</li> <li>- 신약, 신의료용구, 인공장기 산업 등</li> </ul>                                         |
| 동남<br>IT산업벨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테헤란밸리</li> <li>◆ 포이밸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 컨벤션산업, 금융 및 사업서비스업</li> <li>- 디지털 콘텐츠산업 : 영화, 게임, 음반, 애니메이션 등</li> </ul>                                        |



<그림 2-3> 서울의 4대 산업벨트

## ■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정비

### ○ 실태

- 준공업지역에 대한 장기간의 관리소홀로 산업기반 및 생활여건 악화
-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신속적 대응 미흡
-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 등의 용도혼재로 인한 산업기반 약화 및 해제요구 민원 상존

### ○ 추진계획

- 체계적인 산업재개발로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권역별 정비계획을 수립

### ○ 기본방향

-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비즈니스서비스업 등의 유치로 부가가치 제고
- 지역별 특성을 살려 거점개발, 수도권 및 세계 주요 산업지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 발전방향

- 기존 고도의 공업집적을 활용, 새로운 창업을 촉진하여 한국 테크노폴리스의

거점으로 육성

- 각 지역의 준공업지역 특성을 살려 기존의 거점지역, 수도권과 연계하고 세계의 주요 산업지역과 연계하는 네트워크 체계 구축
- 비즈니스 서비스업, 연구기관, 대학의 연구소를 유치하여 기존공업을 고부가가치화

#### ○ 지역별 발전구상

- 영등포·강서
  - 기존의 기계금속 산업을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의 NT, IT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을 촉진하여 나노 메카 트로닉스(NT+기계+IT)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
  - 향후 마곡 R&D 시티의 NT, IT, BT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경기도 부천, 인천지역의 기계,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나노 메카 트로닉스 산업벨트의 핵심 지역으로 발전
- 구로·금천
  - 기존 전자부품, 기계 장비산업에 IT, NT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제조업, 첨단기계산업의 메카로 발전
  - 기존 디지털 산업단지, 경기도 안양 일대의 산업지대와 연계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의 중심지로 발전
- 성수
  - 기존의 인쇄·출판·의류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촉진시킴과 동시에 지역적 잠재력을 활용하여 첨단정보통신(IT), 바이오(BT)산업을 신규로 육성
  - 성수 준공업지역을 강남테헤란 벨리, 홍능벨리, 공릉동 NIT단지를 연계하는 동부지역 첨단산업 벨트의 중심지역으로 발전

#### ○ 추진방법

- 서울시 : 정비계획 수립 지침시달, 종합적인 정비계획 수립
- 자치구 : 지역별 정비계획 수립, 정비계획 시행

### ■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을 위한 제도정비

#### ○ 실태

- 개발 유인수단의 미비로 공장의 노후화 등 열악한 산업환경이 사실상 방치
- 소규모 영세공장의 노후화 및 산업환경의 악화 지속
- 빠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로 첨단산업·지식산업 중심의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구조 개편 부진
-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지에 따른 용도간의 마찰과 새로운 산업수용 공간의 부족
- 서울의 산업구조의 지속적인 변화 수용 가능한 입지 공간 제공 및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도적 유인수단 확보 필요

#### ○ 추진계획

- 산업기능의 활성화 및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유인수단의 확보
- 준공업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수립·운영
- 산업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추진
  -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 : 준공업지역의 건폐율(60%), 용적률(400%)의 120%이내 적용
  -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금액 상향 : 100억원 → 200억원
- 공장이적지의 매입 등을 통한 산업의 순환재개발 추진
  - 공장이적지로서 산업재개발 추진에 필요한 토지는 시에서 매입하여 활용
  -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산업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재개발과 같은 수준의 자금지원 등 지원제도 정비
  - 산업재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금지원제도 수립(중소기업육성기금의 확대, 별도의 자금설치 등)

###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활성화

#### ○ 실태

- 산업의 구조변화 및 재배치가 진행중이나 기반시설의 노후화 병존
- 섬유융제 제조업 등 경공업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지식기반산업으로 산업구조

## 변환

- 특화산업의 산·학·연 클러스트 형성을 위한 산업구조 혁신을 선도할 중추기반 확충 필요
- 60년대 이후 기반시설투자가 거의 없어 기반시설의 노후화, 재정비 및 질적 성장 촉진 필요성 대두
- 인간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심형 연구·생산공간으로 전환

## ○ 추진계획

- 클러스터의 핵심거점 역할 수행 및 인접지역과 유기적 연계
- IT 산업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첨단산업단지 정착
- 산업자원부(산단공)의 구조고도화 추진 계획
  - 클러스터의 핵심거점 역할 수행 및 인접지역과 유기적 연계
  - IT 산업분야의 지식기반산업 육성으로 첨단산업단지 정착
- 서울시의 활성화 추진계획
  - 도로체계 개선 지원
  - 산업단지 지원시설(컨벤션센터, 호텔, 연구소, 오피스 등) 및 상업, 업무, 주거, 녹지시설은 가리봉균형개발촉진지구 기본계획(84,000평)에 반영 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상수도 요금 할인
  - 공공기반시설의 유지·보수 지원

## ○ 추진일정

- 구조고도화 추진
- 가리봉균형발전촉진지구 추진 : 2009 ~2014
- 서울시의 활성화 추진

## 2) 준공업지역 용도규제 관련 법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용도규제를 처음 행한 것은 1913년 시가지건축취체 규칙으로 현재와 같은 용도지역제는 아니지만 ‘위생상 유해한 공장은 특별히 지

정된 지역에만 입지'하도록 하여 실제로 공업지역 지정에 따른 용도규제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대의 용도지역제와 같은 체계는 1934년 6월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 속에서 비롯되었으며 1962년 도시계획법으로 법제화 된 후 계속적인 개정을 거쳐 2003년 현재와 같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

<표 2-4> 준공업지역 내 건축 가능한 건축물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br>관한법률 시행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중 기숙사</li> <li>· 제1종 근린생활시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li> <li>· 판매 및 영업시설 (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li> <li>· 의료시설</li> <li>·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li> <li>· 공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것</li> <li>· 창고시설</li> <li>·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li> <li>· 자동차관련시설</li> <li>·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li> <li>· 공공용시설 중 발전소</li> </ul> |
| 서울시도시계획조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주택</li> <li>· 공동주택(공장이적지에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 <li>·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li> <li>· 문화 및 집회시설</li> <li>· 판매 및 영업시설</li> <li>· 운동시설</li> <li>· 업무시설</li> <li>· 공장</li> <li>·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li> <li>· 공공용시설중 다음 각목의 건축물: 군사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 통신용시설</li> </ul>                             |

### 3)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1) 서울시 조례상의 정의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하여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공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에 의거하여 제정되었다. 서울시가 조례제정을 통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산업입지 지원 제도의 대부분이 서울시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서울시 전략산업 및 기타 산업육성에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공간적인 산업입지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정책수단을 도입한 것이다.

#### (2) 조례상의 지원사항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의 제3장 제11조~제14조 항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원혜택은 기반시설의 우선 공급, 도시계획상의 행위제한 완화, 입주기업 등에 대한 시세감면 등이 있다.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서울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사항 개요

|          |                                                                               |                                                                                             |
|----------|-------------------------------------------------------------------------------|---------------------------------------------------------------------------------------------|
| 정의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시장이 전략산업의 육성 및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해 정책적으로 지정한 지역 (제1장 제2조) |                                                                                             |
| 목적       | 전략산업의 집적 및 활성화와 첨단산업의 유치를 위함 (제3장 제11조)                                       |                                                                                             |
| 근거<br>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004.12.31)                                                    |                                                                                             |
| 지원<br>사항 | 기반시설 공급<br>(제3장 제12조)                                                         |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하고자 하는 해당기업에 대하여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기반시설을 공급                 |
|          | 도시계획상의<br>행위제한 완화<br>(제3장 제13조)                                               | 시장은 당해 용도지역·용도지구에서의 행위제한·건축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용적률의 비율을 완화할 수 있음<br>완화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함 |
|          | 시세 감면<br>(제3장 제14조)                                                           | 시장은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입주한 기업에 대해 시세를 감면할 수 있음<br>감면에 적용하는 규정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서 정함                  |

자료 : 「서울특별시전략산업육성및기업지원에관한조례」, 2004

### (3)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사항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sup>1)</sup>에 따라 당해 시·도의 도시계획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과 건축 및 그 밖의 행위의 금지,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37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용도지구 이외의 지구에 대하여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6장에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및 용적률, 건폐율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관련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상에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6조 제7항, 제8항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용적률 및 건축물 높이의 완화적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첫째,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둘째,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를 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제54조 제7항, 제55조 제12항 항목에서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

---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용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다. 첫째, 서울시에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보다 강화된 건폐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sup>2)</sup> 둘째, 용적률의 경우에도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여 100% 이하<sup>3)</sup>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sup>4)</sup>

---

2) 다만,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안에서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당해 용도지역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 100%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 전체 용적률이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 이하를 적용한다.

4) 2005년 1월 5일 신설

<표 2-6> 산업개발진흥지구 관련 도시계획적 규제완화사항

| 구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br>시행령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
|-------|-----------------------------------------------------------------------------------------------------------------------------------------------------------------------------------------------------------------------------------------------------------------------------------------------|---------------------------------------------------------------------------------------------------------------------------------------------------------------------------------------------------------------------------------------------------------------------------------------------------------------------------------------------------|---------------------------------------------------------------------------------------------------------------------------------------------------------------------------------------------------------------------------------------------------------------------------------------------------------------------------|
| 건축제한  | <p>◦제76조<br/>(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br/>의 건축물의 건축제한)<br/>-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br/>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br/>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br/>대통령령으로 정함<br/>-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br/>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br/>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br/>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br/>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br/>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br/>별사광역사시 또는 군의 조례<br/>로 정할 수 있음</p> | <p>◦제79조<br/>(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br/>-개발진흥지구 안에서는 지구<br/>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br/>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br/>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br/>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br/>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br/>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br/>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br/>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br/>수 있음</p>                                                                                                                | <p>◦제53조<br/>(기타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br/>축제한)<br/>-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 그<br/>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br/>규모 등의 건축제한에 관한<br/>사항은 용도지구의 지정 목<br/>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br/>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br/>에 의함</p>                                                                                                                                                  |
| 용적률   | <p>◦제78조<br/>(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br/>-용도지역 안에서 건폐율의<br/>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br/>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br/>성 등을 감안해야 함<br/>-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br/>따라 특별사광역사시 또는<br/>군의 조례로 정함</p>                                                                                                                                 | <p>◦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br/>-관할구역의 면적, 인구규모 및 용도<br/>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사광역<br/>사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br/>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br/>◦제46조(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br/>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br/>제7항<br/>-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br/>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br/>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br/>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br/>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br/>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br/>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br/>여 적용할 수 있음</p> | <p>◦제55조 제12항<br/>(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br/>-산업개발진흥지구, 외국인투<br/>자기업 또는 특정관리대상 아<br/>파트의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br/>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초과하<br/>여 100% 이하(당해 용도지역<br/>의 용적률과 초과 용적률<br/>100% 이하의 용적률을 합한<br/>전체 용적률이 영 제85조에서<br/>규정하고 있는 용적률의 범위<br/>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영 제85<br/>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적률<br/>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시계<br/>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br/>할 수 있음</p> |
| 건폐율   | <p>◦제77조<br/>(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br/>-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의<br/>최대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br/>및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br/>성 등을 감안해야 함<br/>-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br/>따라 특별사광역사시 또는<br/>군의 조례로 정함</p>                                                                                                                                 | <p>◦제84조(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br/>율)<br/>-시행령에서 정하는 건폐율 범<br/>위 안에서 특별사광역사시 또는<br/>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br/>율을 초과하여서는 안됨</p>                                                                                                                                                                                                                                  | <p>◦제54조 제7항<br/>(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br/>-산업개발진흥지구 및 외국<br/>인투자기업에 대한 용도지<br/>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영<br/>제8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br/>건폐율 범위 안에서 시도시<br/>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br/>완화할 수 있음. 다만 시도<br/>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br/>쳐 용적률 완화를 받은 경<br/>우는 제외함</p>                                                                                                   |
| 건축물높이 |                                                                                                                                                                                                                                                                                               | <p>◦제46조 제8항<br/>-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br/>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종 지구<br/>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br/>에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br/>법 제51조(건축물 높이제한) 규정<br/>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br/>120%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br/>하여 적용</p>                                                                                                                                                             |                                                                                                                                                                                                                                                                                                                           |

## 제3절 해외 대도시 산업진흥 정책

### 1. 일본의 산업입지정책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안정성장기에 접어들면서 경제의 소프트화·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지방산업 고도화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지역산업집적의 지식집약화 등을 위해 1983년 테크노폴리스법, 1988년 두뇌입지법이 제정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 글로벌 경쟁의 심화 속에서 산업공동화 우려가 생기게 되었으며, 기존 산업집적을 유지하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1992년 특정중소기업집적의활성화에관한임시조치법이, 나아가 이것을 발전적으로 해체하여 1997년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임시조치법(지역산업집적활성화법)이 시행되었다. 또 1999년에는 테크노폴리스법·두뇌입지법을 발전적으로 통합하여 신사업창출촉진법이 시행되었으며, 정책의 중점이 기존산업집적과 연구집적을 활용한 신사업의 창출로 옮겨가게 되었다. 여기서는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반기술의 집적을 활성화하기 위한 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임시조치법(지역산업집적활성화법)에 대해서 살펴본다.

#### 1) 특정산업 집적활성화 제도

##### (1) 도입배경 및 목적

일본은 80년대 이후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서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해 왔던 부품, 금형, 시제품 등과 같은 기반기술적 산업의 집적이 붕괴되는 것을 우려하게 되었다. 일본 국가경제나 지역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경제구조 개혁의 일환으로 통상산업성은 국토교통성, 후생노동성 등 관련 부처의 시책과도 긴밀히 연계하면서, 지역 산업집적의 기술고도화나 신분야 진출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집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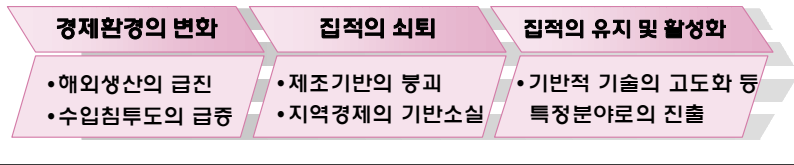
그래서 1997년 3월 「특정산업집적의 활성화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특정산업집적활성화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산업집적이 가지는 기능을 활용하고 그것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이 되는 특정산업집적은 기반기술산업집적(A집적)과 특정중소기업집적(B집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금형제작, 주단조, 도금과 같은 고도의 가공기술이나 고품질의 부품·소재제조기술, S/W·디자인 등의 지원서비스 등과 같은 산업의 집적을 말하며, 후자는 산지, 기업도시 등의 중소기업 집적을 말한다. 여기서는 A집적의 사례를 주로 살펴보려고 한다.

## (2) 운영체계

지역의 중소기업, 상공조합 등은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에 지원을 신청하고, 도도부현은 활성화계획을 마련하여 중앙정부(통상산업성)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게 된다. 이 때 중앙정부는 활성화지침을 마련하고 운영목적과 지원규모에 따라 동의를 하게 되며, 이 경우 도도부현은 중소기업 등의 신청을 승인하게 된다. 지정 승인이 이루어진 특정지역의 사업자와 상공조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배경 및 목적



<그림 2-4> 지역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체계

기반적기술 산업집적의 중소기업 또는 조합 등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정을 신청할 경우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발전계획은 기반적기술 산업에 대한 계획 목표, 주요내용, 자금 규모 및 조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도도부현에서는 활성화 계획을 작성하여 중앙정부와 협의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반적기술 산업집적지역 및 특정중소기업 집적지역을 선정하고, 지원의 목표를 설정하여 지원 사업을 명시하게 된다.

<표 2-7> 특정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주요내용

|              | A집적                                                                                                                           | B집적                                                                                                                                    |
|--------------|-------------------------------------------------------------------------------------------------------------------------------|----------------------------------------------------------------------------------------------------------------------------------------|
| 법의 목적        | 경제의 다양하고 구조적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정산업집적이 가지는 기능을 활용하면서, 그 활성화를 촉진하는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지역산업의 자율적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                                                                                                                                        |
| 시책의 컨셉       | 국내기업의 해외 이전으로 인해 기반적 기술을 가진 산업 및 그 집적이 기술력 저하나 수주처의 상실 등으로 쇠퇴하고, 장래 일본 제조업 기반의 붕괴를 방지                                         | 근년의 경제정세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는 소위 지연산업이나 기업도시형의 산업집적의 붕괴를 방지하고 활성화                                                                          |
| 집적활성화에 대한 기대 | 기반적기술산업집적의 활성화는 집적 내의 개별 특정 사업자가 집적기능을 활용해서, 특정기반적기술을 고도화하고, 그 결과 점차 집적의 기능이 향상되고, 사업자에게도 매력적인 사업활동 환경이 형성되는 선순환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것 | 특정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특정분야로의 진출이 활발해지는 것이 중요하며, 당해 집적에서 특정분야에 진출하는 중소기업이면 이미 동 지역에서 사업을 실시하던 많은 관계없이 승인의 대상이 되고, 특정분야로의 진출을 하도록 해야 함 |
| 대상업종         | 기반적기술산업<br>-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일본 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4digit)로 249업종 (제조업 236, 서비스업 13)                                                    | 공업에 속하는 특정 사업 또는 이것과 관련이 높은 사업(1개 업종 선정)<br>특정 중소기업집적의 중심을 이루는 제조업으로 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3digit)의 업종                                           |
| 규모요건         | - 7만ha이하의 인접한 시정촌<br>- 기반적기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수가 100개 이상이며 공업출하액 천억엔 이상                                                             | - 7만ha이하의 인접한 시정촌<br>- 특정업종에 속하는 중소기업 수가 50개 이상 또는 공업출하액 100억엔 이상                                                                      |

<표 2-8> 특정산업 집적활성화 제도의 주요내용 (계속)

|                    | A집적                                                                                                                                                                                                | B집적                                                                                                                                                                                                                                                                         |
|--------------------|----------------------------------------------------------------------------------------------------------------------------------------------------------------------------------------------------|-----------------------------------------------------------------------------------------------------------------------------------------------------------------------------------------------------------------------------------------------------------------------------|
| 경제요건               | - 없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의 5년간 부가가치생산성 신장률이 전국의 전 제조업 5년간 신장률 이하</li> <li>- 특정 중소기업집적에 속하는 중소기업수가 5년 전과 비교해서 감소하고 있을 것</li> <li>- 특정중소기업집적에 관련한 공업출하액 또는 중소제조업체수가 당해특정중소기업집적활성화촉진 지역의 중소기업 공업출하액 또는 중소제조업체수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5년전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있을 것</li> </ul> |
| 핵심업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해업종의 출하액 또는 사업체수가 집적지역내 기반적기술산업 전체의 5%이상의 비율일 것. 또는</li> <li>- 당해업종의 출하액 또는 사업체수의 집적지역내 기반적기술산업의 비중이 전국의 기반적기술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당해업종의 전국 비중을 상회할 것</li> </ul> |                                                                                                                                                                                                                                                                             |
| 활성화계획 동의건수         | - 기반적기술산업집적활성화계획 25개 지역(이중 4지역은 계획 종료)                                                                                                                                                             | - 특정중소기업집적활성화계획 221지역 (167개 지역 계획 종료)                                                                                                                                                                                                                                       |
| 고도화등 계획등의 지시승인건수   | - 고도화등계획 463건(06.8월말 현재)                                                                                                                                                                           | -진출계획 792건(2005년까지)                                                                                                                                                                                                                                                         |
| 고도화등 원활화계획 등의 승인건수 | - 고도화등원활화계획 15건(06.8월말 현재)                                                                                                                                                                         | -진출원활화계획 343건(2005년까지)                                                                                                                                                                                                                                                      |

### (3) 지원사항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지원은 크게 도도부현에 대한 지원과 사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도도부현에 대한 지원은 첫째, 도도부현이 실시하는 연구개발지원시설,

임대공장 등의 정비나 연구기기 등의 설치에 대한 보조(집적보조금) 등, 둘째 집적과 고규격 간선도로, 항만, 공항 등을 연결하는 간선도로 등의 중점적 정비, 셋째 지역진흥정비공단에 의한 시제품개발형사업촉진시설 등의 정비, 넷째 도로부현이 실시하는 활성화지역의 지도, 조사사업 등에 대한 보조 등이 있다.

다음으로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첫째,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기술개발, 신상품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보조, 둘째 과세의 특례 (조합 등에 대한 시험연구세제 등), 셋째 저리융자(설비투자 등에 대한 융자), 넷째 산업기반정비기금에 의한 채무보증, 다섯째 중소기업투자육성주식회사법의 특례 (중소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투자의 특례), 중소기업신용보증보험법의 특례 (자금 차입에 대한 보험의 특례),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법률의 특례 (조합설립 시의 특례), 여섯째 고용안정에 대한 배려 (지역고용개발등촉진법과의 연계) 등이 있다.

사업의 사례로는 1997년 법 시행 후 2001년 4월까지 25개 지역의 사업계획이 승인을 받았으며, 東京都・神奈川県 廣域京浜地域(동경도 오타구, 시나가와구,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가와사키시, 사가미하라시, 대화시)도 공동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 기반적기술산업집적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았다. 도쿄도 오타구와 가와사키시의 중소기업 집적에 대해서 동경공업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공동 연구를 촉진하고 금속 가공기술, 연구개발기능의 활성화와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계획 하에서 지원기관의 지원사업 실시, 연구개발보조금 지원 등 관련 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원시책을 실시하고, 산학연계 추진, 중소기업의 고도화 등을 도모함으로써 신제품의 개발이나 특허 취득 등의 일정한 성과를 올려왔다.

오사카지역에는 오사카중앙지역(大阪市, 堺市, 豊中市 등 17개 市町)이 기반적기술산업집적 지역을 지정받았다. 특정기반적기술의 고도화는 기술력의 유지·향상, 판로유지·개척, 신기술·신제품개발이라고 하는 목적 하에 대학이나 동업종·이업종의 타기업 등과의 네트워크의 활용지원, 상담회나 전시회 등에 의한 고객접점의 강화, 산업단지·임대공장의 정비 등에 의한 신규기업의 입지

촉진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의 심화, 공동화의 진전 등으로 인해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제조업 사업체 수나 제품 출하액의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전 계획의 사업성과를 계속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운 시설정비계획 등을 수립하는 등 더 한층 지원을 함으로써 이 지역의 활성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기 계획기간을 설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표 2-9>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조세지원내용

| 구분                                        | 내용                                                                                                                                                                                                                                                                           |
|-------------------------------------------|------------------------------------------------------------------------------------------------------------------------------------------------------------------------------------------------------------------------------------------------------------------------------|
| <div> <div>기본적 기술고도화 촉진 세제지원</div> </div> | <div> <div>◦고도화 등 계획에 따라 사업을 하는 사업자이고, 통상산업대신이 정한 요건에 부합되는 사업자(공동으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고, 조합은 단독으로 가능함)</div> <div>–기본적 기술산업인 동시에 사업혁신법 지정업종(사업혁신설비를 취득) : 25% 특별상환</div> <div>–기업혁신설비를 취득한 기반적 기술산업 : 20% 특별공제</div> <div>–500만엔 이상의 기계장치를 취득한 기반적 기술산업 : 15% 특별상환</div> </div> |
| <div> <div>중소기업 등 기반강화 세제지원</div> </div>  | <div> <div>◦기반적 기술산업 및 특정중소기업자</div> <div>◦기계 및 장치에 관련하여 30% 특별상환 또는 7% 세액공제</div> </div>                                                                                                                                                                                    |
| <div> <div>시험연구 세제지원</div> </div>         | <div> <div>◦조합이 시험연구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부과금을 부과할 경우</div> <div>◦조합원이 해당 부과금을 임의 상환할 경우</div> </div>                                                                                                                                                                           |
| <div> <div>지방세 감면조치</div> </div>          | <div> <div>◦사업용 토지에 관련되는 특별 토지보유세의 비과세</div> <div>◦해당 사업시설에 관련되는 사업소세(신증설분)의 비과세</div> </div>                                                                                                                                                                                |

<표 2-10> 특정산업집적활성화제도의 융자지원내용

| 구분               | 지원대상                                                                      | 지원용도           | 융자이율                 | 한도액                                      |
|------------------|---------------------------------------------------------------------------|----------------|----------------------|------------------------------------------|
| 지역산업집적<br>활성화기금  | 도도부현의 승인을 받은<br>계획에 근거한 중소기업자                                             | 설비자금 및<br>운용자금 | 년 2.4%<br>(기준이율)     | 7억2000만엔<br>(중소기업금융 공고)<br>7,200만엔(국민금융) |
| 지역중소기업<br>특별지원용자 | 특정지역중소기업대책<br>임시조치법 및<br>특정산업집적활성화에 관한<br>임시조치법에서<br>통상산업대신이 정하는<br>중소기업자 | 설비자금 및<br>운용자금 | 년<br>2.4%±1%<br>범위 내 | 2,000만엔 이상                               |
| 지역산업집적<br>특별용자   | 도도부현의 승인을 받은<br>계획에 근거한 중소기업자                                             | 설비자금 및<br>운용자금 | 년<br>2.4%±1%<br>범위 내 | 8,000만엔 이하                               |

#### (4) 사업의 평가

전국 25개 지역에서 ‘기반적기술산업집적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총 478건의 고도화계획과 고도화원활화계획이 승인되었다. 이들 계획에 근거하여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지자체에 의한 시설·기기정비나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설비 투자가 이루어졌다.

기반적기술산업집적지역의 상황은 사업소 수나 종업원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공업 출하액이나 조부가가치액은 최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 공업 출하액의 실질액은 하향 추세를 멈추고 증가경향에 있으며, 노동생산성이나 사업소당 출하액을 보면 증가하고 있다.

해외 생산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경향에 있다. 수입침투도 (수입량/총공급량 (국내생산량+수입량))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에 있지만, 모든 업종에서 단조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내의 기업입지 건수는 2002년을 경계로 도시, 지방 모두 늘어나고 있다.

또 중견·중소기업의 부품·재료기업의 반수 이상이 해외거래를 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가 그 6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제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 시행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기반적기술의 고도화 축진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산업집적이 가지는 기능을 유지·활성화하는 데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소위 산업공동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법 제정 시에 염려했던 일본 산업의 일방적 공동화 진전이라고 하는 상황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산업의 국제적 최적 배치와 그 체제 하에서의 국제적 분업이라고 해야 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

셋째, 산업집적의 중요성은 계속 존재하지만, IT나 물류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보다 광역적인 연계의 축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보다 현실의 실정에 맞는 지역경제 시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 기업의 글로벌화가 진전되고 국제적인 산업입지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입지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 IT나 물류가 발달하고 있는 현재, 기업이나 연구기관의 보다 광역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중국 등에 대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력 향상을 위한 조치에 대한 지원이 계속 필요하다.
- 하드웨어적인 지원은 어느 정도 성과를 올렸지만, 향후 하드웨어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 면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 기술력을 시장으로 연결해 가기 위한 마케팅이나 상품기획에 대한 지원이 한층 중요하게 되었다.
- 공설 시험기관에 있어서 기기의 신규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가 연구

개발에서 구입한 기기의 보다 유효한 활용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2) 동오사카시 제조클러스터 추진사업

### (1) 동오사카시 제조업의 실태와 과제

동오사카시는 기반적기술산업을 중심으로 다종다양한 제조업이 집적해 있고, 이들 기업들의 상호 유기적인 분업시스템을 바탕으로 유연한 생산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제조업의 고장’이다. 이 지역에서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고 기술력이나 높은 시장점유율을 가지는 기업도 다수 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경제의 글로벌화로 해외제품, 특히 아시아 국가 제품과의 일본 국내 경쟁이 치열해 지는 한편, 일본의 대기업이 아시아 국가로 생산거점을 본격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오사카시 제조업의 시장규모도 축소 경향을 역전시킬 수 없게 되었다.

### (2) 동오사카시의 대응

동오사카시에서는 종업원 규모는 비록 작지만 경영전략이 전향적이고 독자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시장 점유율이 높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해외로 수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시장을 염두에 둔 신제품의 개발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동오사카시 제조 경제특구 구상의 시책방향’에 기초하여 ‘고부가가치제품 제조업으로의 전환’, ‘국내외 판로개척’이라는 정책방향을 설정하였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가능성 있는 기업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방향 하에 ‘동오사카시 제조 클러스터 추진사업’을 재구축하고, 예산을 배정하였다.

또 이 사업은 경제산업성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클러스터계획 프로젝트의 하나인 ‘제조 활력기업 지원 프로젝트’의 중심추진 조직인 ‘제조클러스터협의회’와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시내 제조업에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래

서 재단법인 동오사카시중소기업진흥회가 실시주체가 되고, 국가의 ‘광역적 신사업 지원 네트워크 거점 중점강화 사업’으로 지정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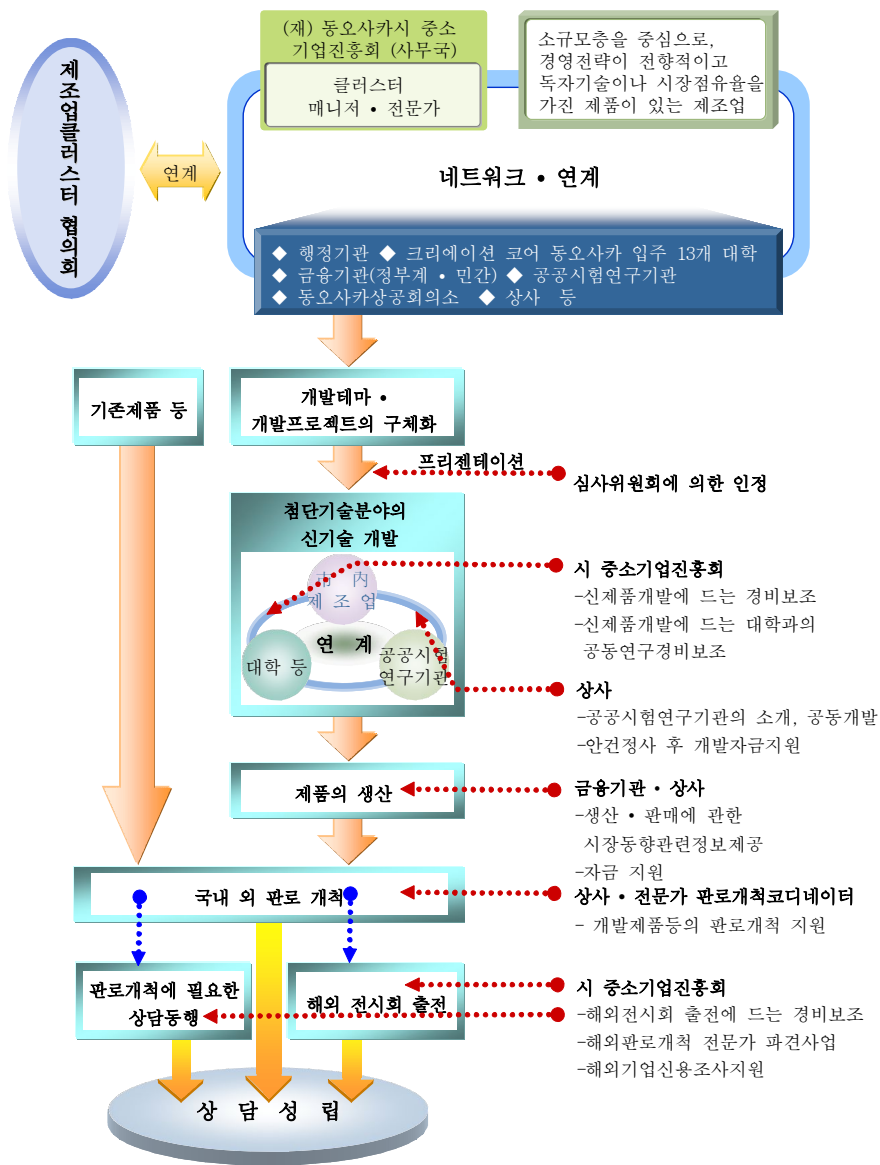
### (3) 사업의 개요

이 사업은 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를 활동 거점으로 하고, 재단법인 동오사카시중소기업진흥회가 사무국이 된다. 참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판로개척 코디네이터가 책이 되고, 종업원 규모가 비교적 작고 경영전략이 전향적이며 독자기술을 가지고 있고 시장 점유율 특성이 있는 제품을 가진 기업들 76개사를 중심으로 행정기관, 크리에이션 코어 동오사카 입주 13개 대학, 정부계 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 공공시험연구기관, 동오사카상공회의소, 이토추상사 등 37개 지원협력기관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다.

연구회에서는 해외와의 거래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외시장의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네트워크를 활성화시켜 기술 씨앗을 가지고 있는 대학 등과의 산학연계를 촉진하고, 참가기업의 개발테마 프로젝트를 구체화해 주고 있다.

구체화된 안건에 대해서 외부위원도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개발 프로젝트를 인정한다. 인정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제품 개발에 드는 경비나 대학 등과의 공동연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해 준다. 더욱이 개발제품을 생산화 할 때에는 상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제공을 유도함과 동시에, 판로개척에는 상사나 판로개척 코디네이터가 지원한다.

또 해외 전시회에 출전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보조금을 교부하며, 또 해외에서의 상담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상담이 계약으로 성사되는 것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림 2-5> 동오사카시 제조클러스터 추진 사업의 흐름도

#### (4) 사업의 효과

이 사업을 통해 연구회 참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신제품개발을 촉진함과 동시에, 새로운 수출처를 개척함으로써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뒷받침하고 세계적으로 통하는 기업을 다수 배출하여 새로운 사업이 계속 생겨 나도록 하는 제조 클러스터 조성을 추구하고 있다.

## 2. 미국의 산업진흥 정책

### 1) Enterprise Zone(EZ)

####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EZ(Enterprise Zone)은 미국에서 침체지역을 목표로 추진되는 몇 안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이다. EZ는 지리적으로 규정된 경제적으로 침체된 지역으로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의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매력을 증대시키고자 지정되었다. 지구는 최소한의 인구를 포함하며 실업, 빈곤과 같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EZ내에서의 고용 혹은 투자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미국의 EZ는 1988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도입되었다. 연방정부에 의한 EZ 프로그램은 1987년의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법에 반영되고 여기에는 기존 프로그램의 조정과 신속한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미국에서 EZ가 인기있었던 것은 이 제도에 의해 새로운 지출이 필요하지 않고 조세 감면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EZ 설립을 주도하였다. 1995년 35개주에서 EZ가 설정되었고 경제적으로 적정한 수 이상의 EZ가 지정되기도 하였는데 루이지애나의 경우 473개가 지정되었다.

미국의 EZ 제도는 시정부 중심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도시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나, 궁극적인 정책목표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세금감면과 규제완화를 제공하여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침체된 지역 내 실업자와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후 EZ는 미국의 연방정부 산하 도시주택개발국(HUD :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에서 관장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하나인 EPZ(Empowerment Zone)으로 발전하게 된다. (박천보 외, 2004)

## (2)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

미국 EZ의 지정기준은 주(state)별로 차이를 보이나 대체적으로 경제적 침체와 물리·환경적 쇠퇴를 나타내는 인구의 감소정도, 가구 수, 실업률, 가구 소득에 의한 빈곤정도, 중간계층의 소득, 공공지원 대상자나 생활보호 대상자수, 재산위탁이나 재산세 체납정도 등을 사용하고 있다.(정희윤, 1999) 플로리다주는 물리적, 경제적 침체정도와 지역의 참여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근거로 각각 65%, 35%를 차지하는 점수체제(scoring system)로 평가하며, 매릴랜드주는 경제적 침체정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대상지로 삼고 있다.

해당 주(state)와 지방(local)정부는 EZ 지역에 기업입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각종의 세금공제 및 감면, 기금지원 및 저리융자 이외에도 각종의 재정적인 지원과 정부의 규제완화, 공공시설 정비 등의 지원조치를 하고 있으며, 지역서비스개선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도 제공하고 있다.

매릴랜드주와 플로리다주, 일리노이주의 EZ에 대한 지원 사항을 예로 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11> Enterprise Zone 지원사례

| 구분                | 지원사항                                                                                                                                                                                                                                                                                                                                                                                                                                                                                                                                                                                                                                                                                                                                                                                                                                                                                                                                                                                                                                                                                                                |                                                                                                                                                                                                                                                                                                                                                                                                                                                                                                                                                                                                                                                                                                                                           |
|-------------------|---------------------------------------------------------------------------------------------------------------------------------------------------------------------------------------------------------------------------------------------------------------------------------------------------------------------------------------------------------------------------------------------------------------------------------------------------------------------------------------------------------------------------------------------------------------------------------------------------------------------------------------------------------------------------------------------------------------------------------------------------------------------------------------------------------------------------------------------------------------------------------------------------------------------------------------------------------------------------------------------------------------------------------------------------------------------------------------------------------------------|-------------------------------------------------------------------------------------------------------------------------------------------------------------------------------------------------------------------------------------------------------------------------------------------------------------------------------------------------------------------------------------------------------------------------------------------------------------------------------------------------------------------------------------------------------------------------------------------------------------------------------------------------------------------------------------------------------------------------------------------|
| Maryland<br>총 30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terprise Zone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Real property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기간 10년</li> <li>- 입지 후 처음 5년간은 80%에 해당되는 재산세를 공제받으며, 이후 매년 10%씩 줄어 최종 10년 후에는 재산세에 대한 30%의 공제혜택</li> </ul> </li> <li>◦ Income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1년~3년간 세금공제 혜택</li> <li>- 종사자 1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1,000까지 공제</li> <li>- 불리한 조건을 가진(economically disadvantaged)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3년간 \$6,000까지 공제</li> </ul> </li> </ul> </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Focus Area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ltimore City, Prince George's County, Takoma Park/Long Branch, St. Mary's County/Lexington Park enterprise zones 내 입지한 기업에 한함</li> <li>◦ Real property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공제혜택 10년간 80%</li> </ul> </li> <li>◦ Personal property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간 80% 공제혜택</li> </ul> </li> <li>◦ Income tax credi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사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1년~3년간 세금공제 혜택</li> <li>- 종사자 1인을 새로 고용할 경우 \$1,500까지 공제</li> <li>- 불리한 조건을 가진(economically disadvantaged)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3년간 \$9,000까지 공제</li> </ul> </li> </ul> </li> </ul> |
| Florid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ob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one 내의 거주민, 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AFDC) 대상자, 또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지불되는 임금의 15%에 해당되는 만큼의 법인세 공제</li> </ul> </li> <li>◦ Property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산에 부여되는 종가세(advalorem tax)의 96%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li> </ul> </li> <li>◦ Sales tax exe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zone에 건립되는 건물의 원자재 또는 사업설비, 전력사용비 등에 대한 세금공제</li> </ul> </li> <li>◦ Tax increment financing에 의한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nterprise Zone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된 지역에서는 재개발 구역 내에서 사업시행으로 발생한 재산세 증가분을 다시 재개발 사업에 재투자</li> </ul> </li> <li>◦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공공시설 정비</li> <li>◦ 사업면허비 감면, 산업세입담보채(revenue bond) 발행</li> <li>◦ 주차장 기증완화, 건축선 후퇴, 고도제한 완화, 사업인허가의 간소화 등의 행정적 지원</li> <li>◦ 적극적인 프로그램 홍보 및 마케팅</li> </ul>                                                                                                                                                                                                                                                 |                                                                                                                                                                                                                                                                                                                                                                                                                                                                                                                                                                                                                                                                                                                                           |
| Illinois<br>총 91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ales tax exe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Z 안에서 사용될 건물 자재에 대해 6.25% 세금공제 혜택</li> </ul> </li> <li>◦ Enterprise zone machinery and equipment consumables/pollution control facilities sales tax exe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25% 세금공제</li> <li>- EZ 내에서 최소 5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인 이상의 정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최소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2천명의 정규직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또는 최소 4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기존 종사자의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혜택</li> </ul> </li> <li>◦ Enterprise zone utility tax exemp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스, 전기 등에 부과되는 시설이용세금 공제</li> <li>- 최소 5백만 달러를 투자하고 200인 이상의 정규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이나, 최소 2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최소 1천명의 정규직 종사자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공제혜택</li> </ul> </li> <li>◦ Enterprise zone investment tax credi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Z 내에 기계설비나 건물 등의 투자자에 대해 0.5% 세금감면</li> </ul> </li> <li>◦ Dividend income deduction - EZ 내 활동에 의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공제</li> <li>◦ Jobs tax credit - 1명의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500까지 세금감면, 5년간 혜택</li> <li>◦ Interest deduction - EZ 내에 개발에 대한 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세금공제</li> </ul> |                                                                                                                                                                                                                                                                                                                                                                                                                                                                                                                                                                                                                                                                                                                                           |

자료 : 정희윤, 「산업활동 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999;

Maryland enterprise zone tax credit program([www.choosemaryland.org](http://www.choosemaryland.org)); [www.taylorville.net/Enterprise\\_Zone](http://www.taylorville.net/Enterprise_Zone)

<표 2-12> Enterprise Zone 지정기준 사례

| Maryland                                                                                                                                                                                                                                  | Florida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업률이 최소한 전국 또는 주(state) 실업률의 1.5배 이상</li> <li>-평균 소득이 전국 빈곤수준의 125% 미만</li> <li>-적어도 가구의 70% 이상이 지역(local)의 중간층 소득의 80% 미만</li> <li>-센서스 인구의 감소율이 10% 이상이고, 연간 토지위탁이나 재산세 연체가 많이 있을 경우</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쇠퇴기준(Distress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후도가 30년 이상인 주택비율</li> <li>-임대주택의 공실률</li> <li>-수도시설이 부족한 주택비율</li> <li>-1인당 소득 및 소득변화율</li> <li>-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비율</li> </ul> </li> <li>-실업률</li> <li>-수입이 일정수준 미만인 인구비율</li> <li>-1인당 재산세 및 재산세 변화율</li> <li>◦ 지역참여기준(Local Participation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산세, 사업면허비, 공공시설 사용세(utility tax) 감면여부</li> <li>-투자를 위해 지역적으로 조성된 기금의 용도</li> </ul> </li> <li>-도시개발보조금(The Urban Development Action Grant Program) 사용여부</li> <li>-특별히 추가된 지방정부서비스 유무</li> <li>-연방지역개발기금(The Federal Community Development Fund)의 용도</li> <li>-지역재개발계획과 신용기금의 적용여부</li> <li>-지방정부 규제완화 정도</li> <li>-산업 세입 담보채(revenue bond) 발행여부</li> </ul> |

자료 : Logan and Barron, 1991; 정희운, 「산업활동 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1999

### (3) 미국의 Enterprise Zone 사례

#### OHIO

오하이오 주내의 특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가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엔터프라이즈 존의 기본적인 목적은 낙후지역의 투자를 활성화 하려는 데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곳, 주택이나 도시시설이 낙후되어 있는 곳, 일자리가 많지 않아 실업율이 높은 지역 등이 엔터프라이즈 존을 지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엔터프라이즈 존의 혜택을 받으려면, 사업자는 오하이오 주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옹모자격을 얻으려면, 사업자는 엔터프라이즈 존 내에서 고용을 창조, 보존하거나 생산 시설물을 설치, 개보수, 확장,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이러한 프로젝트를 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사업자와 지방정부, 주정부 사이에 협정(agreement)이 이루어진다. 사업자에게 주어질 세금 혜택의 정도는 사업자와 지

방정부, 주정부 사이의 협상에 의한다. 가장 중요한 인센티브는 지방세나 주세의 면제내지 감면이다. 주세로는 franchisetax (사업 소득세의 일종)를 감면, 또는 삭감하여 주고, 지방세로서는 부동산 재산세나, 생산시설 재산세를 10년까지 면제하여 준다. 매년마다, 협정사항을 잘 이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오하이오 주 포르테지 카운티 내에 10여개의 도시에 80여개의 엔터프라이즈 존 협정이 이루어져 있다.

IOWA(Business Enterprise Zone Projects)

아이오와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아이오와에 투자동기를 마련하기 위해 1998년부터 Enterprise Zone program을 시작하여 일자리 창출과 부동산 건축 등의 행위를 장려해 왔다.

아이오와주는 Enterprise Zone program에 의해 세금의 공제, 환급,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표 2-13> 아이오와 주 Enterprise Zone의 Eligibility Requirements

| 지정조건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와 관련업무와 관련된 정규직 일자리를 최소 10개 이상 만들고, 10년 동안 유지한다.</li> <li>♦ 정규직 근로자의 의료보험 및 치과보험의 80%를 부담하거나, 동등한 금전적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다.</li> <li>♦ 신규 근로자에게 신입 초임을 전부 지급하거나 최소한 주의 평균 임금 또는 지역의 평균 임금 중 더 낮은 금액의 90%를 지급한다.</li> <li>♦ 3년간 50만 달러 이상을 자본설비에 투자한다(토지, 건물, 건물의 개보수, 제조업장비, 컴퓨터 하드웨어 등 포함).</li> <li>♦ 소매업은 제한된다.</li> <li>♦ Enterprise Zone 내에서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는 되는 회사가 이전할 수 없다.</li> </ul> |

한편, Enterprise Zone의 혜택은 다음과 같다.

<표 2-14> 아이오와 주 Enterprise Zone의 혜택

| Tax Incentive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계, 장비, 토지, 건물에 대한 투자와 현 건물에 대한 개보수에 대한 법인세의 최대 10%까지 투자세액공제와 5년간 할부납입가능</li> <li>♦ 연구, 개발활동에 대해 법인세의 13% 환불</li> <li>♦ 토지와 건물 개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10년까지 재산세 면제</li> <li>♦ Iowa New Jobs Training Program에 의한 신규 근로자 훈련에 대한 자금 지원</li> <li>♦ 건설기간동안 건축자나 하청업자에게 지불되는 판매세액, 서비스등의 세금 환불</li> <li>♦ 창고나 유통센터 프로젝트에서 선반, 컨베이어 장비 등에 들어가는 세금의 환급</li> </ul> |

다음은 아이오와 주 Enterprise Zone의 성과이다.

#### ○ Jobs

-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기간 동안 3,66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당초 약속했던 것보다 173개를 더 달성하였다.

#### ○ Capital Investment

- 1999년에서 2003년까지는 자본투자금액의 목표량을 이루었고 전체적으로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시설설비투자금액은 목표액보다 2억 1천6백만달러나 초과 달성하였다.

#### ■ Alternative Eligible Businesses

- 1998년, Enterprise Zone Program은 Alternative Eligible Businesses로 확대되어 아이오와에 위치한 인구 1995년 기준 인구 8,000-24,000명의 도시에 적용되었다. Alternative Eligible Business는 Iowa Enterprise Zone에서 35마일안에 있거나 국가 Enterprise Zone의 인근에 위치해야한다.
- 또한, Alternative Eligible Businesses는 New Jobs and Income Program (NJIP)의 높은 임금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데, 시간당 11.96달러인 중간수준임금 또는 평균 주 임금의 130% 중 높은 쪽을 지불해야한다.
- 아이오와 주는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Altoona, Clive, Grinnell, Oskaloosa 등 20여개 지역의 Alternative Eligible Businesses에 Enterprise Zone과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 2) EPZ (Empowerment Zone)

### (1) 도입배경 및 정책목표

미국의 EPZ는 1992년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미국의 연방정부산하 도시주택개발국(HUD)에서 권장하는 도시재생 프로그램의 하나인 Empowerment Zone(EPZ)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EPZ는 빈곤, 실업, 물리적 쇠퇴의 문제가 심각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기금지원 및 각종 세금혜택을 통해 실업자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민간투자의 유도, 신규주택의 공급 등을 통하여 쇠퇴지역의 재활성화를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 (2)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

EPZ 프로그램은 연방프로그램 중의 하나이지만, 다른 연방프로그램과는 달리 도시주택개발국(HUD)은 세금감면, 보조금, 융자 등의 재정지원과 필요에 따른 기술지원만을 담당할 뿐이며, 철저히 지역정부와 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사업의 신청부터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민관파트너십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EPZ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연방정부에 지원을 신청하면 HUD에서 필요한 조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따라 EPZ의 지정과 재정적 지원사항을 결정하게 된다.(강호제, 2002)

지정요건은 크게 인구규모, 쇠퇴여부, 지역의 범위 등이 제시되는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5> Empowerment Zone 선정요건

| Empowerment Zone 선정요건                                              |
|--------------------------------------------------------------------|
| ◦인구규모는 200,00인 이하의 중소도시로서 50,000 이상 혹은 전체 도시주민의 10%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일 것 |
| ◦심각한 저소득과 실업이 커다란 문제가 되는 지역일 것                                     |
| ◦전체 면적이 평방 20마일(약 50km <sup>2</sup> )를 넘지 말 것                      |
| ◦심각한 빈곤율(Poverty rate 35% 이하)이 문제되지 않는 한 가능한 중심상업지역은 피할 것          |

자료 : 강호제, 「미국의 Empowerment Zone 정책 : 성과와 과제」, 2002, 재정리

또한 EPZ를 신청하기 위한 파트너쉽은 연방과 주 그리고 지역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파트너쉽에서는 중점을 두고 있는 계획과 정책을 수립함으로써 파트너쉽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표 2-16> 미국 Empowerment Zone의 파트너쉽

| 구분       | 연방차원       | 주차원                | 지역차원      |
|----------|------------|--------------------|-----------|
| 주요<br>정책 | 규제철폐       | 주자원의 투자와 연방기금의 재투자 | 지역 전체를 포함 |
|          | 간소한 프로그램   | EZ/EC기금의 마련        | 종합적 플랜    |
|          | 상호협력 프로그램  | 협력프로그램             | 개인자원의 이용  |
|          | 폭넓은 자원의 투자 | 개인활동자금의 분배할당       | 지방정부의 간소화 |

자료 : 박천보 외,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2004

EPZ 내에서의 지원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EPZ로 지정된 기구는 연방기금지원과 대출보증(loan guarantees), 임금세액공제(wage tax credit) 등의 세금 인센티브를 받으며, 또한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Community Development Block Grants(CDBG),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EDI), Emergency Shelter Grants(ESG) 등의 보조금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연방정부부기금은 EPZ의 물리적 정비와 도시 인프라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에 사용되며, CDBG 보조금은 저소득층이나 중간소득층을 위한 지원, 지역의 슬럼화 방지, 기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수용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

다.(HUD, 1995)<sup>5)</sup>

세금 인센티브로는 우선 임금세액공제나 공공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세금공제가 있으며, 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사자를 고용할 경우 혹은 전문기술인력을 채용할 경우 일정규모 범위에서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EPZ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설비를 구입할 때 세수증가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05년 기준으로 40개 지역이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40개 지역을 추가로 opportunity zone으로 선정하여 2006~2015년 사이에 다음의 조세감면을 시행한다: 첫째, 연간 수입이 5백만달러 이하인 업체의 과세소득 중 25%를 면세하고 둘째, 중소기업의 자산 매입시 10만 달러까지 즉시 공제해주며 셋째, 상업용 건물을 개발하는 납세자의 경우 1천만달러를 한도로 그 비용을 감가상각하는 대신 즉시 비용공제, 넷째, 낙후지역에 거주 및 일하는 납세자에게 근로복지 세액공제 제공, 다섯째, 기타 다양한 연방지원제도를 우선 적용한다.

EPZ는 지금까지 크게 3차례에 걸쳐 지정되었다. 1992년 클린턴 행정부는 대도시 빈민지역의 재건에 대한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1994년 전미 105개 침체지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Empowerment zone과 Enterprise community(EC)에 대한 첫 번째 라운드를 선언하였다. 첫 번째 라운드를 통해 선정된 9곳의 EPZ는 각각 1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이와 더불어 극심한 경제적 문제를 겪고 있던 클리브랜드와 로스앤젤레스에는 Social Service Block Grant(SSBG)를 통해 추가로 각각 4억 5천만 달러와 1억 7천 7백만 달러에 달하는 재정적 지원을 제공되었다. 이후 1999년 두 번째 라운드를 통해 20여 곳의 EPZ와 EC에 대해 각각 1,900만 달러 규모로 추가 사업비 지원이 있었으며, 2002년 세 번째 라운드로 9개 EPZ와 40여 개의 EC에 대해 총 200억 달러 규모의 사업소요비용을 책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다.

---

5) 예를 들어 도로, 보도, 상하수도 등과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 및 정비, 보육센터, 청소년회관 또는 양로원, 보건소, 교통, 상담 등과 같은 청소년,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건설 및 정비, 범죄발생이 높은 미활용건물의 철거, 노숙자서비스, 주거서비스, 직업훈련, 토지구매·정리·재배치 등에 활용되고 있다.

### (3) Empowerment Zone 지정사례

|          |
|----------|
| New York |
|----------|

맨하탄 북부와 할렘을 포함하는 UMEZ( Upper Mahattan Empowerment zone)는 인구규모에 있어서는 Seattle이나 Atlanta 와 거의 비슷한 규모를 나타내는 미국내 최대의 인구밀집지역이다. 그러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열악한 생활수준을 보이던 지역이었다.

1996년, 정부보조금 3억달러와 세금감면 2억 5천만 달러를 포함하는 총 사업비 5억 5천만 달러를 시작으로 사업을 시작하였다. 초기에만 해도 끝없는 빈곤에 대한 우려와 사업시행을 주도하려는 주정부와 시정부간의 갈등으로 마찰음이 들리긴 했지만, 사업의 진행과 함께 희망섞인 보고들도 이어지고 있다. 뉴욕시 관료들에 따르면 작년도 뉴욕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중에서 할렘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의 수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관광객수를 앞서기 시작했으며, 93년 이후 사업이 궤도에 오른 작년까지 83%의 감소를 보인 살인사건을 비롯해 전체적으로 범죄율도 6년사이에 60%나 줄어들었다.

<표 2-17> Empowerment Zone 지원사례(New York)

| Federal Benefits                                                                                                                                                                                                                                                     | State Benefits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Wage tax credits</li> <li>-EPZ 내 거주하는 고용자에게 최고 \$3,000 세금공제</li> <li>◦Section 179 increased deduction</li> <li>-eligible properties에 대하여 첫째 \$18,000까지 세금공제, qualified zone properties에 대해서는 \$38,000까지 세금공제혜택 증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DZ(Economic Development Zone) wage tax credit</li> <li>-최소임금의 135%이하 수준인 종사자에 대하여 \$,500까지 임금에 대한 세금공제, 일반 개인 종사자는 \$750 세금공제혜택</li> <li>◦EDZ investment tax credit(EDZ-ITC)</li> <li>-EDZ 내의 제조업 시설, 산업폐기물 처리시설, 대기오염처리시설에 한하여 적용됨</li> <li>-법인기업은 투자액에 대한 10%의 세금공제, 개인사업주는 8%의 세금공제혜택</li> <li>◦EDZ employment incentive credit(EDZ-EIC)-in conjunction with EDZ-ITC</li> <li>-EDZ 내에서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대하여 3%(또는 30%의 EDZ investment credit) 추가 감면혜택</li> </ul> |

자료 : 「New York Empowerment Zone Brochure」, New York Empowerment Zone Corporation, <http://www.yidc.com/edz.htm>

주: 뉴욕 EPZ의 경우 EDZ(Economic Development Zone)과 함께 운용되어 일부지역은 EPZ나 EDZ로만 지정되거나 일부지역은 두 개의 zone을 겹쳐서 지정하기도 하였음. EDZ는 City of Yonkers와 New York State에 의해 제안된 인센티브 제도로서 지역경제성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됨

## Cleveland

첫번째 라운드에서 뉴욕의 할렘과 함께 가장 주목을 받았던 지역인 클리블랜드는 로스엔젤레스와 더불어 Social Service Block Grant를 통해 가장 많은 지원금액을 지원받은 지역 중의 하나였다.

클리블랜드 Empowerment zone은 9천만 달러에 달하는 정부보조금과 8천7백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감면 등 총 1억 7천 7백만 달러의 사업비용으로 3개 지역에 대해 진행되었고 지금까지 8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자체도 단순히 주택개량과 신규사업입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업체가 컴퓨터를 값싸게 구매함으로써 영업이익을 개선할 수 있게 하거나 해당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직업교육과 직업알선을 대행해 주는 것까지도 사업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대사업체도 소규모 패스트푸드점에서 대형 제약회사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노력으로 사업시작 5년만에 해당지역 내에서 총 2,200명의 신규고용효과를 창출했다.

## Chicago

시카고 지역에는 수십 종류의 기업지원 및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다. 침체된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전략으로 주택 및 도시개발성(HUD)에 의해 1994년 전국에서 6개 지역이 1차로 Empowerment Zone으로 지정되었다. 시카고의 Empowerment Zone에는 3개의 지역에 20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민간투자 및 일자리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1억 달러의 사회보장포괄보조금, 기업의 조세 감면, 자본 장비의 가속상각, 연방정부의 규제완화 등 총 2.3억 달러에 달하는 각종 지원이 10년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다.

### 3. 프랑스의 지역자립형 클러스터

#### 1) 메츠 지역 산업클러스터

##### (1) 도입배경 및 목적

메츠(Metz)는 유럽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프랑스 북동부 로렌(Lorraine)의 중요도시 중 하나로서 간선도로 등 교통의 요지이면서 숙련된 노동력과 편리한 교통인프라를 바탕으로 기업들에게 활기찬 산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내에 우수한 공과대학이 있어 연구 및 교육의 수준이 높고 일찍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갖추어진 통신, 교통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다국적기업 본사와 연구개발센터를 많이 유치하고 있다.

메츠 테크노 폴 과학단지는 1983년 Jean-Marie Rausch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설립시 180헥타르의 면적에 20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약 3,5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 현재 로렌 지방을 중심으로 7개 중점 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20년간 20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메츠 지역의 산업 중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자동차산업이다. 벨기에, 룩셈부르크 및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메츠는 주로 국경근교에 위치한 여러 자동차 제조 공장들에 플라스틱 화학제품 등 자동차 관련 부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전자·통신 분야에서도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 (2) 산업클러스터 구축과정

메츠 지역개발 초기단계에서 주목한 분야는 소프트웨어와 통신이었다. 그래서 초기부터 소프트웨어, 통신 분야 연구개발센터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지역을 특화하였다.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호수와 숲을 조성하였고 지역주민의 생활주거환경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사회문화적 전통이 매우 강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개발초기부터 지역사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메츠 산업클러스터의 핵심에는 메츠통신시스템연구센터가 입주기업에게 고성능 통신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메츠통신시스템 연구센터를 토대로 테크노폴이 구성되어 기업들을 위한 만남의 장, 교육훈련센터, 연구실험실을 제공하여 기술자들 사이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였다. 또한 테크노파크를 조성하여 신생기업들의 창업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 (3) 지원사항

메츠 테크노 폴 과학단지의 가장 큰 지역적 기여는 양질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메츠 테크노 폴 과학단지는 신속한 창업을 지원하는 제반 인프라스트럭처 제공하는 벤처창업의 요람으로 자리잡고 있다. 3개월 내에 문제없이 기업을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확립하고 있어 기업활동 우선의 지원체계가 구축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다양한 사무실 공간 및 연구실 공간을 임대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 내에 창업하는 기업에게 리스, 구매, 지역정부, 세금, 법적·회계적 문제, 인력정책 및 지역 규제 등에 대한 모든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가이드 역할뿐만 아니라 필요한 인력까지도 지원하고 있다.

조지아 공대(미국)와 칼리쉬 대학(독일)이 테크노파크 내에 진출하여 테크노파크의 인력들이 최신기술과 국제경쟁력 보유 기술을 학습하여 지역에 이전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평화롭고 즐거운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사회적 인프라 제공에도 테크노파크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정주 인구에 대한 여가환경까지도 제공하고 있다. 생활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10분 정도 거리에 현대적 쇼핑공간뿐만 아니라 박물관 및 공원 등과 함께 거주민과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하며, 유명 학교와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입지적 조건 또한 양질의 물류 및 세계수준의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유럽의 중요 고속도로 다수와 연결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중요 유럽 기업의 본사와 450km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항공수송도 가능하며 거대 국제은행, 감리기업, 컨설팅 기업 및 통신 회사 등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저가의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하고 전화, 팩스, 셀룰러 서비스를 완비하여 양질의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 (4) 성공요인

메츠지역 산업클러스터가 성공한 요인으로는 첫째, 국경지역이라는 지리적

위치와 한발 앞선 첨단산업 진흥정책이었다. 지리적으로 메츠는 서유럽의 물류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유럽통합에 따른 교역확대, 유럽 및 미국 등의 자본 및 노동력 활용이 용이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입지여건은 경제적으로 유럽의 대규모 시장과 인접하고 있어 런던, 파리, 밀라노 등 거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테크노파크와 공항 등이 직접 연결이 가능하고 모젤 지역 순환도로가 각 산업단지를 연결하고 있다. 하루에 25개 지역으로 동시에 보낼 수 있는 조차장(marshalling yard)이 존재하고, 프랑스의 유일한 컨테이너 교환 센터가 주변에 위치하며, 연간 14,000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싣고 내릴 수 있는 창고를 구비하고 있다.

메츠 지역의 두 번째 성공요인으로는 산업기반의 잠재성이 풍부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노동인구 및 노동력의 질이었다. 로렌지역은 기계 및 재료공학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공과대학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경제활동인구가 비교적 많았고 젊은 층의 비중이 높았을 뿐만 아니라 교육 및 연구시설이 충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력훈련 및 연구시설의 유치는 지역 혁신역량을 지속화하고 있다. 3개 대학이 있고 14개 공과대학이 존재하며 국책연구소도 위치하고 있다. 첨단기술 개발노력 또한 지역의 중요한 산업역량이 되고 있다. 정보기술을 통하여 13개 도시의 지역 센터, 대학 및 연구개발 센터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메츠 테크노파크와 낭시-브레보스 테크노파크가 상호 긴밀한 네트워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 하나의 성공요인으로는 최상의 삶의 질을 추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정책적 지원 아래 조성하여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역민을 위한 골프코스, 유원지, 스키장 및 지역 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을 함께 개선하였다.

#### 4. 중국의 창의산업 클러스터

중국은 전 세계의 공장이 모여 있는 거대한 산업기지임에도 그 동안 브랜드력이 강한 자체 디자인을 창조해내지 못하였다. 중국 정부는 싸구려 이미지로는 장기적인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 동안 폄하되었던 이미지 쇄신을 위해 고부가가치의 디자인 산업 역량 강화를 국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대도시에는 창조산업이 집중하여 발달하고 있으므로, 중국에서도 유행의 최첨단을 달리는 상해에 창조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상해에서는 창조산업을 크게 광고, 건축설계, 예술, 골동품 시장, 수공예, 패션디자인, 영화, 비디오, 소프트웨어, 음악, 무대예술, 출판, 그리고 비디오 방송 등으로 보고 있다.

일부 중국 대기업들은 이미 독자적인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섰으며 중국 최대 가전회사 하이얼은 산하에 디자인센터 8개를 운영하고 있고 상하이자동차와 지엠의 합작사인 파탁(PATAC) 역시 자동차의 기획부터 디자인, 성능 시험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인 역량을 구축하여 새로운 컨셉카를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출품하고 있다.

##### 1) 상하이

최근 수년 동안 상해시 정부는 역사적인 공장건물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창조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련의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다. 2004년 11월 창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상하이 창의산업센터(SCIC)를 설립해 디자인, 건축, 패션 등 창의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결정하고 공장이 빠져나간 도심 곳곳에 클러스터를 키우기 시작했다. 현재 이런 클러스터가 상하이 전역에 50여 곳 있으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들에게는 임대료와 세금 감면과 투자지원 혜택이 있다.

예를 들어 첫째 지역 지적소유권 전략 요강을 발표하여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고 혁신 의식을 촉진하고자 한다. 둘째 정부의 지도와 지원을 강화하고 창조산업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창조산업단지를 건설한다. 셋째 시와 구청이 협력해서 스테이지를 만들고, 창조산업 프로젝트의 아이디어를 실제 제작으로 이어지게 한다. 넷째 기존 도시공업단지를 개조하여 창조산업을 발전시킨다. 다섯째 창조산업 집적 지역을 단계적으로 건설한다. 여섯째 상해창작산업센터를 설립하여 이 센터를 중심으로 하면서, 각 디자인별 창조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현대적 산업 시스템 구조를 만든다.

현재, 상하이에는 50개 이상의 창의산업단지가 있으며 상하이에 100만㎡ 규모의 창의산업단지를 조성해 2007년 말까지 4000개 이상의 디자인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계획을 2004년부터 추진 중이다.

2010년까지 창의산업의 규모는 상하이 전체 GDP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의 이런 정책의 배경에는 인근 장쑤성과 저장성을 잇는 거대한 제조업 기반이 있다. 생산 기지가 바로 옆에 있으면 제품을 디자인하기에도 훨씬 유리하고, 그런 의미에서 상하이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집적을 통해 여러 디자인 분야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다. 또한, 브랜드의 전시 및 시험 공간으로의 디자인 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이 가능하여 디자인 산업 지원의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



## (1) 창의산업단지 사례

### ■ Bridge 8



루완취(Luwan district) 귀중루(Jianguo Road Central)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하이에서 가장 유명한 창의산업단지이다. 약 10,000㎡의 자동차 파쇄공장을 리노베이션하여 창의산업 스튜디오, 커피숍, 프랑스식 및 일식 식당, 헤어샵, 미술 갤러리, 잡화점 등이 위치해 있으며 홍콩의 유명한 영화감독 Ng See Yuen의 스튜디오, SOM 설계사무소 사무실, 영국 건축가 Will Alsop 사무실, 프랑스 PR 회사 F-emotion, 중국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사 Winking 등이 입주하고 있다.

또한, Bridge 8은 세계적인 브랜드 회사가 자사 제품을 런칭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BMW deluxe 6-series, Mini Coopers, NBA 스타 아이버슨 농구화, 월트 디즈니 한정판 핸드폰 등의 제품이 그 예이다.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들고 있으며 연간 순 관광수입 5천만 위안 이상을 올리는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 ■ 통러팡(同乐坊)



위야오루, 하이팡루, 시캉루로 둘러싸인 삼각형 블록에 들어선 연면적 약 20,000㎡의 창의산업단지이다. 1995년 이후로 기존 전자기기 공장, 텍스타일 공장, 식품가공처리 공장 등이 빠져나가고 상하이 정부와 시캉 지역정부가 2003년 2억 위안의 자금을 투입하여 산업단지화 한 곳이다.

Bridge 8 입주자가 디자이너와 건축가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통러팡은 다양한 주점과 특화된 음식점, 컨셉 소매점, 갤러리, 소극장 등 “문화와 레저, 그리고 창의산업”을 주요 테마로 하고 있다.

#### ■ 視覺藝術街區 春明藝術產業파크

이 파크는 普陀區 蘇州 강 연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1932년 설립된 연면적 4.1만㎡의 방적공장 건물을 활용하여 2005년 8월 예술산업 파크로 완성한 곳이다. 현재 화랑, 예술가 스튜디오, 미디어 매체, 광고디자인, 공예품 디자인, 아트바 등의 분야에서 스위스, 캐나다, 프랑스, 노르웨이, 이탈리아, 홍콩, 운남, 그리고 홍콩강성으로부터 114개 실에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다. 입주자를 위한 총 임대 면적은 3.1만㎡이다.

#### ■ 상해패션산업파크

이곳은 상해기차집단의 폐기공장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2004년 7월 완성한 곳이다. 이 파크는 중국복장설계사협회와 동화대학복장예술학원의 인적자원과 연구개발력을 활용하여 중국복장업계의 정보교환, 전업 디자인, 브랜드 개발, 제

품 연구개발, 인재육성을 통해 복장산업을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파크의 시설로는 복장개성화 스튜디오, 전시 홀, 산업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다.

## (2) 시사점

첫째 다양한 창의산업을 집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상하이의 산업클러스터 내에는 패션, 산업, 환경, 미디어 디자인 등 다양한 창의산업이 집적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산업 분야의 집적을 통해 여러 산업 분야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교류를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브랜드의 전시 및 시험 공간을 제공하여 창작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세계 유명 브랜드의 디자인 제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 혹은 새로운 제품을 런칭하는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창작산업에 민감한 전문가와 소비자가 모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분위기 조성으로 창의산업의 제품 테스트베드 역할을 할 수 있다.

셋째, 창의 산업 지원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창의산업 관련 상업 시설 외에 전문업체, 산업지원기관, 협회 등이 같이 입주하여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양한 창의산업 관련 기관의 입주로 창의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관간, 디자인 업체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다.

## 제III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제1절 서울의 산업구조

제2절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제3절 요약

## 제1절 서울의 산업구조

### 1. 산업구조의 현황 및 변화

#### 1) 현황

서울의 전체 사업체수는 2005년을 기준으로 741,229개이며, 산업별로는 ‘도매 및 소매업’이 222,079개(30.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117,552개(15.9%), ‘운수업’ 95,222개(12.8%), ‘제조업’ 69,982개(9.4%)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전체 3,843,010명 중 ‘도매 및 소매업’이 748,028명(19.5%)으로 역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업서비스업’이 540,908명(14.1%), ‘제조업’이 473,643명(12.3%), ‘숙박 및 음식점업’이 393,018명(10.2%)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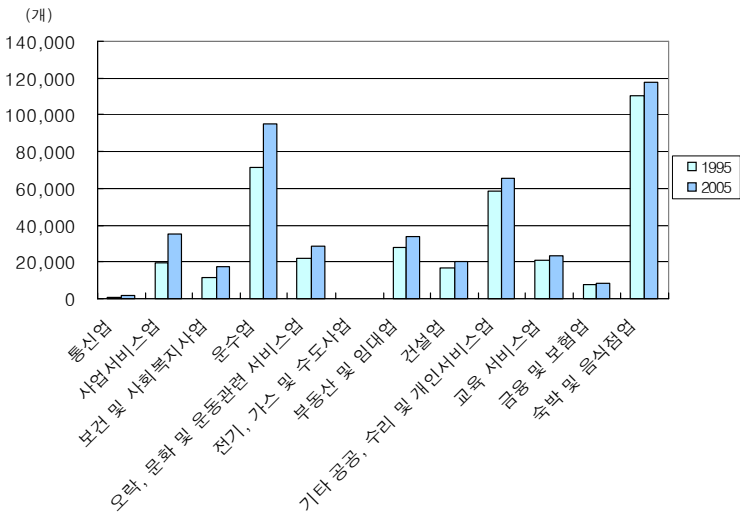
#### 2) 변화추세

서울의 사업체수는 1995~2005년의 10년 동안 708,025개에서 741,229개로 33,204개(4.7%)증가하였으나 동 기간에 종사자수는 3,874,597명에서 3,843,010명으로 31,587명(0.8%)이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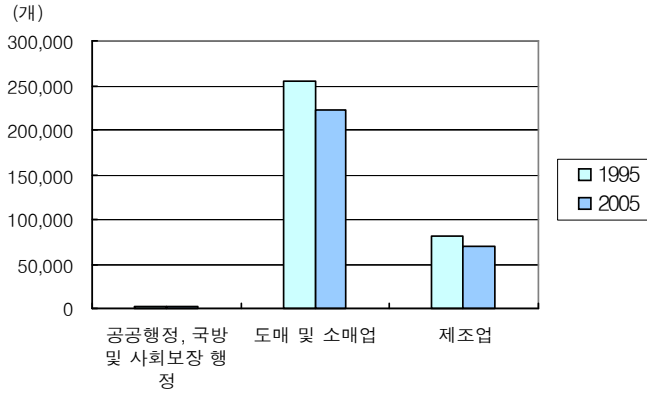
서울의 산업구조는 1990년대 이후 2차 산업의 성장이 둔화되고 3차 산업의 비중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을 기준으로 건설업, 제조업 등의 2차 산업이 12.1%, 사업서비스업, 통신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의 3차 산업이 8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건설업’이 -165,340명(-42.3%), ‘제조업’이 -255,414명(-35.0%) 등 2차 산업의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사업서비스업’ 310,966명(135.2%), ‘통신업’ 22,940명(104.7%),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59,122명(58.1%), ‘교육서비스업’ 74,388명(43.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35,848명(48.4%), ‘숙박 및 음식점업’ 69,398명(21.4%), ‘부동산 및 임대업’ 22,747명(19.7%), ‘운수업’ 23,149명(10.2%) 등 3차 산업의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서비스업(135.2%)과 통신업(104.7%)의 증가는 괄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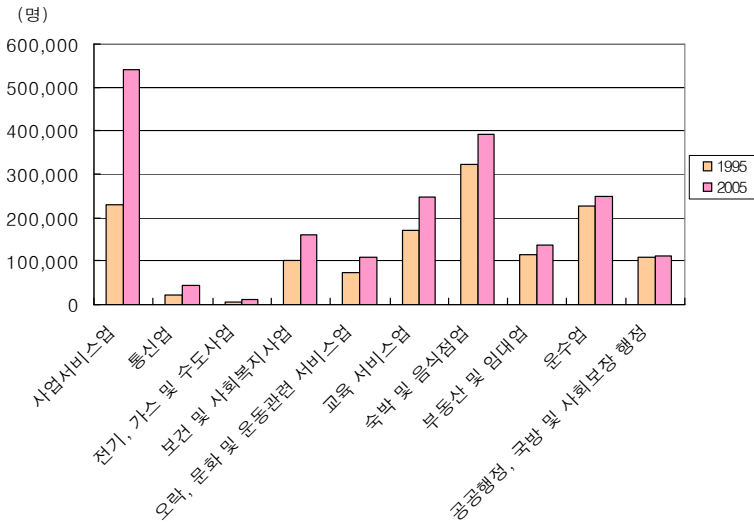
서울 전체 산업에 대해 지난 10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증감현황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아래 그래프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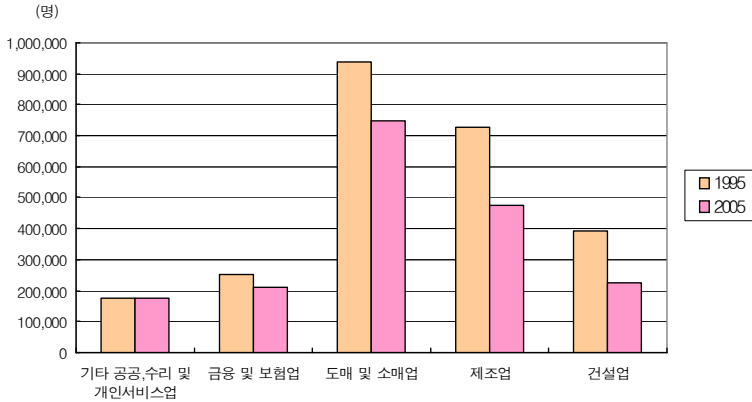
<그림 3-1> 지난 10년간 사업체수가 증가한 산업



<그림 3-2> 지난 10년간 사업체수가 감소한 산업



<그림 3-3> 지난 10년간 종사자수가 증가한 산업



<그림 3-4> 지난 10년간 종사자수가 감소한 산업

<표 3-1> 2·3차 산업 증감 현황

단위 : 개, 명, %

| 구분    |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 1995    | 2005    | 증감률   | 1995      | 2005      | 증감률   |
| 2차 산업 | 건설업                | 17,161  | 19,924  | 16.1  | 390,564   | 225,224   | -42.3 |
|       | 제조업                | 81,557  | 69,982  | -14.2 | 729,057   | 473,643   | -35.0 |
|       | 광업                 | 102     | 52      | -49.0 | 5,258     | 494       | -90.6 |
|       | 합계                 | 98,820  | 89,958  | -9.0  | 1,124,879 | 699,361   | -37.8 |
| 3차 산업 | 통신업                | 699     | 2,266   | 224.2 | 21,920    | 44,860    | 104.7 |
|       | 운수업                | 71,458  | 95,222  | 33.3  | 226,616   | 249,765   | 10.2  |
|       | 사업서비스업             | 19,636  | 35,165  | 79.1  | 229,942   | 540,908   | 135.2 |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22,247  | 28,474  | 28.0  | 74,073    | 109,921   | 48.4  |
|       | 부동산 및 임대업          | 27,849  | 33,632  | 20.8  | 115,303   | 138,050   | 19.7  |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58,419  | 65,851  | 12.7  | 174,667   | 174,563   | -0.1  |
|       | 교육서비스업             | 21,091  | 23,314  | 10.5  | 171,095   | 245,483   | 43.5  |
|       | 금융 및 보험업           | 7,874   | 8,577   | 8.9   | 249,656   | 212,151   | -15.0 |
|       | 숙박 및 음식점업          | 110,787 | 117,552 | 6.1   | 323,620   | 393,018   | 21.4  |
|       | 도매 및 소매업           | 255,631 | 222,079 | -13.1 | 940,462   | 748,028   | -20.5 |
|       | 합계                 | 595,691 | 632,132 | 6.1%  | 2,527,354 | 2,856,747 | 13.0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그 중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인 사업서비스업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각 부문별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3-2>와 같다.

<표 3-2>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변화추이

단위 : 개, 명, %

| 구분     |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 1995   | 2005   | 증감률   | 1995    | 2005    | 증감률   |
|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1,373  | 6,150  | 347.9 | 28,981  | 125,418 | 332.8 |
|        | 연구 및 개발업             | 469    | 793    | 69.1  | 8,842   | 19,990  | 126.1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5,094 | 21,459 | 42.2  | 147,592 | 185,217 | 25.5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2,700  | 6,763  | 150.5 | 44,527  | 210,283 | 372.3 |
|        | 합계                   | 19,636 | 35,165 | 79.1  | 229,942 | 540,908 | 135.2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특히, 사업서비스업 중에서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사업체수가 10년 동안 3배 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에는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개발, 데이터베이스 제공, 자료 처리업 등이 해당된다. 종사자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72%의 증가율을 보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고,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역시 3배 넘게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서비스 세부업종이 서울의 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변화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했으며 특히,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5년에는 1.15%에서 2005년에는 5.47%로 매우 많이 증가하여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종사자수는 절대 값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표 3-3>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비중변화

단위 : %

| 구분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 1995 | 2005 | 1995 | 2005  |
|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0.19 | 0.83 | 0.75 | 3.26  |
|        | 연구 및 개발업             | 0.07 | 0.11 | 0.23 | 0.52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13 | 2.90 | 3.81 | 4.82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0.38 | 0.91 | 1.15 | 5.47  |
|        | 합계                   | 2.77 | 4.74 | 5.93 | 14.08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업체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1995년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으로 업체당 종사자수가 21.1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1.1명으로 1995년의 16.5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업체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종사자 규모별 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의 제조업은 전체 81,557개 업체 중 종사자 규모가 ‘1~4명’인 곳이 71.8%, ‘5~9명’이 14.6%, ‘10~19명’이 7.7%로 나타났는데 2005년에는 ‘1~4명’인 곳이 69.4%, ‘5~9명’이 19.2%, ‘10~19명’이 6.7%로 나타나, 10년 사이 10명 미만의 소규모업체들의 비중이 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00명 이상의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수가 절반이상 줄어들어 대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업서비스업은 1995년에는 ‘1~4명’인 곳이 54.2%, ‘5~9명’이 27.4%, ‘10~19명’이 9.8%, ‘20~49명’이 5.4%, ‘50~99명’은 1.7%였으나 2005년에 들어서는 규모별로 각각 51.6%, 24.4%, 11.6%, 7.6%, 2.4%의 비중을 보여 소규모업체는 줄어들고 10명 이상의 업체는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생산을 주로 담당하던 대규모 제조업체는 지방 및 해외로 이전하여 서울의 제조업체는 다품종소량생산이 가능한 소규모 업체 위주로 바뀌어 가는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점점 대규모화·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

이다.

(1) 종사자 규모별 변화추세

<표 3-4>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1995년

단위 : 개

| 구 분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        |        |        |        |          |          |          |          |         |
|--------------------|--------------|--------|--------|--------|--------|----------|----------|----------|----------|---------|
|                    | 1~4명         | 5~9명   | 10~19명 | 20~49명 | 5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1000명 이상 | 합계      |
| 전산업                | 598,104      | 62,239 | 25,206 | 14,967 | 3,991  | 2,411    | 467      | 384      | 256      | 708,025 |
| 농업 및 임업            | 25           | 21     | 16     | 13     | 0      | 3        | 0        | 1        | 0        | 79      |
| 어업                 | 5            | 12     | 3      | 3      | 2      | 2        | 0        | 0        | 1        | 28      |
| 광업                 | 56           | 15     | 7      | 10     | 6      | 4        | 3        | 0        | 1        | 102     |
| 제조업                | 58,574       | 11,913 | 6,245  | 3,359  | 754    | 494      | 86       | 76       | 56       | 81,557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28           | 51     | 30     | 6      | 8      | 17       | 2        | 0        | 1        | 143     |
| 건설업                | 9,814        | 3,471  | 1,970  | 1,081  | 347    | 285      | 85       | 62       | 46       | 17,161  |
| 도매 및 소매업           | 224,561      | 19,639 | 7,026  | 3,244  | 648    | 341      | 75       | 52       | 45       | 255,631 |
| 숙박 및 음식점업          | 99,640       | 9,323  | 1,240  | 429    | 91     | 38       | 16       | 7        | 3        | 110,787 |
| 운수업                | 67,718       | 1,619  | 938    | 584    | 185    | 352      | 37       | 18       | 7        | 71,458  |
| 통신업                | 279          | 232    | 81     | 40     | 10     | 36       | 16       | 3        | 2        | 699     |
| 금융 및 보험업           | 2,090        | 1,069  | 1,729  | 2,414  | 278    | 173      | 40       | 48       | 33       | 7,874   |
| 부동산 및 임대업          | 25,005       | 1,290  | 739    | 575    | 152    | 61       | 9        | 12       | 6        | 27,849  |
| 사업서비스업             | 10,650       | 5,375  | 1,934  | 1,052  | 333    | 201      | 43       | 36       | 12       | 19,636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55           | 54     | 601    | 573    | 49     | 102      | 22       | 41       | 19       | 1,516   |
| 교육 서비스업            | 16,321       | 2,689  | 633    | 476    | 806    | 143      | 9        | 8        | 6        | 21,091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9,637        | 1,242  | 452    | 224    | 109    | 45       | 10       | 16       | 13       | 11,748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20,715       | 803    | 406    | 217    | 68     | 28       | 4        | 2        | 4        | 22,247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52,931       | 3,421  | 1,156  | 667    | 145    | 86       | 10       | 2        | 1        | 58,419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1995

<표 3-5> 산업별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 - 2005년

단위 : 개

| 구 분                |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수 |        |        |        |        |          |          |          |          |         |
|--------------------|--------------|--------|--------|--------|--------|----------|----------|----------|----------|---------|
|                    | 1~4명         | 5~9명   | 10~19명 | 20~49명 | 50~99명 | 100~299명 | 300~499명 | 500~999명 | 1000명 이상 | 합계      |
| 전산업                | 606,647      | 79,018 | 31,395 | 15,682 | 5,023  | 2,636    | 429      | 260      | 139      | 741,229 |
| 농업 및 임업            | 6            | 4      | 3      | 0      | 2      | 1        | 0        | 0        | 0        | 16      |
| 어업                 | 3            | 1      | 3      | 3      | 1      | 1        | 0        | 0        | 0        | 12      |
| 광업                 | 25           | 12     | 9      | 5      | 0      | 1        | 0        | 0        | 0        | 52      |
| 제조업                | 48,569       | 13,407 | 4,722  | 2,238  | 595    | 350      | 59       | 28       | 14       | 69,982  |
|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12           | 25     | 68     | 21     | 10     | 39       | 2        | 2        | 1        | 180     |
| 건설업                | 11,069       | 4,382  | 2,502  | 1,388  | 355    | 167      | 29       | 22       | 10       | 19,924  |
| 도매 및 소매업           | 194,314      | 18,057 | 6,119  | 2,651  | 571    | 301      | 43       | 19       | 4        | 222,079 |
| 숙박 및 음식점업          | 100,154      | 13,354 | 2,875  | 924    | 177    | 45       | 10       | 11       | 2        | 117,552 |
| 운수업                | 90,689       | 2,240  | 1,071  | 657    | 164    | 345      | 43       | 10       | 3        | 95,222  |
| 통신업                | 1,000        | 606    | 323    | 186    | 56     | 73       | 17       | 3        | 2        | 2,266   |
| 금융 및 보험업           | 2,250        | 1,376  | 2,839  | 1,495  | 368    | 171      | 38       | 23       | 17       | 8,577   |
| 부동산 및 임대업          | 28,186       | 2,877  | 1,472  | 802    | 206    | 80       | 6        | 2        | 1        | 33,632  |
| 사업서비스업             | 18,141       | 8,578  | 4,082  | 2,660  | 852    | 633      | 115      | 73       | 31       | 35,16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265          | 53     | 514    | 240    | 190    | 91       | 38       | 32       | 20       | 1,443   |
| 교육 서비스업            | 15,352       | 4,116  | 1,582  | 996    | 1,057  | 170      | 14       | 13       | 14       | 23,314  |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11,957       | 3,702  | 1,156  | 407    | 160    | 61       | 10       | 18       | 17       | 17,488  |
|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 25,176       | 2,140  | 599    | 364    | 127    | 59       | 2        | 4        | 3        | 28,474  |
|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59,479       | 4,088  | 1,456  | 645    | 132    | 48       | 3        | 0        | 0        | 65,851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 2. 제조업 구조의 현황 및 변화

### 1) 서울 제조업의 현황

#### (1) 현황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사업체 741,229개 중 69,982개(9.4%)가 제조업에 분포해 있으며 서울의 전체 종사자 3,843,010명 중 473,643명(12.3%)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제조업에 대한 서울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수 기준으로는 전국 제조업 사업체 340,183개의 20.6%가 서울에 입지해 있고,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전국 3,450,893명의 제조업 종사자 중 13.7%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체당 종사자수는 6.8명으로 전국의 10.1명에 비해 작아 서울에는 대규모의 제조업체보다는 영세제조업체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2) 변화추세

제조업체의 활동은 크게 기획, 연구개발, 업무, 영업과 같은 사무적 활동과 제품의 직접 생산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활동은 주로 오피스빌딩에서 이루어지고, 후자의 활동은 공장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제조업체 내부 활동의 구분에 따라 분석을 시도하도록 한다.

먼저 사무적 활동과 직접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서울시 제조업체 수는 1995년 81,557개에서 2005년에는 69,982개로 10년 동안 14.2% 감소했으며, 제조업체 종사자수는 동 기간동안 729,057명에서 473,643명으로 무려 35.0% 감소하였다.

한편 5인 이상 공장의 수는 1995년 20,295개에서 2005년에는 19,787개로 10년 동안 2.5% 감소했으며, 공장 종사자수는 동 기간 동안 369,866명에서 261,102명

으로 29.4% 감소하여 제조업 전체의 종사자 감소폭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 생산부분의 종사자는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 이상 공장 수는 1998년 62,912개에서 2003년에는 61,885개로 5년 동안 1.6% 감소했으며, 공장 종사자수는 동 기간 동안 348,624명에서 368,103명으로 5.6% 증가하여, 서울 전체 제조업 종사자수와 5인 이상 공장의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표 3-6> 서울 제조업 변화

단위 : 개,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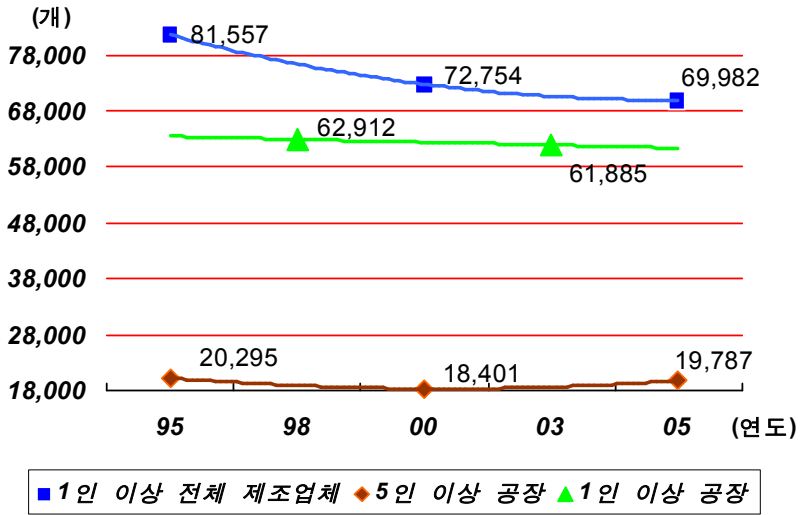
| 구분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95    | '05    | 증감률   | '95     | '05     | 증감률   |
| 사업체기초통계 <sup>6)</sup> | 81,557 | 69,982 | -14.2 | 729,057 | 473,643 | -35.0 |
| 광업제조업통계 <sup>7)</sup> | 20,295 | 19,787 | -2.5  | 369,866 | 261,102 | -29.4 |
|                       | '98    | '03    | 증감률   | '98     | '03     | 증감률   |
| 산업총조사 <sup>8)</sup>   | 62,912 | 61,885 | -1.6  | 348,624 | 368,103 | 5.6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광업제조업통계자료, 산업총조사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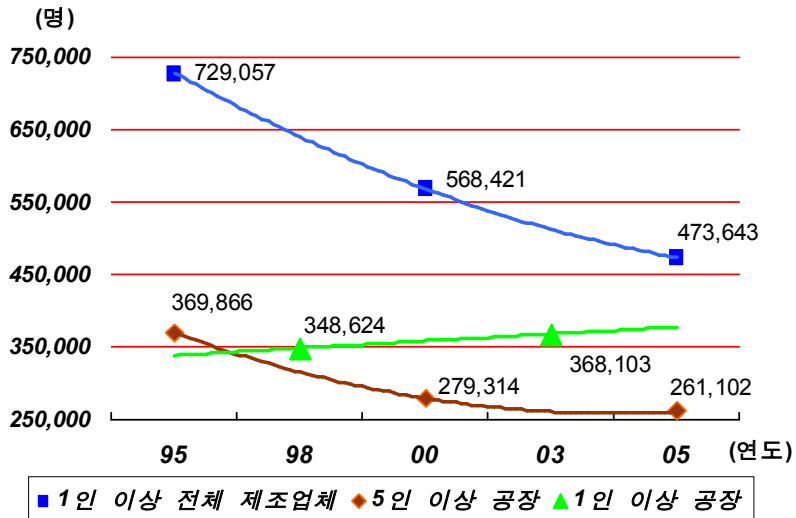
6) 사업체기초통계조사 :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업체, 국방 및 가사서비스업,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고정설비가 없거나 영업장소가 일정치 않은 간이 판매상을 제외한 모든 사업체

7) 광업제조업통계조사 : 종사자수가 5인 이상인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 5인 이상 전수조사

8) 산업총조사 : 종사자수가 1인 이상인 공장, 작업장, 사업소, 광산 등과 같은 경제단위, 1인 이상 전수조사



<그림 3-5> 제조업 기능별 사업체수의 변화



<그림 3-6> 제조업 기능별 종사자수의 변화

이상을 요약하면, 1인 이상 전체 사업체와 5인 이상 공장 수는 1995년~ 2005년의 기간 동안 약간 감소하고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1인 이상 공장은 그 수도 많이 줄지 않았으며 종사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전체 제조업 활동 중 기획, 생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세한 제조업체의 생산 활동은 오히려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 대규모 공장이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더라도 종업원들은 이주하기 어려워 창업을 하게 되어 영세 소규모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현상은 준공업지역이 창업하기 용이하며 혁신공간으로서의 집적이익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제조업체당 종사자 규모가 1995년 8.9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6.8명으로 줄어들어 제조업체의 소규모화가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1995년 전국 대비 19.7%를 차지한 서울의 제조업은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5년 13.7%로 나타나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의 위상이 점차 작아지고 있다.

전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1995년부터 2000년 사이에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는 1995년 18.8%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5년엔 서울시 전체 종사자의 12.3% 수준이다.

한편, 사업서비스업은 1995년에 5.9%로 제조업의 비중에 한참 미치지 못했으나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5년 14.1%를 차지해 제조업을 능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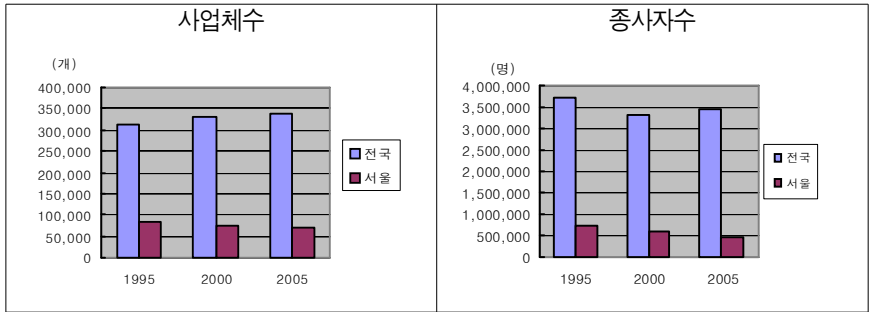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세계도시와 마찬가지로 제조업은 더 이상 서울의 중심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단순제조업이 아닌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도시형 제조업과 첨단제조업 등 여러 가지 조건에서 대도시의 입지가 유리한 제조업들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산업별 특성에 맞는 산업유인정책의 수립이 중요하다.

<표 3-7> 서울의 제조업 비중 변화

단위: 개, 명, %

|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95     | '00     | '05     | '95       | '00       | '05       |
| 전국        | 314,283 | 328,338 | 340,183 | 3,716,168 | 3,333,018 | 3,450,893 |
| 서울        | 81,557  | 72,754  | 69,982  | 729,057   | 568,421   | 473,643   |
| 전국대비 서울비중 | 26.1    | 22.2    | 20.6    | 19.7      | 17.1      | 13.7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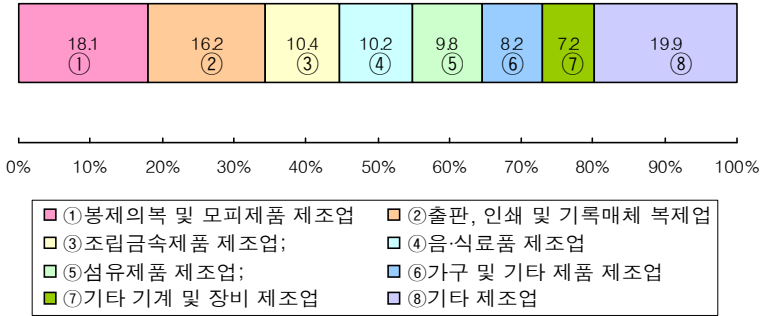


<그림 3-7> 서울의 제조업 비중 변화

2)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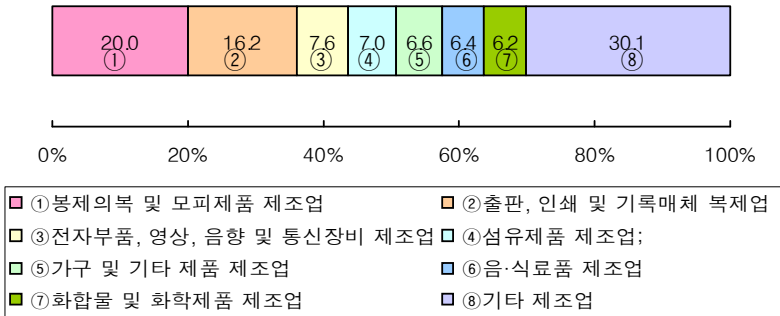
(1) 현황

서울의 제조업에서 각 업종별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 기준으로는 ‘봉제의 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전체의 18.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16.2%, ‘조립금속제품 제조업’이 10.4%, ‘음·식료품 제조업’이 1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사업체

종사자수 기준으로는 역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2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16.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이 7.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9>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종사자

## (2) 변화추세

서울의 전체 제조업체 수는 1995년 81,557개에서 2005년에는 69,982개로 14.2% 감소했지만 ‘음·식료품 제조업’(18.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3%), ‘제1차 금속산업’(7.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7.9%),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0.8%),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6.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5.4%) 등의 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14.0%)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감소하여 사업체수가 증가한 업종에서도 종사자수는 감소하였다.

제조업체 중 생산활동을 주로 하는 1인 이상 공장과 5인 이상 공장의 수와 종사자수가 증가한 업종은 <표 3-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1인 이상 공장에서는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61.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0.5%),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1.4%),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9.0%)과 같은 첨단업종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6.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6.1%), ‘제 1차 금속산업’(3.4%)와 같은 기반기술산업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음·식료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같은 생활지원형 산업이 증가하였다.

<표 3-8> 통계조사별 제조업 증가 업종

| 구 분                                     | 사업체수가 증가한 업종                                                                                                                                                                                                                                                                                                                                                      | 종사자수가 증가한 업종                                                                                                                                                                                                                              |
|-----------------------------------------|-------------------------------------------------------------------------------------------------------------------------------------------------------------------------------------------------------------------------------------------------------------------------------------------------------------------------------------------------------------------|-------------------------------------------------------------------------------------------------------------------------------------------------------------------------------------------------------------------------------------------|
| 전 체<br>제조업체 <sup>9)</sup><br>(95'~05')  | 음·식료품 제조업(18.0)<br>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3)<br>제1차 금속산업(7.1)<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7.9)<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0.8)<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6.0)<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15.4)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14.0)                                                                                                                                                                                                                |
| 5인 이상<br>공장 <sup>10)</sup><br>(00'~05') | 음·식료품 제조업(72.9)<br>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4.5)<br>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11.0)<br>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6.4)<br>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7)<br>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7.1)<br>제 1차 금속산업(15.4)<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12.9)<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11.8)<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5.2)<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13.9)<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8)<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22.2)<br>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16.4)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9.0)<br>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3.4)<br>제 1차 금속산업(2.4)<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25.3)<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6)<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19.0)<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146.7)<br>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85.9)                                   |
| 1인 이상<br>공장 <sup>11)</sup><br>(98'~03') | 음·식료품 제조업(8.4)<br>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0.8)<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8.7)<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28.8)<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5.0)<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1.3)<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8.0)                                                                                                                                                                   | 음·식료품 제조업(1.2)<br>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7.2)<br>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19.0)<br>제 1차 금속산업(3.4)<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6.1)<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61.6)<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6.3)<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1.4)<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0.5) |

주 : 괄호안은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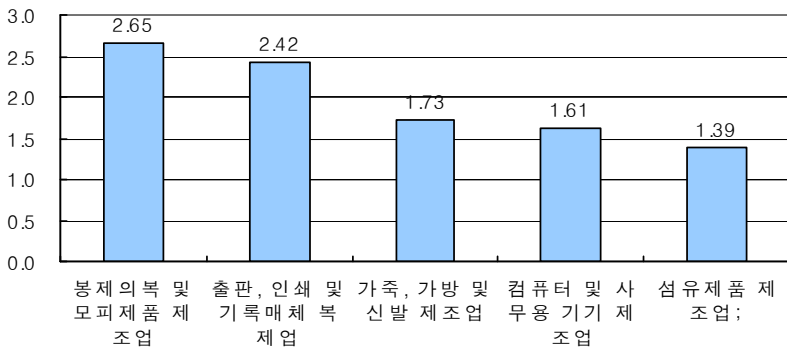
9) 사업체기초통계조사

10) 광업·제조업통계조사

11) 산업총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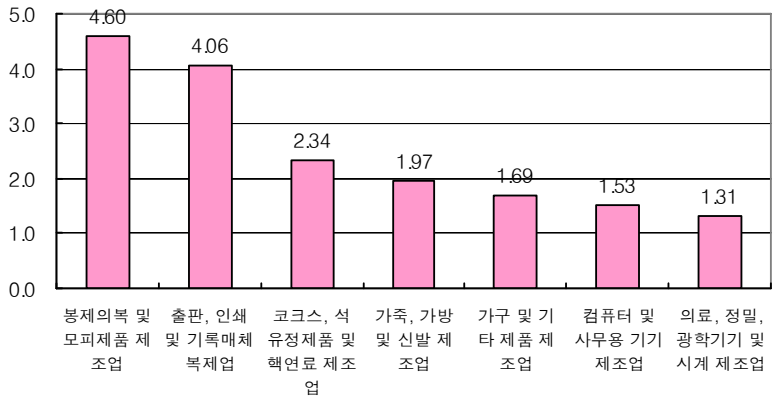
### 3) 서울 제조업의 업종별 특화도

서울의 제조업 구조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에서 차지하는 서울 제조업의 각 업종별 입지상계수(LQ)를 분석하였다. 사업체 기준으로 입지계수가 1.3이상인 업종은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2.65),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4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73),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1.61), ‘섬유제품 제조업’(1.39)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0> 특화도가 1.3이상인 서울 제조업 업종-사업체

종사자수 역시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4.60)과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4.06)의 특화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2.3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1.97),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1.69),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1.5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1.31)의 입지계수가 1.3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림 3-11> 특화도가 1.3이상인 서울 제조업 업종-종사자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가 1.3이상 입지계수를 보이고 있다.

5인 이상 공장을 사업체수 기준으로 한 업종별 특화도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4.37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3.66,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82,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5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5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1.3이상 특화도를 보이는 업종에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이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5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7.13으로 높은 특화도를 보였으며,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6.5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5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0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제조업체와 비교하여 볼 때 1.3이상 특화도를 보이는 업종에서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과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이 제외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서울 5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

| 사업체수 |             |             |             |             |             |             |             |           |             |             |             |
|------|-------------|-------------|-------------|-------------|-------------|-------------|-------------|-----------|-------------|-------------|-------------|
|      | 음<br>식료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및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플<br>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 2000 | 0.21        | 1.17        | 3.65        | 1.46        | 0.17        | 0.67        | 3.31        | -         | 0.16        | 0.42        | 0.15        |
| 2005 | <b>0.31</b> | <b>1.25</b> | <b>4.37</b> | <b>1.82</b> | 0.15        | <b>0.72</b> | <b>3.66</b> | -         | 0.16        | 0.32        | 0.15        |
|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2000 | 0.25        | 0.38        | 0.55        | 1.21        | 0.75        | 0.84        | 1.25        | 0.16      | 0.09        | 0.89        | 0.06        |
| 2005 | 0.24        | 0.33        | 0.44        | <b>1.54</b> | <b>0.77</b> | 0.83        | <b>1.35</b> | 0.12      | <b>0.12</b> | <b>1.00</b> | 0.05        |
| 종사자수 |             |             |             |             |             |             |             |           |             |             |             |
|      | 음<br>식료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및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플<br>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 2000 | 0.40        | 0.95        | 5.30        | 1.74        | 0.19        | 0.78        | 5.84        | -         | 0.18        | 0.43        | 0.14        |
| 2005 | 0.36        | <b>1.30</b> | <b>7.13</b> | <b>2.58</b> | 0.15        | <b>0.82</b> | <b>6.54</b> | -         | <b>0.23</b> | 0.30        | <b>0.15</b> |
|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2000 | 0.15        | 0.35        | 0.56        | 1.03        | 0.81        | 0.73        | 1.56        | 0.06      | 0.02        | 1.19        | 0.13        |
| 2005 | <b>0.16</b> | <b>0.37</b> | 0.48        | <b>2.07</b> | <b>0.94</b> | 0.54        | <b>1.71</b> | 0.04      | <b>0.04</b> | <b>1.40</b> | <b>0.19</b> |

주: L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LQ지수임.

    볼드체는 2000년보다 특화도가 높아진 업종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자료, 각년도

1인 이상 공장을 사업체수 기준으로 한 업종별 특화도는 ‘봉제의복 및 모피 제품 제조업’ 2.58,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2.4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68,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49,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1.2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인 이상 공장의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한 업종별 특화도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5.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5.0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2.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38,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1.3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10> 서울 1인 이상 공장의 업종별 특화도

| 사업체수 |             |             |             |             |            |           |             |           |          |             |           |
|------|-------------|-------------|-------------|-------------|------------|-----------|-------------|-----------|----------|-------------|-----------|
|      | 음<br>식료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및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플<br>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 1998 | 0.50        | 1.24        | 2.03        | 1.62        | 0.52       | 1.00      | 2.28        | 0.17      | 0.35     | 0.66        | 0.27      |
| 2003 | <b>0.57</b> | <b>1.29</b> | <b>2.58</b> | <b>1.68</b> | 0.39       | 0.80      | <b>2.45</b> | -         | 0.25     | 0.50        | 0.23      |
|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1998 | 0.61        | 0.74        | 0.87        | 1.15        | 0.94       | 0.90      | 1.14        | 0.31      | 0.17     | 1.03        | 0.26      |
| 2003 | 0.53        | 0.69        | 0.79        | <b>1.49</b> | 0.89       | 0.82      | <b>1.15</b> | 0.21      | 0.14     | <b>1.07</b> | 0.09      |
| 종사자수 |             |             |             |             |            |           |             |           |          |             |           |
|      | 음<br>식료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및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플<br>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 1998 | 0.55        | 1.07        | 4.16        | 1.54        | 0.44       | 0.90      | 4.81        | 0.01      | 0.18     | 0.51        | 0.21      |
| 2003 | <b>0.56</b> | <b>1.17</b> | <b>5.10</b> | <b>2.10</b> | 0.28       | 0.76      | <b>5.02</b> | -         | 0.18     | 0.35        | 0.17      |
|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1998 | 0.18        | 0.61        | 0.65        | 0.68        | 0.93       | 0.69      | 1.18        | 0.08      | 0.11     | 1.36        | 0.23      |
| 2003 | 0.18        | 0.54        | 0.56        | <b>1.19</b> | 0.82       | 0.65      | <b>1.38</b> | 0.06      | 0.02     | 1.35        | 0.17      |

주: L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LQ지수임

볼드체는 2000년보다 특화도가 높아진 업종

자료: 통계청, 산업조사자료, 각년도

이상에서 서울의 전체 제조업, 1인 이상 공장, 5인 이상 공장의 자료를 바탕으로 업종별 특화도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각 업종별로 수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비슷한 업종의 특화도가 동시에 높게 나타나 사무 활동과 생산활동을 함께하는 업체와 직접 생산활동만을 담당하는 업체간의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다만, 위의 자료를 통해서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출판·인쇄 제조업 등 도시형 제조업과 컴퓨터, 의료정밀 등 첨단제조업의 특화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서울의 제조업이 도시형 제조업과 첨단 제조업으로 특화되어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서울에의 입지에 적합한 제조업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 적합한 제조업을 파악하여 시대의

변화에 맞게 고부가가치화하고 구조고도화하는 것이 서울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4)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

서울 제조업체의 생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노동생산성을 분석하였다. 5인 이상 공장의 노동생산성은 <표 3-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대규모의 공장들이 지방에 입지해 있고 서울에는 소기업이 전 사업체의 98.6%, 전 종사자수의 66.4%를 차지하는 서울 소재 기업의 입지 특성상 나타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에도 불구하고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은 서울의 노동생산성이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서울에의 입지가 적합함을 나타내주고 있다.

몇몇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의 노동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제조업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서울이 35.1%, 전국이 34.5%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표 3-11>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5인 이상 공장)

| 구 분                     |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액/종사자수) |          |        |        |
|-------------------------|--------------------|----------|--------|--------|
|                         | 전국                 |          | 서울     |        |
|                         | 2000               | 2005     | 2000   | 2005   |
| 제조업(합계)                 | 82.72              | 111.27   | 52.34  | 70.70  |
| 음·식료품 제조업               | 88.60              | 104.61   | 107.35 | 104.25 |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 47.46              | 57.14    | 43.38  | 69.2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9.24              | 55.65    | 35.41  | 68.74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9.39              | 53.59    | 36.01  | 55.99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48.71              | 57.99    | 24.79  | 41.3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6.70              | 87.89    | 45.96  | 51.64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64.70              | 75.14    | 76.88  | 86.86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486.83             | 1,141.60 | -      | -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53.01             | 209.60   | 76.18  | 82.8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5.80              | 73.58    | 50.71  | 52.75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99.54              | 125.30   | 91.34  | 125.84 |
| 제 1차 금속산업               | 133.95             | 223.46   | 58.12  | 111.11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48.78              | 63.85    | 38.96  | 56.52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2.49              | 84.75    | 44.77  | 56.55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43.81             | 112.15   | 62.27  | 69.32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58.82              | 74.41    | 46.84  | 55.30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33.30             | 170.74   | 71.80  | 74.8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2.05              | 65.84    | 43.27  | 55.72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0.88             | 128.85   | 41.90  | 46.68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85.59              | 105.30   | 30.28  | 30.62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42.43              | 54.57    | 43.80  | 49.92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58.25              | 80.71    | 60.75  | 43.19  |

주: 2005년 부가가치액은 2000년 기준 제조업GDP디플레이터로 환산한 값임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자료, 각년도

다음으로 1인 이상 공장의 노동생산성을 살펴보면, 2003년을 기준으로 하여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이 전국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업종들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에 상대적으로 많이 집적해 있는 업종들이다.

노동생산성이 평균이상인 업종으로는 ‘음·식료품 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

록매체 복제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이 있다. 이렇듯 서울에서 노동생산성이 높은 업종은 특화도가 높은 업종과도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러한 업종을 중심으로 서울의 제조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3-12> 제조업의 노동생산성 비교(1인 이상 공장)

| 구 분                     | 노동생산성 (부가가치액/종사자수) |        |
|-------------------------|--------------------|--------|
|                         | 전국                 | 서울     |
| 제조업(합계)                 | 85.07              | 56.18  |
| 음·식료품 제조업               | 65.71              | 56.58  |
| 섬유제품 제조업;봉제의복 제외        | 46.78              | 52.42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8.68              | 47.65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45.63              | 47.02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 42.28              | 29.87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85.18              | 48.55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59.09              | 66.65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 532.77             | -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75.07             | 103.63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9.77              | 46.74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07.59             | 97.27  |
| 제 1차 금속산업               | 160.13             | 50.32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46.54              | 36.71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7.38              | 45.02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28.38             | 61.51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58.23              | 48.11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146.02             | 113.49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52.10              | 43.21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6.69             | 52.67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93.72              | 38.01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38.53              | 35.72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61.08              | 32.64  |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자료, 2003

## 제2절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 1.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

#### 1)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현황 및 변화

##### (1) 현황

연구 대상인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6개 구를 묶어 준공업 지역에서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한 준공업지역의 전체 사업체수는 161,832개이며, 이 중 ‘도매 및 소매업’이 43,514(26.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24,265개(15.0%), ‘운수업’이 23,613개(14.6%), ‘제조업’이 22,295개(13.8%) 순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전체 840,617명이며 이 중 ‘제조업’이 159,506명(1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51,686명(18.0%), ‘사업서비스업’이 112,617명(13.4%), ‘운수업’이 70,885명(8.4%) 순으로 나타났다.

##### (2) 변화추세

준공업지역의 사업체와 종사자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사업체수는 1995년 150,317개에서 2005년에는 161,832개로 10년 동안 7.7%(11,515개)가 증가하여 서울의 4.7%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동 기간에 서울의 종사자수가 0.8% 감소한데 비해 준공업지역은 오히려 0.3%(2,809명) 증가하여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산업성장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업(-38.0%), 건설업(-29.0%)등의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사업서비스업(213.3%),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63.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3.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2.6%), 부동산 및 임대업(27.3%), 교육서비스업(23.4%), 운수업(20.0%), 숙박 및 음식점업(18.9%) 등의 3차 산업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준공업지역에서도 사업서비스업의 비약적인 증가가 눈에 띄는데 사업서비스업을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연구 및 개발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세분화하여 보면 사업체수는 서울 전체와 마찬가지로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의 사업체수가 3배 넘게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며, 종사자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 서울 전체보다 훨씬 높은 457%의 증가율을 보였다.

<표 3-13>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변화추이-준공업지역

단위 : 개, 명, %

| 구분     |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 1995  | 2005  | 증감률   | 1995   | 2005    | 증감률   |
|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382   | 1,804 | 372.3 | 6,494  | 34,742  | 435.0 |
|        | 연구 및 개발업             | 54    | 184   | 240.7 | 1,583  | 7,441   | 370.1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136 | 2,890 | 35.3  | 20,197 | 27,713  | 37.2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492   | 1,416 | 187.8 | 7,674  | 42,721  | 456.7 |
|        | 합계                   | 3,064 | 6,294 | 105.4 | 35,948 | 112,617 | 213.3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한편, 사업서비스 세부업종별로 서울의 전체 지역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변화를 보면 모든 부문에서 비중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서울과 비교하면 준공업지역에서의 사업서비스업 비중이 더 작긴 하지만 지난 10년간을 분석해보면 준공업지역이 상대적으로 더 빨리 사업서비스의 비중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준공업지역에서의 사업서비스업 증가는 준공업지역이 공장지역일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새로운 사업의 모태가 되고 서비스업의 비약적 증가가 이루어지는 등 서울 산업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표 3-14> 사업서비스업의 세부업종별 비중변화-준공업지역

단위 : %

| 구분     |                         | 사업체수 |      | 종사자수 |       |
|--------|-------------------------|------|------|------|-------|
|        |                         | 1995 | 2005 | 1995 | 2005  |
|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br>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0.25 | 1.11 | 0.78 | 4.13  |
|        | 연구 및 개발업                | 0.04 | 0.11 | 0.19 | 0.89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1.41 | 1.79 | 2.40 | 3.30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0.32 | 0.87 | 0.91 | 5.08  |
|        | 합계                      | 1.73 | 3.89 | 3.31 | 13.40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준공업지역의 사업서비스 업종별 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와 대부분 비슷한데, ‘연구 및 개발업’은 1995년에도 준공업지역의 업체당 종사자수가 10명 이상 많았으며 2005년에는 서울보다 15명 이상 많은 결과가 나타나 규모가 큰 ‘연구 및 개발업’ 관련 업체가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준공업지역이 단순제조업만 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대규모의 연구개발 업체들까지도 수용하는 공간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준공업지역이 생산을 주로 하던 예전의 모습에서 현재는 연구개발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5> 업체당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구분     |                         | 서울   |      | 준공업지역 |      |
|--------|-------------------------|------|------|-------|------|
|        |                         | 1995 | 2005 | 1995  | 2005 |
| 사업서비스업 | 정보처리 및<br>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 21.1 | 20.4 | 17.0  | 19.3 |
|        | 연구 및 개발업                | 18.9 | 25.2 | 29.3  | 40.4 |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9.8  | 8.6  | 9.5   | 9.6  |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16.5 | 31.1 | 15.6  | 30.2 |
|        | 합계                      | 11.7 | 15.4 | 11.7  | 17.9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 2.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구조 변화

### 1)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구조

#### (1) 현황

준공업지역에는 2005년 기준으로 서울 제조업 사업체의 31.9%인 22,295개와 서울 제조업 종사자의 33.7%인 159,506명이 분포해 있다.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입지상계수(LQ)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특화도가 1.5이상인 업종은 다음과 같다. 대체로 첨단제조업과 기반기술적인 산업으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6>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특화도(1.5이상)

| 구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 준공업지역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45<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11<br>제1차 금속산업 1.98<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1.93<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6<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73<br>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73<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4<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3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17<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1.94<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68<br>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1.67<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62<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4<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5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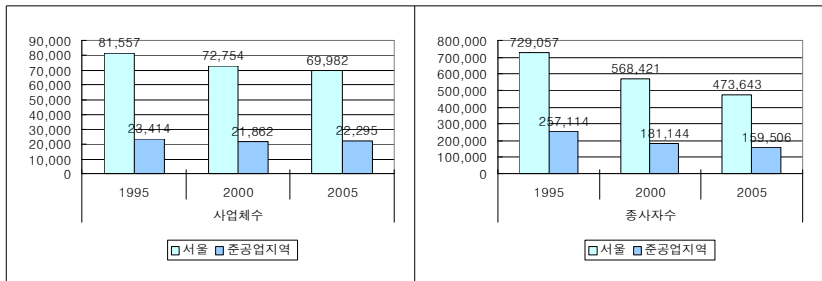
주: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 (2) 변화추세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 수는 1995년 23,414개에서 2000년 21,862개로 크게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다시 22,295개로 증가추세에 있긴 하지만 10년간의 변화추세를 살펴보면 4.8%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체 종사자수는 10년 동안 257,114명에서 159,506명으로 38.0%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율인 35.0%보다 3.0%p 높은 수치이다.



<그림 3-12>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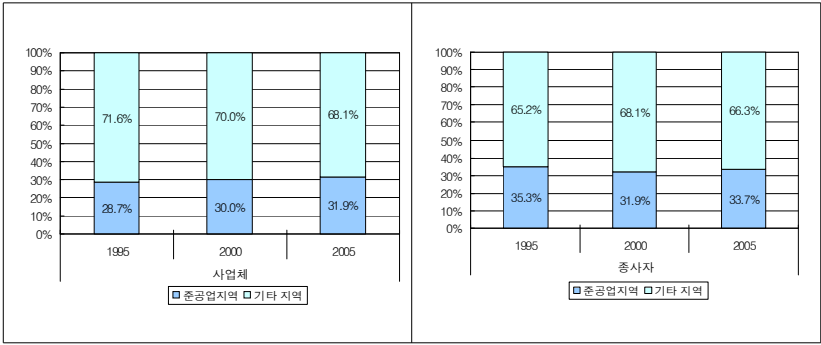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이 서울 전체에 대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체 수는 그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1995년에서 2000년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3-17>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비중 변화

단위: 개, 명, %

|                 | 사업체수   |        |        | 종사자수    |         |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 서울              | 81,557 | 72,754 | 69,982 | 729,057 | 568,421 | 473,643 |
| 준공업지역           | 23,414 | 21,862 | 22,295 | 257,114 | 181,144 | 159,506 |
| 서울대비<br>준공업지역비중 | 28.7   | 30.0   | 31.9   | 35.3    | 31.9    | 33.7    |

자료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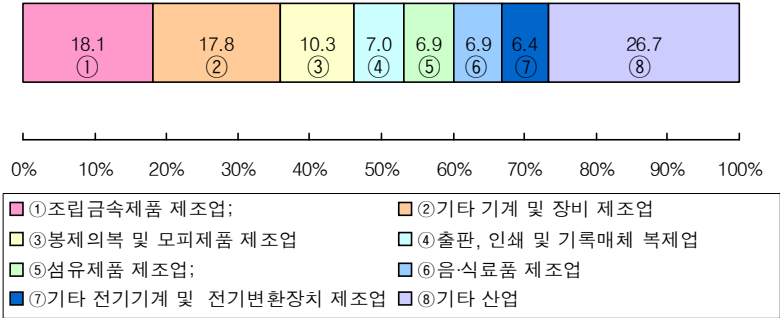
<그림 3-13>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비중 변화

## 2)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분포

### (1)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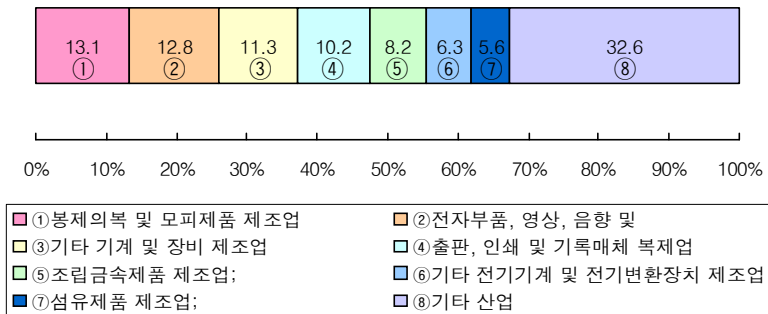
준공업 제조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은 2005년 사업체수 기

준으로 전체 22,295개의 업체 중 4,031개(18.1%)를 차지하는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인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961명(17.8%),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296명(10.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551명(7.0%)의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그림 3-14>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사업체

종사자수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이 전체 159,506명의 제조업 종사자중 20,969명으로 13.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0,400명(1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960명(11.3%),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6,238명(10.2%)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업종별 비중-종사자

## (2) 변화추세

준공업지역에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증가한 제조업 부문은 다음 표와 같다. 사업체수, 종사자수 모두 증가한 업종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모든 제조업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준공업지역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이러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3-18> 준공업지역 제조업 증가 업종

| 구 분       | 사업체수가 증가한 업종                                                                                                                                                                                                                                         | 종사자수가 증가한 업종                                            |
|-----------|------------------------------------------------------------------------------------------------------------------------------------------------------------------------------------------------------------------------------------------------------|---------------------------------------------------------|
| 준공업<br>지역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123.7)<br>제1차 금속산업(29.0)<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26.1)<br>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25.9)<br>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5.6)<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24.0)<br>음식료품 제조업(15.6)<br>조립금속 제품 제조업(14.6)<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11.7)<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7.3)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27.4)<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19.8) |

주 : 괄호안은 증가율(%)임

### 3) 동북권과 서남권 제조업의 특징

#### (1) 현황

지리적 차이를 고려한 권역별 산업구조 분석을 위해 도봉구와 성동구를 동북권으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를 서남권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2005년 기준으로 동북권에는 서울시 전체 제조업 사업체 69,982개의 9.4%인 6,610개와 종사자수 473,643명의 9.0%인 42,503명이 분포해 있으며 서남권에는 서울 제조업 사업체의 22.4%인 15,685개와 종사자수의 24.7%인 117,003명이 분포해 있다.

권역별 집적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을 입지특성에 따라 소비지입지형, 원자재입지형, 기초소재형, 가공조립형의 4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해보았다. 각 유형별 입지특성과 세부 업종은 <표 3-19>와 같다.

<표 3-19> 산업의 입지특성에 따른 구분 내역

| 유형           | 입지특성                                                                          | 세부업종                                                                                                                                         |
|--------------|-------------------------------------------------------------------------------|----------------------------------------------------------------------------------------------------------------------------------------------|
| 소비지입지형<br>산업 | - 대도시지역에의<br>입지성향이 강함                                                         | 17 섬유제품, 18 의복 및 모피제품, 19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36 가구 및 기타제조업                                                  |
| 원자재입지형<br>산업 | - 원부자재의 산지<br>또는 조달이 용이한<br>지역에 입지<br>- 전국에 걸쳐 비교적<br>고르게 분산하는 경향             | 15 음식료품, 16 담배,<br>20 목재 및 나무제품,<br>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br>26 비금속광물제품                                                                          |
| 기초소재형<br>산업  | - 입해지역의 대규모<br>산업단지에 주로 입지                                                    | 23 코크스 석유정제품, 24 화합물 및<br>화학제품, 27 제1차금속,<br>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 가공조립형<br>산업  | - 입지적 제약으로부터<br>상대적으로 자유로운<br>산업(foot-loose industry)<br>- 일정지역에의<br>집적성향이 강함 | 28 조립금속제품, 29 기타 기계 및<br>장비, 30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br>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32<br>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33 의료, 정밀,<br>광학기기,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35<br>기타 운송장비 |

자료: 민경휘, 김영수,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2003

위의 기준에 따라 권역별 제조업 입지특성을 보면,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 제품’,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 대도시예의 입지성향이 강한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동북권에서,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 입지적 제약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일정지역예의 집적성향이 강한 가공조립형 산업은 서남권에서 활성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20> 동북권과 서남권의 입지특성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명, (%)

| 구 분       | 사업체           |                | 종사자            |                 |
|-----------|---------------|----------------|----------------|-----------------|
|           | 동북권           | 서남권            | 동북권            | 서남권             |
| 소비지입지형 산업 | 3,434 (52.0)  | 4,416 (28.2)   | 24,898 (58.6)  | 38,119 (32.6)   |
| 원자재입지형 산업 | 711 (10.8)    | 1,453 (9.3)    | 3,079 (7.2)    | 8,030 (6.9)     |
| 기초소재형 산업  | 126 (1.9)     | 535 (3.4)      | 847 (2.0)      | 8,987 (7.7)     |
| 가공조립형 산업  | 2,339 (35.4)  | 9,281 (59.2)   | 13,679 (32.2)  | 61,867 (52.9)   |
| 합계        | 6,610 (100.0) | 15,685 (100.0) | 42,503 (100.0) | 117,003 (100.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 (2) 변화추세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동북권의 사업체수는 6,720개에서 6,610개로 1.6% 감소한 것에 비해 종사자수는 25.1%로 대폭 감소했으며 동기간 동안 서남권의 사업체수는 16,694개에서 15,685개로 6.0%, 종사자수는 200,333명에서 117,003명으로 41.6% 감소하였다.

서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수의 비중은 동북권과 서남권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비중은 동북권은 1995년 7.8%에서 2005년 9.0%로 증가했으나 서남권은 27.5%에서 24.7%로 오히려 감소했다.

<표 3-21> 동북권과 서남권의 제조업 변화

단위: 개, 명, (%)

| 구 분 | 사업체               |                   |                   |                | 종사자                |                    |                    |                |
|-----|-------------------|-------------------|-------------------|----------------|--------------------|--------------------|--------------------|----------------|
|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 동북권 | 6,720<br>(8.2)    | 6,743<br>(9.3)    | 6,610<br>(9.4)    | -1.6           | 56,781<br>(7.8)    | 48,999<br>(8.6)    | 42,503<br>(9.0)    | -25.1          |
| 서남권 | 16,694<br>(20.5)  | 15,119<br>(20.8)  | 15,685<br>(22.4)  | -6.0           | 200,333<br>(27.5)  | 132,145<br>(23.2)  | 117,003<br>(24.7)  | -41.6          |
| 서울시 | 81,557<br>(100.0) | 72,754<br>(100.0) | 69,982<br>(100.0) | -14.2          | 729,057<br>(100.0) | 568,421<br>(100.0) | 473,643<br>(100.0) | -35.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입지특성에 따른 권역별 생산구조의 변화추이를 보면 동북권은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제조업 전체대비 비중이 1995년에서 50.4%에서 2000년 49.1%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5년 52.0%로 증가하였다. 원자재입지형 산업과 기초소재형 산업은 10년간 큰 변화가 없고, 가공조립형 산업은 1995년 37.1%에서 2005년에는 35.4%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동북권의 전체 제조업체 수가 6,720에서 6,610개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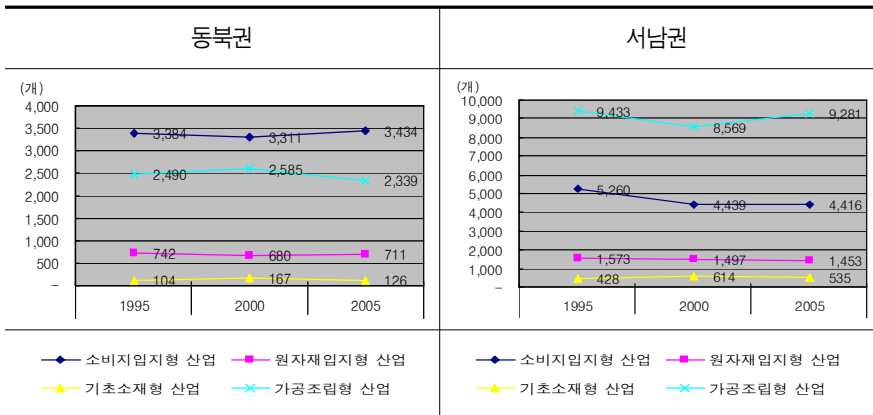
서남권은 가공조립형 산업이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제조업 전체대비 비중이 1995년 56.5%에서 2005년 59.2%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지입지형 산업은 1995년 31.5%에서 2005년엔 28.2%로 점차 감소하고 있어 동북권의 생산구조 변화추이와는 상반된 양상을 띠고 있다.

<표 3-22> 입지특성별 제조업 사업체수 변화추이

단위 : 개, %

| 유형        | 동북권              |                  |                  | 서남권               |                   |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 소비지입지형 산업 | 3,384<br>(50.4)  | 3,311<br>(49.1)  | 3,434<br>(52.0)  | 5,260<br>(31.5)   | 4,439<br>(29.4)   | 4,416<br>(28.2)   |
| 원자재입지형 산업 | 742<br>(11.0)    | 680<br>(10.1)    | 711<br>(10.8)    | 1,573<br>(9.4)    | 1,497<br>(9.9)    | 1,453<br>(9.3)    |
| 기초소재형 산업  | 104<br>(1.5)     | 167<br>(2.5)     | 126<br>(1.9)     | 428<br>(2.6)      | 614<br>(4.1)      | 535<br>(3.4)      |
| 가공조립형 산업  | 2,490<br>(37.1)  | 2,585<br>(38.3)  | 2,339<br>(35.4)  | 9,433<br>(56.5)   | 8,569<br>(56.7)   | 9,281<br>(59.2)   |
| 합계        | 6,720<br>(100.0) | 6,743<br>(100.0) | 6,610<br>(100.0) | 16,694<br>(100.0) | 15,119<br>(100.0) | 15,685<br>(100.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그림 3-16>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사업체수 변화추이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보면 입지특성별 생산구조 변화의 차이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 동북권이 소비지입지형 산업 비중은 1995년 46.8%에서 2005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고, 가공조립형 산업은 1995년 37.5%에서 2005년에는 32.2%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서남권은 제조업 전체대비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이 1995년 47.9%에서 2005년 52.9%로 점차 증가하였는데 사업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비중이 감소한 데 비해 종사자수의 비중은 1995년 31.3%에서 2005년엔 32.6%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북권과 서남권 모두 원자재입지형 산업과 기초소재형 산업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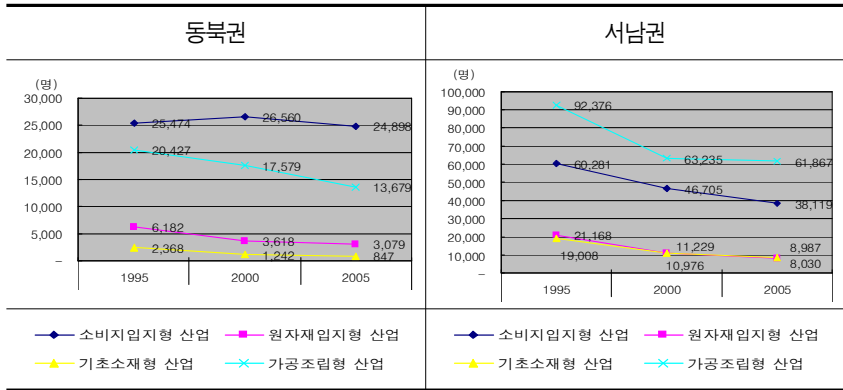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권역별로 다른 산업이 발달해 있으며 성장하고 쇠퇴하고 있는 산업이 뚜렷이 구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23>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명, (%)

| 유형(종사자수)  | 동북권               |                   |                   | 서남권                |                    |                    |
|-----------|-------------------|-------------------|-------------------|--------------------|--------------------|--------------------|
|           | 1995              | 2000              | 2005              | 1995               | 2000               | 2005               |
| 소비지입지형 산업 | 25,474<br>(46.8)  | 26,560<br>(54.2)  | 24,898<br>(58.6)  | 60,281<br>(31.3)   | 46,705<br>(35.3)   | 38,119<br>(32.6)   |
| 원자재입지형 산업 | 6,182<br>(11.4)   | 3,618<br>(7.4)    | 3,079<br>(7.2)    | 21,168<br>(11.0)   | 11,229<br>(8.5)    | 8,030<br>(6.9)     |
| 기초소재형 산업  | 2,368<br>(4.3)    | 1,242<br>(2.5)    | 847<br>(2.0)      | 19,008<br>(9.9)    | 10,976<br>(8.3)    | 8,987<br>(7.7)     |
| 가공조립형 산업  | 20,427<br>(37.5)  | 17,579<br>(35.9)  | 13,679<br>(32.2)  | 92,376<br>(47.9)   | 63,235<br>(47.9)   | 61,867<br>(52.9)   |
| 합계        | 54,451<br>(100.0) | 48,999<br>(100.0) | 42,503<br>(100.0) | 192,833<br>(100.0) | 132,145<br>(100.0) | 117,003<br>(100.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그림 3-17> 입지특성별 제조업의 종사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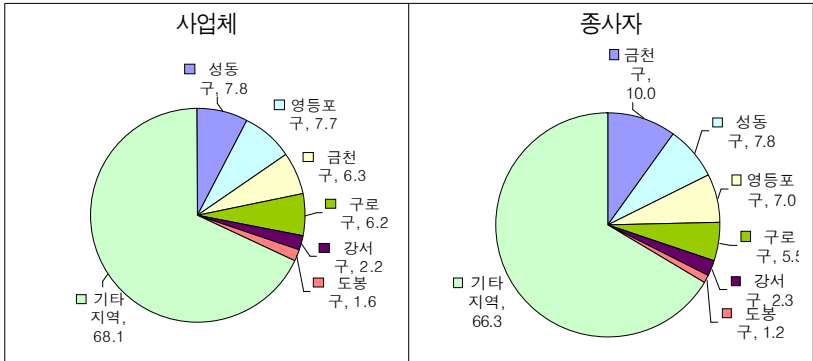
#### 4) 자치구별 산업의 특성

##### (1) 현황 및 주요 업종

###### ■ 전체 제조업의 자치구별 분포

서울의 제조업 사업체 69,982개의 준공업지역 구별 분포를 살펴보면, 성동구에 5,493개(7.8%), 영등포구에 5,395개(7.7%), 금천구에 4,406개 (6.3%), 구로구에 4,364개 (6.2%), 강서구에 1,520개(2.2%), 도봉구에 1,117개(1.6%)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수는 전체 제조업 종사자 473,643명중 금천구에 47,198명(10.0%), 성동구에 36,760명(7.8%), 영등포구에 33,007명(7.0%), 구로구에 26,137명(5.5%), 강서구에 10,661명(2.3%), 도봉구에 5,743명(1.2%)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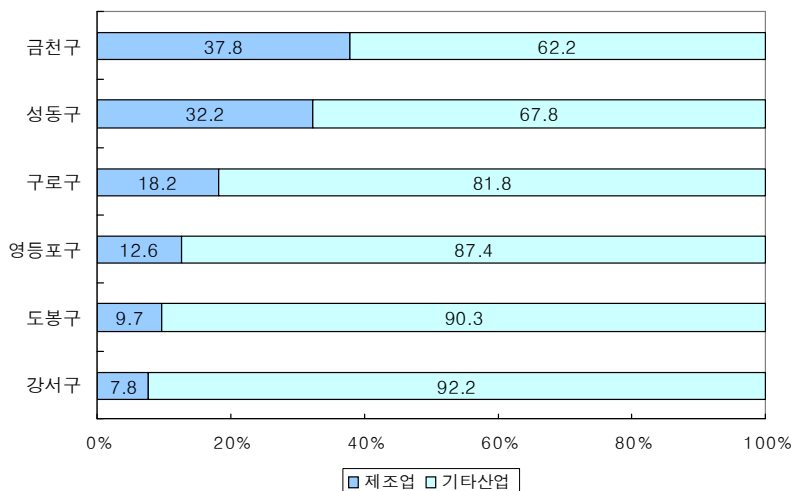


<그림 3-18> 제조업에 대한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2005년)

#### ■ 자치구별 제조업의 비중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구는 금천구로 금천구의 전체 산업종사자 124,704명중에서 47,198명이 제조업에 종사하여 37.8%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는 전체 114,087명중에서 36,760명(32.2%)이 제조업에 종사하며, 구로구는 143,568명중 26,137명(18.2%), 영등포구는 261,492명중 33,007명(12.6%), 도봉구는 59,508명중 5,743명(9.7%), 강서구는 137,258명중 10,661명(7.8%)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9> 준공업지역 각 구별 제조업 비중 현황(2005년, 종사자기준)

#### ■ 자치구별 제조업 업종의 특화도

서울시 제조업의 공간적 집중성 및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 서울시 사업체의 자치구별 산업 특화도를 나타내는 입지상계수를 분석하였다. 준공업지역을 중심으로 1.5이상의 특화도를 보이는 업종을 살펴보면 <표 3-24>과 같다.

자치구별로 나름대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동북권인 도봉구와 성동구는 ‘섬유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등 생활관련 제조업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서남권인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등과 같은 기반 기초적 제조업과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와 같은 첨단 제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24> 준공업지역의 자치구별 제조업 특화도(1.5이상)

| 구분   | 사업체수                                                                                                                                                                                                                                           | 종사자수                                                                                                                                                                                               |
|------|------------------------------------------------------------------------------------------------------------------------------------------------------------------------------------------------------------------------------------------------|----------------------------------------------------------------------------------------------------------------------------------------------------------------------------------------------------|
| 강서구  | 음·식료품 제조업 1.91<br>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0<br>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2<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79<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77<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41<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38                                                                | 음·식료품 제조업 1.66<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7<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2.01<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13<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5                                                                       |
| 구로구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99<br>제1차 금속산업 2.38<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16<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4<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27<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67<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52<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42<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72<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81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86<br>제1차 금속산업 1.77<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27<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9<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3.04<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92<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0                                 |
| 금천구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76<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10<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37<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11<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92<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37<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8<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58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5<br>제1차 금속산업 1.70<br>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2.71<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2.08<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93<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5<br>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11<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88 |
| 도봉구  | 음·식료품 제조업 1.87<br>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2.97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3.10<br>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09                                                                                                                                                |
| 성동구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2.86<br>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9<br>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59<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20<br>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3                                                                                                                              |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4.11<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53                                                                                                                                                         |
| 영등포구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73<br>제1차 금속산업 3.70<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79<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84<br>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2.87<br>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62<br>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6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22<br>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60<br>제1차 금속산업 1.88<br>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77<br>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6<br>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1.94<br>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79                                |

주: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 (2) 변화추세

서울 자치구별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은 1995년에는 금천구가 53.4%로 가장 높았으나 2005년에는 그 비중이 37.8%로 감소했으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구는 구로구로 1995년 35.5%에서 2005년 18.2%로 17.3%p 감소했다.

강서구의 전산업 대한 제조업의 비중은 1995년 17.6%에서 2005년에는 7.8%로 그 하락세가 두드러진다.

<표 3-25>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 변화-종사자

단위: 명, (%)

|      | '95       |         |             | '00       |         |             | '05       |         |             |
|------|-----------|---------|-------------|-----------|---------|-------------|-----------|---------|-------------|
|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br>대비비중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br>대비비중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br>대비비중 |
| 강서구  | 109,209   | 19,212  | 17.6        | 118,258   | 13,990  | 11.8        | 137,258   | 10,661  | 7.8         |
| 구로구  | 118,786   | 42,181  | 35.5        | 113,619   | 26,908  | 23.7        | 143,568   | 26,137  | 18.2        |
| 금천구  | 116,220   | 62,095  | 53.4        | 103,425   | 51,493  | 49.8        | 124,704   | 47,198  | 37.8        |
| 도봉구  | 54,502    | 11,625  | 21.3        | 57,324    | 8,115   | 14.2        | 59,508    | 5,743   | 9.7         |
| 성동구  | 112,146   | 45,156  | 40.3        | 115,256   | 40,884  | 35.5        | 114,087   | 36,760  | 32.2        |
| 영등포구 | 326,945   | 76,845  | 23.5        | 249,862   | 39,754  | 15.9        | 261,492   | 33,007  | 12.6        |
| 서울시  | 3,874,597 | 729,057 | 18.9        | 3,574,824 | 568,421 | 15.9        | 3,843,010 | 473,643 | 12.3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도봉구, 성동구는 1995년에서 2005년 사이 전체산업의 종사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모두 감소하고 있다. 반면, 영등포구는 전체 산업 종사자수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의 종사자수도 감소하고 있다.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줄고 있지만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과 ‘연구 및 개발업’의 특화도가 높고 특히 영등포구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등 사업관련 서비스업이 발달되어 있어 산업구조가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제3절 요약

### ■ 서울의 산업구조

지금까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의 분포특성, 그리고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제조업의 지역별 분포특성을 살펴보았다.

서울의 산업구조는 지난 10년(1995~2005)동안 큰 변화를 보였는데, 우선 서울의 총 사업체수는 708,025개에서 741,229개로 33,204개(4.7%)가 증가한 반면, 종사자수는 3,874,597명에서 3,843,010명으로 31,587명(0.8%)이 감소하여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있다.

산업별 변화추이를 살펴본 결과, 지난 10년간 건설업과 제조업의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제조업은 동 기간 동안 729,057명에서 473,643명으로 35.0%나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동 기간에 제조업은 18.8%에서 12.3%로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사업서비스와 통신업은 종사자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사업서비스업은 1995년 229,942명에서 2005년에는 540,908명으로 135.2% 증가했고, 통신업은 21,920명에서 44,860명으로 104.7%나 증가하였다. 또한 비중 역시 1995년에는 각각 5.9%, 0.6%였으나 2005년에는 14.1%, 1.2%로 증가하였다.

특히, 사업서비스업을 좀 세분화 살펴보면,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323%), 연구 및 개발업(12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 사업 지원 서비스업(373%)의 성장을 보인다. 또한 사업서비스업 중에서 업체규모가 가장 큰 업종은 1995년에는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으로 업체당 종사자가 21.1명이었으나, 2005년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이 31.1명으로 1995년의 16.5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업체규모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 10년(1995~2005)동안 서울의 산업구조는 전통제조업의 쇠퇴와 사업서비스업의 성장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업체당 종사자수로 본 업체 규모가 제조업은 10년 전에 비해 작아지고 사업서비스업은 커졌다는 것이다. 지난 10년 사이 10명 미만의 제조업 소규모업체들의 비중은 더 늘어났으며 종사자수가 500명 이상인 대규모 제조업체들의 수는 반 이상이 줄어들었다. 반면 사업서비스업은 소규모업체는 줄어들고 10명 이상의 업체는 증가하여 제조업과는 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 생산기능만을 수행하던 대규모 전통제조업체의 기능이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해외 및 지방으로 아웃소싱되어 제조업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 서울의 제조업 구조

서울은 2005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전체 종사자 3,843,010명 중 473,643명(12.3%)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과 2005년의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광업·제조업통계조사(서울 5인 이상 공장) 자료와 1998년과 2003년의 산업총조사(서울 1인 이상 공장) 통계자료를 이용해 분석했을 때, 먼저 사무적 활동과 직접 생산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의 결과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크게 감소했으며 서울 5인 이상 공장의 수는 약간 감소, 공장 종사자수는 크게 감소했고, 서울 1인 이상 공장 수는 미미한 감소율을 보이고 공장 종사자수는 오히려 증가하여 서울 전체 제조업종사자와 5인 이상 공장의 종사자수가 감소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는 전체 제조업 활동 중 기획, 생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영세한 공장의 생산 활동은 여전히 활발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대규모 공장은 지방이나 해외로 이전하지만 함께 이주하기 어려운 중공업들은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고 혁신공간으로서의 집적이익이 있는 준공업지역에서 창업을 하게 되면서 영세 소규모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1인 이상 공장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같은 첨단업종과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과 같은 기반기술산업, 음·식료품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과 같은 생활지원형 산업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준공업지역의 산업구조

영등포, 구로, 금천, 성동, 강서, 도봉 6개 구를 묶어 준공업지역에서의 산업구조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2005년 기준으로 준공업지역의 총 사업체수는 161,832개, 총 종사자수는 840,617명이며 이는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모두 서울 전체의 22%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종사자수는 ‘제조업’의 비중이 159,506명(19.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매 및 소매업’이 151,686명(18.0%), ‘사업서비스업’이 112,617명(13.4%), ‘운수업’이 70,885명(8.4%) 순으로 나타났다.

준공업지역의 사업체수는 1995년 150,317개에서 2005년에는 161,832개로 10년 동안 7.7%(11,515개)가 증가하여 서울의 증가율인 4.7%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동 기간에 서울은 종사자수가 0.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은 오히려 0.3%(2,809명) 증가하여 서울의 산업성장에서 준공업지역이 담당하는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서울 전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제조업(-38.0%), 건설업(-29.0%)등의 종사자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사업서비스업(213.3%),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63.8%),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43.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42.6%), 부동산 및 임대업(27.3%), 교육서비스업(23.4%), 운수업(20.0%), 숙박 및 음식점업(18.9%) 등의 3차 산업 종사자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 ■ 준공업지역의 제조업구조

2005년을 기준으로 준공업지역에는 서울 제조업 사업체 69,982개의 31.9%인 22,295개 사업체와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 473,643명의 33.7%인 159,506명이 분포

해 있다.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수는 1995년 23,414개에서 2000년 21,862개로 크게 감소하다가 2005년에는 다시 22,295개로 증가추세에 있다. 종사자수는 10년 동안 257,114명에서 159,506명으로 38.0%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제조업 종사자수 감소율인 35.0%보다도 3.0%p 높은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의 순으로 사업체수에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종사자수는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등에서 높은 비중을 보였다.

한편, 지난 10년간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사업체수가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 비중은 1995년에서 2000년까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 10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모두 증가한 업종은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과 같은 첨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입지상계수를 분석해보면 대체로 첨단 제조업과 기반기술적인 산업이 준공업지역에서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권역별 제조업 구조

지리적 차이를 고려한 권역별 분석을 위해 도봉구와 성동구를 동북권으로, 강서구·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를 서남권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동북권은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의 소비지입지형 산업이, 서남권은 ‘조립금속 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서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사업체수의 비중은 동북권과 서남권 모두 증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의 비중은 동북권은 1995년 7.8%에서 2005년 9.0%로 증가했

으나 서남권은 27.5%에서 24.7%로 오히려 감소했다.

1995년에서 2005년까지 10년 동안의 권역별 생산구조의 변화를 살펴보면 동북권은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으며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감소했다. 서남권은 가공조립형 산업의 비중은 증가하고 소비지입지형 산업의 비중은 종사자수에 있어서는 증가했지만 사업체수에 있어서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제조업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서울 전체는 1995년 8.9명에서 2005년 6.8명으로 2.2명 줄고, 동북권은 1995년 8.4명에서 2005년 6.4명으로 2.0명 줄어든데 비해, 서남권은 1995년 12.0명에서 2005년에는 7.5명으로 4.5명이 줄어 서남권의 제조업체 규모가 여전히 크긴 하지만 업체의 소규모화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화도 분석결과, 동북권은 ‘섬유제품’, ‘가죽·가방 및 신발’ 등 생활관련 제조업이 우세를 보이고 있고,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는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 등과 같은 기반 기초적 제조업과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와 같은 첨단제조업에서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다.

## 제Ⅳ장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 분석

제1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설문조사

제2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면담조사

제3절 요약 및 정책 과제

이 장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관점에서 준공업지역 내 기업들의 연구개발, 생산, 판매 등의 활동 실태와 기업 간, 기업과 지원기관 간, 산학연 간 협력적 네트워크의 실태 등을 파악하도록 한다. 조사와 분석은 산업클러스터의 개념에 입각해서 설계하고 분석해서 정책과제를 도출한다.

## 제1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설문조사

### 1. 조사의 개요

서울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07년 9월 1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되었으며, 표본의 선정은 임의추출방식(random sampling)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과 업종의 분포를 고려하여 층화표본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을 사용하였다. 1,000개의 예비표본을 추출하였으며, 이중 조사원이 전화로 사전 약속을 하고 방문하여 총 190개의 표본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조사원의 직접 방문조사 또는 응답자와의 전화통화 후 팩스를 통한 조사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체의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과 경영상태, 집적경제성 여부, 산학협력 및 기술개발, 디자인 활용여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설문조사 응답업체의 업종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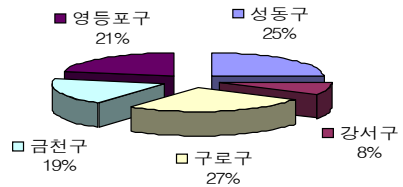
<표 4-1> 응답업체의 업종별 구성

| 업종             | 업체수(개) | 비중(%) |
|----------------|--------|-------|
| 음·식료품제조업       | 8      | 4.2   |
|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 30     | 15.8  |
|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 21     | 11.1  |
|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 12     | 6.3   |
| 금속관련 제조업       | 29     | 15.3  |
|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 58     | 30.5  |
|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 24     | 12.6  |
|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 2      | 1.1   |
| 기타 제조업         | 6      | 3.2   |
| 합계             | 190    | 100.0 |

응답업체의 소재지는 구로구 26.8%, 성동구 24.7%, 영등포구 21.1%, 금천구 18.9%, 강서구 8.4%순이다.

<표 4-2> 응답업체의 소재지

| 지역   | 업체수(개) | 비중(%) |
|------|--------|-------|
| 성동구  | 47     | 24.7  |
| 강서구  | 16     | 8.4   |
| 구로구  | 51     | 26.8  |
| 금천구  | 36     | 18.9  |
| 영등포구 | 40     | 21.1  |
| 합계   | 190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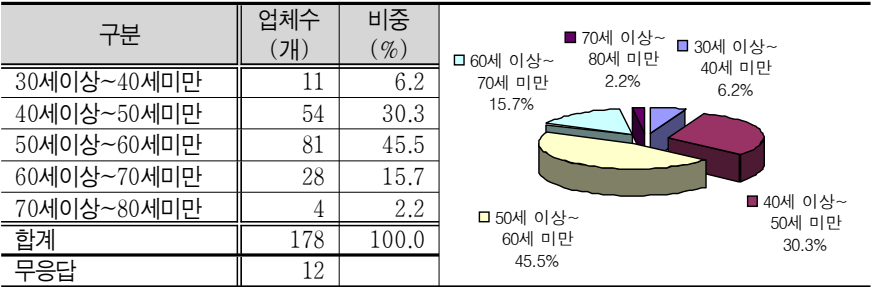


## 2. 업체현황 및 입지여건

### 1) 업체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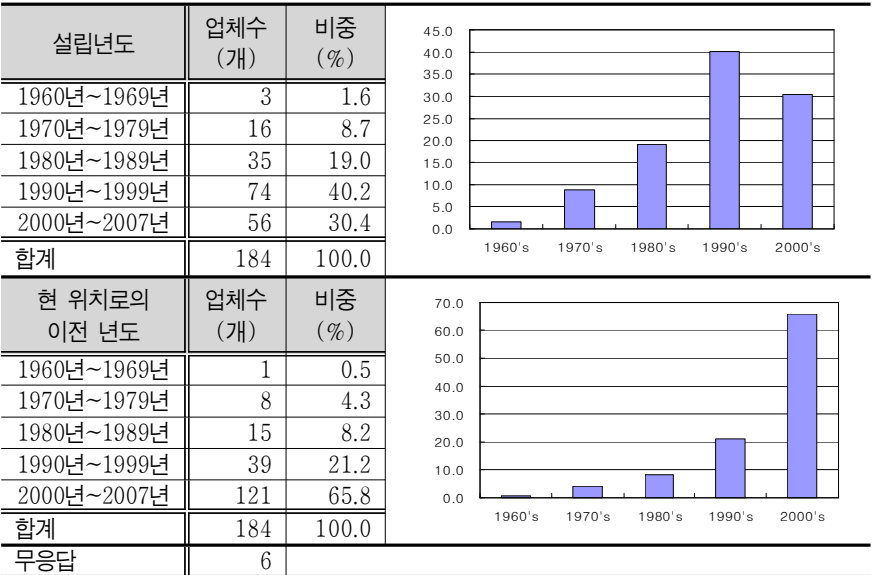
대표자들의 연령대는 50세에서 60세미만이 45.5% (81개 업체)로 가장 많고, 50세 이상이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표 4-3> 응답업체의 대표자 연령



응답업체들의 거의 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설립되었으며(70.6%) 1990년대에 설립된 업체들이 가장 많았고(40.2%), 현 위치로의 이전은 대부분 2000년 이후(65.8%)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고려해 볼 때, 준공업지역은 현재 입지하고 있는 업체들로부터 상당히 매력적인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4-4> 응답업체의 설립년도 및 이전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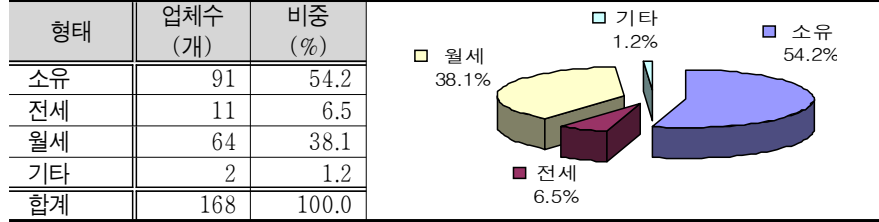
업종별 설립년도 및 이전년도는 음·식료품제조업과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금속관련 제조업, 기타 제조업 등은 대부분 2000년 이전에 설립되었으며,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등 패션성과 첨단성이 높은 업종은 2000년 이후에 설립된 업체가 많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종이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5> 업종별 설립년도 및 이전년도

| 설립년도           | 2000년 이전 |       | 2000년 이후<br>(2000년 포함) |       | 합계     |       |
|----------------|----------|-------|------------------------|-------|--------|-------|
|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 음·식료품제조업       | 6        | 75.0  | 2                      | 25.0  | 8      | 100.0 |
|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 15       | 50.0  | 15                     | 50.0  | 30     | 100.0 |
|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 19       | 90.5  | 2                      | 9.5   | 21     | 100.0 |
|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 9        | 75.0  | 3                      | 25.0  | 12     | 100.0 |
| 금속관련 제조업       | 23       | 79.3  | 6                      | 20.7  | 29     | 100.0 |
|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 41       | 75.9  | 13                     | 24.1  | 54     | 100.0 |
|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 10       | 45.5  | 12                     | 54.5  | 22     | 100.0 |
|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 0        | 0.0   | 2                      | 100.0 | 2      | 100.0 |
| 기타 제조업         | 5        | 83.3  | 1                      | 16.7  | 6      | 100.0 |
| 합계             | 128      | 69.6  | 56                     | 30.4  | 184    | 100.0 |
| 현 위치로의<br>이전년도 | 2000년 이전 |       | 2000년 이후<br>(2000년 포함) |       | 합계     |       |
|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 음·식료품제조업       | 3        | 37.5  | 5                      | 62.5  | 8      | 100.0 |
|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 3        | 10.0  | 27                     | 90.0  | 30     | 100.0 |
|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 9        | 42.9  | 12                     | 57.1  | 21     | 100.0 |
|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 6        | 50.0  | 6                      | 50.0  | 12     | 100.0 |
| 금속관련 제조업       | 13       | 44.8  | 16                     | 55.2  | 29     | 100.0 |
|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 21       | 38.9  | 33                     | 61.1  | 54     | 100.0 |
|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 6        | 27.3  | 16                     | 72.7  | 22     | 100.0 |
|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 0        | 0.0   | 2                      | 100.0 | 2      | 100.0 |
| 기타 제조업         | 2        | 33.3  | 4                      | 66.7  | 6      | 100.0 |
| 합계             | 63       | 34.2  | 121                    | 65.8  | 184    | 1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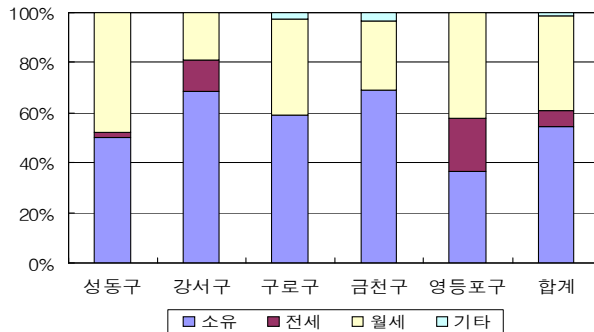
응답업체들의 건물소유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사업장을 소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0%)와 강서구(68.8%)에서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성동구(47.8%)와 영등포구(42.1%)에서 월세를 내고 있다는 비중이 다른 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표 4-6> 응답업체의 건물소유형태



<표 4-7> 지역별 건물소유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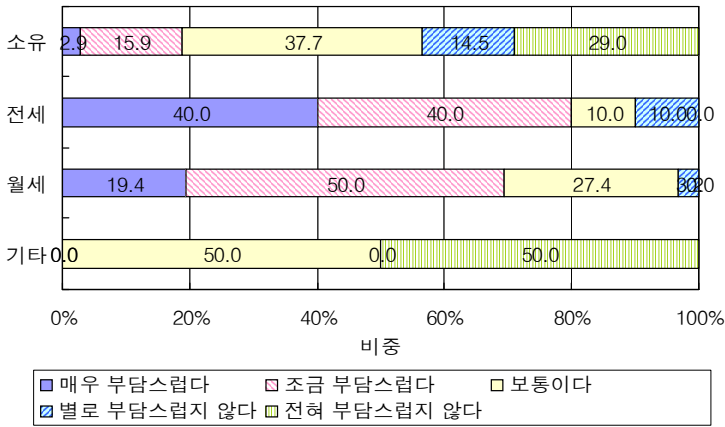
| 형태 | 성동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합계             |
|----|---------------|---------------|---------------|---------------|---------------|----------------|
| 소유 | 23<br>(50.0)  | 11<br>(68.8)  | 23<br>(59.0)  | 20<br>(69.0)  | 14<br>(36.8)  | 91<br>(54.2)   |
| 전세 | 1<br>(2.2)    | 2<br>(12.5)   | 0<br>(0.0)    | 0<br>(0.0)    | 8<br>(21.1)   | 11<br>(6.5)    |
| 월세 | 22<br>(47.8)  | 3<br>(18.8)   | 15<br>(38.5)  | 8<br>(27.6)   | 16<br>(42.1)  | 64<br>(38.1)   |
| 기타 | 0<br>(0.0)    | 0<br>(0.0)    | 1<br>(2.6)    | 1<br>(3.4)    | 0<br>(0.0)    | 2<br>(1.2)     |
| 합계 | 46<br>(100.0) | 16<br>(100.0) | 39<br>(100.0) | 29<br>(100.0) | 38<br>(100.0) | 168<br>(100.0) |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을 별로 느끼고 있지 않지만 전세 및 월세로 이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월세보다는 전세를 이용하는 업체들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건물소유형태에 따른 임대료 부담정도

| 형태 | 임대료 부담정도 |          |      |             |             | 합계    |
|----|----------|----------|------|-------------|-------------|-------|
|    | 매우 부담스럽다 | 조금 부담스럽다 | 보통이다 | 별로 부담스럽지 않다 |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 |       |
| 소유 | 2.9      | 15.9     | 37.7 | 14.5        | 29.0        | 100.0 |
| 전세 | 40.0     | 40.0     | 10.0 | 10.0        | 0.0         | 100.0 |
| 월세 | 19.4     | 50.0     | 27.4 | 3.2         | 0.0         | 100.0 |
| 기타 | 0.0      | 0.0      | 50.0 | 0.0         | 50.0        | 100.0 |
| 합계 | 12.6     | 32.2     | 31.5 | 9.1         | 14.7        | 100.0 |



## 2) 사업형태

사업체의 사업형태를 [제품개발 및 설계], [생산 및 가공], [판매 및 기타]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먼저, 각각의 기능을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총 50개(26.6%)로 생

산 및 가공이 11.2%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 및 기타가 9.0%, 제품개발 및 설계만 하고 있다는 업체도 6.4%에 달했다.

2가지 기능이상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은 29.3%로 그중에서는 생산 및 가공과 판매 및 기타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가장 컸다. 한편, 3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하고 있는 업체들의 비중이 44.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준공업지역의 많은 업체들이 한두가지 기능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품의 개발·설계단계부터 생산·가공 및 판매까지 모든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사업형태(해당 분야 모두 기재)

| 구분          |                      | 업체수(개)     | 비중(%)        |
|-------------|----------------------|------------|--------------|
| 1가지<br>기능수행 | 제품개발 및 설계            | 12         | 6.4          |
|             | 생산 및 가공              | 21         | 11.2         |
|             | 판매 및 기타              | 17         | 9.0          |
| <b>소계</b>   |                      | <b>50</b>  | <b>26.6</b>  |
| 2가지<br>기능수행 | 제품개발 및 설계            | 14         | 7.4          |
|             | 생산 및 가공              |            |              |
|             | 제품개발 및 설계<br>판매 및 기타 | 16         | 8.5          |
|             | 생산 및 가공<br>판매 및 기타   | 25         | 13.3         |
| <b>소계</b>   |                      | <b>55</b>  | <b>29.3</b>  |
| 3가지<br>기능수행 | 제품개발 및 설계            |            |              |
|             | 생산 및 가공              | 83         | 44.1         |
|             | 판매 및 기타              |            |              |
| <b>소계</b>   |                      | <b>83</b>  | <b>44.1</b>  |
| <b>합계</b>   |                      | <b>188</b> | <b>100.0</b> |
| 무응답         |                      | 2          |              |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업체 중 66.5%에 달하는 업체에서 제품개발 및 설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업체들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3) 입지여건

#### (1) 현 위치에서의 입지 요인

서울 준공업지역 업체들의 입지 요인으로서는 ‘주거래처와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때문’, ‘동종업체의 집중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와 같이 거래업체간, 동종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에 입지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48.9%를 차지해 준공업지역의 산업네트워크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실 확보와 교통·통신연락의 편리 때문이라는 응답 역시 높게 나타나 물리적 환경과 교통·정보통신 인프라가 잘 형성되어 있어 사업하기에 좋은 조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요인으로서는 재산세 감면, 수도사용 용이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4-10> 입지요인(3개까지 중복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주거래처와의 지리적 접근성 때문  | 88       | 19.2  |
| 관련 관공서와의 접근성 때문    | 14       | 3.1   |
| 협력업체와의 접근성 때문      | 88       | 19.2  |
| 동종업체의 집중 때문        | 48       | 10.5  |
| 필요한 노동력 확보 때문      | 42       | 9.2   |
|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실 확보 때문 | 70       | 15.3  |
| 교통·통신연락의 편리 때문     | 80       | 17.5  |
| 필요한 정보획득의 용이 때문    | 19       | 4.1   |
| 기타                 | 9        | 2.0   |
| 합계                 | 458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3        |       |

#### (2) 입지 중요도 및 만족도

서울의 준공업지역 업체들은 입지에 있어서 협력업체(거래처)와의 접근성,

교통·통신인프라 수준, 사업비용(건물임대료, 임금, 시설사용료), 유통·물류인프라 수준 등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25.4%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낮았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제품개발과 설계에 높은 비중을 두는 기업의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기존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신기술의 창업을 촉진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입지환경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사업비용(건물임대료, 임금, 시설사용료)등은 그 중요도는 높은 반면 만족도가 낮은 항목으로 나타났다. 특히, 쾌적한 주변환경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19.6%로 입지환경에 대한 항목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쾌적하고 효율적이며 기능적인 기업 환경 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생산 및 경영환경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조사결과 세제 및 보조금 지원, 행정·금융서비스 등의 항목은 그 중요도가 높으나 세제 및 보조금 지원에 대한 불만족 비율(26.5%)이 높게 나타났으며 행정·금융서비스는 불만족 비율이 높진 않으나 만족비율 역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력업체와의 접근성은 중요도와 만족도가 둘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준공업지역이 산업집적지로서 기업들의 생산연계가 잘 되고 있음을 입증해준다.

중요도와 만족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만족도가 중요도보다 높은 점수를 가진 항목은 전력·용수 등 생산인프라 수준이 유일했으며, 세제 및 보조금 지원,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쾌적한 주변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그 중요도에 비해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중요도 및 만족도(비율, %)

| 일반적 여건                            |                  | 중요도             |           |      |      |          |       | 환산<br>점수 |
|-----------------------------------|------------------|-----------------|-----------|------|------|----------|-------|----------|
|                                   |                  | 전혀<br>중요치<br>않음 | 중요치<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합계    |          |
|                                   |                  |                 |           |      |      |          |       |          |
| 입지<br>환경에<br>대한<br>중요도            | 사업비용(임대료,임금등)    | 1.1             | 7.0       | 33.0 | 37.8 | 21.1     | 100.0 | 3.71     |
|                                   | 교통·통신인프라 수준      | 0.5             | 3.7       | 30.3 | 51.1 | 14.4     | 100.0 | 3.75     |
|                                   | 전력·용수 등 생산인프라 수준 | 2.7             | 8.6       | 41.4 | 35.5 | 11.8     | 100.0 | 3.45     |
|                                   | 유통·물류인프라 수준      | 1.6             | 4.4       | 35.5 | 46.4 | 12.0     | 100.0 | 3.62     |
|                                   |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 3.3             | 9.3       | 31.7 | 38.3 | 17.5     | 100.0 | 3.57     |
|                                   | 쾌적한 주변 환경        | 2.7             | 7.6       | 40.0 | 38.9 | 10.8     | 100.0 | 3.48     |
| 생산<br>및<br>경영<br>환경에<br>대한<br>중요도 | 환경관련 규제          | 3.8             | 12.5      | 41.8 | 32.6 | 9.2      | 100.0 | 3.31     |
|                                   | 고객 및 시장 접근성      | 3.3             | 7.6       | 34.2 | 39.1 | 15.8     | 100.0 | 3.57     |
|                                   | 노동력의 확보          | 3.2             | 7.0       | 42.2 | 34.1 | 13.5     | 100.0 | 3.48     |
|                                   |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     | 15.5            | 23.8      | 35.4 | 19.9 | 5.5      | 100.0 | 2.75     |
|                                   | 협력업체(거래처)와의 접근성  | 1.1             | 3.8       | 30.3 | 48.1 | 16.8     | 100.0 | 3.76     |
|                                   | 행정·금융등지원서비스      | 4.3             | 6.0       | 32.1 | 43.5 | 14.1     | 100.0 | 3.57     |
|                                   | 동종업종의 집적도        | 2.8             | 12.2      | 48.3 | 25.6 | 11.1     | 100.0 | 3.30     |
|                                   | 세제 및 보조금 지원      | 4.9             | 5.4       | 33.7 | 37.0 | 19.0     | 100.0 | 3.60     |
|                                   | 최신 정보교류·획득 용이    | 2.7             | 7.7       | 44.3 | 36.6 | 8.7      | 100.0 | 3.41     |
| 전국적 집적유명세와 홍보유리                   | 5.5              | 9.4             | 49.7      | 26.5 | 8.8  | 100.0    | 3.24  |          |
| 일반적 여건                            |                  | 만족도             |           |      |      |          |       | 환산<br>점수 |
|                                   |                  | 매우<br>불만        | 불만        | 보통   | 만족   | 매우<br>만족 | 합계    |          |
|                                   |                  |                 |           |      |      |          |       |          |
| 입지<br>환경에<br>대한<br>중요도            | 사업비용(임대료,임금등)    | 3.2             | 8.6       | 53.5 | 32.4 | 2.2      | 100.0 | 3.22     |
|                                   | 교통·통신인프라 수준      | 1.6             | 3.7       | 48.9 | 43.1 | 2.7      | 100.0 | 3.41     |
|                                   | 전력·용수 등 생산인프라 수준 | 1.1             | 3.3       | 48.4 | 41.8 | 5.4      | 100.0 | 3.47     |
|                                   | 유통·물류인프라 수준      | 0.5             | 7.6       | 51.1 | 35.9 | 4.9      | 100.0 | 3.37     |
|                                   |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 3.3             | 14.4      | 57.8 | 22.8 | 1.7      | 100.0 | 3.05     |
|                                   | 쾌적한 주변 환경        | 2.2             | 17.4      | 56.5 | 20.7 | 3.3      | 100.0 | 3.05     |
| 생산<br>및<br>경영<br>환경에<br>대한<br>중요도 | 환경관련 규제          | 3.2             | 10.3      | 60.0 | 24.3 | 2.2      | 100.0 | 3.12     |
|                                   | 고객 및 시장 접근성      | 2.2             | 8.2       | 54.9 | 30.4 | 4.3      | 100.0 | 3.27     |
|                                   | 노동력의 확보          | 2.2             | 9.2       | 65.9 | 21.1 | 1.6      | 100.0 | 3.11     |
|                                   |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     | 2.9             | 7.0       | 67.4 | 17.4 | 5.2      | 100.0 | 3.15     |
|                                   | 협력업체(거래처)와의 접근성  | 1.6             | 3.8       | 52.4 | 37.8 | 4.3      | 100.0 | 3.39     |
|                                   | 행정·금융등지원서비스      | 1.1             | 13.0      | 54.6 | 29.7 | 1.6      | 100.0 | 3.18     |
|                                   | 동종업종의 집적도        | 0.0             | 6.0       | 73.6 | 18.7 | 1.6      | 100.0 | 3.16     |
|                                   | 세제 및 보조금 지원      | 3.8             | 22.7      | 57.8 | 15.1 | 0.5      | 100.0 | 2.86     |
|                                   | 최신 정보교류·획득 용이    | 1.1             | 6.0       | 68.1 | 23.6 | 1.1      | 100.0 | 3.18     |
| 전국적 집적유명세와 홍보유리                   | 0.6              | 7.2             | 69.6      | 20.4 | 2.2  | 100.0    | 3.17  |          |

### (3) 사업전망 및 업종전환 의향

현재 입지한 지역에서의 사업전망이 힘든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8%, 보통이라는 응답은 47.9%, 유망하다는 응답은 22.3%로 나타나 70% 정도는 현 지역에서의 사업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현 입지에서의 향후 사업전망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매우 힘들다  | 13     | 6.9   |
| 힘들다     | 43     | 22.9  |
| 보통이다    | 90     | 47.9  |
| 유망하다    | 38     | 20.2  |
| 매우 유망하다 | 4      | 2.1   |
| 합계      | 190    | 100.0 |
| 무응답     | 2      |       |

음·식료품제조업(37.5%)과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42.8%),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50.0%), 금속관련 제조업(48.3%)은 사업전망이 힘들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과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등에서는 유망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패션지향적이고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첨단산업들의 사업전망이 밝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업종별 사업전망

단위: 업체수, (%)

| 업종             | 매우<br>힘들다 | 힘들다  | 보통<br>이다 | 유망<br>하다 | 매우<br>유망하다 | 합계    |
|----------------|-----------|------|----------|----------|------------|-------|
| 음·식료품제조업       | 25.0      | 12.5 | 62.5     | 0.0      | 0.0        | 100.0 |
|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 3.3       | 20.0 | 53.3     | 20.0     | 3.3        | 100.0 |
|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 23.8      | 19.0 | 52.4     | 4.8      | 0.0        | 100.0 |
|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 8.3       | 41.7 | 50.0     | 0.0      | 0.0        | 100.0 |
| 금속관련 제조업       | 6.9       | 41.4 | 41.4     | 10.3     | 0.0        | 100.0 |
|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 3.4       | 20.7 | 41.4     | 31.0     | 3.4        | 100.0 |
|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 0.0       | 9.1  | 50.0     | 36.4     | 4.5        | 100.0 |
|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 0.0       | 0.0  | 50.0     | 50.0     | 0.0        | 100.0 |
| 기타 제조업         | 0.0       | 16.7 | 66.7     | 16.7     | 0.0        | 100.0 |
| 합계             | 6.9       | 22.9 | 47.9     | 20.2     | 2.1        | 100.0 |

현 입지에서의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응답한 56개 업체 가운데 20%에 가까운 11개의 업체가 업종전환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14> 업종전환 의향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음    | 11     | 19.6  |
|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 45     | 80.4  |
| 합계               | 56     | 100.0 |

전체 190개 업체 중 46.3%에 달하는 88개 업체가 이전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92개 업체는 이전 의향이 없다고 응답해 이전의향이 있는 업체와 없는 업체가 반반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15> 이전 의향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이전 의향 있다 | 88     | 46.3  |
| 이전 의향 없다 | 92     | 48.4  |
| 무응답      | 10     | 5.3   |
| 합계       | 190    | 100.0 |

이전 의향이 있는 88개 업체들이 이전을 원하는 지역으로는 과반수 이상이 경기도, 인천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서울시 내의 다른 지역이 33.0%, 수도권 외 국내지역이 8.0%, 해외가 4.5%의 응답률을 보였다. 그 중에서도 해외로의 이전을 원하는 업체들을 중국, 북한, 베트남 등으로의 이전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서울시 내 다른 지역           | 29     | 33.0  |
| 경기도, 인천 등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 48     | 54.5  |
| 수도권 외 국내 지역           | 7      | 8.0   |
| 해외                    | 4      | 4.5   |
| 합계                    | 88     | 100.0 |

주: 이전의향이 있는 88개 업체 대상

이전을 원하는 이유로는 첫째,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25.2%)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작업장이 좁고 도로나 주차장이 열악해서’(19.9%), ‘건물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17.0%)’ 라는 응답이 2, 3위로 나타나 준공업지역의 물리적인 환경개선과 주거지의 개발로 인해 상승한 지가 및 임대료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요 거래업체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기 위해’라는 응답이 11.7%에 달해 준공업지역 업체의 외부이탈로 인해 연계된 많은 업체들이 거래업체와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기타 응답으로는 관련 정보가 취약해서, 절세를 위해서라는 의견 등이 있었다.

<표 4-17>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3개까지 중복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건물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 35       | 17.0  |
| 작업장이 좁고 도로나 주차장이 열악해서   | 41       | 19.9  |
|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 19       | 9.2   |
| 주변지역 주민/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 12       | 5.8   |
|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 52       | 25.2  |
| 주요 거래업체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기 위해 | 24       | 11.7  |
| 영업과 관련된 규제가 심해서         | 12       | 5.8   |
| 토지소유자가 용도나 업종을 변경하여     | 5        | 2.4   |
| 기타                      | 6        | 2.9   |
| 합계                      | 206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2        |       |

### 3. 사업여건

#### 1)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

사업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전체 530건의 응답 중 20.6%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14.7%), 자금부족(11.5%), 업체간 경쟁심화(10.9%)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인을 보면 기술개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해서 판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술개발, 마케팅능력 제고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체들은 기술부족(4.7%), 대학·연구소 등 지식지원기관 취약(0.2%), 마케팅능력 부족(5.5%)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표 4-18> 장애요인(3개까지 중복응답)

| 구분        | 총 응답수<br>(건) | 비중<br>(%) | 구분               | 총 응답수<br>(건) | 비중<br>(%) |
|-----------|--------------|-----------|------------------|--------------|-----------|
| 기술부족      | 25           | 4.7       | 정부의 규제           | 17           | 3.2       |
| 임대료 상승    | 26           | 4.9       |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 6            | 1.1       |
| 인건비 상승    | 78           | 14.7      | 업체 간 경쟁심화        | 58           | 10.9      |
| 물류비용 상승   | 45           | 8.5       | 관련기업들의 외부이탈      | 6            | 1.1       |
| 원자재 가격 상승 | 109          | 20.6      | 인프라 여건 불리        | 2            | 0.4       |
| 인력 부족     | 40           | 7.5       | 주민/상인들과의 마찰      | 4            | 0.8       |
| 자금 부족     | 61           | 11.5      | 사업확장 용지 확보 곤란    | 15           | 2.8       |
| 마케팅 능력 부족 | 29           | 5.5       | 대학 연구소 등 자식기업 취약 | 1            | 0.2       |
| 사업관련정보 부족 | 8            | 1.5       |                  |              |           |
| 합계        | 530          | 100.0     | 무응답 업체수          | 2            |           |

## 2) 거래관계 및 협력관계

### (1) 거래업체(수주업체, 발주업체)

업체당 평균 수주업체는 28.0개로 10개 미만의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는 업체들이 38.3%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발주업체는 22.3개로 역시 10개업체 미만이 36.1%로 가장 많았다.

<표 4-19> 거래업체 수

| 구분           | 수주업체   |       | 발주업체   |       |
|--------------|--------|-------|--------|-------|
|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 1개이상~10개미만   | 62     | 38.3  | 56     | 36.1  |
| 10개이상~20개미만  | 34     | 21.0  | 44     | 28.4  |
| 20개이상~30개미만  | 24     | 14.8  | 22     | 14.2  |
| 30개이상~40개미만  | 12     | 7.4   | 12     | 7.7   |
| 40개이상~50개미만  | 7      | 4.3   | 4      | 2.6   |
| 50개이상~100개미만 | 10     | 6.2   | 10     | 6.5   |
| 100개이상~      | 13     | 8.0   | 7      | 4.5   |
| 합계           | 162    | 100.0 | 155    | 100.0 |
| 무응답          | 28     |       | 35     |       |

<표 4-20> 업체당 평균 거래업체수

| 구분              | 수주업체 | 발주업체 | 합계   |
|-----------------|------|------|------|
| 업체당 평균 거래업체수(개) | 28.0 | 22.3 | 25.2 |

거래업체의 분포를 살펴보면, 서울지역 내외 거래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생산 활동은 서울 내 다른 구(44.2%), 인천·경기(22.0%), 지방(16.8%) 등 서울의 대기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주 받아서, 서울 내 다른 구(37.5%), 인천·경기(31.7%), 지방(12.7%), 같은 구(11.6%)의 기업들과 협력 생산해서 납품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해외와의 거래도 상당히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4-21> 거래업체 분포(수주업체)

| 수주업체 | 같은 구  | 서울 내 다른 구 | 인천·경기 | 지방    | 해외   | 합계   |
|------|-------|-----------|-------|-------|------|------|
|      | 7.1%  | 44.2%     | 22.0% | 16.8% | 9.9% | 100% |
| 발주업체 | 같은 구  | 서울 내 다른 구 | 인천·경기 | 지방    | 해외   | 합계   |
|      | 11.6% | 37.5%     | 31.7% | 12.7% | 7.0% | 100% |

주: 응답업체(수주업체-164개 업체, 발주업체-161개 업체)

거래는 주로 직접 방문하거나 면담을 통해(64.2%)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컴퓨터 및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2> 거래방법

| 직접방문·면담 | 상공회 등 관련단체 | 전화·팩스 | 컴퓨터(인터넷) | 기타   | 합계   |
|---------|------------|-------|----------|------|------|
| 64.2%   | 2.6%       | 15.4% | 13.5%    | 4.4% | 100% |

주: 응답업체수 168개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의 사업관련서비스는 49.7% 정도가 인근소재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응답도 38.9%에 달했다.

<표 4-23> 법률, 회계, 세무, 컨설팅 등의 사업관련서비스 이용방법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자체적으로 해결          | 68       | 38.9  |
| 인근소재 업체와 거래       | 87       | 49.7  |
| 상공회의소 등의 지원서비스 이용 | 1        | 0.6   |
| 기타                | 19       | 10.9  |
| 합계                | 175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15       |       |

### 3) 연구개발비 비중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당 평균 종업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나 업체당 평균 연구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준공업지역 업체들이 생산에 치중하던 상태에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점차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24> 업체당 종업원 수와 연구인력수

| 구분                | 2004  | 2005  | 2006  |
|-------------------|-------|-------|-------|
| 업체당 평균 종업원수(명)    | 18.30 | 18.14 | 17.67 |
| 업체당 평균 연구인력(명)    | 3.00  | 3.02  | 3.12  |
| 업체당 평균 연구인력 비중(%) | 16.39 | 16.67 | 17.67 |

주: : 종업원 수와 연구인력 수를 모두 응답한 2004년 133개, 2005년 140개, 2006년 14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함

사업체 인력 중 연구인력의 비중을 살펴보면 연구인력을 전혀 두지 않는 업체의 비중은 2004년 55.6%에서 2006년 52.7%로 점차 감소하고는 있지만, 연구인력 비중이 30%이상인 업체들의 비중은 2004년 13.5%에서 2006년 18.2%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25> 연구인력의 비중

| 구분          | 2004   |       | 2005   |       | 2006   |       |
|-------------|--------|-------|--------|-------|--------|-------|
|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업체수(개) | 비중(%) |
| 0%          | 74     | 55.6  | 76     | 54.3  | 78     | 52.7  |
| 0%초과~3%미만   | 0      | 0     | 0      | 0     | 0      | 0     |
| 3%이상~5%미만   | 1      | 0.8   | 2      | 1.4   | 2      | 1.4   |
| 5%이상~10%미만  | 7      | 5.3   | 11     | 7.9   | 12     | 8.1   |
| 10%이상~20%미만 | 24     | 18.0  | 19     | 13.6  | 18     | 12.2  |
| 20%이상~30%미만 | 9      | 6.8   | 16     | 11.4  | 11     | 7.4   |
| 30%이상       | 18     | 13.5  | 16     | 11.4  | 27     | 18.2  |
| 합계          | 133    | 100.0 | 140    | 100.0 | 148    | 100.0 |

#### 4. 정부지원

전체 업체의 51.6%인 98개 업체가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6> 정부지원 수혜 여부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지원 받은 적이 있다 | 98     | 51.6  |
| 지원 받은 적이 없다 | 85     | 44.7  |
| 무응답         | 7      | 3.7   |
| 합계          | 190    | 100.0 |

정부지원 중 가장 많이 받은 지원은 금융지원으로 42.2%에 달했으며, 다음으로 세제지원이 26.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업체가 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지원에 대해서는 그 활용도가 낮게 나타났다.

기타로는 클린사업장 지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지원 등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27> 있다면 어떤 지원이었는가(3개까지 중복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금융지원      | 73       | 42.2  |
| 세제지원      | 45       | 26.0  |
| 전문인력지원    | 13       | 7.5   |
| 인허가절차규제관련 | 10       | 5.8   |
| 업체선정·계약관련 | 9        | 5.2   |
| 창업지원      | 12       | 6.9   |
| 기타        | 11       | 6.4   |
| 합계        | 173      | 100.0 |

주: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98개 업체 대상

임대료와 임금, 원자재 구입비에 대한 부담정도를 묻는 항목에는 부담스럽다는 응답이 각각 43.5%, 60.2%, 77.3%로 나타나 임대료보다는 원자재구입비에 대한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준조세, 마케팅 비용, 관리비, 환율의 하락, 기술력 보완 등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8> 부담정도

단위: 업체 수, (%)

| 구분         | 매우<br>부담<br>스럽다 | 조금<br>부담<br>스럽다 | 보통<br>이다     | 별로<br>부담스럽지<br>않다 | 전혀<br>부담스럽지<br>않다 | 합계             | 무응답 |
|------------|-----------------|-----------------|--------------|-------------------|-------------------|----------------|-----|
| 임대료        | 18<br>(11.2)    | 52<br>(32.3)    | 56<br>(34.8) | 14<br>(8.7)       | 21<br>(13.0)      | 161<br>(100.0) | 29  |
| 임금         | 38<br>(21.0)    | 71<br>(39.2)    | 65<br>(35.9) | 6<br>(3.3)        | 1<br>(0.6)        | 161<br>(100.0) | 9   |
| 원자재<br>구입비 | 63<br>(34.8)    | 77<br>(42.5)    | 34<br>(18.8) | 3<br>(1.7)        | 4<br>(2.2)        | 181<br>(100.0) | 9   |

한편, 임대료와 임금, 원자재 구입비 항목에 대해 부담스럽다고 응답한 업체들의 각각 47.0%, 52.9%, 52.2%가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

답스럽지 않다고 응답한 업체 중에서는 각각 50.0%, 57.1%, 83.3%가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경영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업체들은 오히려 정부지원에 대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영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업체들은 여러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이 어렵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정부지원을 받지 않아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다.

<표 4-29> 부담정도에 따른 정부지원여부

단위: 업체 수, (%)

| 구분         |          | 정부지원여부     |            | 합계    |
|------------|----------|------------|------------|-------|
|            |          | 지원 받은 적 있다 | 지원 받은 적 없다 |       |
| 임대료        | 부담스럽다    | 47.0       | 53.0       | 100.0 |
|            | 보통이다     | 60.0       | 40.0       | 100.0 |
|            | 부담스럽지 않다 | 50.0       | 50.0       | 100.0 |
| 임금         | 부담스럽다    | 52.9       | 47.1       | 100.0 |
|            | 보통이다     | 53.1       | 46.9       | 100.0 |
|            | 부담스럽지 않다 | 57.1       | 42.9       | 100.0 |
| 원자재<br>구입비 | 부담스럽다    | 52.2       | 47.8       | 100.0 |
|            | 보통이다     | 54.5       | 45.5       | 100.0 |
|            | 부담스럽지 않다 | 83.3       | 16.7       | 100.0 |

산업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산업관련시설은 종합지원센터로 전체 응답 건수 362건중 22.7%인 82건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용주차시설 확보 14.1%, 공동전시장 및 판매시설 13.5%, 공동물류센터 12.7%,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10.8%, 디자인지원센터 9.1%, 필요하지 않다 9.1%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클린사업장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표 4-30> 산업관련시설(3개까지 중복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종합지원센터       | 82       | 22.7  |
| 공용주차시설 확보    | 51       | 14.1  |
| 공동구매시스템 구축   | 39       | 10.8  |
| 공동전시장 및 판매시설 | 49       | 13.5  |
| 공동물류센터       | 46       | 12.7  |
| 창업보육센터       | 12       | 3.3   |
| 디자인지원센터      | 33       | 9.1   |
| 기타           | 7        | 1.9   |
| 필요하지 않다      | 33       | 9.1   |
| 무응답          | —        | —     |
| 합계           | 362      | 100.0 |

## 5. 기술개발

신기술도입은 47.0%에 달하는 86개업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타 업체와 공동개발이 14.8%, 숙련기술자 고용이 9.8%, 연구소와 공동개발이 8.2%, 신기술도입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7.7%, 첨단설비 도입이 6.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1> 신기술 도입방법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자체 독자 개발         | 86     | 47.0  |
| 타 업체와 공동개발       | 27     | 14.8  |
| 연구소(대학)와 공동개발    | 15     | 8.2   |
| 기개발 기술 특허료 지불 사용 | 4      | 2.2   |
| 숙련기술자 고용         | 18     | 9.8   |
| 첨단설비 도입          | 11     | 6.0   |
| 신기술도입 필요 없음      | 14     | 7.7   |
| 기타               | 8      | 4.4   |
| 합계               | 183    | 100.0 |
| 무응답              | 7      |       |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주요 내용은 신제품의 개발이 41.1%로 가장 많았으며, 기존 제품의 개량 29.4%, 생산라인, 제조방법의 개선개량 14.4%, 시행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1.7%로 나타나 대부분 신제품 개발 및 기존 제품 개량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디자인개발 등이 있었다.

<표 4-32>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신제품(상품)의 개발      | 74     | 41.1  |
| 기존 제품의 개량        | 53     | 29.4  |
| 생산라인, 제조방법의 개선개량 | 26     | 14.4  |
| 공구 등의 개선         | 2      | 1.1   |
| 시행하지 않음          | 21     | 11.7  |
| 기타               | 4      | 2.2   |
| 합계               | 180    | 100.0 |
| 무응답              | 10     |       |

자체 독자개발로 신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들은 신제품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방법 역시 주로 신제품의 개발과 기존 제품의 개량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숙련기술자 고용과 첨단설비 도입을 통해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업체는 생산라인, 제조방법의 개선개량이 신제품의 개발을 한다는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4-33> 신기술 도입방법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구분                 | 신제품<br>(상품)의<br>개발 | 기존<br>제품의<br>개량 | 생산라인,<br>제조방법의<br>개선개량 | 공구<br>등의<br>개선 | 시행<br>하지<br>않음 | 기타   | 합계    |
|--------------------|--------------------|-----------------|------------------------|----------------|----------------|------|-------|
| 자체 독자개발            | 50.6               | 30.6            | 11.8                   | 1.2            | 3.5            | 2.4  | 100.0 |
| 타 업체와 공동개발         | 48.1               | 40.7            | 11.1                   | 0.0            | 0.0            | 0.0  | 100.0 |
| 연구소(대학)와<br>공동개발   | 46.7               | 40.0            | 6.7                    | 0.0            | 6.7            | 0.0  | 100.0 |
| 기개발기술<br>특허료 지불 사용 | 50.0               | 0.0             | 0.0                    | 0.0            | 50.0           | 0.0  | 100.0 |
| 숙련기술자고용            | 38.9               | 27.8            | 33.3                   | 0.0            | 0.0            | 0.0  | 100.0 |
| 첨단설비 도입            | 9.1                | 27.3            | 45.5                   | 0.0            | 18.2           | 0.0  | 100.0 |
| 신기술도입<br>필요 없음     | 0.0                | 7.7             | 0.0                    | 0.0            | 92.3           | 0.0  | 100.0 |
| 기타                 | 0.0                | 16.7            | 16.7                   | 16.7           | 16.7           | 33.3 | 100.0 |
| 합계                 | 40.8               | 29.6            | 14.5                   | 1.1            | 11.7           | 2.2  | 100.0 |

기술개발의 힌트는 주로 자사의 기존 기술 개량(29.1%)을 통해서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처와 협의하면서 얻는다는 응답이 24.0%, 개인의 아이디어가 12.6%, 거래처로부터 직접 개발의뢰·지시받는다는 응답이 10.9%, 이업종·동업종 교류로부터 얻는다는 응답이 8.0% 순으로 나타났다.

<표 4-34> 기술개발의 힌트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자사의 기존 기술 개량      | 51     | 29.1  |
| 개인의 아이디어          | 22     | 12.6  |
| 거래처로부터 직접 개발의뢰·지시 | 19     | 10.9  |
| 거래처와 협의하면서        | 42     | 24.0  |
| 다른 기업의 관련 기술로부터   | 8      | 4.6   |
| 이업종 동업종 교류로부터     | 14     | 8.0   |
| 문헌이나 논문 등을 조사해서   | 4      | 2.3   |
| 매스컴보도를 통해         | 2      | 1.1   |
| 대학의 연구성과로부터       | 0      | 0.0   |
| 기타                | 13     | 7.4   |
| 합계                | 175    | 100.0 |
| 무응답               | 15     |       |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23.2%가 특허권을 취득할만한 기술이 없다고 하였다. 지적재산권을 이미 취득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는 응답은 16.1%에 불과하였다. 지적재산권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효과·이익을 모르겠다, 취득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 취득을 추진할 인력이 없다, 취득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등의 응답이 30%가 넘어 업체들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매우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35> 지적재산권 취득에 대한 생각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특허권을 취득할만한 기술이 없다        | 39     | 23.2  |
| 취득함으로써 얻는 효과·이익을 모르겠다    | 23     | 13.7  |
| 취득해야할지 말아야할지 모르겠다        | 10     | 6.0   |
| 취득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        | 4      | 2.4   |
| 취득을 추진할 인력이 없다           | 14     | 8.3   |
| 기술이 지적재산이 되는 것을 몰랐다      | 2      | 1.2   |
| 좋은 변리사가 없다               | 1      | 0.6   |
| 지적재산의 활용방법을 모르겠다         | 6      | 3.6   |
| 보유기술은 노하우이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는다 | 8      | 4.8   |
| 취득했지만 충분히 활용하지 않고 있다     | 19     | 11.3  |
| 취득해도 대기업으로부터 권리를 침해당한다   | 3      | 1.8   |
| 이미 취득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        | 27     | 16.1  |
| 기타                       | 12     | 7.1   |
| 합계                       | 168    | 100.0 |
| 무응답                      | 22     |       |

## 6. 산학협력

산학협력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는 전체의 26.8%인 51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많은 업체들이 산학협력을 들어본 적도 없고 관심도 없다고 하여 산학협력에 대한 홍보나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표 4-36> 산학협력 여부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산학협력을 맺은 적이 있다 | 51     | 26.8  |
| 산학협력을 맺은 적이 없다 | 139    | 73.2  |
| 합계             | 190    | 100.0 |

산학협력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51개 업체는 대상으로 산학협력의 형태를 묻는 질문에 47.1%에 달하는 24개 업체가 산학협력을 통해 신제품개발을 하였다고 응답, 2위로 나타난 기존제품개선(13.7%), 3위인 신기술개발(9.8%), 기존공정개선(9.8%) 등에 비해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7> 산학협력의 형태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신기술개발    | 5        | 9.8   |
| 신제품개발    | 24       | 47.1  |
| 기존제품개선   | 7        | 13.7  |
| 신공정개발    | 2        | 3.9   |
| 기존공정개선   | 5        | 9.8   |
| 인력양성(교육) | 4        | 7.8   |
| 기술지도     | 3        | 5.9   |
| 장비활용     | 1        | 2.0   |
| 재원조달     | 0        | 0.0   |
| 합계       | 51       | 100.0 |

산학협력을 맺은 적이 있는 업체들은 주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을 하고 있고, 산학협력의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신제품의 개발과 기존 제품의 개량이 비슷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산학협력은 주로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필요함을 절감할 수 있다.

<표 4-38> 산학협력 여부에 따른 기술개발 및 연구개발의 내용

| 구분                | 신제품<br>(상품)의<br>개발 | 기존<br>제품의<br>개량 | 생산라인,<br>제조방법의<br>개선개량 | 공구<br>등의<br>개선 | 시행<br>하지<br>않음 | 기타  | 합계    |
|-------------------|--------------------|-----------------|------------------------|----------------|----------------|-----|-------|
| 산학협력을<br>맺은 적이 있다 | 54.9               | 27.5            | 11.8                   | 0.0            | 3.9            | 2.0 | 100.0 |
| 산학협력을<br>맺은 적이 없다 | 35.7               | 30.2            | 15.5                   | 1.6            | 14.7           | 2.3 | 100.0 |
| 합계                | 41.1               | 29.4            | 14.4                   | 1.1            | 11.7           | 2.2 | 100.0 |

산학협력경험이 있는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산학협력시의 애로 사항으로는 첫째,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지원기관·기능 미흡(20.8%), 둘째, 기업내 산학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18.8%), 셋째, 기술·노하우의 외부유출 위험성(16.7%)과 산학협력 경험부족(16.7%), 넷째, 대학 보유기술과 업체의 요구기술 불일치(12.5%)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교수의 현장 지식 및 경험부족이나 대학 보유기술과 업체의 요구기술 불일치 등의 문제는 비중이 낮아 우선적으로 산학협력 전문지원기관과 기업내 산학협력관리를 대신하거나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이 현장 밀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안겨 준다.

<표 4-39> 산학협력시 애로사항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기업내 산학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      | 9      | 18.8  |
| 대학교수의 현장 지식 및 경험부족      | 3      | 6.3   |
| 기술·노하우의 외부유출 위험성        | 8      | 16.7  |
|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지원기관·기능 미흡 | 10     | 20.8  |
| 산학협력 경험부족               | 8      | 16.7  |
| 대학 보유기술과 업체의 요구기술 불일치   | 6      | 12.5  |
| 기타                      | 4      | 8.3   |
| 합계                      | 48     | 100.0 |
| 무응답                     | 3      |       |

사업화 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역시 자금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는데 42.9%에 달하는 업체에서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 부족을 꼽았으며, 판로개척 등 사업화의 성공 불확실성이 24.5%, 추가적인 기술개발이 18.4%, 업체의 기술 소화·수용능력 부족이 6.1%, 기타 의견이 6.1%, 개발기술의 구식화 등 시장조건 변화가 2.0%로 나타났다.

<표 4-40> 사업화시 애로사항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추가적인 기술개발           | 9      | 18.4  |
|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 부족      | 21     | 42.9  |
| 판로개척 등 사업화의 성공 불확실성 | 12     | 24.5  |
| 업체의 기술 소화·수용능력 부족   | 3      | 6.1   |
| 개발기술의 구식화 등 시장조건 변화 | 1      | 2.0   |
| 기타                  | 3      | 6.1   |
| 합계                  | 49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2      |       |

산학협력의 문제점을 묻는 문항(복수응답허용)에는 응답건수의 40.9%인 95건이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협력상대를 찾기 어렵다는 응답이 46건(19.8%), 개발된 제품이 기대만큼 판매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1건(13.4%), 판매는 되지만 수익성이 없다는 응답이 14건(6.0%), 개발은 했지만 생산할 기업이 없다는 응답이 10건(4.3%), 판매처를 찾을 수 없다는 응답이 10건(4.3%), 협력상대의 기술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9건(3.9%)으로 나타나 산학협력을 위한 자금지원정책 뿐만 아니라 업체와 학교의 필요에 맞는 상대를 연계해 협력상대를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중간 지원기관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발된 제품이 기대만큼 팔리지 않는다는 응답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아 시장의 수요와 맞는 제품을 개발해 적절한 판로를 개척하는 역할도 산학협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4-41> 산학협력의 문제점(3개까지 복수응답)

| 구분                    | 응답수(건) | 비중(%) |
|-----------------------|--------|-------|
|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       | 95     | 40.9  |
| 개발은 했지만 생산할 기업이 없다    | 10     | 4.3   |
| 개발된 제품이 기대만큼 판매되지 않는다 | 31     | 13.4  |
| 협력상대를 찾기 어렵다          | 46     | 19.8  |
| 협력상대의 기술 수준이 낮다       | 9      | 3.9   |
| 판매처를 찾을 수 없다          | 10     | 4.3   |
| 판매는 되지만 수익성이 없다       | 14     | 6.0   |
| 자사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했다     | 4      | 1.7   |
| 문제없다                  | 5      | 2.2   |
| 기타                    | 8      | 3.4   |
| 합계                    | 232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34     |       |

전체 190개 업체 가운데 무응답업체 29개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26개를 제외한 135개 업체에서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떤 부문의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금지원이라는 응답이 34.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산학협력의 문제점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개발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다는 응답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연구인력 지원이라는 응답이 37개로 27.4%를 차지했으며 기술정보는 10.4%, 개발연구장비는 9.6%, 성능평가 및 인증 8.1%, 디자인개발 8.1%로 나타나 연구개발에 필요한 고급인력의 지원과 기술정보확보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2> 산학협력에서 가장 도움받고 싶은 지원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개발연구장비    | 13     | 9.6   |
| 연구인력      | 37     | 27.4  |
| 기술정보      | 14     | 10.4  |
| 자금        | 46     | 34.1  |
| 성능평가 및 인증 | 11     | 8.1   |
| 디자인개발     | 11     | 8.1   |
| 기타        | 3      | 2.2   |
| 합계        | 135    | 100.0 |
| 필요성 못 느낌  | 26     |       |
| 무응답       | 29     |       |

산학협력 지원제도 활용시의 애로사항으로는 자금지원의 규모가 작다는 응답이 34.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응답 역시 33.6%로 높게 나타났다. 후속연계조치의 미흡과 협력대학들의 문턱이 높다, 자금 지원 기간이 짧다는 응답은 각각 11.2%, 7.7%, 6.3%로 나타났다.

<표 4-43> 산학협력 지원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자금지원 규모가 작다     | 49     | 34.3  |
|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 | 48     | 33.6  |
| 자금지원 기간이 짧다     | 9      | 6.3   |
| 후속연계조치가 미흡하다    | 16     | 11.2  |
| 협력대학들의 문턱이 높다   | 10     | 7.0   |
| 기타              | 11     | 7.7   |
| 합계              | 143    | 100.0 |
| 무응답             | 47     |       |

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요인이 필요한가 하는 질문에는 41.5%가 자금·인력·시설 등의 풍부한 물적지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절한 산학협력과제의 발굴이 24.6%로 다음 순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9.2%를 달했다.

<표 4-44> 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인(2개까지 복수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기업의 관심과 의지          | 43       | 19.2  |
| 적절한 산학협력과제의 발굴      | 55       | 24.6  |
| 기업과 대학교수간이 적절한 연계   | 12       | 5.4   |
| 자금·인력·시설등의 풍부한 물적지원 | 93       | 41.5  |
| 기업의 산학협력 대응능력       | 10       | 4.5   |
| 대학교수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 11       | 4.9   |
| 합계                  | 224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41       |       |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많은 업체들이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첫째, 산학협력 상대를 탐색하는 것이 어렵고, 둘째, 적절한 산학협력 과제 발굴이 어렵고, 셋째, 개발자금이 부족하고, 넷째, 개발된 제품의 판로확보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7. 디자인 활용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디자인 활용이 많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으나 조사결과,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응답이 58.9%에 달했으며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업체는 15.0%, 활용할 생각이 없다는 업체는 26.1%로 나타나 제조업체임에도 디자인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업체들이 준공업지역에 많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45> 제품생산에 있어 디자인 활용여부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활용하고 있다(사내직원에 의한 디자인) | 67     | 37.2  |
| 활용하고 있다(외부디자인업체와 계약)  | 39     | 21.7  |
|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 27     | 15.0  |
| 활용할 생각이 없다            | 47     | 26.1  |
| 합계                    | 180    | 100.0 |
| 무응답                   | 10     |       |

업종별 디자인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과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에서의 디자인 활용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과 금속관련 제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현재 디자인을 활용하고 있거나 앞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표 4-46> 업종별 디자인 활용 여부

단위: 업체수, (%)

| 업종             | 활용하고 있다             |                 | 앞으로<br>활용할<br>계획이다 | 활용할<br>생각이<br>없다 | 합계    |
|----------------|---------------------|-----------------|--------------------|------------------|-------|
|                | 사내직원<br>에 의한<br>디자인 | 외부디자인<br>업체와 계약 |                    |                  |       |
| 음·식료품제조업       | 14.3                | 57.1            | 28.6               | 0.0              | 100.0 |
| 섬유·의복·가방·신발제조업 | 62.1                | 10.3            | 10.3               | 17.2             | 100.0 |
|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 30.0                | 50.0            | 5.0                | 15.0             | 100.0 |
|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 8.3                 | 33.3            | 16.7               | 41.7             | 100.0 |
| 금속관련 제조업       | 20.8                | 20.8            | 8.3                | 50.0             | 100.0 |
|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 | 46.4                | 10.7            | 17.9               | 25.0             | 100.0 |
|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 29.2                | 29.2            | 20.8               | 20.8             | 100.0 |
|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 0.0                 | 0.0             | 50.0               | 50.0             | 100.0 |
| 기타 제조업         | 50.0                | 0.0             | 16.7               | 33.3             | 100.0 |
| 합계             | 37.2                | 21.7            | 15.0               | 26.1             | 100.0 |

제품생산시 디자인을 활용하는 이유로는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43개로 27.6%를 차지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라는 응답이 17.9%, 자사 브랜드의 확립을 위해서가 12.2%,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서가 11.5%, 거래처의 요청으로가 10.3%, 기업이미지의 향상을 위해서가 7.1% 등으로 나타났다.

<표 4-47> 제품생산시 디자인을 활용하는(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

| 구분                | 업체수(개) | 비중(%) |
|-------------------|--------|-------|
|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 28     | 17.9  |
| 제품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 43     | 27.6  |
| 자사 브랜드의 확립을 위해    | 19     | 12.2  |
| 기업이미지의 향상을 위해     | 11     | 7.1   |
| 제품의 차별화를 위해       | 18     | 11.5  |
| 판로개척을 위해          | 6      | 3.8   |
| 거래처의 요청으로         | 16     | 10.3  |
| 제품사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 4      | 2.6   |
| 기타                | 11     | 7.1   |
| 합계                | 156    | 100.0 |
| 무응답               | 34     |       |

디자인 활용에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디자인에 필요한 예산확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을 허용한 전체 208개의 응답 중 60개(28.8%)의 응답이 예산 확보에 곤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좋은 디자이너 확보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23.6%, 디자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내에 없다는 응답이 18.3% 순으로 나타나 디자인을 위한 자금과 인력확보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8> 디자인을 활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2개까지 복수응답)

| 구분                     | 총 응답수(건) | 비중(%) |
|------------------------|----------|-------|
| 디자인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곤란함     | 60       | 28.8  |
| 디자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사내에 없음  | 38       | 18.3  |
| 좋은 디자이너 확보가 어려움        | 49       | 23.6  |
| 디자인의 효과를 알 수 없음        | 13       | 6.3   |
| 직원들이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함 | 5        | 2.4   |
| 디자인의 활용방법을 모름          | 6        | 2.9   |
| 디자이너와 설계부문이 연계되어 있지 않음 | 16       | 7.7   |
| 디자이너와의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함     | 7        | 3.4   |
| 기타                     | 14       | 6.7   |
| 합계                     | 208      | 100.0 |
| 무응답 업체수                | 33       |       |

## 제2절 준공업지역 사업체 면담조사

앞에서는 서울 준공업지역의 사업체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영등포, 구로, 금천 지역의 기업대표 8명을 대상으로 면담한 내용을 신고, 설문조사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과제를 도출하도록 한다.

### 1. A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이 업체는 현재 금형 제작 및 플라스틱 용기 사출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25명 정도이며 대부분 30분 거리 내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업체는 1988년에 현재 위치하고 있는 곳과 같은 독산동에서 창업하였다가 1997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사장은 창업 전, 지금과 같은 업종의 기업에 종사하다 독립하였다.

연간 매출액은 2006년도에 20억 원 정도로 최근 몇 년간 큰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업 영위기간이 20년 정도로 현재 경영안정기인 것으로 보이지만 매출액이 답보상태에 있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경영컨설팅을 의뢰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의 경영전략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2) 입지특성

창업시 현재의 입지를 결정하게 된 동기는 기존에 상권이 발달하고 인맥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지역이 금형제작에 있어서는 숙련된 고급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고, 금형산업의 메카라는 이미지가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한다.

현재 공장은 화물차량이 드나들기에는 도로가 비좁고 주차 공간 확보가 용이하지 않아 물품수송 및 조업 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작업공간이 협소하여 증축 또는 확장을 하고 싶어도 엄격한 규제 때문에 확장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변에 별 다른 상업 시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용 주차비가 상당히 비싼 것으로 느낀다.

지역 내에서 정보의 교류가 활발하고 원·부자재의 구매가 쉽고 빠르다는 점, 독산동이 금형제조의 메카라는 업계에서의 자부심, 입지에 따른 시장에서의 인지도 등 때문에 독산동에 위치하는 자체가 큰 메리트가 되었으나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비싼 임대료와 열악한 조업환경 등을 이유로 상당수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독산동이 앞으로도 계속 금형제조업 집적의 이익을 누릴 수 있을 지 염려하는 분위기이다.

### (3) 산업환경

일본의 기술력과 중국의 저렴한 가격에 밀려 점차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종사자들은 곧 중국에게 따라잡힐 것이라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 저가의 중국제품과 경쟁하려면 기술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업체들은 끊임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연구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종업체가 한 곳에 집적하면서 누릴 수 있는 자연스러운 홍보효과와 거래업체간 왕래의 용이성 등이 현재 입지의 장점이라 할 수 있지만 반면, 기업체의 집적으로 인해 야기되는 지가·임대료의 상승, 인력확보의 어려움, 기반시설의 용량 초과 등 부정적인 면도 없지 않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상기업체는 올 하반기에 조업 공간 확보와 영업장의 확장을 위해 경기도 군포로 이주할 예정이다. 이주시 가장 큰 고려조건으로는 근로자들의 근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것으로 현재 함께 작업하고 있는 팀의 유지가 생산 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다.

#### (4) 정부지원

서울시의 지원 자금, 금천구청 지원 자금, IT산업지원자금 등 산업지원정책 자금을 3번 정도 받긴 했으나 지원 금액이 사업규모에 비해 너무 적어 큰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

기업의 규모를 막론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정부의 자금지원을 절실하게 원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자금지원, 특히 시설자금의 지원여부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지원자격 등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기업처럼 안정기에 들어선 기업은 초기정착 단계의 기업들에 비해 사업장의 확장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지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선 업체들을 더 나은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사업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경기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차공간에 대한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 주차타워 등 주차 시설에 대한 지원도 원하고 있다.

제조업 각 분야의 기계와 장비들이 발달하고 첨단화되어 가고 있어 노동력의 양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첨단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고급 인력의 확보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어 정부차원의 직원교육 지원에 대한 필요성 역시 느끼고 있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수주업체

서울 또는 경기도의 대기업들과 거래하고 있고 주로 주문제작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정수기, 청소기, 가습기, 공기청정기, 방독면 등 다양한 품목의 금형을 생산·납품하고 있으며 주문을 의뢰하는 업체의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지만 주문업체의 위치는 크게 관계없다고 응답하였다.

대체로 생산품목이 달라도 주문물량은 발주처가 연구개발, 기획 시기를 거쳐 발주하는 시기는 비슷하여 일이 한꺼번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럴 경우 주문받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의 동종업체와의 생산연계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현재 제조업은 대부분 전문화·분업화 되고 있는 추세로 대기업에서 수주를 받거나 중소기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기업의 경우 제조 부문까지 담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대기업의 정책이 바뀌거나 생산비가 저렴한 중국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면 관련업체는 큰 타격을 받게 된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단기간 내에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원·부자재는 시간절약을 위해 대부분 공장 주변에 위치한 소규모 업체와 대리점들을 통해 구입한다.

### (3) 생산자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업체

회계, 세무, 법률 서비스 등은 대부분 인근 지역의 거래업체를 통하고 있으며 창업초기에 거래를 시작한 곳과 꾸준히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컨설팅은 같은 지역인 시흥에 있는 업체에 의뢰했다고 한다.

#### (4) 생산연계

주문량이 많을 때는 주문을 받은 후 주변의 동종업체에 재하청을 주는 형식으로 발주량에 맞게 생산량을 조절, 지역 내 공장들이 서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유연적인 생산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주변업체와의 연관관계 역시 입지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평균적으로는 수주액의 30% 정도를 다른 임·가공업체에 재하청을 주고 있다.

일 년에 한두번 정도 있는 특수가공 같은 작업은 지방에 위치한 업체와도 거래하고 있다.

#### 3) 시사점

금형제조업은 대부분 거래처에서 필요한 제품을 주문하면 제품에 맞는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주문생산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금형제작시에는 각종 도면작성과 해석, 컴퓨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급인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제품생산은 여러 명의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에 짜여 있는 생산팀의 구성유지가 생산력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또한 경험을 통해서만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경력이 있는 직원이 계속 근무할만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 같은 인력확보의 문제로 금형제조업은 현재 위치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든 특성이 있으며, 현 입지에서의 자부심 또한 매우 크기 때문에 임대료가 비싸더라도 머물러 있으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공장 확장의 어려움 등으로 옮겨야만 하는 상황이 되면 원·부자재의 확보와 생산연계 등의 이유로 또 다른 금형집적지로 이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금형업계에서는 독산동 일대가 금형산업의 메카라고 하는 지역 이미지

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러한 이미지 때문에 금형업체가 더욱 몰려 들고 고급 금형은 이곳으로 주문이 들어오게 된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일정한 지역에 집적되어 있으므로 불규칙한 수주물량을 분담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금형의 고급인력을 확보하기도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공장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일부 금형업체는 수도권 일대로 빠져 나가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 2. B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1984년 지금과 같은 위치(금천구 독산동)에서 창업하였다. 사장은 창업 전, 동종업체에 5년간 근무하다가 독립하였으며 고기능성 원단 제조를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한때 2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었으나 기계의 자동화로 현재는 10명의 고급인력으로 운영 중이다.

연간 매출액은 10억 원으로 임가공업체 중에선 매출액이 큰 편에 속한다고 한다. 작년에 매출액이 약간 감소하였으나 올해는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0여년 전만해도 수출위주로 운영했으나 중국의 저가상품에 밀려 수출은 포기하고 내수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였다. 고급품인 골프웨어를 주력품으로 고부가가치의 다품종소량생산을 하기 시작하여 꾸준히 최신 기계를 도입해왔다. 현재 편직기계 박람회나 섬유 박람회 등에 참석하여 정보의 획득에 노력을 기울이는 등 첨단기계의 도입과 제품개발 등에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 (2) 입지특성

원단 제조업계에서 고급기계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몇 안되는 업체이기 때문에 따로 홍보나 영업활동을 하지 않아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지금은 주문을 받기 위해서는 공장의 위치가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원·부자재 재료와 완제품의 수송, 박람회나 세미나 등의 참석,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과의 인맥유지를 위해서 서울 내 입지가 필수불가결한 상황이라고 한다.

패션산업 관련 업체의 경우 영업비용의 절감을 위해 서울시 외곽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서울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다고 하며, 이는 발주처가 제품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 다음에 납품을 받는 업종 특성 때문이라고 한다.

계속되는 기계의 구입으로 인한 조업공간의 부족으로 사업장을 확장할 필요를 느끼지만 원활한 정보교류와 편리한 교통요건 등 현 위치의 이점 때문에 쉽게 이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3) 산업환경

원단 제조업은 편직기술에 따라 제품의 품질이 천차만별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기술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고급 제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지만 기술의 개발과 습득이 그만큼 어렵기도 하다.

패션과 관계된 제품이니만큼 상품의 사양화 속도가 매우 빨라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과 원단을 개발해야 하고 편직기술에 있어서도 새로운 기계의 도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부로부터의 돌발적인 위협요인도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중국의 저가제품으로 인한 위협이 심각하여 더욱 고급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양한 직물 공급, 기술 업그레이드, 생산성 향상, 개발전략, 생산제품 다양화, 품질요건 충족, 시장 적응 등 다방면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섬유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 (4) 정부지원

업체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지원방향을 다각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트렌드에 맞는 기술의 응용, 패턴 등을 조합하여 차별화된 섬유직물의 개발을 통한 내수확대 및 수출산업화로 이어지는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부터 박람회 및 세미나 참석 지원 등 건문을 넓힐만한 기회도 제공받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해야하기 때문에 저리의 시설자금지원이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수주업체

B기업은 섬유 제조 분야에서는 중견기업으로, 주문을 받아 원단을 생산하고 나면 봉제공장으로 수송하게 되는데 봉제공장 역시 대부분 서울 내에 입지하고 있다.

주로 대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주를 하여 원단을 생산하여 납품하고 그 외는 외주업체를 통해 거래하고 있어 직거래하는 곳은 몇 군데 되지 않는다고 한다. 수주업체는 대부분 의류업체인데 수도권을 벗어나는 지역에 대해선 제품운반 등에 어려움이 있어 거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현재 서울에 50개, 경기도에 20개, 지방에 2~3개 정도의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부산의 대기업과도 거래하고 있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원자재가 원단의 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종 특성상 주문자가 직접 원자재 공급업체를 지정하여 조달하는 경우도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 인근 지역에서 조달이 가능하다.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기능성 섬유 제조업이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량이 없어 도 원자재의 수송에 별 다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생산자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업체

회계, 법률 서비스 등은 대부분 인근 거래업체를 통하고 있었으며 창업초기에 거래를 시작한 곳과 꾸준히 관계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시사점

B기업과 같이 고급원단을 제조하는 업체는 첨단기계와 기계를 다룰 수 있는 고급인력만 확보되면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장부지를 많이 필요로 하지 않고 소음도 심하지 않아 도심부나 주거지에 입지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패션업계의 변화가 빠르고 박람회나 전시회에 참석하기 쉬워야하며 봉제업이 서울에 집중되었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서울에 입지하는 것이 최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중국의 저가 공세에서 살아남으려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기능성 고급 섬유를 생산해 경쟁력을 높이는 수밖에 없는데, 이 업체는 최첨단 기계의 도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였다.

제직기계는 대부분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에서 구입하는데 기계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외환으로 장기 할부구입 시 환차손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고 한다. 저리의 자금지원과 환차손과 같은 위험 관리에 대한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섬유제직 기계의 최첨단화에 대한 국내기계 산업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 C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이 업체는 10여년간 사진계통 회사에서 근무하던 사장이 1983년 종로구 무교동에 현 기업의 전신이 된 사진기기 관련제품 무역업체를 창립, 여의도·용산·염창동 등을 거쳐 2003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988년 당시 아날로그 현상기 시장의 65%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아날로그 현상기 사업이 사양기로 들어서면서 디지털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였다. 현재는 아날로그 사진 인화기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디지털 사진 인화를 할 수 있도록 개발된 디지털 캐리어 및 디지털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공장부지는 대지 330평에 건물은 900평인데, 임대료를 제외한 실제 사용면적은 200평 정도이다.

2005년 매출액은 12억 원이었으나 2006년은 5억 원에 그쳤다고 한다. 애초에 2006년 매출계획을 53억 6천만 원으로 잡았으나 매출액이 계획에 비해 저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주력상품으로 내놓았던 제품의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미국의 거래업체가가 독점공급하던 핵심부품의 가격을 올리는 바람에 생산에 차질을 빚었고 그러한 사이에 중국이 질 낮은 제품을 개발해 1/3 가격으로 저가공세를 펼쳐 매출액이 5억 원에 그치게 되었다고 한다.

종업원이 한때 135명에 달할 정도로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까지 대규모로 사업을 했을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규모를 줄여 연구개발만 하고 있어 2006년엔 10~15명, 현재는 3명의 연구인력만 남아있는 상태이다. 현재 신제품을 개발 완료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제품의 양산 단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업체는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도 개발된 제품을 소개하기 위해서도 외국, 특

히 일본에서 열리는 박람회나 전시회에는 반드시 참가하고 있다고 한다.

## (2) 입지특성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4층 건물에 3층은 생산부, 자재부, 품질부가, 4층엔 영업부, 관리부, 연구소가 들어서 있다. 1, 2층은 플라스틱 사출을 하는 업체에 임대를 한 상태이다.

사진기기 관련제품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확보를 이유로 무교동에서 창업하였다가 사업을 고급 디지털 멀티미디어 산업으로 전환한 후 깨끗한 작업환경과 건물 확장의 필요로 인해 2004년 지금의 공장을 지어 독산동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금천구 일대에는 디지털 사업체들이 강남에서 상당수 이전해왔으나 출퇴근 시간에는 교통이 너무 복잡하고 도로 등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교통이 불편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 기업의 특성상 외국 바이어가 찾아오는 경우도 많은데 지번도 알아보기 힘들어 업체 위치를 설명하기조차 쉽지가 않다고 한다. 주차 또한 큰 문제이다.

공장 유입과 지원에 적극적인 경기도에 비해 서울은 행정상의 지원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서울은 지가도 비쌀 뿐 아니라 인프라 구축이 완전하지 못한 곳에서는 제조 원가가 올라가 경쟁력이 저하된다. 자치구 차원에서 대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거래처 고객들이 업체 위치 찾기가 어렵지 않도록 주소체계라도 제대로 정비를 해주었으면 하고 있다.

## (3) 산업환경

4년간 36억 원의 개발자금을 투입하여 고성능 DLP(Digital Light Processing)노광 시스템을 탑재, 보다 업그레이드 된 신형 DPS(Digital Print

System)를 자체 개발하였으며 내수보다는 수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

타사에 비해 저렴한 가격과 40년이라는 장기간의 수명에 속력이 빠르고 설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사용도 쉽다는 장점 때문에 일본에서는 시장을 100% 장악했고 미국을 비롯한 세계 30여 개국에 제품을 수출하였다.



<그림 4-1> 주력품목인 DPS-1

부설연구소를 두고 있을 정도로 연구개발이 제품생산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허, 벤처우수기업,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등으로 인정받았다.

중소기업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시장에 직접 판매한다는 게 만만치가 않다고 한다.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서 사업이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면, 대기업에서 뛰어들어 기술력, 자금력,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당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들고 해당 시장마저 죽여 버리는 수가 있다고 한다. 중요 부품을 수입해서 완제품을 가공하는 경우 대기업이 수입 상대 외국 업체를 차단하여 고통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이 회사는 부품 자체를 국산화하기도 했으며, 오히려 외국 기업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정보도 부족한 듯하고 대학이나 연구소에 대해 높은 벽의 존재를 느끼며, 교수들로부터 기술자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 (4) 정부지원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양산하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지만, 그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다고 한다.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활용해 보았지만 지원 금액이 적어서 부족했다고 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에 대해서도 많은 불평을 가지고 있다.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조달 문제로 기업하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만큼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많이 해주었으면 한다. 정책적으로도 형식적인 공청회 말고 최소한 3개월에 한번 정도는 현장 사장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 (5) 후계자 및 기업 계승

이 회사에서는 25년여 동안 기업을 꾸려오면서 축적한 디지털 미디어 계통의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관련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기술의 계승이 필요한데, 누구에게 어떻게 승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직원들은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퇴사하고 독립하여 경쟁자가 된다고 본다. 그리고 자식은 가업을 승계하려 하지 않는다고 한다. 자식에게 가업을 승계하려 해도 상속세의 부담이 너무 가중하다고 한다. 그래서 회사에 축적되어 있는 기술, 기업의 승계에 고민을 하고 있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판매업체

이 회사는 제품을 주로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면 일본에서 열리는 전시회에 자주 참가하게 되었고, 그 기회를 통해 일본으로의 판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일본으로 판로가 열리고 제품의 평판이 좋은 경우는 예산 부담 없이도 일본의 전문잡지사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게 되고, 그 전문잡지를 통해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접촉이 들어온다고 한다.

일본의 한 업체와의 거래 당시 일본어 버전의 전용 소프트웨어를 단기간에

완성하고 광학적 화질 개선을 해주는 등 거래처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해 주어 기술 및 생산성을 인정받게 되었다고 한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대부분 인근에 위치한 업체들과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업체의 70%가 금천구에 위치하고 있다.

## (3) 생산연계

자체 연구개발 단계를 거친 제품의 설계, 판금 등의 작업들은 주로 이 회사를 퇴사하여 창업했던 기업들과 연계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리해서 창업한 기업들은 총 15개 정도가 되며 주로 금천구, 부천, 안산 등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인근 독산동에는 5개 업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생산의 일부 공정을 분담할 업체의 탐색은 지역 상공회에서 추진하는 기업들의 모임에서 많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동종업계, 이업종업계 종사자들의 모임에서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 3) 시사점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부서를 두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시장에서 출시하는 첨단산업에 속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면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나 그 조달이 용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다. 둘째, 사장이 전자공학을 전공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시장의 동향 등 경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 셋째, 상공회나 이업종 교류 등 업계 종사자의 교류만으로도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한

단계 더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기술계와 경영계, 자본계 등이 상호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서울시 산학연 협력 사업을 보다 더 현장의 기업 수요에 맞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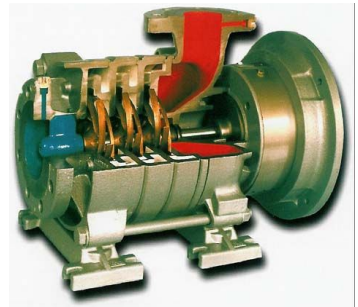
#### 4. D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D기업은 보일러제조업에 10년 정도 몸담고 있던 사장이 1989년 고척동에서 처음 사업을 시작하였다. 처음엔 3~4평짜리 건물에서 시작하였다가 점점 사업이 커져 1994년~1995년에는 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공장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현재는 사무실에 기술자 및 영업직원을 합하여 10명 정도만 남아 있고 나머지 부문은 아웃소싱하게 되었다.

창업 초기에는 고온·고압사용이 가능한 특수펌프를 주요 품목으로 다루다 IMF 때 고온·고압만을 다루는 특수펌프로는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고온의 스팀에너지를 다시 활용하는 렌더링 시스템(rendering system)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서 고온의 응축수를 <그림 4-2> rendering system에 보일러에 급수할 수 있는 펌프는 없을까하는 사용하는 펌프 내부단면도 고민 끝에 발명하게 된 NO-TRAP의 신기술인 렌더링 시스템(rendering system)은 TRAP을 사용하지 않고 포화수를 전량 회수하는 시스템으로 고온의 응축수를 보일러에 급수할 수 있는 펌프이다.

2006년에 3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고 2007년 목표는 50억원인데 직원 50명

에 달했던 1994~1995에는 매출액이 80억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발명특허를 취득한 렌더링 시스템을 통해 에너지 다소비 업체의 고민과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 (2) 입지특성

1989년 당시 현 위치에서 창업하게 된 이유는 주변의 공구상가로 인해 부품 및 자재조달이 쉽고 교통이 편리하며, 인적자원의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이었다. 직원이 필요하게 되면 전문업체에 의뢰하기도 하지만 주변에 관련업체가 많이 모여 있어 거래처를 통해서도 금세 여러 사람을 소개받을 수 있는 것 또한 큰 장점이라고 한다.

하지만 인력확보에 있어 단순노동력의 확보는 쉽지만 고급인력은 구하기가 어렵다는 한계도 있었다.

구로구에 벤처단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는데, 아 파트형 공장 등을 건설하여 한 곳에 집중시켜 놓음으로 인해 교통과 주차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건물 특성상 부속품들의 적재, 수송, 보관에 있어 불편한 점이 많아 IT산업이 아니면 입주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공장들이 분산하여 입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IT계통뿐 아니라 여러 업종이 입주 가능하다면 업종끼리 모여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면서 정부에서 계획을 할 때 외형적인 것 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 입장에서 내부적인 면을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고척동 일대의 제조업 집적에 관해서는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공장이 나가고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이 들어오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는 사업체들이 어느 정도 있어야 세수에도 도움이 되고 사업체 입장에서라도 기존의 영업기반이 있는 곳에 머무는 것이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 공구상가들의 쇠먼지로 인해 주거지로부터의 민원이 약간 있긴 하지만 서로 상생하면서 산다는 인식이 있어 심하지는 않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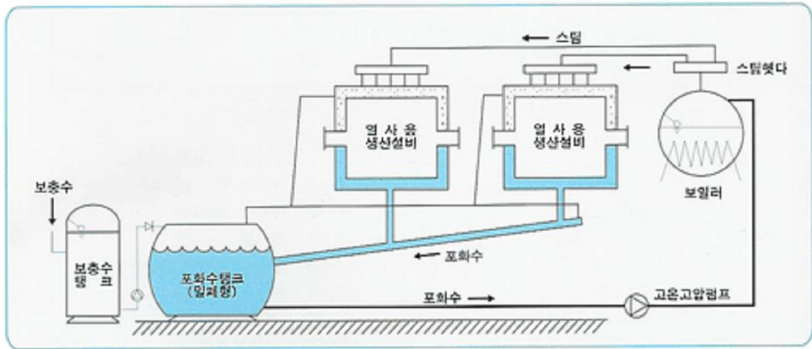
### (3) 산업환경

렌더링 시스템은 버려지는 포화수를 전량 회수케 함으로써 15~30%의 에너지를 절감시키는 시스템으로 그로 인해 생산성이 향상되고 연료사용량이 줄어들어 기업이 실제 얻는 절감효과는 45%에 달한다고 한다. 렌더링 시스템이 에너지 절약 장치인데다 환경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설치하겠다는 업체가 별로 없다고 한다. 국내 경기가 안 좋아서인지, 시스템의 효용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상담량에 비해 실제 계약이 성사된 곳은 적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의 품질을 인정하면서도 업체의 실적, 동종업계 실적 등을 제시해줄기를 바라기 때문에 시장개척과 마케팅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때문에 앞으로의 사업전망이 매우 흐리다고 판단, 국내 시장에서의 탈출을 모색하여 금년 5월에는 OEM방식이 아닌 현지 영업자들을 직접 만나서 홍보하는 방식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시도했는데 남아공과 인도에서의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하지만 현지에서 경험한 KOTRA등의 지원 의지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 정부기관 직원들이 기업에 대한 열의도 없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으로 느껴졌다고 한다.

대기업의 횡포도 상당하여 외국회사와 제품판매 대행을 하면 대기업이 중간에 가로채 가는 등의 사례가 있어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앞으로는 단순제조업은 중국에 밀려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며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산업도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며 무엇이든 고부가가치로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림 4-3> rendering system 개략도

#### (4) 정부지원

정부의 제조업 지방이전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는데,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대기업과는 달리 중소기업들은 직원들의 생활환경을 보장해 줄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 인적자원이 이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원자재수급이 서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으로 업체가 내려간다고 해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류비용만 증가하게 될 뿐이라는 것이다.

자금지원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실사를 나온 사람들이 기술자는 몇 명이 있어야 하며 작업환경은 이렇게 해야 한다는 등의 매우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하여 결국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그 정도 수준을 맞출 정도면 이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회사여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이 과연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얼마 전에도 중소기업청장 간담회에서 1조원 가까운 돈을 지원해준다고 했었지만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신청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1994년, 새로운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대덕 단지를 찾아갔을 때, 국가자금으로 제품을 연구하면 나중에 업체가 살아야 된다는 말에 개발을 포기한 경우가 있었다면서 그 후로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경우가 생겨도 그런 기술지원제도를 찾아보지 않는다고 한다.

싱가포르에 가서 경험해본 바로는, 사업자가 관공서에 전화만하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바로 조사를 하고 복잡한 절차는 다 직접 처리해주고 자금이 모자라면 은행에 설명해서 대출까지 받아주었는데,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개인이 모두 직접해야 하고 그나마도 간단하지 않고 복잡한 절차들이 너무 많아 사업지원환경에서 큰 차이를 느꼈다고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이 중요한 이 시점에 제품이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니만큼 정부차원에서 에너지 절약 캠페인 등을 펼쳐주고, 공무원이나 정부단체에서 품질이 뛰어나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라면 제품에 대한 추천을 해주었으면 하고 있다.

## (5) 후계자 및 기업 계승

현재 사장의 아들이 기업을 계승하기 위해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판매업체

렌더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아웃소싱 해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기업으로 판매는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제지, 골판지 제조, 전자, 식품, 화학, 섬유, 학교, 병원, 아파트, 호텔, 관공서, 제약 등 다양한 부문에 제품을 납품한다.

10명의 직원 중 사장을 포함한 4명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주문후 제작(order made)방식으로 생산된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대부분 인근 공구상가에서 부품 조달을 하고 있다. 비용을 바로바로 지불해 주어 물건납품 받는 데에 별 어려움은 없다.

## (3) 생산자서비스 업체

자체적으로 세무시스템을 갖추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근 고척동에 있는 세무회계사무소와 거래하고 있다. 경영컨설팅 등은 받은 적이 없다.

## (4) 생산연계

제품 특성상 배관부터 설치 공사까지 다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 하나가 혼자 모든 공정을 담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아웃소싱 준 곳은 인천이 40%, 고척 동일대가 60%이며 생산업체는 예전에 근무하던 직원이 나가서 창업한 곳도 있다.

용역 납품받아 설치한 부품 등에 하자가 생기면 해당용역업체가 직접 가서 수리해 주고 있으며 서로 저렴하게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곳이 많아 생산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 3) 시사점

이 업체는 지속적인 기술개발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대학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산학협력에 대해 그 조건이 까다롭고 실질적인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인근에 동양공업전문대학이 있어 산학컨소시엄을 형성하는데 좋은 입지조건

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측에서 대기업이 아니면 업계를 존중해주지 않고 어려운 용어를 쓰며 무시하는 등의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큰 벽을 느끼고 있어 자유로운 연계교류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자금지원에 있어서는 정해진 조건에 조금 맞지 않더라도 담당자가 판단해 발전가능성이 있으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니만큼 홍보활동까지 하기가 벅차므로 업체의 발전을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한 지원제도를 마련해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각종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관련기관의 문을 두드렸을 때, 기관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 그 후로는 대부분의 업체가 신청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고 형식적인 제도일 뿐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부터는 신청 자체를 꺼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도 변경된 제도나 지원정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정보에서 점점 소외되게 되는데 이 업체 역시 몇 번의 지원신청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자 지원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생겨 정부지원에 대한 정보에서 점점 멀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는 조건의 완화와 다양한 지원제도 등 제도자체의 개선노력뿐 아니라, 신청업체가 당시에는 지원조건에 맞지 않았다 하더라도 업체의 조건이 변동되었거나 제도가 변경되었을 때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당 업체에 그 세부내용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 E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E기업은 1991년 창립되어 1995년 2월 법인전환 되었다. 사장은 구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로, 화학공학과를 졸업하고 화학회사에 1년간 근무하다 무역업체로 옮겨 7년간 근무하였다. 1991년 창업 당시에는 마포구에서 시작하였다가 자금 확보가 어려워 운영비 절감의 이유로 부친의 건물이 있는 구로구로 오게 되었다고 한다.

주로 정밀화학 제품, 제약원료와 중간재, 기능성 식품소재의 개발과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으며, 기술세미나와 전시회 참관 등을 통하여 고객과 공급자간의 연결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단순히 원료만을 공급하는 차원을 탈피하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여 새로운 원료의 개발과 양질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나아가 파트너 회사들의 제품을 수출하는 단계까지, 전 과정을 통하여 서로 긴밀한 업무협력의 관계에 있으며 국내외 파트너와의 협조하에, 여러 번의 합작 프로젝트도 성공시킨 바 있다.

한국수입업협회의 회원이며 좋은 원재료를 수입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 (2) 입지특성

구로구는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IT분야에서 가장 역동적인 구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컨벤션센터 등의 업무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외국바이어들과의

사업상담시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에 위치한 대부분의 업체가 중소기업인데, 그러한 기반시설이 없어 강남까지 나가야 하는 등 바이어들의 숙박, 식사문제 해결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고 하였다.

조만간 옛 한국타이어 부지에 업무와 판매시설을 갖춘 지상 30층 규모의 신도림 복합빌딩이 들어서고, 대성산업 부지에는 호텔과 컨벤션센터, 업무·주거시설을 갖춘 51층 규모의 복합타워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러한 어려움이 조금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산업환경

이 업체는 국내외 각종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료 공급과 수출을 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거래처들의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거래처의 사업이 활기를 띠어야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지고 이 업체가 받는 수수료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단순한 무역거래를 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술은 있지만 기반설비가 없거나, 기반설비는 있지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없는 업체를 서로 링크시켜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바이오·정밀화학 분야는 초기 설비투자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에 각 업체별로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적재적소에 정보를 제공하여 상생의 길을 열어주고, 그렇게 해서 생산된 제품을 해외에 소개도 하고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것이다.

국내의 거래처 업체들이 생산한 제품을 수출하기도 하는데 주로 중소기업들로, 어느 정도 품질, 신용 등에 대한 확신이 있는 기업들만을 선별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서 1~3% 수준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보다 다양한 루트로 거래할 수 있고 무역업체를 통하지 않으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기업

에서도 가끔 거래를 의뢰하기도 한다. 구매자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생산자에게 요구하여 생산해 내는 경우도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소재산업이 약한 특성이 있다. 중국·인도는 자원이 풍부하고, 일본은 기술이 좋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80~90년대 거래되던 염료, 농약 등은 공해산업이라는 인식으로 인도로 대부분이 넘어갔고 제약·식품 분야는 수입에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원료를 찾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소득이 높아지고 노령화 사회로의 급속한 진입으로 의약품시장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중국, 인도, 베트남 등의 추격에서 살아남으려면 연구개발과 마케팅에 힘써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하였다.

2002년 이후, 전자소재 정밀화학 제품과 양질의 API, 그 원료 공급에 주력하고 있으며, 최근 중국·인도를 상대로 한 사업이 많이 강화되어, 중국과 인도내 협력공장에서의 양질의 원료공급과 수출 등의 비중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 (4) 정부지원

정부지원을 받은 적은 없지만 한국수업업협회와 상공회의소 회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상공회에는 현재 1,800개 회원사가 등록되어 있어 정보교류 장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한다. 모두들 자발적인 의지에 의한 참여이기 때문에 적극적이고 결속력이 좋아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이업종간의 정보교류에도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부족이 큰 애로사항인데 상공회의소 주최로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했을 때, 대사관에서의 지원이나 KOTRA에서의 지원들이 있어서 매우 유용했다고 한다.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소액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을 선별하여 기

술력이 뒷받침되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판매업체

거래업체로는 SK정밀화학, 종근당, 유한양행, 한미양행 등 국내업체 60군데와 해외 40군데 등 총 100여 곳과 거래중이다. 국내 60개 거래업체 중 인근에 위치한 곳은 거의 없는데 최근 현대약품, 부광약품 등의 중앙연구소가 가산단지 탈단지로 이전하여 거래가 한결 수월해졌다고 한다.

원자재수입·판매가 90%를 차지하고 수출은 10%정도이다.

### (2) 수입(원·부자재 구입)업체

바이오, 제약, 기능성 특수식품 등의 원·부자재를 취급하고 있는데, 현재 거래국가는 21개국으로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인도, 중국, 태국 등 세계 각 지역의 국가와 거래하고 있다.

몇 년 전만해도 미국·유럽·일본의 거래비중이 80%를 차지하고 중국과 인도는 20%에 불과했었으나 최근 그 추세가 바뀌어 작년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중국·인도가 80%, 미국·유럽·일본은 20%로 비중이 바뀌었다.

## 3) 시사점

이 업체는 관련 분야에서 10여년 넘게 축적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양질의 원자재 공급과 업체간 협력관계 구축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업체이다.

여러 업종의 많은 업체들을 접하고 시장의 트렌드에 민감하다보니, 업체의

문제점이나 개선점 파악에 남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취급품목이 중국·인도와 경쟁하는 품목인데 기존 업체들이 R&D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제품개발에 투자해야 한다는 등의 조언도 해주고 있다. 제품 생산을 해놓고도 판로를 뚫지 못한 업체와, 핵심 물질이 없어서 연구가 진전되지 않았던 업체를 서로 연결시켜주어 사업의 돌파구를 찾아주는 상호보완의 역할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해외를 자주 다니면서 전 세계의 트렌드를 읽어내고 선진국의 과거 흐름을 보고 벤치마킹하여 거래처에 전달, 시장을 미리 내다보고 개발하게 하는 것도 이 업체가 하는 일이다.

시대의 흐름이 바뀔에 따라 E기업과 같이 생산업체와 판매업체의 중간에서 유통유 같은 역할을 하는 업체가 하는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업체간 정보의 싸움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상황에 적합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 현대 사회에서 업체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역중개업체들의 가장 큰 장점이자 필요요건이 바로 정보력이다. 따라서 인맥형성, 정보교환 등을 위한 상공회 기능의 활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상공회 외에도 여러 단체의 상호교류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제시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6. F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F기업은 동종계열의 중소기업에 6년간 근무하다 독립한 사장이 1979년 창업한 회사로 반도체·LCD 등의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창업 당시, 부품의 확보가 용이했던 청계천에서 시작하였다가 외주업체가 가까운 지금의 신도림동으로 2000년에 이전하게 되었다.

IMF전에는 종업원이 50명에 이르렀으나 현재는 많은 부문을 아웃소싱하고 30명이 남아있다. 그 중 5명은 설계를 담당하고, 그 외에 무역(수입)을 담당하는 직원과 자재관리를 맡고 있는 직원 등이 있다.

연 매출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하여 80억원에 달한다.

## (2) 입지특성 및 산업환경

청계천에 입지하여 있을 때는 주차가 불편하고 시민들과 상인들의 데모가 많아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많았다고 한다. 판매하는 장비가 크고 무거워서 거래업체가 가까이에 있어야 하는 지리적 입지특성 때문에 신도림동으로 이전하게 되었고, 현재 인근의 아파트형 공장에 영업 3부가 이전하여 따로 운영 중에 있다.

현 입지는 공구상가와 거래업체가 가깝고 인력확보가 용이하며 교통·통신 등의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한편으로는 인근 주거지와 갈등, 업체주변 물리적 환경의 열악성, 높은 지대 및 임대료 등의 단점도 있다. 이러한 단점 때문에 새로 들어오려는 사업체는 별로 없고 계속 경기도로 나가는 듯 하며, 이 업체도 오산·평택 정도면 이전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현 입지의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제조업체는 임금과 복지 차원에서 대기업만큼의 지원을 해 줄 수 없으니 최소한 출퇴근이 용이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야 인력확보가 좀 더 쉬워지기 때문에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 것이 좋긴 하지만, 주변 주거지에서 공장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다.

### (3) 정부지원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고 하였는데, 구로구와 동양공업전문대학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산학협동사업에 대해서도 탐탁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산학협력이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업계는 무한경쟁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가는데 반해 학교는 개발 위기감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업계보다 한참 뒤쳐져 있는 것도 정부차원의 산학연사업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한 이유였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적극적인 자금지원 또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판매업체

판매는 주로 반도체와 LCD 제조공장이 많은 안산의 시화·반월공단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외에 파주, 천안, 구미 등에도 납품하고 있다.

납품처는 총 300여개로 그중 안산·시화가 70%를 차지한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독일, 미국, 일본 등지에서 최첨단 부품을 수입하고 있다.

### (3) 생산연계

공동연구개발은 없이 모두 자체개발을 통해 제품을 생산해 왔으며 생산은 외주업체에 맡기고 본 업체는 제품설계만 담당하고 있다,

외주업체 10군데로 전부 구로구에 입지해 있다.

### 3) 시사점

본 업체는 반도체·LCD등을 제조하는 설비에 필요한 첨단부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품을 자체개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개발에 시간이 걸려서 고객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고, 부품의 질 때문에 수입제품을 그냥 쓰겠다는 경우도 있고, 개발을 해도 수입하는 단가가 더 저렴하여 계속 수입한 부품을 쓰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국산화된 부품을 원하는 고객들이 있으면 자체생산·판매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자체 제품개발이 필요한 업무특성 때문에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고급인력 확보도 중요한데,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연구인력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고 주거지에서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업여건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판매를 위한 영업의 중요성도 커서 영업에도 상당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

대기업과 비교해, 제품수입에서 납품까지의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기간이 짧다는 것이 이 업체의 장점이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급인력 확보를 위한 보다 저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의 제공, 산학협력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주변 주거지와와의 갈등 해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7. G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G기업은 1980년 마포구에서 고무제품 제조 전문업체로 출발하였다. 1986년 염창동으로 이전했다가 2002년 10월 법인을 설립, 2004년 지금의 영등포구 양평동에 입지하게 되었고 현재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 전문업체로 발전하였다.

2004년 지금의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 후 입주하게 되었는데 이전이유는 원자재 구입업체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주로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등의 부품 금형제조 및 부품 사출을 하고 있으며 2004년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기존 소형 고무제품, 합성수지 제품 이외에 안테나, 키패드 등 신제품에 대한 기술확보 및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종업원 수는 2005년에는 100명이 넘었으나 현재는 73명으로 감소하였고 매출액은 2006년을 기준으로 82억 원 정도이다. 2005년에 직원들이 100명이 넘었을 때에도 매출액은 2006년과 비슷했다고 하여 수주액이 줄어들어 고용규모를 줄인 것은 아니고 구조조정 차원인 듯하다. 직원들은 서울을 비롯해 부천, 인천 등에 거주하고 있고 2007년의 매출목표액은 90억 원이다.



<그림 4-4> 종류별 부품

## (2) 입지특성 및 산업환경

기준에 입지해 있던 공장들이 빠져나가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공장에서 소음, 공해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현재 공장들이 군데군데 모여 있고 그 주변에는 아파트와 상가들이 들어선 상태인데 구청에 민원이 많이 들어가서 사업하는데 있어 제재가 많고 주차역시 하기 힘든 편이다.

제품생산형태는 직접 금형 개발을 하기도 하고, 금형 설계도면을 받아서 제작하기도 하고 아웃소싱으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금형을 개발, 본 업체에서는 사출만 하기도 하는데 금형제품의 단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서 사업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한다.

직원들의 이직률이 매우 커서 신입직원을 교육시켜 놓으면 다른 업체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 인력확보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 (3) 정부지원

서울시의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알아본 적이 있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중도에 포기하였다고 한다. 서울시의 자금지원 예산중 몇 %나 실제 지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까다로운 조건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적은 지원금이라도 유용하게 쓸 수는 있으나 절차가 너무 복잡하여 이러한 제도가 과연 업체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고급인력의 고용 필요성도 느끼고 있지만 고급인력일수록 유동성이 커서 붙잡아 두기가 더욱 어렵다. 석·박사를 고용하면 처음 1년간 인건비의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1년으로는 꾸준한 기술개발이 어려우므로 신규 고용이 아닌 기존의 고용자들도 1년 이상 중장기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해 주길 바라고 있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수주업체

주문생산형태로 제품이 생산되며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고 있으며 매출의 95%가 여기서 발생된다고 한다. 동종업계는 많고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대기업은 한정되어 있어 경쟁이 심하고 때로는 출혈경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대기업에서 단가조정 요구가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조차 가질 수 없는 일방적인 입장이다. 주거래업체가 대기업이다 보니 정책변화에도 민감하고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매출이 뚝 떨어지는 등의 애로가 있다. 대기업에서 직접 수주를 받기도 하고 대기업의 하청을 받은 업체에서 재하청이 들어오기도 한다.

다른 업체에도 납품하고 싶지만 업계 특성상 대기업끼리 같은 업체와는 거래를 하지 않아서 휴대폰 부품은 대기업한 곳과 거래할 수밖에 없고, 다른 제품을 생산한다고 해도 이미 형성되어 있는 시장에 뛰어들어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어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한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업체의 70%가 다른 기업과는 거래할 수 없는 것이 본 업체와 같은 핸드폰 부품을 납품하는 업계의 실정이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원·부자재는 주로 인근의 대리점에서 구매하고 있는데 최근 거래업체들의 잦은 이전으로 인해 거래선을 다변화하려는 차원에서 총 10군데 정도업체와 거래하여 자재의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 (3) 생산자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업체

인근에 위치한 세무회계사무소와 지속적으로 거래해오고 있다.

#### (4) 생산연계

많은 돈을 들여서 제품의 모든 공정을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량이 많거나 본 업체에서는 할 수 없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 주변의 업체들과 연계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생산협력을 맺고 있는 곳은 총 20여 개로 도금 등의 공정을 담당한다.

#### (5) 산학협동

한국폴리텍대학 교수에게 기술자문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자체교육이 어려워 교수를 초빙해 실무나 이론에 관한 내용과 컴퓨터운용 등의 교육을 해주고 있다고 한다. 업체의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원들이 외부로 교육을 받으러 외부로 나가면 시간의 낭비가 많아 당장 업무처리가 밀리는 상황에서 이러한 사내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연구 열의도 자극하고 기술적인 내용도 배우는 점이 좋다고 하였다.

### 3) 시사점

아파트와 상업시설만 들어서고 제조업체는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 정부는 고용창출 차원에서도 제조업체를 어느 정도는 보호해 주어야 하는데 새로 생긴 주거지에 의해 민원이 제기되면 기존에 들어서 있던 공장들까지도 엄격한 법의 제재를 받고 벌금을 무는 등 사업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기업의 거래여부 결정에 공장전체의 사황이 걸려있기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해당업종의 특성도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업종의 전환 또는 다각화를 모색할 필요성은 느끼고 있지만 실제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기술개발과 홍보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제품을 개발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투자해 제품을 개발하고 나면

제품의 판로까지도 스스로 개척해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기업은 홍보를 위한 추가 자금확보가 매우 어려우므로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안정적인 사업환경 제공을 위해서는 인력확보의 안전성, 보다 간단한 심사와정을 통한 자금지원, 공장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이 가장 필요하다.

## 8. H기업

### 1) 개요 및 입지특성

#### (1) 업체 개요

1990년 설립 당시 지금 공장과 멀지 않은 양평동에서 개업했다가, 2000년에 현 위치로 새로 건물을 짓고 입주하게 되었다. 주력업종은 프레스주변기기와 금형부품의 제작 및 수출입이며 매출액은 2006년 기준으로 내수가 100억 원, 해외수출이 97만 불이었다.

종사자는 총 48명이고, 그 중 2명이 연구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3층 건물 중 1, 2층에서는 제품을 생산하고 3층에는 사무실 및 연구실이 있다.

주요 생산품목은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만들기 위한 금형설비에 들어가는 부품의 제조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업체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가스스프링제품은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가스스프링의 국산화를 이루어 합리적인 가격과 신속한 납기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금형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기존에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입하여 규격이 Inch 단위였지만, 이 제품은 국내 산업의 실정에 맞는 mm단위의 규격을 세계 최초로 완성하였으며 국내외 업계 생산현장에서도 그 품질의 우수성을 널리 인정받았다.

또한 이 제품군 안에서도 CE마크, ISO인증 등 국제 공인을 받은 제품을 개발하여 내수 및 해외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다른 제품을 계속 개발 중에 있다.

## (2) 입지특성

본 업체가 위치한 양평동2가는 오른쪽의 <그림 4-5>에서 보는바와 같이 양평동 13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지난 2004년 서울시가 도시재개발 기본계획 속에 양평동 11, 12, 13 구역 등을 포함시켰으나 2006년 1월 재개발구역지정을 추진하면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상 준공업지역 중 공장비율이 30%이상인 공장우세지역이라 아파트개발이 불가능하다며 양평동 11, 12, 13 구역의 재개발구역지정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서울시 양평동 준공업지역 일대가 최근에는 그 개발방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5> H기업 위치도

때문에 이 지역 재개발을 추진해 온 주민들과 시행사 및 시공사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결국 서울시의회가 이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받아들여 2006년 8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상황까지 진행됐다. 의회가 제출한 개정안을 보면 준공업지역내 공장이 이전할 부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안 35조 2항에는 시장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장이적지에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개정 발의된 조례안은 공장부지 면적 대비 20% 이상 공공시설을 제공하고 용적률의 20%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조건으로 공동주택을 허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양평동 일대에 대한 개발방식을 주택재개발이 아닌 도시환경정비사업(과거 도심재개발사업)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이 준공업지역중에서 주택재개발이 불가능한 공장우세지역인 만큼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해 일정부분의 산업공간을 확보하면서 주거공간도 함께 건립할 수 있는 개발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에 주민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시 상가 등 이해당사자의 처리 등 그 사업추진기간이 길어지고 대부분 주상복합이 들어서게 돼 사업성이 현저히 불확실해 사업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 주택재개발로 개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다.

때문에 본 업체가 입지한 양평동 13구역은 현재 공장주변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재개발사업 확정 공고 후 주변 임대료가 기존의 평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올라 임대를 하고 있던 많은 업체들이 이미 이전하였으며 본 업체는 자가건물이고 당장 이주할 계획은 없지만 잦은 재개발의 위험과 민원 등으로 향후 5년, 짧게는 2~3년을 내다보고 이전에 대비하여 부천시 오정구에 입주를 신청해놓은 상태이다. 부천시 오정구에 신청한 부지는 평당 400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이전하게 될 경우 직원들의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3) 산업환경

KAIST의 몇몇 교수에게 기술자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공식적인 산학협력관계는 아니고 회사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것뿐이라고 하였으며, 국내에서의 입지가 확고하고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는 업체다 보니 학교측에서 먼저 공동 기술개발 등을 제안하는 경우도 많지만 정작 이 업체에서는 본격적인 산학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별 흥미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듯하였다.

양평동공장협의회라는 현수막이 근처에 붙어 있어 현재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것 같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준공업 지역의 활성화라는 말을 꺼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주변의 압박을 받고 있다.

병역특례제조업체로 인력확보에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역시 고급인력 수급에 있어서는 다른 업체와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 (4) 정부지원

KOTRA와 중소기업청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해외전시회 등에 여러 번 참가하여 제품브랜드를 알리고 계약을 맺을 수 있었으며, 각국의 지사장들과 안면을 트는데도 도움이 되었다.

그 밖에 자금지원을 받으려고 시도했었으나 지원금액은 적으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냥 포기했었다고 한다. 1,000만원 지원받기 위해 며칠간을 보고서를 준비하기에는 인력도 모자라고 공장상황이 바빠졌기 때문이다. CE마크와 ISO인증을 받을 때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에 의해 각각 240만원, 3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으며 기술개발준비금제도에 의해 조세감면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한다.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나 심사기준, 제출서류 등의 구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그러한 부담 때문인지 자체자금으로만 운영하고 웬만하면 정부지원을 받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였다.

## 2) 기업의 거래 및 협력 네트워크

### (1) 판매업체

금형이 대부분이 주문생산이지만 본 업체는 금형 설비에 들어가는 국제규격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시장생산을 하고 있다. 생산된 제품은 자동

차업체로는 GM대우, 현대자동차, 기아모터스, 르노 삼성, 전자업체로는 LG전자,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 자동차 금형설비 부품 같은 경우 국내 시장을 거의 100% 장악하고 있고 해외 17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 (2) 원·부자재 구입업체

주요 원·부자재를 구입하는 업체는 13개로, 양평동 일대에 11개, 안산에 2개 위치하고 있다.

## (3) 생산자서비스(금융, 법률, 회계) 업체

상공회의소에서 요일을 정해놓고 시행하고 있는 노무, 회계 등에 대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노동부에서 공장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컨설팅, 노무관련 질의응답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상공회의소에 납부하는 회비가 꽤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편이다.

## (4) 생산연계

양평동 일대가 금형제조지역으로 활성화되었던 이유는 금형관련 외주업체가 문래동에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금형 생산을 위해서는 철의 가공,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한 표면처리, 강도를 높이기 위한 열처리, 용접 등 많은 공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를 한 개 업체에서 모두 갖추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업체들이 모여있는 문래동 인근으로 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 업체 역시 주변 협력업체를 통해 각종 부가공정을 해결하고 있다.

## 3) 시사점

본 업체는 국내 유수의 자동차 및 전자 업체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국제규격을 맞추어 해외로의 수출 역시 병행하고 있다.

자동차 생산에 있어 중요한 부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고 국제공인마크를 획득하는 등 품질과 기술에 있어서는 자신이 있지만 중소기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기에는 사람들의 인식이나 직원들의 애사심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회사 이름을 중시여기는 풍토로 인해 대학에 인력을 요청해도 대기업이 아니면 가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지원조차 하지 않으며, 힘들여 고용이 이루어지더라도 곧 떠나는 상황이 반복되어 꾸준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회사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다. 중소기업청과 KOTRA를 통한 해외판로개척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고 있는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위의 G기업 사례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아파트들이 많다보니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어 사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제공이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 제3절 요약 및 정책 과제

### 1. 요약

이상에서 서울시 준공업지역의 면담조사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준공업지역 사업체의 특성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현황 및 특성

준공업지역은 1990년대 이후 설립된 업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현재 위치로의 이전은 대부분 2000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준공업지역이 제조업체로부터 매력적인 환경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업체들의 평균 운영년도가 14년이 채 안 된다는 점에서 준공업지역 업체들의 생명력이 길다고는 할 수 없다.

대표자들의 나이도 50세 이상이 66%를 차지하고 있어 이미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영자의 연령이 고령화되면서 축적된 기술을 전수해 줄 사람이 없는 것 또한 문제이다. 오랫동안 축적해온 기술이나 기능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서는 젊은 인력들이 참여하여 사업체를 승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업을 승계하는데도 과도한 상속세 등 제도적인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공장 규제, 지가 상승, 주변 주민의 이전 압력, 젊은 인력의 공장노동이탈, 생산 연계기업들의 지방 이전 등의 현상으로 인해 분업 네트워크를 형성해 오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을 밀어내려는 힘과 이에 버티지 못하고 빠져 나가려는 움직임이 발생하고 있다.

준공업지역의 업체들이 빠져나갈 경우, 집적기반을 형성해 온 기술이 유출되

거나 사장될 가능성이 높아져 지역에 착근되어 있는 귀중한 기술 자산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 2) 입지환경

준공업지역에 입지하게 된 이유로는 ‘거래업체간, 동종업체간의 지리적 근접성 때문’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8.9%,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실 확보’와 ‘교통·통신연락의 편리’ 등 물리적 환경 때문이라는 응답이 33%로 나타나 많은 업체들이 사업 환경에 대한 기대로 준공업지역에 입지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입지환경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를 묻는 항목에서 사업비용(임대료, 임금 등)과 교통·통신 인프라 수준,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쾌적한 주변 환경 등에 대한 만족도가 그 중요도에 비해 낮은 것을 보면 현재의 만족도가 업체들의 입지 당시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 대상 업체들 중에는 아파트형 공장처럼 주차 공간 확보가 잘 되어있는 업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지역에서 좁은 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직원들의 편의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업 공간 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산업관련시설 중 가장 필요한 시설을 묻는 질문에도 종합지원센터 다음으로 공용주차시설이 나와 준공업지역의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조사대상 업체 중 이전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46.3%에 달했는데 이전 이유로 ‘사업장 확장을 위해’, ‘작업장이 좁고 도로나 주차장이 열악해서’, ‘건물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등 물리적 환경에 대한 불만이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3) 사업환경

사업 활동에 있어서의 장애요인으로서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으며, 다음으로 인건비 상승, 자금부족, 업체 간 경쟁심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요인들 중 많은 부분은 그 자체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들이며, 기술 개발, 디자인개발, 산학협력 등을 통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적극적이며 과학적인 마케팅을 통한 판매 확대로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별 중소기업들이 이러한 기능들을 원활하게 수행할 자원을 보유할 수 없으며 또 중요하게 인식도 하지 못하고 있다.

현 위치에서의 사업전망에 대한 견해는 업종별로 차이를 보였다. 음식료품 제조업과 목재·종이·출판·인쇄제조업, 화학제품·플라스틱제조업 등의 단순 제조업은 전망이 좋지 않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컴퓨터 및 기계관련 제조업과 의료·정밀·통신기기 제조업, 자동차 및 운송기기 제조업 등의 첨단산업에서는 유망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면담조사를 통해 업체들이 주변지역의 주거단지 개발로 인한 압박에 심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음이나 공해가 심하지 않은 업체까지도 공장의 입지 자체가 지가나 지역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판단한 주민들의 끊임없는 민원과 압박에 심적 부담을 느껴 이전을 결심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 업체 중 몇몇은 앞으로의 주변의 압력에 대비해 해외나 경기도로 이전 부지를 미리 마련해놓고 있었다.

이렇게 업체들이 공장 규제, 주변 주민의 이전 압력 등의 이유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 공장부지 확보와 거래업체와의 접근성, 기존 인력의 유지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직원들에게 대기업과 같은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기존에 팀을 이루어 작업하던 생산연계가 깨어지면 생산성에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변의 압박 및 높은 지가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의 업체들은 준공업지역을 하나의 산업집적지로서 만족하고 있으며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협력업체와의 접근성에 대한 중요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동종업종의 집적에 대한 불만족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준공업지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연계가 잘 발달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직접 방문을 통해 거래를 맺는 등 준공업지역 내 업체들 간의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상공회 등의 모임 등으로 대면 접촉을 자주 함으로써, 개인 차원에서 정보의 유통이나 공유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서 얻은 정보는 어떠한 회사를 활용하면 어떠한 가공이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기업정보의 축적이 된다. 정보축적에 의한 이익으로서는 다양한 기업이 제품의 제조 공정을 분담하는 경우에 상대방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 상대의 조사가 불필요하게 된다. 또 상대의 신용정보에 대해서도 일상적인 만남으로부터 충분히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거래상의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분업탐색비용의 절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대면접촉에서는 전문지식에 대한 교환도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기술의 폭을 넓히게도 된다. 이러한 특징을 ‘기술축적의 심화’라고 할 수 있다. 창업 면에 있어서도 과거에 창업한 사람의 정보가 공유되고, 스핀 오프 등 새롭게 창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노하우를 얻기가 쉽다(창업의 용이성). 더욱이 이러한 지역에서는 제품의 제조공정이 세분화되고 분업되어 있어서, 분업의 심화가 개별 기업의 전문성을 심화시키게 된다(기술축적의 심화). 세분화된 분업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의해, 좁은 분야의 기술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선반 1대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하게 된다(창업의 용이성). 그래서 전문화된 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집적지역에 기술이 축적되어 간다(기술축적의 심화). 이렇게 해서 준공업지역에 ‘기술축적의 심화’, ‘분업 탐색비용의 절약’, ‘창업의 용이성’이 갖추어지게 된다.

준공업지역 내 관련업체들 간의 원활한 생산연계를 통해서 ‘유연적 전문화’라는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준공업 지역의 제조업체는 전국으로부터 수주를 받고, 준공업지역과 인근 경기도지역 내의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제품을 만들어 납품하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당 업종의 관련업체들이 집적

하여 있음으로써 수주량, 시기 등의 불확실성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현재의 생산 활동에서 기업들의 전문화, 분업화, 생산네트워크,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 등을 보면 집적의 이익을 확실하게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집적지로서의 이러한 장점들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의 사업체들은 현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의 위상을 중요시하고 있었다. 협력업체들과 동종업종이 모여 있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물리적인 이점에 더하여, 해당산업의 메카라는 자부심이 준공업지역으로 입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기존 상권의 발달, 숙련된 고급인력의 확보용이, 활발한 지역 내 정보교류, 신속한 원·부자재의 구매, 공동생산 가능 등이 산업집적지로서의 또 다른 장점으로 꼽혔다.

#### 4) 기술 및 연구개발

현재 준공업지역 업체들은 제품개발 및 설계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들의 비중이 66.5%에 달해 생산을 위주로 하던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신기술 도입이 필요없다는 응답이 7.7%에 불과해 대부분의 준공업지역 업체들은 타업체와의 공동개발, 연구소와의 공동개발, 숙련기술자 고용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기술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자체 독자 개발로 신기술을 도입한다는 응답이 47.0%에 달했다.

기술 및 연구개발의 목적은 신제품의 개발을 위해서가 41.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기존 제품의 개량이 29.4%로 나타났다. 기술개발의 힌트는 자사의 기존 기술을 개량하기 위해서 또는 거래처와 협의하면서 얻는 경우가 많았다.

기술개발을 통한 지적재산권 획득에 대해서는 기술의 부재보다도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고 획득방법이나 효과 등에 대해 무관심하여

취득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당 평균 종업원의 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지만 업체당 평균 연구 인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 인력이 전혀 없던 업체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30%이상 업체들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도 준공업지역 업체들이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개발의 방법으로서 기업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비율이 높아 개량수준에 머물고 기술혁신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5) 산학협력

산학협력에 대해서는 조사업체의 26.8%가 산학협력을 맺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기대보다 많은 업체가 산학협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긴 했지만 협력 경험이 없는 대부분의 업체는 산학협력 자체를 모르고 있는 등 인지도나 관심이 매우 부족했다.

또한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은 전체 입지 및 생산·경영환경에 대한 여러 항목 중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대학과 연구기관 접근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업체들이 대학과의 산학연 협력 사업에 대해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역시 기술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신제품개발을 위해서인 것으로 나타나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및 연구개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산학협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지원기관·기능 미흡, 기업 내 산학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 등이 애로사항으로 꼽혀 산학협력 전문 지원기관과 전문 인력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많은 업체들이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자금이 부족하거나 대학과의 적절한 연계수단이 없고 심사절차가 까다로워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협력업체와 과제를 발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산학협력 후 사업화시의 애로사항으로 성공 불확실성이 자금문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내 업체연결, 판로개척 등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지원기관의 도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 6) 산업관련시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가장 원하고 있는 산업관련 시설로는 종합지원센터, 공용주차시설 확보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예산확보 및 고급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업체가 많았다.

가장 필요한 산업지원시설로 종합지원센터가 지목된 만큼 기술개발, 디자인 개발 등 가치사슬의 전반기능, 생산연계업체 발굴, 판로개척 등 가치사슬의 후반기능, 이러한 기능들의 수준을 제고할 산학협력 등 전반적인 사업 활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 7) 정부지원

가장 많이 받은 정부지원은 금융지원과 세제지원으로 대부분의 업체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와 적은 지원금액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은 여전히 열악한 공장지역의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준공업지역의 주력 기능인 경공업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주거 및 상업기능과의 공존이 원활하지 못하여, 주거기능으로부터 이전압력의 민원 대상이 되고 있다. 또한, 서울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입지 정책이 주로 단위 건축물이나 개별 사업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공간적인 산업 집적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단위의 활성화 시책으로는 연계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준공업지역은 주거지의 개발로 인해 상승한 지가로 임대료의 부담이 커져 사업부지의 확보 및 확장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준공업지역 소재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이고 부품 제조업체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주 인용되는 실리콘밸리나 제3이탈리아의 집적지와 같이 수평적 네트워크 형태가 아니라, 혼합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 부품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수주를 받는 대기업과의 관계는 수직적이라 할 수 있으며, 생산과정에서의 연계는 수평적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의 산업집적에서는 지역 커뮤니티의 인적네트워크, 신뢰관계가 기반이 되며, 구두 약속으로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 상대를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가 있다. 이에 비해서 우리의 산업집적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직적인 거래관계가 아직 강하고, 수평적인 기업네트워크는 약하여 경제 합리성만으로 거래 상대를 선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현재 준공업지역은 특히 생산기능에 특화하고, 최종제품의 시장과 분단되어 있고, 제품기획이나 마케팅 기능이 아직 미성숙해 있기 때문에 원가절감의 가격경쟁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고 산업집적지로서 기능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준공업지역은 기업 간의 수평적·호혜적 관계가 빈약하고, 네트워크나 상호보완성에 기초하여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산업클러스터라고 하기에는 아직 부족한 점이 있다. 집단적 학습을 활용한 이노베이션 환경에 해당하는 집적지에는 이르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이 서울의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을 수용하고 혁신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물리적인 측면에서 준공업지역의 정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쾌적한 주변 환경과

저렴한 임대료의 사업장 등 기업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입지정책이 요구된다.

또한, 준공업지역이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의 기술개발, 판로개척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 실태는 이러한 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라 판단된다. 대부분의 기술개발을 기업의 자체개발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이나 연구소 등과의 산학협력의 실적은 희박하다. 그리고 기업들의 대학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접근이 어렵고, 대학은 긴박감, 위기감이 없어서 협력해서 기술개발하기 곤란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도 막상 업체의 발굴과 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그나마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을 하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시장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기술개발 후에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도 볼 수 있었다.

준공업지역이 현재 가지고 있는 산업집적지로서의 장점인 공동생산연계시스템, 정보교류의 활성화, 산업집적지로서의 명성 등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최대한 살리면서 쾌적한 물리적 환경 조성, 제품개발부터 생산·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는 지원제도, 현장 수요에 의한 실질적인 산학협력 지원 등이 뒷받침 된다면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출과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혁신클러스터로 새롭게 태어날 것이다.

## 2. 준공업지역의 SWOT 분석

준공업지역은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중대한 변환기에 놓여 있다. 산업구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준공업지역의 물리적 환경도 변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입지 규제, 토지이용의 비유연성, 지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공동주택으로 잠식당하고 산업입지로서의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른 업체들의 지방 이전으로 기존에 형성되어 있던 산업집적지로서의 장점까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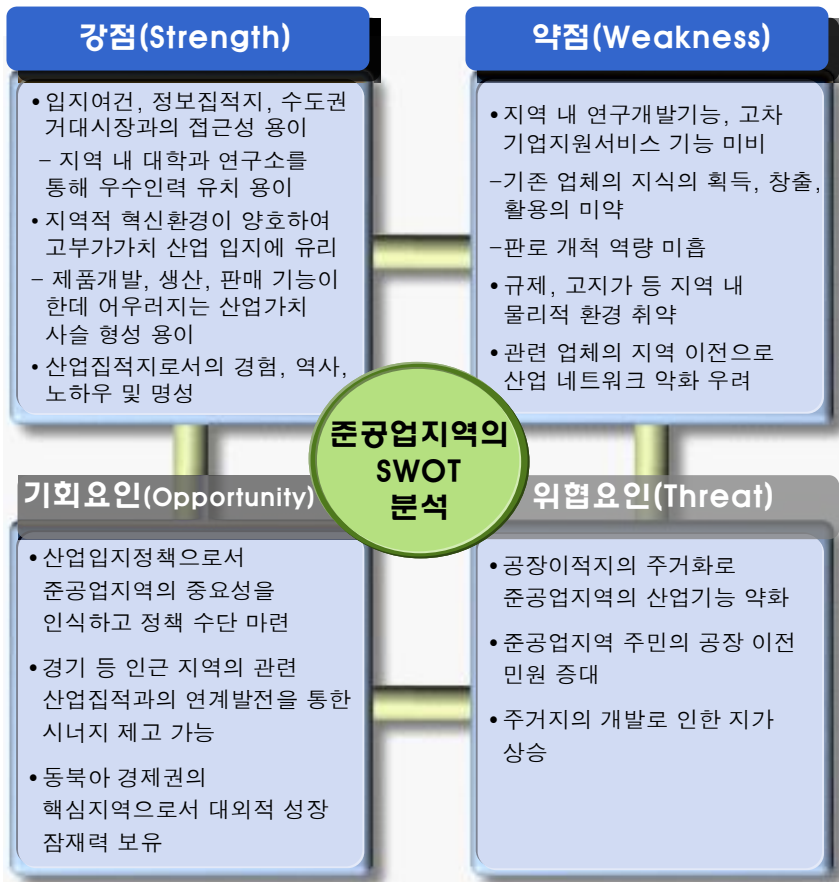
없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은 여전히 기업 활동하기에는 유리한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본적인 인프라의 정비는 물론이고, 혁신환경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거대시장이 인접해 있으며, 광역교통망이 발달해 있고, 정보수집이 용이하고, 동북아, 수도권 경제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혁신시설, 생활 편의시설, 집객시설 등이 취약하고 지역의 이미지가 과거 공업지역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첨단산업 혁신클러스터의 거점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제품개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는 많지만 대부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시장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전문인력 및 자금, 정보의 부족 등으로 고부가가치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및 판매 단계의 기능 수행이 미미하여 준공업지역이 혁신클러스터라 불리기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연구개발 및 고차 기업지원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높은 지가 및 생활편의시설 확충 등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4-6> 준공업지역의 SWOT 분석

### 3. 정책과제 도출

#### 1)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현재 서울의 산업구조는 제조업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점점 증대되고 있다. 서울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생산자서비스, 정보통신산업, 금융, 디지털 콘텐츠, 창조산업 등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형 제조업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렇다면 산업의 재구조화 과정 속에서 준공업지역에 생존해 남은 기존 산업과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산업입지의 제공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의 구조고도화를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입지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서울의 산업구조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에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인 서비스산업의 창업이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수용하면서, 기존 산업과의 시너지효과를 모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가치사슬상의 생산 전·후반 기능의 집적

준공업지역 산업의 혁신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기능뿐만 아니라 생산기능의 전·후반 기능을 포함한 가치사슬 전 과정의 집적이 필요하다.

세계화·지식기반경제·학습경제의 환경변화 속에서 글로벌 차원의 생산 환경은 급변하고 있고, 연구개발·생산·판매의 가치사슬 전 단계를 거치는 기간이 점차 짧아지고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생산기능에다 연구개발·디자인개발 등 가치사슬 전반기능의 보완, 판로확대를 위한 글로벌 마케팅 등이 후반기능의 보완으로 가치사슬 전 부분이 유기적

으로 연계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

### 3) 도시정비수법 및 산업지원체계 연계구축

준공업지역이 전통적인 굴뚝공장 지역의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산업 환경의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규모 공장이적지 또는 기존 공장들의 계획적인 개발 및 환경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정비수법을 구축하고, 산업집적지의 산업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강력한 입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쾌적하고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물리적인 환경정비뿐만 아니라 산·학·연 경제주체들이 상호 학습하고 연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내는 혁신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식기반경제에 걸맞게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모여들어 일하고, 즐기고 살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제 V 장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제1절 정책의 기본 방향

제2절 추진전략

제3절 추진시책

## 제1절 정책의 기본방향

준공업지역은 그동안 제조업 위주로 발전해 오다가 최근 양적인 감소와 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산업구조적인 관점에서는 제조업의 빈 자리를 생산자서비스업이 채워 주고 있다. 새롭게 생겨나는 신산업의 수용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과제는 먼저 창의와 혁신 활동을 촉진하여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신성장동력 산업이 창출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지금까지의 품질개선, 공정개선, 업무 효율화와 같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에 추가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의 창출, 새로운 거래처의 개척,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같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이 필요하다.

서울지역의 강점을 살려서 서로 다른 것을 융합하고 다양한 주체들 간의 연계를 통해 서울의 신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서울은 다양한 산업, 다양한 지식과 기술이 집적해 있다. 또 서울은 거대하고 세련된 시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서울에서 성공한 제품과 서비스는 세계적으로 통할 수 있다. 서울은 이미 세계적인 도시로서 동북아의 중심도시, 아시아의 거점도시를 추구하고 있다.

서울은 창의와 혁신을 추구하기에 우리나라 어느 지역 보다 유리한 환경과 우수한 인재, 금융, 도시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서울에는 우수한 대학, 연구소 등이 많이 입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으로서 서울시 산학연협력 사업도 있다. 민선4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서는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건설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으로 4

대 산업벨트의 전략거점 개발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 준공업지역의 산업재개발 추진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서울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준공업지역은 과거 고도 성장기에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엔진 역할을 하였듯이, 향후 선진경제로 발전하는 경우에도 새롭고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산업의 고도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창출하고 수용하여야 한다. 서울의 다양한 경영자원, 기술자원을 활용해서 미래 서울의 경제기반을 창출하고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여야 한다.

둘째, 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업들의 기술혁신, 경영혁신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경우 생산연계는 잘 형성되어 있지만, 새로운 기술개발, 디자인개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 새로운 거래처의 개척, 마케팅 능력 등이 부족하여 향후 필요한 프로덕트 이노베이션 능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울시, 산업지원기관, 대학, 연구소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산업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치사슬의 전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주민에게 매력 있고 기업 활동하기 좋은 도시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준공업지역에 부족한 고차 기업지원서비스, 호텔, 컨벤션 시설 등 지원시설을 확충하여 기업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하기 좋은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에게 매력을 끌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시대의 준공업지역은 문화적이며 어메니티가 높고 매력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여야 하고,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공업지역을 매력 있고 품격 있는 공간으로 가꾸어야 한다. 그리고 예술문화, 집객시설, 이벤트 등 자체로서도 새로운 산업창출이 가능하게 된다.

## 제2절 추진전략

### 1. 신성장동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준공업지역에 활동하고 있는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신성장동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경제시대에는 기존 산업이든 신성장동력 산업이든 지식을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높이지 못하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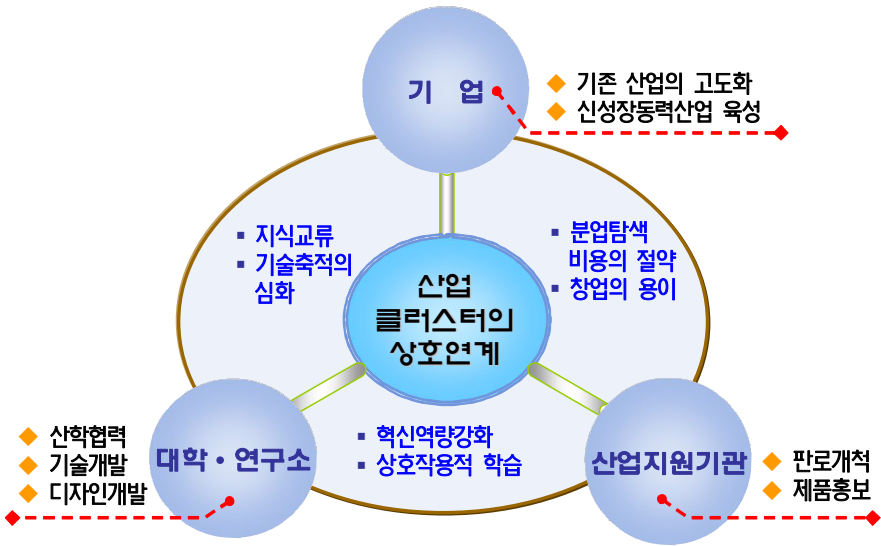
서울은 혁신역량을 갖춘 기업이나 대학, 연구소 등이 다양하게 입지하며, 이들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학습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은 기업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네트워킹을 강화하여 혁신공간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제품,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는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등 지식기반 하이테크산업과 컨설팅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신성장동력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전통적인 경제기반이나 문화 등을 통한 발전경로를 유지하도록 한다. 즉 지역 내에 과거부터 축적되어 온 생산경험으로부터 생기는 외부성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기존 기업, 기존 산업 환경을 통해 발전하도록 한다. 둘째, 새로운 기업을 창출하는 연구기관, 지원기관, 대학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을 찾아 새로운 창의기업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각 권역별로 입지하고 있는 기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이도록 한다. 특히 지식경제시대의 대표적 기술인 BT, NT, IT 등과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동북권은 현재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가죽, 가방, 신발제조업,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의 소비지입지형 산업이 우세하다. 그리고 주요 산업지역으로는 성동 준공업지역, 홍릉벤처밸리,

공릉NIT미래산업단지 등이 있으며, KIST, 대학, 대학병원 등이 혁신자원으로 집적해 있다. 따라서 신성장동력산업으로서는 기술융합형 산업으로서는 정밀의료, 의료소프트웨어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신약, 신의료용구, 인공장기 산업 등 바이오산업 등을 들 수 있다.

서남권은 현재 조립금속제품, 기타 기계 및 장비,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의 가공조립형 산업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해 있다. 주요 산업지역으로는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구의 준공업지역, 구로디지털산업단지가 있으며, 마곡첨단산업단지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이 지역 역시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 그 자체의 기술혁신도 중요하며, BT, NT, IT 기술과의 융합형 산업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기술융합형 산업으로서 정밀기기, 의료 소프트웨어, 메카트로닉스와 나노기술을 융합한 나노메카트로닉스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5-1> 준공업지역의 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역할

## 2.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 1) U자형(스마일커브) 가치사슬 형성

지금까지의 준공업지역에는 가치사슬의 제조 단계가 이익 창출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었다. 즉 자본력을 바탕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거나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생산원가를 줄이는 형태의 단순 제조 활동이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한 것이다. 가치사슬의 각 단계별 이익(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그림으로 그리면 중간단계인 제조부문이 가장 높은 ‘역 U자’ 형태가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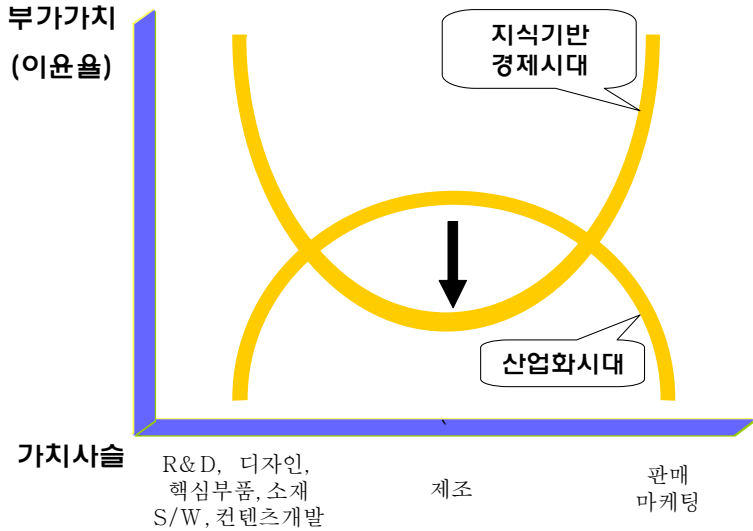
반면 앞으로의 지식경제시대에는 가치사슬의 앞쪽인 R&D·디자인·핵심부품·소재·소프트웨어·콘텐츠 개발 등의 활동과 후반에 위치한 마케팅·토털솔루션 제공 형태의 서비스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U자형 곡선이 나타난다.

이처럼 산업화시대에서 지식경제로 넘어가면서 가치사슬 곡선이 ‘역 U자형’에서 ‘U자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사람의 웃는 모습과 닮았다고 하여 ‘스마일커브’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2)</sup>.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들이 스마일 커브를 따라서 생산의 전반기능과 후반기능을 보완하면서 경쟁력의 축을 급속히 변화시키지 못한 채 단순조립·제조 위주의 사업모델만을 고수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

---

12) 송재용(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스마트경영”, 조선일보, 2007



<그림 5-2> 가치사슬 단계별 부가가치의 변화

## 2) 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준공업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R&D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프리미엄 브랜드 육성 등 마케팅 역량을 업그레이드하면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가치사슬 상에서 단순 제조업을 연구개발형 제조업으로, 서비스 중심의 소프트 경쟁력과 결합시켜 2.5차산업으로 변신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준공업지역의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서 이러한 기술자원, 경영자원을 개별기업 차원에서 확보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준공업지역에 신성장동력산업의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능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연구개발, 기술개발, 제품개발, 디자인 개발 등 창의와 이노베이션, 창업을 촉진하는 지원 시책들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기업들의 생산연계를 원활히 하는 네트워크 전략을 추구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제품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을 비롯한 생산자 서비스업의 입지도 촉진시키도록 한다.

이상의 연구개발, 디자인개발, 부품생산, 조립생산, 마케팅, 금융, 기업지원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능을 어느 한 조직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따라서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각종 기업지원기관 등 기업 외부의 요소들을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한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어 기업들을 지원하는 산업지원 플랫폼을 권역별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 3.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 조성

준공업지역이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 수법과 산업지원 체제를 조화롭게 추진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 산업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동시에 그러한 산업공간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산업지원 시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예컨대 준공업지역의 특정지역을 산업개발 및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여 토지이용이 산업활동에 유리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주, 지주, 주민,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이 중요한데, 그러한 산업에 종사하는 인재들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만들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과거 준공업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예술과 환경이라는 테마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좋은 예술은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준다. 그리고 지역의 부정적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개선하는 효과를 안겨준다. 지역의 매력을 높이기 때문에 그곳에 살고 싶어 하고, 그

곳에 가보고 싶어 하고, 나아가 그곳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즉 새로운 인구와 산업을 흡인하고 지역을 재생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산업개발진흥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구의 명칭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기업 활동, 여가활동, 문화활동, 국제적 교류 등 다양한 기능들을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우수한 인재나 정보가 모여드는 매력 있는 지역, 쾌적하고 안심하게 기업 활동 할 수 있는 지역, 효율적이고 기능적인 지역을 만들도록 한다. 동경의 롯폰기힐스나 미드타운,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공간을 준공업지역에도 유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쿄 미드타운은, 광대한 녹지와 6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132개의 상점이 입주해 있는 도쿄 최고의 명소 중 하나인 복합 센터로, 거리에는 다양한 숍, 레스토랑, 오피스, 호텔, 녹지, 미술관 등의 시설이 모여 있어 그것들이 서로 어우러져, 도심 생활에 고급스러운 일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복합 도시이다.

갤러리아, 플라자, 가든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있는 미드타운이 건설 초기부터 내건 슬로건은 '도심에서 즐기는 럭셔리한 일상'이다. 이 복합시설 안에서 일하고, 쇼핑하고,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도록 6개 건축물과 각종 시설물을 꾸몄으며, 입주기업의 70%가 정보기술(IT)관련 기업이거나 투자 은행 등 금융관련 회사다.

또한 디자인 분야를 특화하였는데, 입주한 업체 중 인테리어 디자인 관련 기업만 18곳이며 패션디자인 분야 기업이 대거 참여했다. 영국이나 미국 유명 디자이너들의 점포는 물론, 디자인을 테마로 한 연구센터인 '21/21 디자인 사이트'나 산업디자인 분야 산·학 연계 시설인 '디자인 허브'도 들어서 있다.

## 제3절 추진시책

### 1. 신성장동력산업 혁신클러스터 조성

#### 1) 신성장동력산업의 기업집적 촉진

준공업지역에 속해 있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효율을 발휘함과 동시에 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다.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유발하고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하고, 집적의 형성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신성장동력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준공업지역에는 많은 산업이 집적해 있기 때문에 창업기업의 생산 효율성을 높여 성공률을 높여주게 된다. 경쟁력 있는 산업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기술의 창업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분야의 우수 기업이 집적되고, 그 집적이 다시 집적을 불러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둘째, 기존 기업의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성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이미 준공업지역 소재 기업은 다양한 산업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기술개발, 신제품개발, 사업전환 시에도, 다양하고 두터운 수요가 존재하고, 협력업체나 관련 산업이 존재하고 있어 경제 환경 변화에 용이하게 대응할 수 있다. 경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어느 정도의 잠재적 수요는 항상 존재하고, 각 기업이 사업을 전개함에 따라 협력업체 등의 생산 네트워크를 유연하게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 또 협력업체와의 거래, 지원기관을 통한 교류, 비공식적 모임을 통한 이업종 교류 등이 다양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 이러한 정보교류를 통해 생산 공정의 개선이나 새로운 사업의 발굴에 자극을 주기도 한다.

### (1) 신성장동력산업 창출 촉진

기업, 대학이나 연구기관, 산업지원기관 등이 상호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BT, IT NT 분야의 신산업을 창출하고 육성하도록 하도록 한다. 이러한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고 사업화 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산업 창출에 도전하는 환경을 만들고, 신성장 동력을 육성할 새로운 유망 기업을 육성하도록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준공업지역은 세분화된 분업과 각 분야에서의 전문성에 의해, 좁은 분야의 기술로도 창업이 가능하게 되고, 설비적인 측면에서도 선반 1대로도 창업이 가능하여 비용이 저렴하게 된다. 또 과거에 창업한 사람의 정보가 공유되고, 스핀 오프 등 새롭게 창업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노하우를 얻기가 쉬워 창업의 성공률을 높여 준다.

결과적으로 준공업지역은 신성장동력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여, 서울 전체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 (2) 기술이전사업 촉진

이 사업의 목적은 대학, 연구소 등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고, 민간 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기술이전 사업을 통해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간의 탐색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계기회를 극대화함으로써 우수기술의 조기 사업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대학이나 다른 기관의 기술이전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활용하여 다음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 기술정보 공급 기능

- 기술개발지원 기능
- 기술알선 및 중개 기능

첫째, 기술정보 공급 기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정보에 관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에 관한 제반의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 산업의 주요 기술추세
- 기술집약적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대학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이전대상 기술에 관한 기초정보
- 중앙 및 지방의 타 기술이전기관과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각 기관의 D/B를 제공

둘째, 기술개발지원 기능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의 부족을 느끼는 기업이나 연구소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수요조사에서 파악된 기술에 대해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한다.

셋째, 기술알선 및 중개기능은 기술수요자의 기술심사를 통해 기술소요를 파악하고 적정 기술공급자를 알선,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과 상업적 효과를 분석·평가, 기술이전 과정에 필요한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 (3) 연구개발형기업 창업 촉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공업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가기 위하여 새로운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기업육성 시스템이 필요하다.

주된 대상은 연구개발형 기업을 창업하려는 개인이나, 창업한 지 얼마되지 않은 연구개발형 기업 및 사업을 확대하려는 연구개발형 기업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첫째, 기술지원으로서 산학연 협력사업을 통한 지원, 기술지도, 시험분석, 시험연구기기의 공동이용 알선 등이다. 둘째, 경영지원으로서 경영, 법

무, 재무 전문가를 활용하여 창업, 경영, 시장개척 등에 관한 조언을 한다. 셋째, 자금지원으로서 창업 예비자에 대한 연구개발비 보조, 각종 투자·용자제도의 알선, 제휴기업 알선하는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정보제공으로서 기술정보의 제공, 특허상담, 기업교류회, 비즈니스 매칭 지원 등을 한다.

## 2) 기존 제조업 기반의 강화

기존 제조업체의 기술, 디자인, 기획 등의 수준을 향상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마케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준공업지역의 산업 집적을 특징짓고 있는 의복 및 모피제품,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사무·계산 및 회계용 기계,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기술 개량, 기술혁신, 기술융합 등으로 첨단화를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 (1) 산학협력·산산협력의 촉진

다양하고 복잡한 기술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학, 이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기술의 융합으로 제품·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상생협력, 중소기업들 간의 상생협력도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산학협력 역시 중요한데, 기업과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개발로 추구하는 방향성의 차이로 두 주체간의 매칭이 잘 안되거나 실효성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기업의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도출하고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로부터 협력처를 모색하는 코디네이트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2) 이업종 기술교류사업의 활성화

대기업에 비해서 사업 분야가 좁고 자본력, 기술력, 개발력 등에서 뒤떨어져 있는 중소기업에게 새롭게 사업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경영자원을 가지는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제조업체들의 시장정보 획득방법으로 ‘주변 유사업종과 같은 비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업종·동업종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경쟁 격화로 구조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기업의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중소기업 간의 수평적인 협력 체제를 통한 공동대응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기술의 융합화, 경제의 소프트화, 소비자수요의 다양화 등으로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정보 교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업종교류는 현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회원사들이 상호 정보교환, 공장방문, 인적교류 등 교류활동 과정에서 각자의 기술 및 경영자원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제품·판로 및 서비스 등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고자 공동으로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사업화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능력을 강화하고 기업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배양하고자 하는 것에 있다.

사업유형으로는 신기술, 신제품, 신서비스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개선 내지 개발과 같은 공동연구개발 사업과 기술융합 사업화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자금지원, 교류거점 마련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

### (3) 디자인 능력의 강화

디자인은 단순한 상품의 조형이나 색채를 창조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업의 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기획 단계부터 제품이나 서비스의 창출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광범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디자

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제품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결코 많지 않다.

앞서 설문에서도 살펴 본 바와 같이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디자인을 무기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에 출시하기 위한 노하우나 기술을 가진 인재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 디자인을 시장 출시와 연계해서 기업제품 개발을 제안해 줄 수 있는 디자이너가 양적으로도 부족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에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자이너와 중소기업을 연결해 주어 중소기업의 기술과 디자인의 융합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한다.

#### (4) 글로벌 기업네트워크 구축

앞의 설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글로벌화의 진전으로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고 해외 기업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상대국의 국내 사정이나 제도 등을 충분하게 파악하지 못해 지적재산의 유출, 현지 고용·상관행의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도 많다.

해외 기업들과 기술제휴, 판매제휴 등 새로운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데 지원하도록 한다. 많이 진출하는 국가의 비즈니스 환경이나 인재활요에 대한 정보제공, 유망시장에 대한 판로확대, 현지진출 등을 지원한다. 또 국제적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 비즈니스 연계나 교류를 촉진한다.

서울의 대표적 산업공간으로서의 위상에 걸 맞는 지원 기능을 확충하고 해외 기업지원 세미나 등을 통해 서울의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을 세계에 알리고, 해외기업의 서울 투자·정착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서울 중소기업과의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하고 촉진한다. 이 외에도 각 권역별로 특화산업을 집적시키고 그 집적 브랜드력을 강화하여 국내외적으로 장소마케팅 하도록 한다.

### 3) 외국 사례 : 동경도의 모노즈꾸리 신집적 형성 사업

일본에서는 최근 제조업에 대한 철학이 바뀌고 있다. 제조업이란 용어 대신 모노즈꾸리(ものづくり)를 쓰고 있는데, 이 용어는 원래 제조 또는 Manufacturing의 의미이지만 최근에는 물건 만드는 것에 자신의 혼을 담는다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일본은 제조에 혁신적 경제 마인드를 더해 일본 만의 독특한 제조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는 도시형 모노즈꾸리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추세적으로도 영세공장 등 종래형의 제조업은 감소하고 있지만 도시형 모노즈꾸리 산업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양호한 주거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공생할 수 있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도시형 모노즈꾸리 산업이라 함은 연구개발형 제조업 (연구개발에 특화하고 제조나 조립은 외부위탁), 정보서비스업(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처리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 인터넷부수서비스업, 영상음성문자정보제작업(영상정보제작·배급업, 출판업 등 콘텐츠업), 디자인업, 기계설계업 등을 말한다. 이러한 산업은 SOHO 등 업무빌딩이나 아파트 등에서도 사업 활동이 가능하다.

동경도에서는 다양한 경영자원을 연계시켜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이나 폭넓은 수주 등의 공동사업을 추구하는 모노즈꾸리 중소기업 그룹을 동경도·중소기업진흥공사·동경도산업기술연구센터가 협력해서 지원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그룹은 네트워크 구축이나 공동연구·공동수주 등 공동사업 실시를 위한 경비 지원금 이외에 그룹별로 개최하는 매월 사업추진회의 지원, 어드바이저 파견 등 경영·기술 양면에서 세심한 지원을 한다.

이 사업은 사업계획을 3년 이내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또 사업기간을 몇 기로 구분해서, 그때마다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업의 특징은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중소기업 그룹을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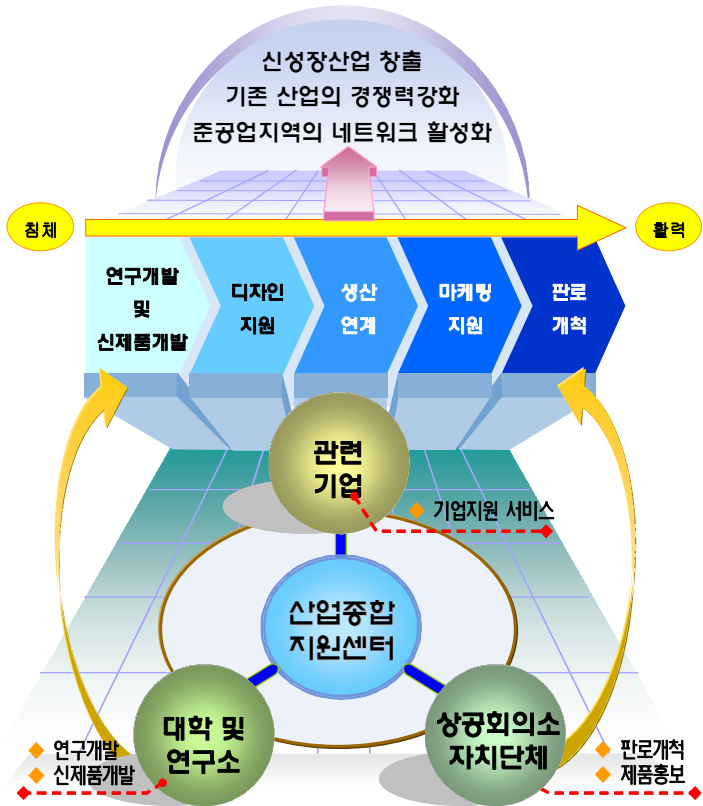
<표 5-1> 동경도의 모노즈꾸리 신집적 형성 사업

|          |                                                                                                                                                                                                                                                                                                                                                                                                                                                                                    |
|----------|------------------------------------------------------------------------------------------------------------------------------------------------------------------------------------------------------------------------------------------------------------------------------------------------------------------------------------------------------------------------------------------------------------------------------------------------------------------------------------|
| 지원 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사 이상이 제조기업일 것, 정보서비스업, 디자인업 등 소프트한 모노즈꾸리 기업도 포함함. 대략 5개사 이상으로 구성되는 그룹임</li> <li>- 도내에 주사무소를 둔 중소기업이 주요 구성원일 것</li> <li>- 중소기업 1개사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공동사업을 추진할 것</li> <li>- 그룹의 회칙이나 규약 등에서 구성원의 가입, 탈퇴요건이 정해져 있을 것</li> <li>- 규약 등에 있어서 구성원의 소재지를 특정 구시정촌에 한정하지 않을 것</li> <li>- 구성원 간에 협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것</li> </ul>                                                                                                                              |
| 지원 대상 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향후 3년 이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한 목표가 있는 사업계획에 기초한 공동사업이다.</li> <li>- 그룹기업의 기술노하우 등을 연계하여 공동연구개발 사업이나 공동수주 등의 핵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고, 그룹체제를 강화하거나 사업을 확대하는 체제라면 사무국의 운영을 포함한 프로그램 전체가 지원대상이 된다.</li> </ul>                                                                                                                                                                                                                                                     |
| 지원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그룹별로 사업추진 회의를 개최 : 사업추진회의는 동경도가 개최하고, 그룹의 멤버 외에 공사 및 산업기술연구센터의 직원이 참가한다. 원칙으로서 매월 개최되고, 공동사업의 실시 상 과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책을 조정한다.</li> <li>- 어드바이저의 파견 :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변호사, 변리사, 중소기업진단사 등 어드바이저를 파견한다.</li> <li>- 공동사업에 관한 경비 조성 : 조성대상 경비는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경비(사무국 인건비·마케팅 등 조사 위탁비 외), 공동연구·공동수주 등에 관한 경비(연구개발비 외), 판로개척에 관한 경비(홈페이지 구축·비건본시 참가비 외)이다. 지원비율은 1/2이내, 지원 한도액은 2,000만 엔이다. 지원기간은 최장 3년간이다. 사업계획에서 설계한 기간별로 지원금을 받도록 한다.</li> </ul> |

## 2. 산업지원 플랫폼 구축

기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있는 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기업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기업은 생산요소-노동, 자본, 토지, 정보, 지식-를 최적 결합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맞는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제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투입 면

에서 생산요소의 조달 및 결합이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기업의 기술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또 소비자 수요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제품의 판매가 원활하게 판매되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어야 한다.



<그림 5-3> 산업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산업융합지원센터

기업의 이러한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검토하면, 첫째 인력확보 및 양성, 기술개발, 판로개척, 자금지원, 새로운 분야 진출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기반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창업, 정보제공, 산업용지 확보 등을 통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탄력적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서울시, 자치구 등 사업주체들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며 대학, 상공회의소, 산업통상진흥원 등 산업지원기관의 수평적 연계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준공업지역 소재 자치구의 관심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학 역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 수행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관은 매력적인 사업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업은 지속적인 성장노력과 산학연관 협력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준공업지역의 발전 방향을 고려하면서 정책수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권역별로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혁신시스템(RIS : Regional Innovation System)으로 발전시킨다. RIS의 가장 핵심 요건은 네트워크의 구축이다.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면, 기술·정보·인력 등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지역의 연구소나 대학의 보유 기술을 이용하거나 공동으로 개발하고, 필요한 인력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 자치구는 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준공업지역의 대부분 중소 제조업은 대기업과 비교해서 경영자원의 격차가 많이 나서 당면과제를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집적이나 풍부한 지역 경영자원, 기술자원들을 제조업체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한다.

준공업지역에는 권역별로 업종구성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 향후 자치구를 비롯하여 지역의 지원기관·산업단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지역별 실정에 따른 산업진흥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 (1) 생산 전·후 과정의 강화 : 신기술·신제품의 개발과 시장개척의 일체적 지원

준공업지역 소재 기업의 특성을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생산연계는 잘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제품개발 및 설계, 디자인개발, 제품 판매 등에는 취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정책적 시사점은 글로벌 시장을 염두에 두고 기존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는 기술, 디자인이나 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시장개척을 통한 판로확대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치사슬의 전반 과정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에서 연구개발형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신기술·신제품개발, 디자인개발, 특허 취득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가치사슬의 후반 과정인 생산된 제품의 판로확대, 시장개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매출액의 증가요인은 신규고객의 증가를 들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팔리는 제품을 개발해서 만들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디자인개발도 지원해야 한다. 기존의 제품 전시회 개최, 국내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전시 상담회 개최, 해외 전시회 참가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 (2) 산업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이 밀집해 있는 준공업지역에 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기술·정보, 생산, 자금·판로 문제 등 가치사슬 전 과정의 지원을 한곳에서 상담·지원하고, 기업에게 필요한 연수·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대학, 연구기관, 산업지원기관, 정부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되어 있는 중소기업 지원기능을 연계하여 한곳에 집중시킴으로써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사업내용은 첫째, 종합상담 기능으로서 경영·기술 상담, 자금·판로상의 애로사항을 상담한다. 둘째,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대학, 연구기관, 기업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셋째, 창업보육기능으로서 입주공간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기술, 경영 지도를 한다. 넷째, 정보제공 기능으로서 입지·상품·인력·해외시장 정보, 전문기술 정보 등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교류기능으로서 이업종교류, 산학연 교류 사업을 지원한다.

센터의 입지는 중소 제조업체가 밀집해 있는 강서권(구로·금천, 영등포, 강서)과 동북권(성동, 도봉, 중랑) 지역에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다. 센터의 운영주체는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구청 주도형, 재단 주도형, 민간 주도형 등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사업주체의 역량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주체를 선정하도록 한다.

하나의 안으로서는 현재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서울벤처타운이 2009년 6월에 종료되는데, 그 시설을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여 서울창조타운(가칭)으로 조성하면서 상기 기능을 보강하는 대안도 가능할 것이다. 서남권의 경우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신기술창업보육센터의 기능을 보강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즉 현재 벤처타운이나 신기술창업보육센터는 입주업체를 위한 지원에 머물렀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지원의 대상범위를 해당 권역으로 확대하며 그 명칭도 서울창조타운(가칭)으로는 변경하는 것이다.

좀 더 강조할 것은 권역별 전략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산업의 첨단기술연구소, 디자인지원센터 단위의 기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원하는 것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 방법은 별도의 연구센터를 설치하거나 대학의 기술연구소를 현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한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려 서울 중소기업의 기획·디자인력을 향상시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보 활용력을 향상시키며 기술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또 기업 상호간의 교류활동을 촉진하여 기술융합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확보하게 한다. 셋째,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산업의 산실로서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준공업지역의 정비방안과 연계시켜 준공업지역의 핵심 거점시설로서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인식되게 한다. 동시에 준공업지역의 산업회관으로서 주민과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역할도 가능하다.

###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효과 최대화

사업 유형별로 유망 선도기업을 지정, 이들 업체를 중심으로 파급 효과를 노려야 한다.

각 산업의 유형별로 유망 선도기업을 발굴하여 이와 관련한 육성 프로그램과 선정 기준을 마련한 뒤 평가 모델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육성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존 지원방식으로는 효과의 극대화를 노리기 힘들기 때문이다. 선도기업 육성이 자칫하면 이들 업체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기 때문에 선도기업을 구심체로 하여 협력기업들과의 동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확한 타겟을 정하고 일정수준까지 지원하여 불특정 다수의 중소기업이 아닌 추진의지가 있고 성공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하여 성공사례를 만드는 지원정책을 확대한다.

## 2) 중소기업 경영기반 지원

### (1) 정보교류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정보는 아주 중요하다. 정보에는 자금정보, 인력정보, 시장정보, 상품정보, 기술정보, 경영지원정보, 행정정책정보, 입지정보 등 다양하게 있다. 이러한 정보를 취득하는 경로는 공식적, 비공식적 등 다양하다.

중소기업 정보를 전담하는 기관은 국내외의 정보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필요로 할 경우 컨설팅 기능도 동시에 수행하면서 지원하도록 한다.

정보 교류는 공식적으로도 이루어지지만 비공식적으로도 많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업체간, 업체와 대학 및 연구기관, 산업지원기관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한다. 현재는 각 자치구 상공회 등에서 이러한 교류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정보교류를 촉진시키는 방안도 바람직할 것이다.

## (2) 인재 육성

중소 제조업의 인재확보가 심각하다. 사업체 대표자의 연령이 고령화되고 있어 후계자 승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취업을 하려는 인재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수한 기술자의 육성, 기술 전승을 위해서는 차세대 리더를 배출하는 환경을 정비하도록 해야 한다.

직업관의 확립과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취직을 앞둔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취업체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조업의 우수한 기능자를 인정하고 표창하는 제도로써, 테크노 마이스터를 인정하고 학교 교육현장에서의 직업특강이나 체험학습 등의 활동을 하도록 한다. 동경도 스미다구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도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 ■ 테크노 마이스터 제도의 정비

준공업지역의 핵심적인 산업인 제조업은 단순 가공, 생산에서 창의와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혁신적인 제조업으로 발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종별로 전문 기술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자·기능인들이 프로정신을 가지고 모여 드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수한 기술자·기능인들을 표창하고 인정하면서 칭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 가칭 마이스터 제도 혹은 장인제도 등을 신설하도록 한다.

신기술이나 신제품을 개발하고 새로운 분야에 창조적으로 도전하여 독자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시장의 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감과 동시에 숙련기능의 계승활동도 적극적으로 해서 인재도 양성하고 업계에 공헌도가 큰 기술자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검토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자를 대상으로 테크노 마이스터로 인정하고 표창하도록 한다.

### (3) 경영자교육 프로그램의 정비

준공업지역의 재활성화를 위해서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우수한 경영자의 창출과 기존 기업경영자의 의식 개혁이 중요하다. 따라서 창업을 추구하는 경영자를 창출하는 프로그램과 기존 사업자가 향후 변화에 대응해가기 위한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정비한다. 이들 프로그램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상공회, 서울산업통상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활용함과 동시에 디자인, 기술경영, 지적재산의 활용 등 새로운 테마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그리고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도 고려할 수 있다.

### (4) 자금지원

서울시에 현재 제공하고 있는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과 신용보증 지원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크게 나누어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신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하려는 벤처기업에게는 활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자금이다.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이 창업해서 성장해 나가는 발전단계에 따른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 초기에는 자금을 조달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기존 기업이라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현행 두 가지 자금지원 프로그램은 모두 간접금융 방식이다. 신기술의 사업화, 벤처기업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접금융 보다는 투자펀드와 같은 직접금융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물론 과거 벤처 버블 시 많은 투자 펀드가 실패한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실패를 바탕으로 새로운 펀드의 씨드 머니를 서울시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신기술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해서 고부가가치 기술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에게 투자하고 컨설팅해서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 (5) 판로개척 지원

중소기업들은 우수한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제조업을 위한 전시회나 비즈니스 상담회를 국내외에서 개최하여 수요자들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고, 국내외 전시·박람회 등에 참가 시 부스임차료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독자적으로 우수한 신제품을 개발하고도 낮은 기업 인지도로 인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과 자사의 확실한 브랜드를 가지고 판매대상 제품의 발굴을 원하고 있는 대기업을 연결,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소비자 인지도가 높은 대기업 채널을 통한 판로를 개척하도록 지원한다.

금형 영업, 설계, 가공 등 금형가공업체들이 가상기업 형태로 만든 협업생산단지인 몰드존과 같은 사례도 중소 제조업체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각자 맡은 업무를 수행하고, 완성된 제품은 ‘몰드존’이라는 통합 브랜드로 팔리는 것이다. 중국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사양길을 걷던 금형산업이 ‘브랜드’와 ‘표준화’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에서 명성을 얻게 되고 바이어들이 먼저 찾아오게 만들었다.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지원 사업을 시행중인데, 이는 대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이나 국산화 제품에 대해 정부가 개발비의 55%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다. 재단은 또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청 중소기업에 대한 사전검토제를 통해 해당 제품이나 기술과 적합한 대기업과의 구매 상담을 연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납품, 기술협력, 협력사등록 등 실질적인 협력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박람회를 통한 오프라인 구매상담 뿐만 아니라 온라인 거래알선도 지원하고 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매치넷은 대기업과 거래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신청을 하면 온라인상으로 대기업과 거래알선은 물론 기술이전, 설비이전, 특허이전 및 공동개발 등의 협력알선을 지원한다. 이밖에 대기업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기업 협력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 기업간 협업사업 지원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설립된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6) 제품개발의 디자인 지원

서울에는 수많은 대기업 본사 등이 집적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매년 3만6천명의 디자인 인력을 배출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전문 디자인 인력의 73%가 서울에 모여 있다. 그리고 서울은 2010년 세계디자인수도 지정된 바도 있다. 따라서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 LG전자 등은 디자인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얻고 있다. 중소기업들 특히 준공업지역의 제조업체들도 제품의 설계, 개발 단계부터 디자인을 반영해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하고 명품 브랜드를 창출해 내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도의 기술을 구사한 제품이라도 소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없으면 팔리기 어렵고, 외관이 좋아도 제품의 성능·기능·안정성 면에서 소비자가 납득하기 어려우면 팔 수 없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제품의 기획, 제조, 판매라고 하는 가치체인 상에서 디자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기업 활동을 해야 함을 의미한다. 외관 등의 감성 디자인(의장)뿐만 아니라 기능, 구조, 안전성 등에 대한 설계도 제품의 본질적인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없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디자인의 개념을 넓게 포착하여 종합적으로 중소기업의 제품개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제조업체에 종합적인 디자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권역별로 디자인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제품의 기획·마케팅 세미나, 의장(제품디자인, 그래픽 디자인), 제품설계, 해석, 고속 시제작까지를 지원하도록 한다.

<표 5-2> 제조기업의 디자인 지원 프로그램

| 제조 가치사슬의 업 스트림 공정인 제품기획으로부터 설계, 시제작, 판매촉진의 다운 스트림공정에 이르기까지 니즈에 따른 지원 |                                                                                                                          |
|----------------------------------------------------------------------|--------------------------------------------------------------------------------------------------------------------------|
| 제품기획단계                                                               | ♦ 소비자들이 구입하고 싶어 하는 제품의 디자인 개발, 경영의 강점을 살리는 방안, 효과적인 판매촉진 등을 실천 세미나를 통해 체득                                                |
| 설계단계                                                                 | ♦ 중소기업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하기 어려운 3차원CAD/CAE 시스템 등 지원                                                                              |
| 시제작 단계                                                               | ♦ 기획단계에서의 의장, 설계단계에서의 의장을 조기에 확인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br>♦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사용자의 반응을 조사함으로써 판매되는 상품의 개발, 개발기간의 단축, 비용절감, 신속한 상품화 등으로 연계 |
| 판매촉진                                                                 | ♦ 소비자에게 제품의 특징, 기능, 안전성 등을 시각적으로 전달                                                                                      |

### 3) 현장 밀착형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서울에는 우수한 기업은 물론이고, 대학, 연구소, 산업지원기관 등이 많이 집적해 있어 산학연 연계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성장동력산업을 창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산학연이 단순히 연계한다고 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보장은 없다.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들이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상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준공업지역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기술개발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많은 한계가 있다. 서울시에서는 2005년부터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서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고 추진한 것이다. 현재 많은 중소 제조업체들이 산학협력을 해 본 경험도 없고, 서울시가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 지조차 모르고 있다. 그리고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접근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 향후 현장의 기술개발 수요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해서 제공하는 사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제 발굴 시 대학의 기술공급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산업 현장에 있는 기업들의 기술개발 수요를 동시에 조사하여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1) 중소 제조업체의 기술수요 조사

산학연 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준공업지역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수요 조사에서 파악되는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장기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원천기술과 핵심기술 수요조사
- 중단기적으로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기술 수요조사
- 공동기자재, 장비에 관한 기술수요조사

먼저 ‘원천기술 및 핵심기술에 관한 수요조사’는 시 자체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국가 기술수요 조사 및 기술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고, 시는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전달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울시가 수행해야 할 기술수요 조사는 ‘제품 및 공정개발을 위한 기술 수요 조사’나 ‘공동기자재, 장비에 관한 기술수요조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조사는 서울시 산학연 지원센터 주도로 관련 사업자 단체, 기업,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의해 공동으로 수행될 수 있다.

이 조사는 2~3년을 주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해당 산업의 기술 및 제품 주기를 고려하여 산업별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기술수요조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업분류를 기술의 특성에 따라 재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국가의 표준기술분류체계를 수정·보완하여 표준산업기술분류를 작성하고, 이 분류 틀에 따라 각 기술별 공동수요를 파악한다.

이러한 기술수요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해당 기업의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2) 기술의 제품화 사업 지원

제조 기반기술은 고도의 제조업을 수행하는데 불가피하지만, 기반기술의 대부분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각각의 기업만으로는 기술개발 등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다른 기업이나 대학, 연구기관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완함으로써, 기반기술을 고도화하고 나아가서는 신기술·신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게 될 것이다.

우수한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의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거나 기술개발 사업을 할 경우, 산학협력 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이 산학협력을 하고자 할 경우 애로사항으로 협력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준공업지역 소재 중소기업들이 기존 기술이나 신기술을 바탕으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해당 기업 주관으로 대학, 산업지원기관, 관련 기업서비스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3) 개발기술의 사업화 자금 지원

기업 설문조사에서도 개발기술의 사업화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사업화자금 부족을 들고 있다.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지만, 개발된 기술을 제품화 하는 데도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그런데 기업과 자금공급기관과의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자금공급 방법을 단순히 중소기업자금을 대출하는 간접금융 방식 위주에서 직접금융도 제공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필요로 하는 자금지원을 할 수 정책 프로그램의 개발도 필요하다.

### (4) 지적재산 문제에 대한 대응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저작권(프로그램, 디지털 콘텐츠)과 같은 지적재산에 대해 제품의 기술적 아이디어와 창의적 아이디어를 특허로 보호함으로써,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며 재산권 침해로부터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특허권의 침해 등 국내외 지적재산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해외의 모방품 피해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담체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정부의 외국특허출원비용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하고, 외국 특허침해조사비용 지원사업도 마련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라이선싱으로 기술료 수

입획득이 가능하며 디자인의 시장적 가치가 매우 큰 기호품과 유행성 제품에서 디자인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 지적재산의 관리 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수 있다.

- 지적재산의 창안을 위한 인센티브 도입
- 기업 경영전략 수립 시 지적재산권 전문가 참여
- 특허 등 기술이전에 의한 신수요의 창출
- 지적재산에 관한 보급개발과 인재육성

### 3. 기업활동하기 좋은 공간 조성

#### 1) 준공업지역의 이미지 향상 운동

준공업지역의 산업집적에는 긍정적인 움직임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움직임도 간파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집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도심부에 대한 근접성, 대규모 시장의 존재, 교통편리성 등 준공업지역의 우위성을 살려서 산업 스톡을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해 양호한 조업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준공업지역의 주공혼재 문제를 제조업과 지역 주민과의 대립관계 하에서 검토할 것이 아니라, 제조업과 지역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행정이 일체가 되어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도시계획에서의 목표설정이나 지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개발 체제 구축, 지구의 목표 설정과 지원체제 구축 등 다양한 방면의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준공업지역의 특정 산업의 집적을 살려 브랜드화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그러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한다. 신성장동력산업의 집적 형성을 지원하고 업체나 지역을 초월해서 신사업 창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예컨대 서울디지털산업단지나 마곡첨단산업단지, NIT단지, 성수동 준공업지역 등을 특정산업클러

스터로 발전시켜 포지션을 명확하게 설정한 다음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장소 브랜드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아시아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권역별 특정 산업클러스터를 홍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홍보 전략 중 하나로서 특정 지역 산업클러스터를 외국 학술지에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장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에 관해서 지역주민과 행정, 사업자 등이 상호 소통을 함으로써, 지역에 애착이나 자긍심을 가지도록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컨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사업장을 학생들의 견학 코스로 활용하게 하고, 지역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지는 제품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고 사업장이나 공장을 지역주민이나 학생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주에게 표창하는 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제조업체가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본 동경도의 스미다구에서는 구내 산업과 생산품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3M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소규모 박물관 운동(Museum)으로, 스미다구를 상징하는 산업과 문화에 관한 컬렉션을 공장, 작업장 등의 일부를 활용하여 전시 공개한다. 둘째, 마이스터 운동(Meister)으로서, 스미다구의 산업 중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사람을 스미다 마이스터로 인정하고, 그 기술을 공개함으로써 기술을 보급하고 향상시키고, 또 새로운 기술과 제품 개발을 촉진시킨다. 셋째, 공방 샵 운동(Manufacturing shop)으로서, 소비자 니즈에 즉시 대응하는 제조판매 일체형 점포에 의해서 지역 활력을 증진시킨다.

## (1) 도시브랜드 네이밍 사업

준공업지역이라는 용어 자체에서 오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여건을

감안한 네이밍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만한 이름으로 변경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구로공단을 구조고도화 사업을 실시하면서 그 명칭도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변경함으로써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었다. 향후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할 때도 법적인 절차에서는 산업지구로 하더라도 그 명칭을 기업이나 주변 주민들이 선호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 ■ 구로아트밸리

구로아트밸리란 구로문화재단과 문화 공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15명의 ‘창의자문단’이 지정한 구민회관, 구로문화원, 구로근린공원과 구로문화예술회관(구의회건물)이 위치한 구로5동 일대의 지역단위명칭이다.

구로5동일대를 구로아트밸리라는 지역단위 명칭으로 네이밍 한 것은 향후 문화예술회관이 들어서는 고척동이나 상업시설 문화시설이 들어서는 신도림동과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내년 4월 개관을 앞둔 구로문화예술회관을 축으로 한 구로5동이 구로구 문화의 허브로 기능했으면 하는 바람이 반영된 결과이다.

## 2) 산업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운영

### (1) 의의

산업개발진흥지구는 산업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휴양기능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를 말한다.

산업및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의 의의는 산업구조 변화 속에서 서울의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을 수용하는 입지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기존 산업집적지역과 신규 개발지역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의의는 산업구조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인프라인 준공업지역은 노후하여 신산업을 수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준공업지역을 재정비하여 새로운 산업공간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서의 의의가 크며, 토지소유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 주거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준공업지역을 효과적으로 재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환경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지구의 명칭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 추진계획

첨단산업 신개발 지역 또는 기존 산업재개발을 유인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지환경의 조성 등 공간적 정비수단을 적용할 산업입지 정책수단을 확보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 ■ 법적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9호
- 동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1조

### ■ 지정대상

- 준공업지역 중 권역별 특성화 개발이 필요한 지역
- 자치구별 전략산업 육성지역
- 기타 산업집적도가 높아 지구지정에 따른 정책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 ■ 지원체계 마련 : 제1종 지구단위계획과 연계

#### ○ 기반시설 공급

- 도시기반시설 : 도로, 용수공급 시설, 공용주차장 등
- 산업기반시설 : 종합지원센터 건립하여 고급 기자재 공동이용, 마케팅 지원, 산

업관련 정보 및 입지동향 정보의 제공 등

- 도시계획상 행위제한(건폐율, 용적률) 완화
- 준공업지역의 건폐율(60%), 용적률(400%)의 120%이내 적용
  - 시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감면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상한선 확대 : 100억원 → 200억원
  - 사전관리 강화 : 지구내 비 권장업종 유치 제한 등

### (3) 추진방향

- 성장가능성, 잠재력, 비교우위 등을 분석 ⇒ 최적의 대상지와 권장업종을 선정
- 기업수요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지원수단 확보 ⇒ 산업클러스터로 활성화
- 지역별 권장업종의 선도거점 육성 ⇒ 타 지역·업종으로 확산
- 4개 시범지구 지정 후 운영성과에 따라 확대

### (4) 추진개요

- 대상지역 : 기존 산업집적지 및 신규 개발지
  - 대상지 면적 - 8천㎡ 이상(클러스터로서의 최소면적 확보)
  - 대상지 선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 권장업종 : 신성장 동력산업, 전략산업 등
  - 권장업종의 지정을 통해 시 산업정책에 부합되게 추진
- 진흥계획의 수립 : 효과적인 육성수단 확보

## 3) 아파트형공장 설립 촉진

준공업지역은 높은 지가로 저렴하고 쾌적한 사무공간을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파트형공장을 적극 지원하면서 현행 아파트형공장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한다.

현재 아파트형 공장은 업종과 산업연계가 고려되지 않은 무작위적 입주로

물리적인 집합 장소의 구실만 할 뿐, 관련기업간 협력 및 정보교류 네트워크와 복합화를 통해 집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동종 업종의 가치체인(value-chain)상에 놓여 있는 다양한 기업들이 동일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하는 것을 유도함으로써 입주업체간 상호교류를 통해 혁신역량의 창출을 촉진하는 혁신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한다. 이러한 업종전문화 아파트형 공장에는 동일한 작업조건과 환경기준을 적용받는 업체들이 입주할 것이므로 입주업체간 마찰을 줄이고 공장내부의 실질적인 작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아파트형공장 건립 시 권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먼저 동북권역은 성동구의 전통적 공업지역의 일부에 개별필지 단위로 지역특화 업종인 섬유·의류, 피혁업종 전문화 아파트형 공장을 공급하여 공업지역의 정비기능을 수행하고 강남지역의 IT업체의 입주를 유도함으로써 산업구조고도화를 취할 수 있다. 동시에 주변지역의 바이오산업 혁신환경을 고려하여 바이오산업의 특성에 맞는 아파트형공장 개발도 필요하다.

다음으로 서남권역은 제조,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류·정밀·광학기기 및 시계제조업에 전문화된 아파트형 공장 공급을 통해 기존 전통적 공단지역의 정비기능을 수행하고 지속적인 산업구조 고도화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급할 수 있다.

#### 4) 권역별 창조타운 조성

권역별로 기존의 벤처타운과 같은 시설을 조성하여 지원하되, 지원기능의 대상 범위를 입주업체만 할 것이 아니라 권역 전체 업체로 확대하고, 산학연 연계 체제를 구축하여 준공업지역의 종합적인 지원거점 역할을 하게 한다.

새로운 기술개발의 창업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여, 새로운 산업의 집적을 촉진한다. 이와 동시에 권역 내 중소기업의 산업지원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또한, 주변 지역 주민과의 교류공간을 제공하여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창의적인 공간으로 조성한다.

그 결과 권역별 준공업지역의 창의 거점 역할을 하고, 상징적인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한다.

## 5)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개발 추진

주공혼재로부터 생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법령 준수는 물론이지만, 지역과의 양호한 관계형성이나 지역주민의 이해가 필요하게 된다. 이 때문에 향후 주공조화를 위한 지역지원의 환경조성으로서 모델지구를 선정하고 지역·사업자·행정 등에 의한 협의회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에 관한 제도의 활용도 고려한 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기업이 양호한 조업환경을 조성한 다음, 주변 주민 등 지역의 이해와 협력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역이 주체적으로 실시하는 산업 이벤트에 대해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 단위에서의 네트워크를 형성함과 동시에 지역의 특색이나 각광받는 기업이나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발신함으로써, 제조도시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제조에 대한 이해를 촉진하고 해야 한다.

공장이전 적지 등을 활용하여 문화시설, 집객시설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품격을 높임과 동시에 집객요인으로 작용하여 젊고 창의적인 인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만들도록 한다. 준공업지역 공장 이적지 등에 동경의 미드타운, 롯폰기 힐스, 빌바오의 구겐하임 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준공업지역의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 제조업체나 그 단체가 이미지를 제고하는 홍보사업, CI 사업, 견학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서울시가 그 경비를 일부 보조하도록 한다. 물론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자금지원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산업페어의 실시 : 기업과 시민 (구민)이 교류하고 이해하는 장이 되는 산업페어를 개최하여 지역산업을 소개하고 뛰어난 기술과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이해시켜 판로를 확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을 이해시킴으로써 지역산업을 발전하도록 한다.

셋째, 지역 내 산업 갤러리 설치 : 지역(구)내 산업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구)내의 전통상품이나 제품을 전시하는 지역산업갤러리 등을 만들어 교류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장소는 지하철 역사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언급한 3가지 추진시책을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4> 준공업지역 경쟁력 강화 정책 체계도

## 4. 권역별 추진전략

### 1) 거점 형성 전략

준공업지역의 각 권역이 신성장동력산업의 클러스터로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집적이 집적을 부르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산업의 집적지역에 집적을 더욱 촉진하거나 신규입지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이 신산업클러스터로서 성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다. 초기단계의 수단으로서는 집적지역 이미지의 핵이 되는 신산업거점을 만드는 것이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키콕스 빌딩, 뉴욕 실리콘 앨리의 뉴욕IT센터(NYITC : New York Information Technology Center), 동경 아키하바라의 리눅스 카페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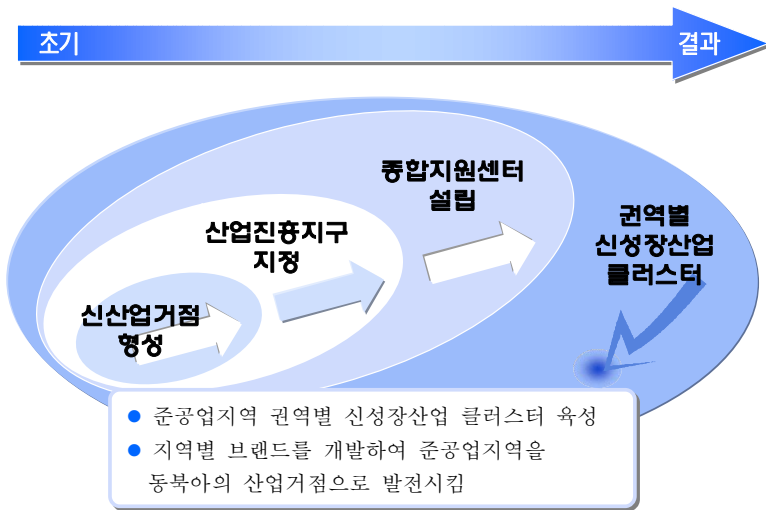
이러한 거점을 만들 경우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물리적 시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서 신산업 진흥을 촉진하고 지역재생의 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거대한 시설을 갖출 필요도 없고 소수 정예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특히 신산업은 부정적인 지역 이미지를 극적으로 개선하고, 첨단지역 내지 인간적으로 매력, 활력, 즐거움, 자긍심이 있는 지역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형성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사례는 많이 있다.

둘째, 거점을 형성하는 데 많은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수법도 가능하다. 거점을 운영하는 조직을 새롭게 만들 필요도 없이 기존의 지역 상공회나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등의 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리적 시설, 조직의 형태보다도 얼마나 참신한 콘텐츠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지역 클러스터를 발전시키는가이다.

- 뉴욕 실리콘 앨리의 IT센터
- 동경 아키하바라의 리눅스 카페
- 서울 테헤란 벨리의 서울벤처타운

▪ 서울디지털산업단지의 키콕스 빌딩

셋째, 권역별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동북아의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준공업지역의 신성장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지역별 브랜드로 발전시켜 동북아 다른 도시들의 산업거점들과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산업거점으로 발전시킨다.



<그림 5-5> 준공업지역의 권역별 산업클러스터 구축 방안

## 2) 동북권

### (1) 산업 현황

동북권이라 함은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도봉구의 준공업지역을 말한다. 이 지역의 제조업 종사자수는 2005년 기준으로 성동구가 서울의 7.8%, 광진구가 2.4%, 중랑구가 2.9%, 도봉구가 1.2%를 차지해 다른 구에 비해 취약한 편으로 나타났다.

동북권은 현재 ‘섬유제품,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가방·신발제조업’,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제조업’ 등의 소비지입지형 산업이 발달해 있다.

성동구는 그 밖에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과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과 같은 첨단산업의 특화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도봉구는 80년대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으로 대형공장이 이전되면서 산업 기반이 상당히 약해진 지역이다.

## (2) 물리적 여건

성동구 준공업지역은 도심 관련 업종들이 밀집한 생산과 유통, 주거 기능을 갖춘 지역으로서 비교적 조업환경이 양호하고 지역 자체적으로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제조업 집적지역이다.

그러나 장기간의 관리 소홀로 산업기반 및 생활여건이 많이 악화되어 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공동주택 입지가 이루어지고 용도 혼재로 인해 산업기반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민원이 상존하는 상태이다. 또한 공장이전적지의 아파트 개발 등으로 공업기반이 현저히 위축되어 도심 배후주거지역으로 변하고 있다.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도 신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지 기업의 대부분은 소규모 업체로 사업 공간이 협소하고 기반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다. 시설이 노후화되고 전근대적이어서 물류비용이 증가하고 이용객이 감소하는 등의 애로를 겪고 있다.

현재 성동구 소재 아파트형 공장 입주기업 543개사 중 전자업종 비중이 20%에 불과하지만 최근 성동구가 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지적받던 IT산업 인프라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IT) 바이오산업(BT)업체 등을 유치하고 현재 영업 중인 영세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오는 2015년 성동 테크노밸리가 모습을 드러

내면 첨단 기술기업의 관내 이전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아파트형 공장 건설도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3) 기존 혁신 자원

이 지역에는 성동의 준공업지역, 공릉NIT 미래산업단지, 홍릉 벤처밸리를 축으로 한 도봉 준공업지역이 있어 신성장동력 산업을 수용할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건국대(의대, 축산대, 생명공학과), 한양대(의대, 생화학), 세종대(생명공학과), 시립대, 광운대, 산업대, 경희대 등 BT, NT, IT에 우세한 대학이 집적해 있으며 다수의 바이오 및 제조 관련 업체가 성수동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서울대병원, 경희대 의료원, 건국대학병원, 한양대학병원, 아산병원 등의 의료기관과 종합연구기관인 KIST, 고려대 인공장기센터, KAIST 생명공학센터 등 대학, 기업, 연구소, 의료기관의 밀집으로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이 용이하다.

### (4) 추진 방향

따라서 이 지역은 집적해 있는 대학들의 기본적인 시설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존 산업의 지식고도화를 추진하면서 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체제를 마련하도록 한다. 의료기관과의 유기적 연계가 용이하므로 고부가가치 산업인 바이오산업 중에서 구체적으로 IT, NT 기술융합형 산업(정밀의료, 의료소프트웨어 등)과 신약, 신의료용구, 인공장기 산업 등의 의료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동북권역의 경영·기술지원 거점 시설로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산업 육성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한다. 북부지역에는 공릉동 NIT단지를 거점으로 지원센터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성동지역에 새로운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 3) 영등포·강서권

#### (1) 산업현황

현재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은 크게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등과 같은 첨단제조업이 발달되어 있는 영등포·강서지역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1차 금속’, ‘기타 기계 및 장비’등과 같은 기반 기초적 제조업,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의료, 정밀, 광학기기’ 등과 같은 첨단제조업이 함께 발달되어 있는 구로·금천 지역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영등포구는 조립금속 및 기계 장비 제조업이 발달되어 있으며 1990년대 중반부터 여의도 지역을 중심으로 정보기술관련 벤처기업들이 집적하기 시작했다. 영등포 지역은 증권 중개업을 중심으로 금융관련 서비스업 본사들의 입지가 두드러져 첨단제조업뿐만 아니라 생산자 서비스업 또한 밀집되어 있다.

#### (2) 물리적 여건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준공업지역 전체 면적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전체 면적의 1/4 정도가 영등포구에 위치하고 있다.

영등포구는 지난 2000년 관내 78만여평이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로 지정받은 뒤 여의도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개발 움직임이 없었으나 최근 문래동·양평동 등지의 물류창고와 공장이 속속 외곽으로 이전하면서 최신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문래동은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2호선 문래역과 가깝고 여의도로의 진출도 용이한데다 인근 옛 경성방직 부지에 지상 20층 높이의 초대형 복합시설인 ‘어뮤즈 아일랜드’가 2008년 준공예정인 것을 비롯해 주변 개발 호재가 많아 향후

가치 상승 기대감이 높다.

또한 양평동은 문래동에 비해 지원·편의시설이 부족하나 인근 주차빌딩·물류창고 부지에 주상복합 및 대형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이 같은 단점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등포 일대 아파트형 공장은 대부분이 최근 3년 사이 준공된 만큼 건물 상태는 양호하지만 세제혜택시 최초 5년간 전매가 금지되는 아파트형 공장의 특성 때문에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강서구 준공업지역은 자치구 가장 동쪽의 경계와 접하는 곳에 위치하며, 인접구인 영등포구의 준공업지역과 연담화 되어 있다. 강서구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업이 4.3%, 주거가 30.5% 상업업무가 1.7%를 차지하고 있어 공업용도 지역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3) 기존 혁신 자원

강서구·영등포구 인근에는 한국폴리텍1대학,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서강대 등 우수 대학이 많이 소재하고 있으며, IT, BT, NT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마곡 R&D 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마곡 R&D 단지는 신기술의 R&D기능 집적으로 수도권 내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발전을 촉진하고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마곡지구의 지리적 특성을 살려 동북아 R&D의 허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또한 남부권 대학(서울, 숭실, 중앙 등) 및 수도권 산업지역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IT, BT, NT 관련 R&D 수행 및 신기술 연계신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다. IT관련 첨단산업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있고 BT산업으로는 신약개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있으며, NT산업에는 나노재료, 나노소자, 나노공정 및 장비, 나노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곡 R&D시티의 개발은 이미 개발이 시작된 상암동 DMC지역, 공릉동 서울테크노폴리스 등과 연계 시너지 효과를 통해 마곡 등 강서구 일대를 첨단 기술

벨트로 자리매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4) 추진방향

영등포구 및 강서구는 기존의 기계금속산업을 바탕으로 대학·연구소의 NT, IT 기술을 이전하거나 창업을 촉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NT+기계+IT)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향후 마곡 R&D 시티의 NT, IT, BT 산업과 연계 발전시키고 경기도 부천, 인천지역의 기계, 자동차산업과 연계하여 나노 메카트로닉스 산업벨트의 핵심지역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영등포·강서권의 영등포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내에 경영·기술지원 플랫폼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다. 향후 조성될 마곡첨단단지에 다양한 지원시설이 입주하면서 플랫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 4) 구로·금천권

#### (1) 산업현황

구로구과 금천구의 준공업지역에는 기계, 금속, 전자 등이 밀집되어 있는데 특히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1차 금속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등의 특화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과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서울 25개 구 중에서 구로구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로구는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의 설립과 함께 수출산업의 요람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기계공구상가와 같은 유통단지가 입지해 있어 서울 공업기반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2000년에 이후 구로공단은 구로산업단지 첨단화 계획에 의하여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개명되

고,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에서 첨단산업 및 지식기반제조업 중심의 벤처타운으로 변모하며 첨단디지털산업의 메카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는 지식정보산업 위주의 첨단 디지털 산업이 입지하고 있으나, 온수공단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통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신도림동과 구로본동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의 문래동과 비슷하게 소규모 영세 제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 (2) 물리적 여건

구로의 준공업지역에는 기계, 금속, 전자, 의류 등이 밀집해 있으나 영세하며 노후화되어 조업환경이 열악한 곳 역시 산재해 있다. 주공혼재로 인한 기능간 마찰문제와 공장용지의 주거용도 전환으로 지역경제기반이 악화되어가는 것도 해결해야할 과제다.

최근 주변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건설 등 개발 압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금천구 역시 서울의 대표적인 공업지역으로 구로 제2·3공단이 입지하고 있다. 금천구는 1970년대 초 한국수출산업공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 확충을 위해 독산과 시흥지역에 대규모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시행되면서 구 전역이 개발되었다. 이밖에도 준공업지역 경계를 벗어난 독산동 지역에 많은 소규모 공장이 산재되어 있다. 1980년대 후반 시흥3동에 대규모로 조성된 시흥산업용재유통센터와 중앙철재상가가 산업 유통기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금천구 용도지역 지정 현황을 살펴보면 공업이 35.0%, 주거가 43.3%, 상업업무가 1.3%를 차지하고 있어 주거용도 지역이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천구의 준공업지역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 주거기능 확충을 위해 조성된 지역임을 감안할 때 당연한 결과로 인식된다. 금천구는 또한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연관산업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공업용

지 감소폭이 작게 나타나며, 주거용지의 증가보다는 상업업무용지의 증가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의 전통 제조업 공장이 첨단디지털산업단지로 바뀌고 있으며, 20여개의 공장부지가 마리오, 남성플라자 등 패션의류타운으로 변신하여 최근 제조업 + 유통업의 기능이 강화되는 지역이다.

구로구와 금천구를 중심으로 한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아파트형 공장이 밀집한 곳이다. 서울산업단지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산업단지의 특성상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파트형 공장 입주 시 세제 혜택은 물론 단지 내에 위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첨단 벤처기업이 몰려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에 용이하다. 이 지역 입주기업의 업종 분포를 보면 지식·정보통신산업, 전기전자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울디지털산업단지는 6000여개 입주 업체 중 4000개가 넘는 기업이 향후 국가 주력 사업이 IT분야 업체로 채워지는 등 구조 구도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 클러스터 성공 단계로 볼 때 ‘단순 집적지’에서 ‘특성화된 산업클러스터’로 변모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성화 클러스터를 뛰어넘어 클러스터 구조 고도화의 마지막 단계인 ‘혁신 클러스터’로 도약하기 위해선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경인고속도로와 남부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차량 진출입이 쉽고 인근 지하철역과 도로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구로·금천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을 유인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너무 많은 입주기업이 유입되면서 나타난 교통체증, 지원시설 부족 등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 (3) 기존 혁신 자원

남부권 대학(서울, 숭실, 중앙 등) 및 수도권 산업지역과 연계하여 산학연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IT, BT, NT 관련 R&D 수행 및 신기술 연계신상품을 개발

할 예정이다. IT관련 첨단산업으로는 소프트웨어산업, 디지털콘텐츠 산업이 있고 BT산업으로는 신약개발, 바이오메디컬 산업이 있으며, NT산업에는 나노재료, 나노소자, 나노공정 및 장비, 나노시스템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추진방향

구로구는 기존 전자부품, 기계 장비산업에 IT, NT기술을 접목하여 정보통신 제조업, 첨단기계산업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으며 또한 기존의 디지털산업단지, 경기 산업지대와 연계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 중심지로 육성하여 나가도록 한다.

기존 준공업지역의 산업집적지역을 산업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경영·기술지원 거점 시설을 설치한다. 설치 방안으로는 기존의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상공회, 대학, 기존 운영 프로그램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참고문헌

---

### ■ 통계 및 분석자료

2005, 2000, 1995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5, 2000, 1995년도 광업·제조업통계조사

2003, 1998년도 산업총조사

### ■ 문헌

권영섭·김영수, 「지식기반산업의 입지특성과 지역경제활성화 방안 연구」, 국토연구원, 2002.

강호제, “미국의 Empowerment Zone 정책성과와 과제”, 『도시정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2.2.

김선웅, “미국의 해외자본 유치 제도와 사례”, 2006.

박삼옥·남기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및 산업지구 개발방향”, 『국토계획』, 35.3: 1-29 (2000)

박천보 외, “해외 도심재생의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2004. 10.

박희석, 「산업개발진흥지구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5.

박영철, 김상욱, 김광익, 장철순, 박세훈, 「지식기반산업의 입지정책 연구」, 국토연구원, 2003.

- 산업연구원, 「지역별 산업집적의 구조와 집적경제 분석」, 2003
- 서울시,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200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준공업지역 종합정비계획」, 서울특별시, 2000.7
- 서울산업통산진흥원, 「월드디자인플라자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방안 연구」,  
2007.9
- 송재용, “스마트경영”, 조선일보, 2007
- 신창호, 「서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파트형 공장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3
- 신창호 · 정병순, 「서울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방안」, 서울시  
정개발연구원, 2002
- 신창호 · 정희윤, 「서울형 산업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 정비방안」,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1996
- 이원섭 · 박양호, 「지방육성을 위한 국가지원의 차등화 방안」, 국토연구원, 2002
- 정희윤, 「산업활동장려지구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9
- 장근호, “2004 미국의 세계개편과 향후 동향”, 한국조세연구원, 2005.
- 한승희, “인적자원 개발 · 관리를 위한 평생학습 체제 종합 발전 방향과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교육개발원, 2000
- 日本經濟産業省經濟産業政策局, 「特定産業集積の活性化に関する臨時措置法(A集積)  
の評価について」, 2006.10.
- 東京都, 「東京都産業振興基本戦略(素案)」, 2007.1.
- 東京都 · 神奈川県, 「基盤的特技術産業の活性化に計画」, 2003.4.
- 東大阪市, “東大阪市モノづくりクラスター推進事業について,” 「自治大阪」, 2005.9.

大阪市経済局,「大阪市ものづくり再生プラン報告書」, 2003.3.

信金中央金庫総合研究所,“地域産業活性化に関する諸臨理論の整理と再構築-地域における新産業創出のメカニズム-,”「地域調査情報」, 2005.8.

みずほ総合研究所,“都市型集積の最近の動向について-東京都大田区を事例に,”「みずほ地域経済インサイト」, 2006.5.

町田光弘,“大都市型産業集積の地理的範囲と集積メリット-大阪東部の集積を事例に,”「産み開ず研」論集」, 2004.3.

山田伸顕,“製造業の再生に向けて,”「企業環境研究年報」, 2003.12.

藤原 はじめ,「ものづくり都市の再生」, ぎょうせい, 2005.11.

中小企業金融公庫調査部,“情報化の進展が地域産業集積に与える影響-大田区と東大  
阪市の受発注ネットワーク-,”「中小公庫レポート」, 2002.2.

Castells, M., *The Informational City: informational technology, economic restructuring, and the urban-regional process*, Blackwell, 1989

Crevoisier, O., 'Innovation and the City', in Malecki, E.J & P. Oinas(ed.),  
*Making Connections: Technological learning and regional economic change*, Ashgate, pp. 67-77, 1999

Friedmann, John., 'The world city hypothesis'. *Development and Change*, 1986

Iow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Enterprise Zone Program Report  
」, 2007

The Mayor's Office of The New York Empowerment Zone, 'The New York  
Empowerment Zone Brochure」

Sassen. S., 'Global cities and Global City-Regions: A Comparison」, Scott,

A.J.(ed.), *Gr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Univ. Press, pp.78-95. 2001

Scott, A.J., *Metropolis:from the division of labor to urban for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부 록

## 부 록 I

### <부록 1> 서울의 산업별 변화

단위 : 개, 명, (%)

| 구 분                   | 사업체수               |                    |                    |                    | 종사자수                 |                      |                      |                     |
|-----------------------|--------------------|--------------------|--------------------|--------------------|----------------------|----------------------|----------------------|---------------------|
|                       | '95                | '00                | '05                | 증감<br>(95-05)      | '95                  | '00                  | '05                  | 증감<br>(95-05)       |
| 전산업                   | 708,025<br>(100.0) | 719,536<br>(100.0) | 741,229<br>(100.0) | 33,204<br>(4.7)    | 3,874,597<br>(100.0) | 3,574,824<br>(100.0) | 3,843,010<br>(100.0) | -31,587<br>(-0.8)   |
| 농업 및<br>임업            | 79<br>(0.0)        | 39<br>(0.0)        | 16<br>(0.0)        | -63<br>(-79.7)     | 1,912<br>(0.0)       | 460<br>(0.0)         | 349<br>(0.0)         | -1,563<br>(-81.7)   |
| 어업                    | 28<br>(0.0)        | 10<br>(0.0)        | 12<br>(0.0)        | -16<br>(-57.1)     | 3,176<br>(0.1)       | 278<br>(0.0)         | 497<br>(0.0)         | -2,679<br>(-84.4)   |
| 광업                    | 102<br>(0.0)       | 40<br>(0.0)        | 52<br>(0.0)        | -50<br>(-49.0)     | 5,258<br>(0.1)       | 1,201<br>(0.0)       | 494<br>(0.0)         | -4,764<br>(-90.6)   |
| 제조업                   | 81,557<br>(11.5)   | 72,754<br>(10.1)   | 69,982<br>(9.4)    | -11,575<br>(-14.2) | 729,057<br>(18.8)    | 568,421<br>(15.9)    | 473,643<br>(12.3)    | -255,414<br>(-35.0) |
| 전기, 가스 및<br>수도사업      | 143<br>(0.0)       | 183<br>(0.0)       | 180<br>(0.0)       | 37<br>(25.9)       | 6,311<br>(0.2)       | 11,128<br>(0.3)      | 12,580<br>(0.3)      | 6,269<br>(99.3)     |
| 건설업                   | 17,161<br>(2.4)    | 16,124<br>(2.2)    | 19,924<br>(2.7)    | 2,763<br>(16.1)    | 390,564<br>(10.1)    | 236,694<br>(6.6)     | 225,224<br>(5.9)     | -165,340<br>(-42.3) |
| 도매 및<br>소매업           | 255,631<br>(36.1)  | 237,985<br>(33.1)  | 222,079<br>(30.0)  | -33,552<br>(-13.1) | 940,462<br>(24.3)    | 816,594<br>(22.8)    | 748,028<br>(19.5)    | -192,434<br>(-20.5) |
| 숙박 및<br>음식점업          | 110,787<br>(15.6)  | 116,758<br>(16.2)  | 117,552<br>(15.9)  | 6,765<br>(6.1)     | 323,620<br>(8.4)     | 362,912<br>(10.2)    | 393,018<br>(10.2)    | 69,398<br>(21.4)    |
| 운수업                   | 71,458<br>(10.1)   | 80,757<br>(11.2)   | 95,222<br>(12.8)   | 23,764<br>(33.3)   | 226,616<br>(5.8)     | 231,463<br>(6.5)     | 249,765<br>(6.5)     | 23,149<br>(10.2)    |
| 통신업                   | 699<br>(0.1)       | 1,805<br>(0.3)     | 2,266<br>(0.3)     | 1,567<br>(224.2)   | 21,920<br>(0.6)      | 38,719<br>(1.1)      | 44,860<br>(1.2)      | 22,940<br>(104.7)   |
| 금융 및<br>보험업           | 7,874<br>(1.1)     | 8,651<br>(1.2)     | 8,577<br>(1.2)     | 703<br>(8.9)       | 249,656<br>(6.4)     | 199,312<br>(5.6)     | 212,151<br>(5.5)     | -37,505<br>(-15.0)  |
| 부동산 및<br>임대업          | 27,849<br>(3.9)    | 28,470<br>(4.0)    | 33,632<br>(4.5)    | 5,783<br>(20.8)    | 115,303<br>(3.0)     | 109,194<br>(3.1)     | 138,050<br>(3.6)     | 22,747<br>(19.7)    |
| 사업서비스업                | 19,636<br>(2.8)    | 28,117<br>(3.9)    | 35,165<br>(4.7)    | 15,529<br>(79.1)   | 229,942<br>(5.9)     | 319,769<br>(8.9)     | 540,908<br>(14.1)    | 310,966<br>(135.2)  |
| 공공행정, 국방 및<br>사회보장 행정 | 1,516<br>(0.2)     | 1,454<br>(0.2)     | 1,443<br>(0.2)     | -73<br>(-4.8)      | 109,137<br>(2.8)     | 98,843<br>(2.8)      | 112,526<br>(2.9)     | 3,389<br>(3.1)      |
| 교육 서비스업               | 21,091<br>(3.0)    | 20,422<br>(2.8)    | 23,314<br>(3.1)    | 2,223<br>(10.5)    | 171,095<br>(4.4)     | 195,579<br>(5.5)     | 245,483<br>(6.4)     | 74,388<br>(43.5)    |
| 보건 및<br>사회복지사업        | 11,748<br>(1.7)    | 14,831<br>(2.1)    | 17,488<br>(2.4)    | 5,740<br>(48.9)    | 101,828<br>(2.6)     | 123,551<br>(3.5)     | 160,950<br>(4.2)     | 59,122<br>(58.1)    |
| 오락, 문화 및<br>운동관련 서비스업 | 22,247<br>(3.1)    | 27,728<br>(3.9)    | 28,474<br>(3.8)    | 6,227<br>(28.0)    | 74,073<br>(1.9)      | 92,040<br>(2.6)      | 109,921<br>(2.9)     | 35,848<br>(48.4)    |
| 가타 공공, 수리 및<br>개인서비스업 | 58,419<br>(8.3)    | 63,408<br>(8.8)    | 65,851<br>(8.9)    | 7,432<br>(12.7)    | 174,667<br>(4.5)     | 168,666<br>(4.7)     | 174,563<br>(4.5)     | -104<br>(-0.1)      |

주 : 볼드체는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부문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2> 사업체수로 본 서울 제조업 현황

단위: 개, %

| 제조업 업종 구분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LQ          |
|----------------------------|-------------------|-------------------|-------------------|--------------|-------------|
| 음·식료품 제조업                  | 6,044<br>(7.4)    | 6,258<br>(8.6)    | 7,130<br>(10.2)   | <b>18.0</b>  | 0.58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8,147<br>(10.0)   | 7,212<br>(9.9)    | 6,843<br>(9.8)    | -16.0        | <b>1.39</b>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7,109<br>(21.0)  | 13,547<br>(18.6)  | 12,637<br>(18.1)  | -26.1        | <b>2.65</b>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794<br>(3.4)    | 2,084<br>(2.9)    | 1,623<br>(2.3)    | -41.9        | <b>1.73</b>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645<br>(2.0)    | 1,029<br>(1.4)    | 646<br>(0.9)      | -60.7        | 0.42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473<br>(1.8)    | 1,073<br>(1.5)    | 978<br>(1.4)      | -33.6        | 0.87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195<br>(13.7)  | 11,093<br>(15.2)  | 11,339<br>(16.2)  | <b>1.3</b>   | <b>2.42</b>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20<br>(0.0)       | 24<br>(0.0)       | 19<br>(0.0)       | -5.0         | 0.51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866<br>(1.1)      | 887<br>(1.2)      | 795<br>(1.1)      | -8.2         | 0.5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085<br>(2.6)    | 1,781<br>(2.4)    | 1,574<br>(2.2)    | -24.5        | 0.50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951<br>(1.2)      | 779<br>(1.1)      | 615<br>(0.9)      | -35.3        | 0.30        |
| 제 1차 금속산업                  | 560<br>(0.7)      | 790<br>(1.1)      | 600<br>(0.9)      | <b>7.1</b>   | 0.55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7,883<br>(9.7)    | 6,139<br>(8.4)    | 7,307<br>(10.4)   | -7.3         | 0.68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998<br>(8.6)    | 6,529<br>(9.0)    | 5,073<br>(7.2)    | -27.5        | 0.72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454<br>(0.6)      | 530<br>(0.7)      | 490<br>(0.7)      | <b>7.9</b>   | <b>1.61</b>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723<br>(3.3)    | 2,570<br>(3.5)    | 3,017<br>(4.3)    | <b>10.8</b>  | 0.89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1,516<br>(1.9)    | 1,725<br>(2.4)    | 1,607<br>(2.3)    | <b>6.0</b>   | 0.89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369<br>(1.7)    | 1,580<br>(2.2)    | 1,580<br>(2.3)    | <b>15.4</b>  | 1.16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641<br>(0.8)      | 372<br>(0.5)      | 271<br>(0.4)      | -57.7        | 0.22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16<br>(0.1)      | 144<br>(0.2)      | 80<br>(0.1)       | -31.0        | 0.21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6,923<br>(8.5)    | 6,543<br>(9.0)    | 5,732<br>(8.2)    | -17.2        | 1.06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44<br>(0.1)       | 64<br>(0.1)       | 25<br>(0.0)       | -43.2        | 0.13        |
| 제조업(합계)                    | 81,557<br>(100.0) | 72,754<br>(100.0) | 69,982<br>(100.0) | -14.2        | -           |

주: 음영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과 특화도 1.20이상을 의미함

L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3> 종사자수로 본 서울 제조업 현황

단위: 명, %

| 제조업 업종 구분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LQ          |
|----------------------------|--------------------|--------------------|--------------------|--------------|-------------|
| 음·식료품 제조업                  | 47,627<br>(6.5)    | 39,771<br>(7.0)    | 30,158<br>(6.4)    | -36.7        | 0.74        |
| 섬유제품 제조업;<br>동제의복 제외       | 56,487<br>(7.7)    | 47,597<br>(8.4)    | 33,169<br>(7.0)    | -41.3        | <b>1.28</b>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45,642<br>(20.0)  | 109,925<br>(19.3)  | 94,619<br>(20.0)   | -35.0        | <b>4.60</b>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0,690<br>(2.8)    | 14,220<br>(2.5)    | 10,614<br>(2.2)    | -48.7        | <b>1.97</b>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5,240<br>(0.7)     | 2,547<br>(0.4)     | 2,447<br>(0.5)     | -53.3        | 0.44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7,278<br>(2.4)    | 10,635<br>(1.9)    | 8,528<br>(1.8)     | -50.6        | 0.91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88,008<br>(12.1)   | 80,874<br>(14.2)   | 76,756<br>(16.2)   | -12.8        | <b>4.06</b>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2,909<br>(0.4)     | 4,336<br>(0.8)     | 3,315<br>(0.7)     | <b>14.0</b>  | <b>2.34</b>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46,844<br>(6.4)    | 30,680<br>(5.4)    | 29,410<br>(6.2)    | -37.2        | <b>1.26</b>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219<br>(3.2)    | 12,458<br>(2.2)    | 10,646<br>(2.2)    | -54.1        | 0.36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7,099<br>(2.3)    | 8,792<br>(1.5)     | 5,583<br>(1.2)     | -67.3        | 0.38        |
| 제 1차 금속산업                  | 9,676<br>(1.3)     | 8,108<br>(1.4)     | 5,387<br>(1.1)     | -44.3        | 0.31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42,212<br>(5.8)    | 22,579<br>(4.0)    | 23,099<br>(4.9)    | -45.3        | 0.52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5,147<br>(7.6)    | 40,124<br>(7.1)    | 24,598<br>(5.2)    | -55.4        | 0.49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3,650<br>(1.9)    | 11,768<br>(2.1)    | 9,076<br>(1.9)     | -33.5        | <b>1.53</b>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7,699<br>(3.8)    | 18,409<br>(3.2)    | 19,481<br>(4.1)    | -29.7        | 0.84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47,695<br>(6.5)    | 58,815<br>(10.3)   | 36,007<br>(7.6)    | -24.5        | 0.65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3,928<br>(1.9)    | 14,056<br>(2.5)    | 12,876<br>(2.7)    | -7.6         | <b>1.31</b>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689<br>(1.7)    | 3,871<br>(0.7)     | 5,340<br>(1.1)     | -57.9        | 0.15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672<br>(0.2)     | 2,584<br>(0.5)     | 1,131<br>(0.2)     | -32.4        | 0.07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33,433<br>(4.6)    | 25,946<br>(4.6)    | 31,106<br>(6.6)    | -7.0         | <b>1.69</b>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209<br>(0.0)       | 323<br>(0.1)       | 198<br>(0.0)       | -5.3         | 0.18        |
| 제조업(합계)                    | 729,057<br>(100.0) | 568,421<br>(100.0) | 473,643<br>(100.0) | -35.0        | -           |

주: 음영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과 특화도 1.20이상을 의미함

L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4> 서울 5인 이상 공장의 제조업 업종별 현황

단위: 개, 명, %

| 제조업 업종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00    | '05    | 증감률   | '00     | '05     | 증감률   |
| 음·식료품 제조업                  | 251    | 434    | 72.9  | 7,447   | 6,030   | -19.0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2,102  | 1,880  | -10.6 | 23,217  | 18,174  | -21.7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5,913  | 6,181  | 4.5   | 85,128  | 74,805  | -12.1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742    | 613    | -17.4 | 9,660   | 7,376   | -23.6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60     | 53     | -11.7 | 517     | 369     | -28.6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36    | 373    | 11.0  | 4,661   | 4,613   | -1.0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002  | 3,795  | 26.4  | 53,789  | 58,610  | 9.0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      | -      | -     | -       | -       | -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89     | 111    | 24.7  | 2,656   | 2,745   | 3.4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544    | 495    | -9.0  | 7,214   | 5,521   | -23.5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99     | 106    | 7.1   | 1,279   | 1,198   | -6.3  |
| 제 1차 금속산업                  | 104    | 120    | 15.4  | 1,689   | 1,730   | 2.4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745    | 841    | 12.9  | 6,834   | 8,562   | 25.3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340  | 1,186  | -11.5 | 16,395  | 14,361  | -12.4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86    | 208    | 11.8  | 5,448   | 5,144   | -5.6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705    | 812    | 15.2  | 11,975  | 12,165  | 1.6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627    | 714    | 13.9  | 21,426  | 18,716  | -12.6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523    | 700    | 33.8  | 7,634   | 9,083   | 19.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99     | 77     | -22.2 | 1,370   | 932     | -32.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8     | 22     | 22.2  | 152     | 375     | 146.7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912    | 1,062  | 16.4  | 10,759  | 10,474  | -2.6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4      | 4      | 0.0   | 64      | 119     | 85.9  |
| 제조업(합계)                    | 18,401 | 19,787 | 7.5   | 279,314 | 261,102 | -6.5  |

자료: 통계청, 광업제조업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5> 서울 1인 이상 공장의 제조업의 업종별 현황

단위: 개, 명, %

| 제조업 업종 구분                  | 사업체    |        |       | 종사자     |         |       |
|----------------------------|--------|--------|-------|---------|---------|-------|
|                            | '00    | '05    | 증감률   | '00     | '05     | 증감률   |
| 음·식료품 제조업                  | 5,938  | 6,435  | 8.4   | 17,657  | 17,875  | 1.2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6,604  | 5,979  | -9.5  | 33,272  | 29,666  | -10.8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2,414 | 12,091 | -2.6  | 89,310  | 95,709  | 7.2   |
| 기증,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887  | 1,508  | -20.1 | 11,344  | 10,848  | -4.4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038  | 527    | -49.2 | 2,101   | 1,162   | -44.7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021  | 782    | -23.4 | 6,793   | 5,881   | -13.4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0,027 | 10,103 | 0.8   | 64,124  | 76,287  | 19.0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4      | 0      | -     | 23      | -       | -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345    | 281    | -18.6 | 3,258   | 3,004   | -7.8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463  | 1,421  | -2.9  | 8,817   | 8,240   | -6.5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487    | 399    | -18.1 | 2,629   | 1,954   | -25.7 |
| 제 1차 금속산업                  | 514    | 471    | -8.4  | 2,325   | 2,404   | 3.4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5,695  | 6,193  | 8.7   | 16,151  | 17,135  | 6.1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116  | 5,043  | -1.4  | 22,717  | 22,439  | -1.2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226    | 291    | 28.8  | 3,654   | 5,904   | 61.6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292  | 2,636  | 15.0  | 15,096  | 16,047  | 6.3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883    | 1,071  | 21.3  | 19,569  | 23,766  | 21.4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936    | 1,198  | 28.0  | 6,807   | 8,883   | 30.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44    | 222    | -35.5 | 1,892   | 1,590   | -16.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74     | 43     | -41.9 | 1,252   | 232     | -81.5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5,558  | 5,178  | -6.8  | 19,674  | 18,959  | -3.6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46     | 13     | -71.7 | 159     | 118     | -25.8 |
| 제조업(합계)                    | 62,912 | 61,885 | -1.6  | 348,624 | 368,103 | 5.6   |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자료, 각년도

<부록 6> 각 자치구별 전산업대비 제조업의 비중 변화(종사자)

단위: 명, (%)

|      | '95       |         |             | '00       |         |             | '05       |         |             |
|------|-----------|---------|-------------|-----------|---------|-------------|-----------|---------|-------------|
|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대비<br>비중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대비<br>비중 | 전산업       | 제조업     | 전산업대비<br>비중 |
| 강남구  | 555,705   | 59,647  | 10.7        | 496,192   | 46,314  | 9.3         | 544,891   | 51,830  | 9.5         |
| 강동구  | 99,709    | 13,207  | 13.2        | 97,237    | 10,895  | 11.2        | 98,252    | 8,302   | 8.4         |
| 강북구  | 56,383    | 9,087   | 16.1        | 53,641    | 7,803   | 14.5        | 62,613    | 6,931   | 11.1        |
| 강서구  | 109,209   | 19,212  | <b>17.6</b> | 118,258   | 13,990  | <b>11.8</b> | 137,258   | 10,661  | <b>7.8</b>  |
| 관악구  | 92,264    | 15,462  | 16.8        | 99,762    | 12,555  | 12.6        | 95,624    | 9,163   | 9.6         |
| 광진구  | 95,493    | 24,009  | 25.1        | 96,663    | 14,823  | 15.3        | 96,456    | 11,214  | 11.6        |
| 구로구  | 118,786   | 42,181  | <b>35.5</b> | 113,619   | 26,908  | <b>23.7</b> | 143,568   | 26,137  | <b>18.2</b> |
| 금천구  | 116,220   | 62,095  | <b>53.4</b> | 103,425   | 51,493  | <b>49.8</b> | 124,704   | 47,198  | <b>37.8</b> |
| 노원구  | 72,767    | 5,802   | 8.0         | 87,136    | 6,366   | 7.3         | 98,207    | 4,607   | 4.7         |
| 도봉구  | 54,502    | 11,625  | <b>21.3</b> | 57,324    | 8,115   | <b>14.2</b> | 59,508    | 5,743   | <b>9.7</b>  |
| 동대문구 | 150,083   | 31,497  | 21.0        | 121,753   | 20,611  | 16.9        | 124,505   | 17,623  | 14.2        |
| 동작구  | 79,725    | 13,923  | 17.5        | 87,647    | 14,069  | 16.1        | 91,976    | 7,878   | 8.6         |
| 마포구  | 134,726   | 32,683  | 24.3        | 127,826   | 21,789  | 17.0        | 153,655   | 18,614  | 12.1        |
| 서대문구 | 80,761    | 11,652  | 14.4        | 79,729    | 6,286   | 7.9         | 85,779    | 4,621   | 5.4         |
| 서초구  | 291,665   | 43,878  | 15.0        | 275,292   | 35,362  | 12.8        | 312,911   | 27,573  | 8.8         |
| 성동구  | 112,146   | 45,156  | <b>40.3</b> | 115,256   | 40,884  | <b>35.5</b> | 114,087   | 36,760  | <b>32.2</b> |
| 성북구  | 99,031    | 20,412  | 20.6        | 83,751    | 13,713  | 16.4        | 85,261    | 9,971   | 11.7        |
| 송파구  | 176,446   | 16,174  | 9.2         | 183,926   | 14,834  | 8.1         | 215,523   | 15,378  | 7.1         |
| 양천구  | 79,221    | 12,114  | 15.3        | 92,558    | 10,063  | 10.9        | 98,933    | 8,376   | 8.5         |
| 영등포구 | 326,945   | 76,845  | <b>23.5</b> | 249,862   | 39,754  | <b>15.9</b> | 261,492   | 33,007  | <b>12.6</b> |
| 용산구  | 128,010   | 20,664  | 16.1        | 115,570   | 16,683  | 14.4        | 111,652   | 11,687  | 10.5        |
| 은평구  | 68,323    | 7,402   | 10.8        | 70,505    | 6,669   | 9.5         | 72,411    | 4,716   | 6.5         |
| 종로구  | 274,904   | 44,166  | 16.1        | 220,414   | 27,764  | 12.6        | 222,443   | 23,727  | 10.7        |
| 중구   | 423,153   | 74,003  | 17.5        | 344,329   | 81,052  | 23.5        | 352,436   | 58,307  | 16.5        |
| 중랑구  | 78,420    | 19,795  | 25.2        | 83,149    | 19,626  | 23.6        | 78,865    | 13,619  | 17.3        |
| 합계   | 3,874,597 | 729,057 | 18.9        | 3,574,824 | 568,421 | 15.9        | 3,843,010 | 473,643 | 12.3        |

자료: 통계청, 산업총조사자료, 각년도

<부록 7> 서울 제조업의 자치구별 분포 변화

단위: 개, 명, (%)

|      | 사업체                    |                        |                        |                           | 종사자                      |                         |                          |                            |
|------|------------------------|------------------------|------------------------|---------------------------|--------------------------|-------------------------|--------------------------|----------------------------|
|      | '95                    | '00                    | '05                    | 증감<br>(95-05)             | '95                      | '00                     | '05                      | 증감<br>(95-05)              |
| 강남구  | 2,869<br>(3.5)         | 2,534<br>(3.5)         | 2,505<br>(3.6)         | -364<br>(-12.7)           | 59,647<br>(8.1)          | 46,314<br>(8.1)         | 51,830<br>(10.9)         | -7,817<br>(-13.1)          |
| 강동구  | 2,464<br>(3.0)         | 2,069<br>(2.8)         | 1,621<br>(2.3)         | -843<br>(-34.2)           | 13,207<br>(1.8)          | 10,895<br>(1.9)         | 8,302<br>(1.8)           | -4,905<br>(-37.1)          |
| 강북구  | 1,999<br>(2.4)         | 1,556<br>(2.1)         | 1,623<br>(2.3)         | -376<br>(-18.8)           | 9,087<br>(1.2)           | 7,803<br>(1.4)          | 6,931<br>(1.5)           | -2,156<br>(-23.7)          |
| 강서구  | <b>1,924<br/>(2.4)</b> | <b>1,695<br/>(2.3)</b> | <b>1,520<br/>(2.2)</b> | <b>-404<br/>(-21.0)</b>   | <b>19,212<br/>(2.6)</b>  | <b>13,990<br/>(2.5)</b> | <b>10,661<br/>(2.3)</b>  | <b>-8,551<br/>(-44.5)</b>  |
| 관악구  | 2,424<br>(3.0)         | 2,132<br>(2.9)         | 1,676<br>(2.4)         | -748<br>(-30.9)           | 15,462<br>(2.1)          | 12,555<br>(2.2)         | 9,163<br>(1.9)           | -6,299<br>(-40.7)          |
| 광진구  | 2,686<br>(3.3)         | 2,351<br>(3.2)         | 2,254<br>(3.2)         | -432<br>(-16.1)           | 24,009<br>(3.3)          | 14,823<br>(2.6)         | 11,214<br>(2.4)          | -12,795<br>(-53.3)         |
| 구로구  | <b>4,473<br/>(5.5)</b> | <b>4,723<br/>(6.5)</b> | <b>4,364<br/>(6.2)</b> | <b>-109<br/>(-2.4)</b>    | <b>42,181<br/>(5.8)</b>  | <b>26,908<br/>(4.7)</b> | <b>26,137<br/>(5.5)</b>  | <b>-16,044<br/>(-38.0)</b> |
| 금천구  | <b>3,666<br/>(4.5)</b> | <b>3,542<br/>(4.9)</b> | <b>4,406<br/>(6.3)</b> | <b>740<br/>(20.2)</b>     | <b>62,095<br/>(8.5)</b>  | <b>51,493<br/>(9.1)</b> | <b>47,198<br/>(10.0)</b> | <b>-14,897<br/>(-24.0)</b> |
| 노원구  | 1,047<br>(1.3)         | 1,087<br>(1.5)         | 909<br>(1.3)           | -138<br>(-13.2)           | 5,802<br>(0.8)           | 6,366<br>(1.1)          | 4,607<br>(1.0)           | -1,195<br>(-20.6)          |
| 도봉구  | <b>1,208<br/>(1.5)</b> | <b>1,158<br/>(1.6)</b> | <b>1,117<br/>(1.6)</b> | <b>-91<br/>(-7.5)</b>     | <b>11,625<br/>(1.6)</b>  | <b>8,115<br/>(1.4)</b>  | <b>5,743<br/>(1.2)</b>   | <b>-5,882<br/>(-50.6)</b>  |
| 동대문구 | 4,998<br>(6.1)         | 3,987<br>(5.5)         | 3,466<br>(5.0)         | -1,532<br>(-30.7)         | 31,497<br>(4.3)          | 20,611<br>(3.6)         | 17,623<br>(3.7)          | -13,874<br>(-44.0)         |
| 동작구  | 1,443<br>(1.8)         | 1,146<br>(1.6)         | 1,000<br>(1.4)         | -443<br>(-30.7)           | 13,923<br>(1.9)          | 14,069<br>(2.5)         | 7,878<br>(1.7)           | -6,045<br>(-43.4)          |
| 마포구  | 2,726<br>(3.3)         | 2,179<br>(3.0)         | 2,291<br>(3.3)         | -435<br>(-16.0)           | 32,683<br>(4.5)          | 21,789<br>(3.8)         | 18,614<br>(3.9)          | -14,069<br>(-43.0)         |
| 서대문구 | 1,474<br>(1.8)         | 1,106<br>(1.5)         | 995<br>(1.4)           | -479<br>(-32.5)           | 11,652<br>(1.6)          | 6,286<br>(1.1)          | 4,621<br>(1.0)           | -7,031<br>(-60.3)          |
| 서초구  | 2,162<br>(2.6)         | 2,168<br>(3.0)         | 1,894<br>(2.7)         | -268<br>(-12.4)           | 43,878<br>(6.0)          | 35,362<br>(6.2)         | 27,573<br>(5.8)          | -16,305<br>(-37.2)         |
| 성동구  | <b>5,512<br/>(6.7)</b> | <b>5,585<br/>(7.7)</b> | <b>5,493<br/>(7.8)</b> | <b>-19<br/>(-0.3)</b>     | <b>45,156<br/>(6.2)</b>  | <b>40,884<br/>(7.2)</b> | <b>36,760<br/>(7.8)</b>  | <b>-8,396<br/>(-18.6)</b>  |
| 성북구  | 3,764<br>(4.6)         | 2,770<br>(3.8)         | 2,402<br>(3.4)         | -1,362<br>(-36.2)         | 20,412<br>(2.8)          | 13,713<br>(2.4)         | 9,971<br>(2.1)           | -10,441<br>(-51.2)         |
| 송파구  | 2,383<br>(2.9)         | 1,911<br>(2.6)         | 1,972<br>(2.8)         | -411<br>(-17.2)           | 16,174<br>(2.2)          | 14,834<br>(2.6)         | 15,378<br>(3.2)          | -796<br>(-4.9)             |
| 양천구  | 1,903<br>(2.3)         | 1,628<br>(2.2)         | 1,464<br>(2.1)         | -439<br>(-23.1)           | 12,114<br>(1.7)          | 10,063<br>(1.8)         | 8,376<br>(1.8)           | -3,738<br>(-30.9)          |
| 영등포구 | <b>6,631<br/>(8.1)</b> | <b>5,159<br/>(7.1)</b> | <b>5,395<br/>(7.7)</b> | <b>-1,236<br/>(-18.6)</b> | <b>76,845<br/>(10.5)</b> | <b>39,754<br/>(7.0)</b> | <b>33,007<br/>(7.0)</b>  | <b>-43,838<br/>(-57.0)</b> |
| 용산구  | 2,162<br>(2.6)         | 1,720<br>(2.4)         | 1,562<br>(2.2)         | -600<br>(-27.8)           | 20,664                   | 16,683<br>(2.9)         | 11,687<br>(2.5)          | -8,977<br>(-43.4)          |
| 은평구  | 1,593<br>(1.9)         | 1,344<br>(1.8)         | 1,149<br>(1.6)         | -444<br>(-27.9)           | 7,402<br>(1.0)           | 6,669<br>(1.2)          | 4,716<br>(1.0)           | -2,686<br>(-36.3)          |
| 종로구  | 4,776<br>(5.8)         | 4,756<br>(6.5)         | 4,682<br>(6.7)         | -94<br>(-2.0)             | 44,166<br>(6.0)          | 27,764<br>(4.9)         | 23,727<br>(5.0)          | -20,439<br>(-46.3)         |
| 중구   | 12,299<br>(15.0)       | 11,168<br>(15.4)       | 11,348<br>(16.2)       | -951<br>(-7.7)            | 74,003<br>(10.1)         | 81,052<br>(14.3)        | 58,307<br>(12.3)         | -15,696<br>(-21.2)         |
| 종량구  | 3,249<br>(4.0)         | 3,280<br>(4.5)         | 2,874<br>(4.1)         | -375<br>(-11.5)           | 19,795<br>(2.7)          | 19,626<br>(3.5)         | 13,619<br>(2.9)          | -6,176<br>(-31.2)          |
| 합계   | 81,557<br>(100.0)      | 72,754<br>(100.0)      | 69,982<br>(100.0)      | -11,853<br>(-14.5)        | 729,057<br>(100.0)       | 568,421<br>(100.0)      | 473,643<br>(100.0)       | -259,048<br>(-35.4)        |

주: 음영은 준공업지역이 있는 자치구를 의미함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8> 서울 제조업 각 업종의 자치구별 분포-사업체

단위: %

|      | 제조업          | 음식료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 가방,<br>신발 | 목재,<br>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br>플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 강남구  | 3.58         | 3.52        | 2.75         | 4.10         | 1.36          | 3.10         | 3.27         | <b>4.53</b>  | <b>10.53</b> | <b>11.45</b> | 2.35         | <b>8.94</b>  | 4.83         | 0.94         | 1.04         | <b>6.33</b>  | 3.51         | <b>7.28</b>  | 3.99         | <b>7.75</b>  | <b>7.50</b>  | <b>4.87</b>  | 4.00         |
| 강동구  | 2.32         | <b>4.94</b> | 3.51         | 1.57         | 3.51          | 3.56         | 1.43         | 0.66         | —            | 1.26         | 1.33         | 1.95         | 1.00         | 1.34         | 0.63         | 1.22         | 2.52         | 1.18         | 3.10         | 0.74         | —            | <b>5.77</b>  | —            |
| 강북구  | 2.32         | 4.25        | 3.95         | 4.23         | 2.83          | 3.41         | 0.61         | 0.36         | —            | 0.63         | 0.70         | 2.60         | 0.67         | 1.55         | 0.63         | 0.61         | 1.92         | 1.18         | 1.52         | —            | —            | 2.02         | —            |
| 강서구  | 2.17         | 4.15        | 1.43         | 1.34         | 4.13          | 2.79         | 1.74         | 1.08         | 5.26         | 2.89         | 2.99         | 2.76         | 1.17         | 1.86         | 1.40         | 3.88         | 3.84         | 5.23         | 2.28         | 5.17         | 2.50         | 2.77         | —            |
| 관악구  | 2.39         | <b>5.57</b> | 2.63         | 3.85         | 2.46          | 2.17         | 0.72         | 0.80         | 5.26         | 1.89         | 1.40         | 1.30         | 0.50         | 1.09         | 0.43         | 1.63         | 2.65         | 1.80         | 2.09         | 0.74         | —            | 2.76         | —            |
| 광진구  | 3.22         | 4.36        | <b>6.75</b>  | 4.46         | <b>5.11</b>   | 2.48         | 1.64         | 0.98         | —            | 1.76         | 2.86         | 3.25         | 0.50         | 2.12         | 0.89         | 1.22         | 2.78         | 1.43         | 3.29         | 1.48         | 1.25         | 4.15         | 4.00         |
| 구로구  | 6.24         | 3.41        | 2.05         | 1.53         | 1.05          | <b>4.64</b>  | 2.45         | 1.38         | 5.26         | <b>7.17</b>  | <b>12.39</b> | 4.23         | <b>14.83</b> | <b>13.47</b> | <b>17.70</b> | <b>20.41</b> | <b>16.67</b> | <b>15.74</b> | <b>15.06</b> | <b>16.97</b> | <b>17.50</b> | 2.74         | —            |
| 금천구  | <b>6.30</b>  | 2.93        | 3.17         | 4.54         | 2.77          | 2.94         | <b>5.32</b>  | 2.01         | —            | <b>7.42</b>  | <b>11.05</b> | 4.39         | <b>7.50</b>  | <b>5.69</b>  | <b>19.52</b> | <b>21.22</b> | <b>13.29</b> | <b>24.70</b> | <b>14.94</b> | <b>11.81</b> | <b>16.25</b> | 2.93         | —            |
| 노원구  | 1.30         | 3.76        | 1.90         | 1.12         | 0.74          | 1.24         | 0.51         | 0.34         | —            | 1.51         | 0.83         | 1.95         | 0.83         | 0.64         | 0.39         | 0.82         | 1.43         | 1.06         | 1.58         | 0.37         | —            | 1.88         | —            |
| 도봉구  | 1.60         | 2.99        | 4.73         | 1.88         | 1.11          | 1.39         | 0.92         | 0.22         | —            | 0.25         | 1.08         | 2.28         | 0.17         | 1.00         | 0.35         | 0.41         | 1.59         | 0.62         | 1.52         | 0.74         | —            | 1.22         | —            |
| 동대문구 | 4.95         | <b>7.81</b> | <b>7.99</b>  | <b>7.91</b>  | 3.88          | 3.56         | 3.58         | 1.45         | —            | 4.91         | 3.11         | 5.20         | 6.00         | 4.65         | 3.02         | 1.84         | 3.28         | 1.80         | 4.11         | 5.90         | 2.50         | 3.61         | 4.00         |
| 동작구  | 1.43         | 3.67        | 1.15         | 1.41         | 1.23          | 1.70         | 1.23         | 0.71         | 5.26         | 2.26         | 0.83         | 1.30         | 0.17         | 1.18         | 0.41         | 1.02         | 1.82         | 1.37         | 1.77         | 0.37         | 1.25         | 1.71         | —            |
| 마포구  | 3.27         | 3.18        | 1.59         | 3.63         | 2.83          | 4.02         | <b>6.65</b>  | <b>6.35</b>  | 5.26         | 5.16         | 2.86         | 3.09         | 0.33         | 1.56         | 0.91         | 2.45         | 2.55         | 2.24         | 2.34         | —            | —            | 3.63         | 4.00         |
| 서대문구 | 1.42         | 2.96        | 0.99         | 1.88         | 2.46          | 4.33         | 0.92         | 1.14         | —            | 1.38         | 0.70         | 0.81         | 0.33         | 1.00         | 0.16         | 1.22         | 1.13         | 0.62         | 1.20         | —            | —            | 1.61         | 4.00         |
| 서초구  | 2.71         | 2.89        | 2.66         | 1.80         | 1.17          | 3.87         | 3.07         | 2.58         | <b>10.53</b> | <b>10.06</b> | 2.35         | <b>10.24</b> | 2.83         | 1.74         | 1.50         | 5.51         | 2.78         | <b>5.91</b>  | 3.80         | 2.21         | 2.50         | 4.05         | <b>16.00</b> |
| 성동구  | <b>7.85</b>  | 3.42        | <b>8.97</b>  | 6.30         | <b>22.43</b>  | <b>8.82</b>  | <b>14.83</b> | 3.78         | 5.26         | 6.79         | <b>12.45</b> | 3.25         | <b>10.83</b> | <b>11.63</b> | <b>17.25</b> | <b>6.53</b>  | <b>6.17</b>  | 3.98         | <b>7.72</b>  | <b>10.33</b> | 6.25         | <b>5.98</b>  | <b>12.00</b> |
| 성북구  | 3.43         | <b>5.02</b> | 5.00         | <b>7.88</b>  | 3.70          | 3.25         | 1.84         | 0.71         | —            | 1.51         | 1.14         | 1.79         | 0.83         | 2.19         | 0.69         | 0.20         | 1.96         | 1.56         | 1.46         | 0.37         | 2.50         | 3.04         | —            |
| 송파구  | 2.82         | <b>5.72</b> | 3.67         | 2.05         | 4.07          | 2.17         | 1.84         | 1.53         | —            | 5.03         | 2.60         | 4.07         | 2.17         | 1.15         | 0.89         | 4.29         | 3.45         | 4.73         | 4.05         | 0.37         | 3.75         | 4.54         | <b>20.00</b> |
| 양천구  | 2.09         | 4.40        | 1.37         | 1.60         | <b>6.90</b>   | 2.01         | 1.53         | 0.66         | —            | 2.26         | 2.03         | 2.44         | 1.67         | 2.29         | 1.36         | 2.04         | 2.45         | 3.55         | 2.28         | 2.58         | 1.25         | 2.49         | —            |
| 영등포구 | <b>7.71</b>  | 4.63        | 2.18         | 2.58         | 1.36          | <b>5.73</b>  | <b>6.34</b>  | <b>5.20</b>  | <b>21.05</b> | <b>9.43</b>  | <b>9.02</b>  | <b>7.48</b>  | <b>28.50</b> | <b>21.51</b> | <b>21.86</b> | <b>9.18</b>  | <b>5.83</b>  | <b>5.66</b>  | <b>7.28</b>  | <b>22.14</b> | <b>12.50</b> | 4.54         | <b>12.00</b> |
| 용산구  | 2.23         | 1.95        | 1.75         | 3.37         | 1.60          | 3.41         | 2.86         | 3.01         | —            | 2.89         | 1.27         | 0.81         | 1.17         | 1.26         | 1.34         | 2.65         | 1.89         | 2.18         | 2.53         | 0.74         | 2.50         | 1.67         | —            |
| 은평구  | 1.64         | 4.59        | 2.00         | 1.23         | 1.17          | <b>4.49</b>  | 1.12         | 0.52         | —            | 0.63         | 0.95         | 2.44         | 0.33         | 1.78         | 0.32         | 1.02         | 1.49         | 0.75         | 1.27         | 1.11         | —            | 2.51         | —            |
| 종로구  | <b>6.69</b>  | 2.17        | <b>6.63</b>  | <b>9.70</b>  | 4.13          | 4.02         | 2.66         | <b>5.77</b>  | <b>10.53</b> | 3.40         | 3.05         | <b>14.31</b> | 2.17         | 5.53         | 2.23         | 1.63         | <b>6.13</b>  | 1.68         | <b>4.94</b>  | 1.85         | 2.50         | <b>18.74</b> | —            |
| 총구   | <b>16.22</b> | 2.93        | <b>15.59</b> | <b>11.59</b> | <b>4.25</b>   | <b>16.56</b> | <b>29.55</b> | <b>53.57</b> | <b>15.79</b> | <b>7.17</b>  | <b>17.79</b> | <b>6.18</b>  | <b>9.67</b>  | <b>9.62</b>  | <b>3.84</b>  | 2.24         | 5.37         | 1.80         | 3.23         | 4.06         | <b>17.50</b> | <b>7.87</b>  | <b>16.00</b> |
| 종량구  | 4.11         | 4.77        | 5.57         | <b>8.46</b>  | <b>13.74</b>  | 4.33         | 3.37         | 0.65         | —            | 0.88         | 2.86         | 2.93         | 1.00         | 3.20         | 1.24         | 0.41         | 3.48         | 1.93         | 2.66         | 2.21         | —            | 2.90         | 4.00         |

주: 음영은 각 업종별 비중이 높은 상위 5개구를 의미함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9> 서울 제조업 각 업종의 자치구별 분포-종사자

단위: %

|      | 제조업   | 음식료<br>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br>플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기타전<br>기기계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 강남구  | 10.94 | 6.53     | 7.27     | 10.90    | 4.84         | 11.36     | 12.62     | 6.24      | 30.32     | 21.96 | 5.23        | 18.43     | 28.05    | 5.35     | 2.93     | 8.89  | 8.36       | 8.14     | 6.41     | 29.78 | 22.37    | 31.87     | 1.52  |
| 강동구  | 1.75  | 3.10     | 2.95     | 2.60     | 3.20         | 3.31      | 0.82      | 0.52      | -         | 0.93  | 0.82        | 1.09      | 0.97     | 0.86     | 0.70     | 0.91  | 1.55       | 0.68     | 2.91     | 0.11  | -        | 3.82      | -     |
| 강북구  | 1.46  | 2.10     | 3.15     | 3.27     | 3.01         | 1.47      | 0.23      | 0.38      | -         | 0.07  | 0.38        | 1.79      | 0.22     | 1.12     | 0.32     | 0.47  | 0.79       | 0.83     | 0.85     | -     | -        | 1.24      | -     |
| 강서구  | 2.25  | 3.74     | 1.78     | 1.15     | 2.94         | 2.74      | 1.81      | 1.00      | 0.36      | 2.33  | 3.97        | 2.47      | 1.15     | 2.77     | 2.48     | 4.53  | 4.78       | 3.93     | 2.62     | 2.28  | 1.33     | 2.41      | -     |
| 관악구  | 1.93  | 2.58     | 2.50     | 4.22     | 2.37         | 0.90      | 0.28      | 0.92      | 0.18      | 1.12  | 1.53        | 0.61      | 0.19     | 0.83     | 0.61     | 0.50  | 2.86       | 0.92     | 2.07     | 0.11  | -        | 1.50      | -     |
| 광진구  | 2.37  | 2.70     | 6.04     | 4.22     | 3.76         | 1.31      | 0.55      | 0.74      | -         | 0.80  | 1.63        | 1.40      | 0.39     | 2.10     | 0.92     | 2.49  | 1.65       | 0.65     | 2.72     | 0.22  | 2.74     | 3.08      | 1.01  |
| 구로구  | 5.52  | 2.85     | 3.09     | 2.41     | 0.84         | 2.74      | 2.46      | 2.35      | 0.21      | 3.78  | 10.24       | 2.13      | 9.78     | 12.52    | 17.58    | 16.80 | 10.58      | 7.77     | 13.81    | 4.98  | 6.63     | 3.94      | -     |
| 금천구  | 9.96  | 1.87     | 5.22     | 7.99     | 3.48         | 2.70      | 14.36     | 5.44      | -         | 3.99  | 22.40       | 2.94      | 16.91    | 10.03    | 27.04    | 20.68 | 19.25      | 22.41    | 20.98    | 4.19  | 18.74    | 3.42      | -     |
| 노원구  | 0.97  | 1.83     | 2.58     | 1.09     | 0.70         | 0.69      | 0.38      | 0.12      | -         | 0.36  | 0.81        | 0.59      | 0.45     | 0.74     | 0.54     | 0.29  | 1.64       | 1.14     | 1.33     | 0.32  | -        | 1.47      | -     |
| 도봉구  | 1.21  | 1.55     | 3.75     | 1.78     | 1.04         | 0.74      | 0.67      | 0.20      | -         | 0.24  | 0.59        | 1.54      | 0.15     | 0.77     | 0.38     | 0.41  | 2.53       | 1.66     | 1.05     | 0.19  | -        | 0.74      | -     |
| 동대문구 | 3.72  | 4.93     | 7.12     | 7.56     | 2.71         | 1.55      | 2.35      | 1.11      | -         | 2.89  | 1.93        | 2.22      | 2.54     | 4.38     | 2.75     | 0.62  | 3.31       | 0.44     | 3.20     | 1.55  | 0.53     | 2.82      | 0.51  |
| 동작구  | 1.66  | 4.60     | 0.86     | 1.38     | 0.63         | 0.49      | 2.58      | 0.84      | 0.66      | 6.19  | 1.20        | 0.95      | 0.02     | 0.97     | 0.22     | 0.35  | 1.31       | 1.51     | 2.47     | 0.04  | 0.53     | 1.61      | -     |
| 마포구  | 3.93  | 2.23     | 5.60     | 3.09     | 2.57         | 5.35      | 5.75      | 9.57      | 3.71      | 3.00  | 3.08        | 1.18      | 0.58     | 2.07     | 1.51     | 1.02  | 3.16       | 2.31     | 2.50     | -     | -        | 2.51      | 2.02  |
| 서대문구 | 0.98  | 1.97     | 1.07     | 1.34     | 1.05         | 1.88      | 0.76      | 0.98      | -         | 1.47  | 0.31        | 0.64      | 0.04     | 1.09     | 0.16     | 0.48  | 0.90       | 0.12     | 1.20     | -     | -        | 0.69      | 0.51  |
| 서초구  | 5.82  | 13.37    | 3.05     | 3.77     | 3.30         | 28.12     | 7.49      | 3.80      | 1.15      | 11.50 | 7.63        | 13.99     | 2.88     | 3.07     | 4.78     | 4.86  | 3.35       | 7.26     | 4.09     | 37.21 | 0.71     | 3.43      | 9.60  |
| 성동구  | 7.76  | 3.94     | 9.62     | 6.34     | 31.92        | 6.01      | 11.33     | 7.58      | 0.09      | 1.58  | 7.75        | 2.70      | 5.27     | 10.95    | 11.87    | 9.54  | 8.68       | 8.44     | 6.97     | 3.16  | 1.86     | 7.02      | 8.08  |
| 성북구  | 2.11  | 2.32     | 3.41     | 5.96     | 3.53         | 1.27      | 1.69      | 0.58      | -         | 0.13  | 0.78        | 0.50      | 0.13     | 1.35     | 0.56     | 0.06  | 0.86       | 0.53     | 0.90     | 0.06  | 0.35     | 1.31      | -     |
| 송파구  | 3.25  | 4.59     | 5.72     | 3.27     | 6.34         | 4.70      | 0.97      | 1.48      | -         | 2.38  | 1.91        | 4.76      | 1.91     | 1.31     | 1.68     | 1.55  | 4.19       | 5.24     | 5.66     | 0.07  | 1.41     | 4.16      | 58.59 |
| 양천구  | 1.77  | 3.07     | 1.28     | 2.14     | 4.53         | 1.14      | 0.84      | 0.76      | -         | 1.05  | 1.51        | 0.88      | 0.85     | 4.00     | 1.57     | 0.64  | 2.53       | 1.69     | 1.51     | 2.10  | 0.09     | 1.58      | -     |
| 영등포구 | 6.97  | 8.30     | 3.27     | 2.48     | 0.90         | 2.82      | 5.42      | 4.58      | 15.48     | 11.13 | 9.67        | 4.23      | 13.11    | 19.29    | 13.66    | 13.52 | 6.05       | 12.44    | 6.52     | 5.45  | 2.65     | 4.19      | 2.53  |
| 용산구  | 2.47  | 2.94     | 0.96     | 2.16     | 0.80         | 3.43      | 2.22      | 3.83      | -         | 8.11  | 1.30        | 1.13      | 0.41     | 1.29     | 1.83     | 2.82  | 2.66       | 0.92     | 2.16     | 1.46  | 0.80     | 1.00      | -     |
| 은평구  | 1.00  | 2.86     | 1.65     | 1.42     | 1.43         | 2.90      | 0.60      | 0.38      | -         | 0.16  | 0.52        | 1.27      | 0.28     | 1.12     | 0.22     | 0.62  | 1.15       | 0.41     | 0.89     | 0.32  | -        | 1.10      | -     |
| 종로구  | 5.01  | 4.90     | 4.00     | 3.99     | 1.22         | 2.41      | 7.92      | 8.58      | 44.25     | 5.66  | 1.52        | 16.84     | 0.43     | 3.44     | 1.56     | 3.93  | 2.51       | 0.82     | 1.79     | 0.56  | 2.30     | 9.12      | -     |
| 중구   | 12.31 | 7.60     | 9.92     | 7.55     | 4.89         | 7.93      | 14.26     | 37.59     | 3.59      | 9.08  | 12.09       | 14.76     | 12.94    | 6.08     | 2.80     | 3.82  | 3.79       | 9.23     | 3.77     | 5.51  | 36.96    | 4.45      | 13.13 |
| 중랑구  | 2.88  | 3.56     | 4.13     | 7.89     | 8.00         | 2.94      | 1.65      | 0.43      | -         | 0.09  | 1.20        | 0.95      | 0.37     | 2.51     | 1.32     | 0.19  | 1.57       | 0.51     | 1.63     | 0.32  | -        | 1.51      | 2.53  |

주: 음영은 각 업종별 비중이 높은 상위 5개구를 의미함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10>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변화

단위 : 개, 명, (%)

| 구 분                   | 사업체수               |                    |                    |                   | 총사자수               |                    |                    |                    |
|-----------------------|--------------------|--------------------|--------------------|-------------------|--------------------|--------------------|--------------------|--------------------|
|                       | '95                | '00                | '05                | 증감<br>(95-05)     | '95                | '00                | '05                | 증감<br>(95-05)      |
| 전산업                   | 150,317<br>(100.0) | 154,789<br>(100.0) | 161,832<br>(100.0) | 11,515<br>(7.7)   | 837,808<br>(100.0) | 757,744<br>(100.0) | 840,617<br>(100.0) | 2,809<br>(0.3)     |
| 농업 및<br>임업            | 14<br>(0.0)        | 3<br>(0.0)         | 4<br>(0.0)         | -10<br>(-71.4)    | 673<br>(0.1)       | 47<br>(0.0)        | 17<br>(0.0)        | -656<br>(-97.5)    |
| 어업                    | 5<br>(0.0)         | 1<br>(0.0)         | 1<br>(0.0)         | -4<br>(-80.0)     | 39<br>(0.0)        | 3<br>(0.0)         | 1<br>(0.0)         | -38<br>(-97.4)     |
| 광업                    | 25<br>(0.0)        | 8<br>(0.0)         | 7<br>(0.0)         | -18<br>(-72.0)    | 692<br>(0.1)       | 189<br>(0.0)       | 48<br>(0.0)        | -644<br>(-93.1)    |
| 제조업                   | 23,414<br>(15.6)   | 21,862<br>(14.1)   | 22,295<br>(13.8)   | -1,119<br>(-4.8)  | 257,114<br>(30.7)  | 181,144<br>(23.9)  | 159,506<br>(19.0)  | -97,608<br>(-38.0) |
| 전기, 가스 및<br>수도사업      | 38<br>(0.0)        | 54<br>(0.0)        | 38<br>(0.0)        | -<br>(-)          | 2,155<br>(0.3)     | 3,301<br>(0.4)     | 3,044<br>(0.4)     | 889<br>(41.3)      |
| 건설업                   | 3,312<br>(2.2)     | 3,018<br>(1.9)     | 4,287<br>(2.6)     | 975<br>(29.4)     | 53,663<br>(6.4)    | 39,173<br>(5.2)    | 38,108<br>(4.5)    | -15,555<br>(-29.0) |
| 도매 및<br>소매업           | 51,922<br>(34.5)   | 45,983<br>(29.7)   | 43,514<br>(26.9)   | -8,408<br>(-16.2) | 175,517<br>(20.9)  | 152,279<br>(20.1)  | 151,686<br>(18.0)  | -23,831<br>(-13.6) |
| 숙박 및<br>음식점업          | 23,019<br>(15.3)   | 24,481<br>(15.8)   | 24,265<br>(15.0)   | 1,246<br>(5.4)    | 57,751<br>(6.9)    | 63,646<br>(8.4)    | 68,692<br>(8.2)    | 10,941<br>(18.9)   |
| 운수업                   | 18,082<br>(12.0)   | 20,707<br>(13.4)   | 23,613<br>(14.6)   | 5,531<br>(30.6)   | 62,711<br>(7.5)    | 64,220<br>(8.5)    | 70,885<br>(8.4)    | 8,174<br>(20.0)    |
| 통신업                   | 148<br>(0.1)       | 320<br>(0.2)       | 512<br>(0.3)       | 364<br>(245.9)    | 3,688<br>(0.4)     | 5,740<br>(0.8)     | 8,762<br>(1.0)     | 5,074<br>(12.5)    |
| 금융 및<br>보험업           | 1,564<br>(1.0)     | 1,637<br>(1.1)     | 1,704<br>(1.1)     | 140<br>(9.0)      | 49,420<br>(5.9)    | 43,464<br>(5.7)    | 43,234<br>(5.1)    | -6,186<br>(-12.5)  |
| 부동산 및<br>임대업          | 5,584<br>(3.7)     | 5,688<br>(3.7)     | 6,464<br>(4.0)     | 880<br>(15.8)     | 19,092<br>(2.3)    | 20,336<br>(2.7)    | 24,312<br>(2.9)    | 5,220<br>(27.3)    |
| 사업서비스업                | 3,064<br>(2.0)     | 4,381<br>(2.8)     | 6,294<br>(3.9)     | 3,230<br>(105.4)  | 35,948<br>(4.3)    | 49,261<br>(6.5)    | 112,617<br>(13.4)  | 76,669<br>(213.3)  |
| 공공행정, 국방 및<br>사회보장 행정 | 318<br>(0.2)       | 304<br>(0.2)       | 299<br>(0.2)       | -19<br>(-6.0)     | 20,055<br>(2.4)    | 19,858<br>(2.6)    | 21,080<br>(2.5)    | 1,025<br>(5.1)     |
| 교육 서비스업               | 4,486<br>(3.0)     | 4,2215<br>(2.7)    | 4,702<br>(2.9)     | 216<br>(4.8)      | 35,583<br>(4.2)    | 37,728<br>(5.0)    | 43,912<br>(5.2)    | 8,329<br>(23.4)    |
| 보건 및<br>사회복지사업        | 2,003<br>(1.3)     | 2,829<br>(1.8)     | 3,357<br>(2.1)     | 1,354<br>(67.6)   | 17,241<br>(2.1)    | 21,692<br>(2.9)    | 28,245<br>(3.4)    | 11,004<br>(63.8)   |
| 오락, 문화 및<br>운동관련 서비스업 | 4,326<br>(2.9)     | 5,536<br>(3.6)     | 6,038<br>(3.7)     | 1,712<br>(39.6)   | 18,459<br>(2.2)    | 18,773<br>(2.5)    | 26,544<br>(3.2)    | 8,085<br>(43.8)    |
| 기타 공공, 수리 및<br>개인서비스업 | 8,993<br>(6.0)     | 13,752<br>(8.9)    | 14,438<br>(8.9)    | 5,445<br>(60.5)   | 28,007<br>(3.3)    | 36,890<br>(4.9)    | 39,924<br>(4.7)    | 11,917<br>(42.6)   |

주 : 볼드체는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한 부문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11> 사업체수로 본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현황

단위: 개, %

| 구 분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LQ          |
|----------------------------|-------------------|-------------------|-------------------|-----------------|-------------|
| 제조업(합계)                    | 23,414<br>(100.0) | 21,862<br>(100.0) | 22,295<br>(100.0) | -4.8            | 1.00        |
| 음·식료품 제조업                  | 1,328<br>(5.7)    | 1,393<br>(6.4)    | 1,535<br>(6.9)    | <b>15.6</b>     | 0.68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1,625<br>(6.9)    | 1,579<br>(7.2)    | 1,542<br>(6.9)    | -5.1            | 0.71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886<br>(12.3)   | 2,215<br>(10.1)   | 2,296<br>(10.3)   | -20.4           | 0.57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51<br>(2.4)      | 542<br>(2.5)      | 533<br>(2.4)      | -3.3            | 1.0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376<br>(1.6)      | 244<br>(1.1)      | 170<br>(0.8)      | -54.8           | 0.83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40<br>(1.5)      | 327<br>(1.5)      | 309<br>(1.4)      | -9.1            | 0.99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232<br>(5.3)    | 1,346<br>(6.2)    | 1,551<br>(7.0)    | <b>25.9</b>     | 0.43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7<br>(0.0)        | 11<br>(0.1)       | 7<br>(0.0)        | 0.0             | 1.16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5<br>(0.9)      | 292<br>(1.3)      | 270<br>(1.2)      | <b>25.6</b>     | 1.07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98<br>(4.3)      | 798<br>(3.7)      | 771<br>(3.5)      | -22.7           | <b>1.54</b>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271<br>(1.2)      | 213<br>(1.0)      | 150<br>(0.7)      | -44.6           | 0.77        |
| 제 1차 금속산업                  | 293<br>(1.3)      | 449<br>(2.1)      | 378<br>(1.7)      | <b>29.0</b>     | <b>1.98</b>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3,517<br>(15.0)   | 3,025<br>(13.8)   | 4,031<br>(18.1)   | <b>14.6</b>     | <b>1.73</b>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180<br>(22.1)   | 4,924<br>(22.5)   | 3,961<br>(17.8)   | -23.5           | <b>2.45</b>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35<br>(0.6)      | 203<br>(0.9)      | 302<br>(1.4)      | <b>123.7</b>    | <b>1.93</b>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1,280             | 1,146<br>(5.2)    | 1,430<br>(6.4)    | <b>11.7</b>     | <b>1.49</b>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713<br>(3.0)      | 811<br>(3.7)      | 899<br>(4.0)      | <b>26.1</b>     | <b>1.76</b>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622<br>(2.7)      | 712<br>(3.3)      | 771<br>(3.5)      | <b>24.0</b>     | <b>1.53</b>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435<br>(1.9)      | 262<br>(1.2)      | 182<br>(0.8)      | -58.2           | <b>2.11</b>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41<br>(0.2)       | 71<br>(0.3)       | 44<br>(0.2)       | <b>7.3</b>      | <b>1.73</b>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1,352<br>(5.8)    | 1,270<br>(5.8)    | 1,157<br>(5.2)    | -14.4           | 0.63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17<br>(0.1)       | 29<br>(0.1)       | 6<br>(0.0)        | -64.7           | 0.75        |

주: 음영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과 특화도 1.2이상을 의미함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12> 종사자수로 본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현황

단위: 개, %

| 구 분                        | '95                | '00                | '05                | 증감률(%)<br>95-05 | LQ          |
|----------------------------|--------------------|--------------------|--------------------|-----------------|-------------|
| 제조업(합계)                    | 257,114<br>(100.0) | 181,144<br>(100.0) | 159,506<br>(100.0) | -38.0           | 1.00        |
| 음·식료품 제조업                  | 13,166<br>(5.1)    | 8,104<br>(4.5)     | 6,707<br>(4.2)     | -49.1           | 0.66        |
| 섬유제품 제조업;<br>동제의복 제외       | 18,234<br>(7.1)    | 13,677<br>(7.6)    | 8,871<br>(5.6)     | -51.3           | 0.79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34,577<br>(13.4)   | 26,515<br>(14.6)   | 20,969<br>(13.1)   | -39.4           | 0.66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5,492<br>(2.1)     | 5,197<br>(2.9)     | 4,364<br>(2.7)     | -20.5           | <b>1.22</b>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507<br>(0.6)     | 676<br>(0.4)       | 434<br>(0.3)       | -71.2           | 0.53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6,090<br>(2.4)     | 4,061<br>(2.2)     | 3,074<br>(1.9)     | -49.5           | 1.07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7,979<br>(7.0)    | 14,603<br>(8.1)    | 16,238<br>(10.2)   | -9.7            | 0.63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2,328<br>(0.9)     | 2,520<br>(1.4)     | 535<br>(0.3)       | -77.0           | 0.48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5,830<br>(6.2)    | 5,626<br>(3.1)     | 6,780<br>(4.3)     | -57.2           | 0.68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9,473<br>(3.7)     | 6,329<br>(3.5)     | 5,815<br>(3.6)     | -38.6           | <b>1.62</b>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6,587<br>(2.6)     | 2,006<br>(1.1)     | 894<br>(0.6)       | -86.4           | 0.48        |
| 제 1차 금속산업                  | 3,218<br>(1.3)     | 3,933<br>(2.2)     | 2,498<br>(1.6)     | -22.4           | <b>1.38</b>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18,917<br>(7.4)    | 11,701<br>(6.5)    | 13,012<br>(8.2)    | -31.2           | <b>1.67</b>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8,089<br>(14.8)   | 23,406<br>(12.9)   | 17,960<br>(11.3)   | -52.8           | <b>2.17</b>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4,664<br>(1.8)     | 4,806<br>(2.7)     | 5,943<br>(3.7)     | <b>27.4</b>     | <b>1.94</b>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13,089<br>(5.1)    | 8,050<br>(4.4)     | 10,106<br>(6.3)    | -22.8           | <b>1.54</b>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25,194<br>(9.8)    | 24,029<br>(13.3)   | 20,400<br>(12.8)   | -19.0           | <b>1.68</b>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5,586<br>(2.2)     | 6,119<br>(3.4)     | 6,690<br>(4.2)     | <b>19.8</b>     | <b>1.54</b>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6,886<br>(2.7)     | 2,264<br>(1.2)     | 1,082<br>(0.7)     | -84.3           | 0.6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78<br>(0.1)       | 439<br>(0.2)       | 353<br>(0.2)       | -6.6            | 0.93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9,763<br>(3.8)     | 6,944<br>(3.8)     | 6,760<br>(4.2)     | -30.8           | 0.65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67<br>(0.0)        | 139<br>(0.1)       | 21<br>(0.0)        | -68.7           | 0.31        |

주: 음영은 +증가율을 보인 업종과 특화도 1.2이상을 의미함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13>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사업체

| 구 분                       | 성동구  | 도봉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 농업                        | 0.00 | 0.00 | 1.96 | 1.89 | 2.69 | 0.00 |
| 임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6.36 |
| 어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1.59 |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0.00 | 0.00 | 0.00 | 0.00 | 5.82 | 0.00 |
| 금속 광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2.73 |
|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76 | 1.09 | 0.00 | 0.00 | 0.00 | 1.47 |
| 음·식료품 제조업                 | 1.01 | 1.27 | 1.06 | 0.84 | 1.02 | 0.88 |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2.66 | 2.02 | 0.36 | 0.50 | 1.11 | 0.42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87 | 0.80 | 0.34 | 0.37 | 1.59 | 0.49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6.65 | 0.47 | 1.05 | 0.26 | 0.97 | 0.26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62 | 0.59 | 0.71 | 1.14 | 1.03 | 1.09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4.40 | 0.39 | 0.44 | 0.60 | 1.86 | 1.21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12 | 0.09 | 0.28 | 0.34 | 0.70 | 0.99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1.56 | 0.00 | 1.34 | 1.29 | 0.00 | 4.02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1 | 0.11 | 0.74 | 1.76 | 2.59 | 1.8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3.69 | 0.46 | 0.76 | 3.04 | 3.86 | 1.72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96 | 0.97 | 0.70 | 1.04 | 1.53 | 1.43 |
| 제 1차 금속산업                 | 3.21 | 0.07 | 0.30 | 3.64 | 2.62 | 5.44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3.45 | 0.43 | 0.47 | 3.30 | 1.99 | 4.1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11 | 0.15 | 0.36 | 4.34 | 6.81 | 4.17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94 | 0.17 | 0.99 | 5.01 | 7.41 | 1.75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1.83 | 0.68 | 0.98 | 4.09 | 4.64 | 1.11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1.18 | 0.27 | 1.33 | 3.86 | 8.63 | 1.08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29 | 0.65 | 0.58 | 3.70 | 5.22 | 1.39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06 | 0.31 | 1.31 | 4.16 | 4.12 | 4.22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85 | 0.00 | 0.64 | 4.29 | 5.67 | 2.38 |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1.77 | 0.52 | 0.71 | 0.67 | 1.02 | 0.87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3.56 | 0.00 | 0.00 | 0.00 | 0.00 | 2.29 |

<표계속>

<부록 14>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사업체(계속)

| 구 분                        | 성동구  | 도봉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1.34 | 0.83 | 1.15 | 0.79 | 1.13 | 0.98 |
| 수도사업                       | 1.19 | 0.00 | 0.00 | 0.98 | 0.00 | 0.76 |
| 종합 건설업                     | 0.48 | 0.40 | 0.91 | 0.68 | 0.72 | 1.21 |
| 전문직별 공사업                   | 0.80 | 0.79 | 1.04 | 1.04 | 1.12 | 1.21 |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2.20 | 0.83 | 1.31 | 0.64 | 0.70 | 1.39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0.83 | 0.22 | 0.59 | 1.41 | 1.01 | 1.08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0.76 | 0.99 | 0.90 | 0.73 | 0.89 | 0.98 |
| 숙박 및 음식점업                  | 0.90 | 1.00 | 1.03 | 0.83 | 0.85 | 1.03 |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0.98 | 2.14 | 1.80 | 1.17 | 0.90 | 0.53 |
| 수상 운송업                     | 0.00 | 0.00 | 0.12 | 0.12 | 0.17 | 1.55 |
| 항공 운송업                     | 0.00 | 0.00 | 3.37 | 0.00 | 0.51 | 0.84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0.58 | 0.23 | 1.55 | 0.51 | 0.55 | 0.83 |
| 통신업                        | 1.26 | 0.64 | 0.83 | 1.13 | 1.22 | 1.05 |
| 금융업                        | 0.75 | 0.65 | 0.70 | 0.79 | 0.64 | 1.33 |
| 보험 및 연금업                   | 0.43 | 0.13 | 0.79 | 0.63 | 0.19 | 1.27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2.64 | 0.38 | 0.40 | 0.54 | 0.34 | 2.03 |
| 부동산업                       | 0.91 | 1.02 | 1.02 | 0.80 | 0.56 | 0.86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0.90 | 1.31 | 1.15 | 0.89 | 0.81 | 1.08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br>운영 관련업    | 0.47 | 0.14 | 0.34 | 2.49 | 2.21 | 1.84 |
| 연구 및 개발업                   | 0.93 | 0.05 | 0.32 | 1.14 | 2.77 | 1.15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0.43 | 0.27 | 0.38 | 0.70 | 0.67 | 0.98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0.60 | 0.51 | 0.71 | 1.10 | 0.64 | 1.64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1.01 | 1.09 | 1.02 | 0.88 | 0.73 | 0.97 |
| 교육 서비스업                    | 0.81 | 1.47 | 1.22 | 0.81 | 0.72 | 0.73 |
| 보건업                        | 0.80 | 0.99 | 1.02 | 0.73 | 0.65 | 0.81 |
| 사회복지사업                     | 0.84 | 1.92 | 1.54 | 0.86 | 1.15 | 0.62 |
|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 0.31 | 0.25 | 0.57 | 0.53 | 0.37 | 2.30 |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0.92 | 1.25 | 1.22 | 0.87 | 0.88 | 0.86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br>청소관련 서비스업 | 1.88 | 0.86 | 3.40 | 1.15 | 1.75 | 0.96 |
| 회원 단체                      | 0.73 | 1.25 | 1.26 | 0.74 | 0.88 | 0.88 |
| 수리업                        | 1.35 | 1.16 | 1.13 | 0.87 | 0.97 | 1.12 |
| 기타 서비스업                    | 0.91 | 1.31 | 1.16 | 0.87 | 0.92 | 0.87 |

주: 음영은 특화도 1.20이상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15>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종사자

| 구 분                       | 성동구   | 도봉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 농업                        | 0.00  | 0.00 | 0.26 | 0.63 | 1.30 | 0.00 |
| 임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11 |
| 어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03 |
| 석탄, 원유 및 우라늄 광업           | 0.00  | 0.00 | 0.00 | 0.00 | 3.63 | 0.00 |
| 금속 광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77 |
| 비금속 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25  | 3.36 | 0.00 | 0.00 | 0.00 | 0.44 |
| 음·식료품 제조업                 | 1.33  | 1.00 | 1.05 | 0.76 | 0.58 | 1.22 |
| 담배 제조업                    | 0.00  | 0.00 | 0.00 | 0.00 | 0.00 | 0.00 |
|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외          | 3.24  | 2.42 | 0.50 | 0.83 | 1.61 | 0.48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2.14  | 1.15 | 0.32 | 0.65 | 2.46 | 0.37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0.75 | 0.67 | 0.82 | 0.22 | 1.07 | 0.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2.02  | 0.48 | 0.77 | 0.73 | 0.83 | 0.41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3.82  | 0.43 | 0.51 | 0.66 | 4.43 | 0.80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2.55  | 0.13 | 0.28 | 0.63 | 1.68 | 0.67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0.03  | 0.00 | 0.10 | 0.06 | 0.00 | 2.27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0.53  | 0.15 | 0.65 | 1.01 | 1.23 | 1.64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61  | 0.38 | 1.11 | 2.74 | 6.90 | 1.42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0.91  | 0.99 | 0.69 | 0.57 | 0.91 | 0.62 |
| 제 1차 금속산업                 | 1.78  | 0.10 | 0.32 | 2.62 | 5.21 | 1.93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3.69  | 0.50 | 0.77 | 3.35 | 3.09 | 2.83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4.00  | 0.24 | 0.69 | 4.71 | 8.33 | 2.01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3.21  | 0.26 | 1.27 | 4.50 | 6.37 | 1.99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92  | 1.63 | 1.34 | 2.83 | 5.93 | 0.89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2.84  | 1.07 | 1.10 | 2.08 | 6.91 | 1.8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35  | 0.68 | 0.73 | 3.70 | 6.47 | 0.96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7  | 0.12 | 0.64 | 1.33 | 1.29 | 0.8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63  | 0.00 | 0.37 | 1.78 | 5.78 | 0.39 |
|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 2.37  | 0.48 | 0.68 | 1.06 | 1.06 | 0.62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2.72  | 0.00 | 0.00 | 0.00 | 0.00 | 0.37 |

<표계속>

<부록 16> 준공업지역의 산업별 특화도-종사자(계속)

| 구 분                        | 성동구  | 도봉구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영등포구 |
|----------------------------|------|------|-------|------|------|------|
| 전기, 가스 및 증기업               | 1.74 | 0.20 | 1.54  | 0.40 | 0.17 | 1.84 |
| 수도사업                       | 2.48 | 0.00 | 0.00  | 1.82 | 0.00 | 0.64 |
| 종합 건설업                     | 0.31 | 0.21 | 0.60  | 0.34 | 0.38 | 0.79 |
| 전문직별 공사업                   | 0.76 | 0.48 | 1.03  | 1.18 | 0.75 | 0.95 |
| 자동차 판매 및 차량연료 소매업          | 1.81 | 1.42 | 2.15  | 0.70 | 0.58 | 0.87 |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0.83 | 0.38 | 0.88  | 1.26 | 0.93 | 0.99 |
| 소매업 자동차 제외                 | 0.79 | 1.47 | 1.06  | 0.76 | 0.76 | 0.81 |
| 숙박 및 음식점업                  | 0.77 | 1.16 | 1.06  | 0.69 | 0.57 | 0.76 |
|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1.10 | 3.76 | 2.11  | 1.12 | 0.99 | 0.49 |
| 수상 운송업                     | 0.00 | 0.00 | 0.02  | 0.03 | 0.09 | 2.17 |
| 항공 운송업                     | 0.00 | 0.00 | 24.36 | 0.00 | 0.06 | 0.02 |
|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0.95 | 0.20 | 2.61  | 0.82 | 0.65 | 0.60 |
| 통신업                        | 0.63 | 0.47 | 0.70  | 1.70 | 1.05 | 0.68 |
| 금융업                        | 0.41 | 0.52 | 0.57  | 0.41 | 0.38 | 1.56 |
| 보험 및 연금업                   | 0.46 | 0.17 | 0.51  | 0.51 | 0.08 | 1.23 |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0.42 | 0.23 | 0.22  | 0.32 | 0.13 | 4.97 |
| 부동산업                       | 0.77 | 1.32 | 0.86  | 0.91 | 0.41 | 0.75 |
|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 0.98 | 1.56 | 1.36  | 1.41 | 0.50 | 0.73 |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br>운영 관련업    | 0.41 | 0.04 | 0.30  | 2.67 | 1.95 | 1.33 |
| 연구 및 개발업                   | 0.59 | 0.00 | 0.29  | 1.23 | 7.89 | 0.62 |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0.39 | 0.19 | 0.28  | 0.87 | 0.68 | 1.04 |
| 사업지원 서비스업                  | 0.54 | 0.20 | 0.62  | 0.89 | 0.30 | 1.75 |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0.84 | 1.48 | 0.90  | 0.82 | 0.49 | 0.89 |
| 교육 서비스업                    | 0.99 | 1.81 | 1.13  | 0.86 | 0.55 | 0.46 |
| 보건업                        | 0.93 | 1.09 | 0.82  | 0.70 | 0.35 | 0.84 |
| 사회복지사업                     | 1.05 | 2.23 | 1.73  | 0.75 | 0.73 | 0.40 |
| 영화, 방송 및 공연 산업             | 0.16 | 0.29 | 0.62  | 1.05 | 0.37 | 3.95 |
| 기타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 0.91 | 1.57 | 1.13  | 0.73 | 0.59 | 0.81 |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br>청소관련 서비스업 | 1.15 | 0.98 | 5.21  | 0.85 | 1.41 | 1.17 |
| 회원 단체                      | 0.74 | 1.27 | 1.09  | 0.72 | 0.50 | 1.11 |
| 수리업                        | 2.38 | 2.32 | 1.38  | 1.05 | 1.08 | 1.20 |
| 기타 서비스업                    | 0.87 | 1.69 | 1.21  | 0.80 | 0.63 | 0.65 |

주: 음영은 특화도 1.20이상

LQ지수는 서울 대비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17>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각 업종별 분포-사업체

단위: 개, (%)

| 구 분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도봉구                     | 성동구                     | 영등포구                    | 서울시                        |
|----------------------------|-------------------------|-------------------------|-------------------------|-------------------------|-------------------------|-------------------------|----------------------------|
| <b>제조업(합계)</b>             | <b>1,520<br/>(2.17)</b> | <b>4,364<br/>(6.24)</b> | <b>4,406<br/>(6.30)</b> | <b>1,117<br/>(1.60)</b> | <b>5,493<br/>(7.85)</b> | <b>5,395<br/>(7.71)</b> | <b>69,982<br/>(100.00)</b> |
| 음·식료품 제조업                  | 296<br>(4.15)           | 243<br>(3.41)           | 209<br>(2.93)           | 213<br>(2.99)           | 244<br>(3.42)           | 330<br>(4.63)           | 7,130<br>(100.00)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98<br>(1.43)            | 140<br>(2.05)           | 217<br>(3.17)           | 324<br>(4.73)           | 614<br>(8.97)           | 149<br>(2.18)           | 6,843<br>(100.0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br>제조업         | 169<br>(1.34)           | 193<br>(1.53)           | 574<br>(4.54)           | 238<br>(1.88)           | 796<br>(6.30)           | 326<br>(2.58)           | 12,637<br>(100.00)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67<br>(4.13)            | 17<br>(1.05)            | 45<br>(2.77)            | 18<br>(1.11)            | 364<br>(22.43)          | 22<br>(1.36)            | 1,623<br>(100.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8<br>(2.79)            | 30<br>(4.64)            | 19<br>(2.94)            | 9<br>(1.39)             | 57<br>(8.82)            | 37<br>(5.73)            | 646<br>(100.0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br>제조업       | 17<br>(1.74)            | 24<br>(2.45)            | 52<br>(5.32)            | 9<br>(0.92)             | 145<br>(14.83)          | 62<br>(6.34)            | 978<br>(100.00)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br>복제업       | 123<br>(1.08)           | 156<br>(1.38)           | 228<br>(2.01)           | 25<br>(0.22)            | 429<br>(3.78)           | 590<br>(5.20)           | 11,339<br>(100.00)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1<br>(5.26)             | 1<br>(5.26)             | -<br>(0.00)             | -<br>(0.00)             | 1<br>(5.26)             | 4<br>(21.05)            | 19<br>(100.00)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3<br>(2.89)            | 57<br>(7.17)            | 59<br>(7.42)            | 2<br>(0.25)             | 54<br>(6.79)            | 75<br>(9.43)            | 795<br>(100.0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br>제조업         | 47<br>(2.99)            | 195<br>(12.39)          | 174<br>(11.05)          | 17<br>(1.08)            | 196<br>(12.45)          | 142<br>(9.02)           | 1,574<br>(100.00)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7<br>(2.76)            | 26<br>(4.23)            | 27<br>(4.39)            | 14<br>(2.28)            | 20<br>(3.25)            | 46<br>(7.48)            | 615<br>(100.00)            |
| 제 1차 금속산업                  | 7<br>(1.17)             | 89<br>(14.83)           | 45<br>(7.50)            | 1<br>(0.17)             | 65<br>(10.83)           | 171<br>(28.50)          | 600<br>(100.00)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136<br>(1.86)           | 984<br>(13.47)          | 416<br>(5.69)           | 73<br>(1.00)            | 850<br>(11.63)          | 1,572<br>(21.51)        | 7,307<br>(100.0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71<br>(1.40)            | 898<br>(17.70)          | 990<br>(19.52)          | 18<br>(0.35)            | 875<br>(17.25)          | 1,109<br>(21.86)        | 5,073<br>(100.00)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br>제조업        | 19<br>(3.88)            | 100<br>(20.41)          | 104<br>(21.22)          | 2<br>(0.41)             | 32<br>(6.53)            | 45<br>(9.18)            | 490<br>(100.00)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116<br>(3.84)           | 503<br>(16.67)          | 401<br>(13.29)          | 48<br>(1.59)            | 186<br>(6.17)           | 176<br>(5.83)           | 3,017<br>(100.00)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84<br>(5.23)            | 253<br>(15.74)          | 397<br>(24.70)          | 10<br>(0.62)            | 64<br>(3.98)            | 91<br>(5.66)            | 1,607<br>(100.0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36<br>(2.28)            | 238<br>(15.06)          | 236<br>(14.94)          | 24<br>(1.52)            | 122<br>(7.72)           | 115<br>(7.28)           | 1,580<br>(100.0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4<br>(5.17)            | 46<br>(16.97)           | 32<br>(11.81)           | 2<br>(0.74)             | 28<br>(10.33)           | 60<br>(22.14)           | 271<br>(100.0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2<br>(2.50)             | 14<br>(17.50)           | 13<br>(16.25)           | -<br>(0.00)             | 5<br>(6.25)             | 10<br>(12.50)           | 80<br>(100.00)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159<br>(2.77)           | 157<br>(2.74)           | 168<br>(2.93)           | 70<br>(1.22)            | 343<br>(5.98)           | 260<br>(4.54)           | 5,732<br>(100.00)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br>(0.00)             | -<br>(0.00)             | -<br>(0.00)             | -<br>(0.00)             | 3<br>(12.00)            | 3<br>(12.00)            | 25<br>(100.0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18>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각 업종별 분포-종사자

단위: 명, (%)

| 구 분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도봉구                     | 성동구                      | 영등포구                     | 서울시                         |
|----------------------------|--------------------------|--------------------------|--------------------------|-------------------------|--------------------------|--------------------------|-----------------------------|
| <b>제조업(합계)</b>             | <b>10,661<br/>(2.25)</b> | <b>26,137<br/>(5.52)</b> | <b>47,198<br/>(9.96)</b> | <b>5,743<br/>(1.21)</b> | <b>36,760<br/>(7.76)</b> | <b>33,007<br/>(6.97)</b> | <b>473,643<br/>(100.00)</b> |
| 음·식료품 제조업                  | 1,127<br>(3.74)          | 858<br>(2.85)            | 565<br>(1.87)            | 467<br>(1.55)           | 1,187<br>(3.94)          | 2,503<br>(8.30)          | 30,158<br>(100.00)          |
| 섬유제품 제조업;<br>동제의복 제외       | 592<br>(1.78)            | 1,025<br>(3.09)          | 1,733<br>(5.22)          | 1,245<br>(3.75)         | 3,192<br>(9.62)          | 1,084<br>(3.27)          | 33,169<br>(100.00)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br>제조업         | 1,087<br>(1.15)          | 2,284<br>(2.41)          | 7,562<br>(7.99)          | 1,687<br>(1.78)         | 5,998<br>(6.34)          | 2,351<br>(2.48)          | 94,619<br>(100.00)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12<br>(2.94)            | 89<br>(0.84)             | 369<br>(3.48)            | 110<br>(1.04)           | 3,388<br>(31.92)         | 96<br>(0.90)             | 10,614<br>(100.00)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67<br>(2.74)             | 67<br>(2.74)             | 66<br>(2.70)             | 18<br>(0.74)            | 147<br>(6.01)            | 69<br>(2.82)             | 2,447<br>(100.0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br>제조업       | 154<br>(1.81)            | 210<br>(2.46)            | 1,225<br>(14.36)         | 57<br>(0.67)            | 966<br>(11.33)           | 462<br>(5.42)            | 8,528<br>(100.00)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br>복제업       | 770<br>(1.00)            | 1,801<br>(2.35)          | 4,176<br>(5.44)          | 157<br>(0.20)           | 5,818<br>(7.58)          | 3,516<br>(4.58)          | 76,756<br>(100.00)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12<br>(0.36)             | 7<br>(0.21)              | -<br>(0.00)              | -<br>(0.00)             | 3<br>(0.09)              | 513<br>(15.48)           | 3,315<br>(100.00)           |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685<br>(2.33)            | 1,113<br>(3.78)          | 1,174<br>(3.99)          | 70<br>(0.24)            | 466<br>(1.58)            | 3,272<br>(11.13)         | 29,410<br>(100.0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br>제조업         | 423<br>(3.97)            | 1,090<br>(10.24)         | 2,385<br>(22.40)         | 63<br>(0.59)            | 825<br>(7.75)            | 1,029<br>(9.67)          | 10,646<br>(100.00)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38<br>(2.47)            | 119<br>(2.13)            | 164<br>(2.94)            | 86<br>(1.54)            | 151<br>(2.70)            | 236<br>(4.23)            | 5,583<br>(100.00)           |
| 제 1차 금속산업                  | 62<br>(1.15)             | 527<br>(9.78)            | 911<br>(16.91)           | 8<br>(0.15)             | 284<br>(5.27)            | 706<br>(13.11)           | 5,387<br>(100.00)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639<br>(2.77)            | 2,893<br>(12.52)         | 2,316<br>(10.03)         | 179<br>(0.77)           | 2,530<br>(10.95)         | 4,455<br>(19.29)         | 23,099<br>(100.00)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609<br>(2.48)            | 4,324<br>(17.58)         | 6,652<br>(27.04)         | 93<br>(0.38)            | 2,921<br>(11.87)         | 3,361<br>(13.66)         | 24,598<br>(100.00)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br>제조업        | 411<br>(4.53)            | 1,525<br>(16.80)         | 1,877<br>(20.68)         | 37<br>(0.41)            | 866<br>(9.54)            | 1,227<br>(13.52)         | 9,076<br>(100.00)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932<br>(4.78)            | 2,062<br>(10.58)         | 3,750<br>(19.25)         | 493<br>(2.53)           | 1,690<br>(8.68)          | 1,179<br>(6.05)          | 19,481<br>(100.00)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1,416<br>(3.93)          | 2,797<br>(7.77)          | 8,070<br>(22.41)         | 598<br>(1.66)           | 3,039<br>(8.44)          | 4,480<br>(12.44)         | 36,007<br>(100.0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337<br>(2.62)            | 1,778<br>(13.81)         | 2,702<br>(20.98)         | 135<br>(1.05)           | 898<br>(6.97)            | 840<br>(6.52)            | 12,876<br>(100.0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22<br>(2.28)            | 266<br>(4.98)            | 224<br>(4.19)            | 10<br>(0.19)            | 169<br>(3.16)            | 291<br>(5.45)            | 5,340<br>(100.00)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5<br>(1.33)             | 75<br>(6.63)             | 212<br>(18.74)           | -<br>(0.00)             | 21<br>(1.86)             | 30<br>(2.65)             | 1,131<br>(100.00)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751<br>(2.41)            | 1,227<br>(3.94)          | 1,065<br>(3.42)          | 230<br>(0.74)           | 2,185<br>(7.02)          | 1,302<br>(4.19)          | 31,106<br>(100.00)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br>(0.00)              | -<br>(0.00)              | -<br>(0.00)              | -<br>(0.00)             | 16<br>(8.08)             | 5<br>(2.53)              | 198<br>(100.00)             |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19> 준공업지역의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사업체

| 구 분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도봉구         | 성동구         | 영등포구        |
|----------------------------|-------------|-------------|-------------|-------------|-------------|-------------|
| <b>제조업(합계)</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 음·식료품 제조업                  | 1.91        | 0.55        | 0.47        | 1.87        | 0.44        | 0.60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류 제외       | 0.66        | 0.33        | 0.50        | 2.97        | 1.14        | 0.28        |
| 봉제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62        | 0.24        | 0.72        | 1.18        | 0.80        | 0.33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90        | 0.17        | 0.44        | 0.69        | 2.86        | 0.18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28        | 0.74        | 0.47        | 0.87        | 1.12        | 0.74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80        | 0.39        | 0.84        | 0.58        | 1.89        | 0.82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50        | 0.22        | 0.32        | 0.14        | 0.48        | 0.67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2.42        | 0.84        | 0.00        | 0.00        | 0.67        | 2.73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33        | 1.15        | 1.18        | 0.16        | 0.87        | 1.22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37        | 1.99        | 1.76        | 0.68        | 1.59        | 1.17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27        | 0.68        | 0.70        | 1.43        | 0.41        | 0.97        |
| 제 1차 금속산업                  | 0.54        | 2.38        | 1.19        | 0.10        | 1.38        | 3.70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0.86        | 2.16        | 0.90        | 0.63        | 1.48        | 2.79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0.64        | 2.84        | 3.10        | 0.22        | 2.20        | 2.84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1.79        | 3.27        | 3.37        | 0.26        | 0.83        | 1.19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br>제조업    | 1.77        | 2.67        | 2.11        | 1.00        | 0.79        | 0.76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2.41        | 2.52        | 3.92        | 0.39        | 0.51        | 0.73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05        | 2.42        | 2.37        | 0.95        | 0.98        | 0.94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2.38        | 2.72        | 1.88        | 0.46        | 1.32        | 2.87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1.15        | 2.81        | 2.58        | 0.00        | 0.80        | 1.62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1.28        | 0.44        | 0.47        | 0.77        | 0.76        | 0.59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0.00        | 0.00        | 0.00        | 0.00        | 1.53        | 1.56        |

주: LQ지수는 서울 대비 각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20> 준공업지역의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종사자

| 구 분                        | 강서구         | 구로구         | 금천구         | 도봉구         | 성동구         | 영등포구        |
|----------------------------|-------------|-------------|-------------|-------------|-------------|-------------|
| <b>제조업(합계)</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b>1.00</b> |
| 음·식료품 제조업                  | 1.66        | 0.52        | 0.19        | 1.28        | 0.51        | 1.19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류 제외       | 0.79        | 0.56        | 0.52        | 3.10        | 1.24        | 0.47        |
| 봉제의류 및 모피제품 제조업            | 0.51        | 0.44        | 0.80        | 1.47        | 0.82        | 0.36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1.31        | 0.15        | 0.35        | 0.85        | 4.11        | 0.1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22        | 0.50        | 0.27        | 0.61        | 0.77        | 0.40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0.80        | 0.45        | 1.44        | 0.55        | 1.46        | 0.78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0.45        | 0.43        | 0.55        | 0.17        | 0.98        | 0.66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0.16        | 0.04        | 0.00        | 0.00        | 0.01        | 2.22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1.03        | 0.69        | 0.40        | 0.20        | 0.20        | 1.6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77        | 1.86        | 2.25        | 0.49        | 1.00        | 1.39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10        | 0.39        | 0.29        | 1.27        | 0.35        | 0.61        |
| 제 1차 금속산업                  | 0.51        | 1.77        | 1.70        | 0.12        | 0.68        | 1.88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1.23        | 2.27        | 1.01        | 0.64        | 1.41        | 2.77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10        | 3.19        | 2.71        | 0.31        | 1.53        | 1.96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2.01        | 3.04        | 2.08        | 0.34        | 1.23        | 1.94        |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br>제조업    | 2.13        | 1.92        | 1.93        | 2.09        | 1.12        | 0.87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1.75        | 1.41        | 2.25        | 1.37        | 1.09        | 1.79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16        | 2.50        | 2.11        | 0.86        | 0.90        | 0.94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02        | 0.90        | 0.42        | 0.15        | 0.41        | 0.78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0.59        | 1.20        | 1.88        | 0.00        | 0.24        | 0.38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1.07        | 0.71        | 0.34        | 0.61        | 0.91        | 0.60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0.00        | 0.00        | 0.00        | 0.00        | 1.04        | 0.36        |

주: LQ지수는 서울 대비 각 준공업지역 제조업의 LQ지수임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21> 권역별 제조업 업종의 변화-사업체

단위: 개, %

| 제조업 업종 구분                  | 동북권   |       |       | 서남권    |        |       |
|----------------------------|-------|-------|-------|--------|--------|-------|
|                            | '95   | '05   | 증감률   | '95    | '05    | 증감률   |
| 음·식료품 제조업                  | 382   | 457   | 19.6  | 946    | 1,078  | 14.0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969   | 938   | -3.2  | 656    | 604    | -7.9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152 | 1,034 | -10.2 | 1,734  | 1,262  | -27.2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253   | 382   | 51.0  | 298    | 151    | -49.3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122   | 66    | -45.9 | 254    | 104    | -59.1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21   | 154   | 27.3  | 219    | 155    | -29.2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338   | 454   | 34.3  | 894    | 1,097  | 22.7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     | 1     | -     | 7      | 6      | -14.3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41    | 56    | 36.6  | 174    | 214    | 23.0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2   | 213   | -8.2  | 766    | 558    | -27.2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17   | 34    | -70.9 | 154    | 116    | -24.7 |
| 제 1차 금속산업                  | 59    | 66    | 11.9  | 234    | 312    | 33.3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881   | 923   | 4.8   | 2,636  | 3,108  | 17.9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983   | 893   | -9.2  | 4,197  | 3,068  | -26.9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26    | 34    | 30.8  | 109    | 268    | 145.9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284   | 234   | -17.6 | 996    | 1,196  | 20.1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132   | 74    | -43.9 | 581    | 825    | 42.0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24   | 146   | 17.7  | 498    | 625    | 25.5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52    | 30    | -42.3 | 383    | 152    | -60.3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8     | 5     | -37.5 | 33     | 39     | 18.2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440   | 413   | -6.1  | 912    | 744    | -18.4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4     | 3     | -25.0 | 13     | 3      | -76.9 |
| 제조업(합계)                    | 6,720 | 6,610 | -1.6  | 16,694 | 15,685 | -6.0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22> 권역별 제조업 업종의 변화-중사자

단위: 명, %

| 제조업 업종 구분                  | 동북권    |        |       | 서남권     |         |       |
|----------------------------|--------|--------|-------|---------|---------|-------|
|                            | '95    | '05    | 증감률   | '95     | '05     | 증감률   |
| 음·식료품 제조업                  | 2,475  | 1,654  | -33.2 | 10,691  | 5,053   | -52.7 |
| 섬유제품 제조업;<br>봉제의복 제외       | 7,288  | 4,437  | -39.1 | 10,946  | 4,434   | -59.5 |
|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 8,453  | 7,685  | -9.1  | 26,124  | 13,284  | -49.2 |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3,540  | 3,498  | -1.2  | 1,952   | 866     | -55.6 |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br>가구제외     | 481    | 165    | -65.7 | 1,026   | 269     | -73.8 |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565  | 1,023  | -34.6 | 4,525   | 2,051   | -54.7 |
|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4,760  | 5,975  | 25.5  | 13,219  | 10,263  | -22.4 |
| 코크스, 석유정제품 및<br>핵연료 제조업    | -      | 3      | -     | 2,328   | 532     | -77.1 |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066  | 536    | -74.1 | 13,764  | 6,244   | -54.6 |
|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433  | 888    | -38.0 | 8,040   | 4,927   | -38.7 |
|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 1,661  | 237    | -85.7 | 4,926   | 657     | -86.7 |
| 제 1차 금속산업                  | 302    | 292    | -3.3  | 2,916   | 2,206   | -24.3 |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br>기계 및 가구 제외  | 3,570  | 2,709  | -24.1 | 15,347  | 10,303  | -32.9 |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5,294  | 3,014  | -43.1 | 32,795  | 14,946  | -54.4 |
|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 887    | 903    | 1.8   | 3,777   | 5,040   | 33.4  |
| 기타 전기기계 및<br>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70  | 2,183  | -33.2 | 9,819   | 7,923   | -19.3 |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br>통신장비 제조업 | 5,153  | 3,637  | -29.4 | 20,041  | 16,763  | -16.4 |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br>시계 제조업   | 1,236  | 1,033  | -16.4 | 4,350   | 5,657   | 30.0  |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941    | 179    | -81.0 | 5,945   | 903     | -84.8 |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76     | 21     | -72.4 | 302     | 332     | 9.9   |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      | 2,415  | -     | -       | 4,345   | -     |
|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 -      | 16     | -     | -       | 5       | -     |
| 제조업(합계)                    | 56,781 | 42,503 | -25.1 | 200,333 | 117,003 | -41.6 |

자료: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자료, 각년도

<부록 23>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사업체

|      | 음식료<br>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br>플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가전<br>기기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 강남구  | 0.98     | 0.77     | 1.15     | 0.38         | 0.86      | 0.91      | 1.27      | 2.94      | 3.20 | 0.66       | 2.50      | 1.35     | 0.26     | 0.29     | 1.77 | 0.98     | 2.03     | 1.11     | 2.16 | 2.10     | 1.36       | 1.12 |
| 강동구  | 2.13     | 1.51     | 0.68     | 1.52         | 1.54      | 0.62      | 0.29      | 0.00      | 0.54 | 0.58       | 0.84      | 0.43     | 0.58     | 0.27     | 0.53 | 1.09     | 0.51     | 1.34     | 0.32 | 0.00     | 2.49       | 0.00 |
| 강북구  | 1.83     | 1.70     | 1.82     | 1.22         | 1.47      | 0.26      | 0.16      | 0.00      | 0.27 | 0.30       | 1.12      | 0.29     | 0.67     | 0.27     | 0.26 | 0.83     | 0.51     | 0.65     | 0.00 | 0.00     | 0.87       | 0.00 |
| 강서구  | 1.91     | 0.66     | 0.62     | 1.90         | 1.28      | 0.80      | 0.50      | 2.42      | 1.33 | 1.37       | 1.27      | 0.54     | 0.86     | 0.64     | 1.79 | 1.77     | 2.41     | 1.05     | 2.38 | 1.15     | 1.28       | 0.00 |
| 관악구  | 2.32     | 1.10     | 1.61     | 1.03         | 0.90      | 0.30      | 0.34      | 2.20      | 0.79 | 0.58       | 0.54      | 0.21     | 0.46     | 0.18     | 0.68 | 1.11     | 0.75     | 0.87     | 0.31 | 0.00     | 1.15       | 0.00 |
| 광진구  | 1.35     | 2.10     | 1.39     | 1.59         | 0.77      | 0.51      | 0.30      | 0.00      | 0.55 | 0.89       | 1.01      | 0.16     | 0.66     | 0.28     | 0.38 | 0.86     | 0.44     | 1.02     | 0.46 | 0.39     | 1.29       | 1.24 |
| 구로구  | 0.55     | 0.33     | 0.24     | 0.17         | 0.74      | 0.39      | 0.22      | 0.84      | 1.15 | 1.99       | 0.68      | 2.38     | 2.16     | 2.84     | 3.27 | 2.67     | 2.52     | 2.42     | 2.72 | 2.81     | 0.44       | 0.00 |
| 금천구  | 0.47     | 0.50     | 0.72     | 0.44         | 0.47      | 0.84      | 0.32      | 0.00      | 1.18 | 1.76       | 0.70      | 1.19     | 0.90     | 3.10     | 3.37 | 2.11     | 3.92     | 2.37     | 1.88 | 2.58     | 0.47       | 0.00 |
| 노원구  | 2.89     | 1.46     | 0.86     | 0.57         | 0.95      | 0.39      | 0.26      | 0.00      | 1.16 | 0.64       | 1.50      | 0.64     | 0.50     | 0.30     | 0.63 | 1.10     | 0.81     | 1.22     | 0.28 | 0.00     | 1.45       | 0.00 |
| 도봉구  | 1.87     | 2.97     | 1.18     | 0.69         | 0.87      | 0.58      | 0.14      | 0.00      | 0.16 | 0.68       | 1.43      | 0.10     | 0.63     | 0.22     | 0.26 | 1.00     | 0.39     | 0.95     | 0.46 | 0.00     | 0.77       | 0.00 |
| 동대문구 | 1.58     | 1.61     | 1.60     | 0.78         | 0.72      | 0.72      | 0.29      | 0.00      | 0.99 | 0.63       | 1.05      | 1.21     | 0.94     | 0.61     | 0.37 | 0.66     | 0.36     | 0.83     | 1.19 | 0.50     | 0.73       | 0.81 |
| 동작구  | 2.57     | 0.81     | 0.99     | 0.86         | 1.19      | 0.86      | 0.49      | 3.68      | 1.58 | 0.58       | 0.91      | 0.12     | 0.82     | 0.29     | 0.71 | 1.28     | 0.96     | 1.24     | 0.26 | 0.87     | 1.20       | 0.00 |
| 마포구  | 0.97     | 0.49     | 1.11     | 0.87         | 1.23      | 2.03      | 1.94      | 1.61      | 1.58 | 0.87       | 0.94      | 0.10     | 0.48     | 0.28     | 0.75 | 0.78     | 0.68     | 0.72     | 0.00 | 0.00     | 1.11       | 1.22 |
| 서대문구 | 2.08     | 0.70     | 1.32     | 1.73         | 3.05      | 0.65      | 0.80      | 0.00      | 0.97 | 0.49       | 0.57      | 0.23     | 0.70     | 0.11     | 0.86 | 0.79     | 0.44     | 0.85     | 0.00 | 0.00     | 1.13       | 2.81 |
| 서초구  | 1.07     | 0.98     | 0.66     | 0.43         | 1.43      | 1.13      | 0.95      | 3.89      | 3.72 | 0.87       | 3.79      | 1.05     | 0.64     | 0.55     | 2.04 | 1.03     | 2.18     | 1.40     | 0.82 | 0.92     | 1.50       | 5.91 |
| 성동구  | 0.44     | 1.14     | 0.80     | 2.86         | 1.12      | 1.89      | 0.48      | 0.67      | 0.87 | 1.59       | 0.41      | 1.38     | 1.48     | 2.20     | 0.83 | 0.79     | 0.51     | 0.98     | 1.32 | 0.80     | 0.76       | 1.53 |
| 성북구  | 1.46     | 1.46     | 2.30     | 1.08         | 0.95      | 0.54      | 0.21      | 0.00      | 0.44 | 0.33       | 0.52      | 0.24     | 0.64     | 0.20     | 0.06 | 0.57     | 0.45     | 0.42     | 0.11 | 0.73     | 0.88       | 0.00 |
| 송파구  | 2.03     | 1.30     | 0.73     | 1.44         | 0.77      | 0.65      | 0.54      | 0.00      | 1.79 | 0.92       | 1.44      | 0.77     | 0.41     | 0.31     | 1.52 | 1.22     | 1.68     | 1.44     | 0.13 | 1.33     | 1.61       | 7.10 |
| 양천구  | 2.11     | 0.66     | 0.76     | 3.30         | 0.96      | 0.73      | 0.32      | 0.00      | 1.08 | 0.97       | 1.17      | 0.80     | 1.09     | 0.65     | 0.98 | 1.17     | 1.70     | 1.09     | 1.23 | 0.60     | 1.19       | 0.00 |
| 영등포구 | 0.60     | 0.28     | 0.33     | 0.18         | 0.74      | 0.82      | 0.67      | 2.73      | 1.22 | 1.17       | 0.97      | 3.70     | 2.79     | 2.84     | 1.19 | 0.76     | 0.73     | 0.94     | 2.87 | 1.62     | 0.59       | 1.56 |
| 용산구  | 0.87     | 0.79     | 1.51     | 0.72         | 1.53      | 1.28      | 1.35      | 0.00      | 1.30 | 0.57       | 0.36      | 0.52     | 0.56     | 0.60     | 1.19 | 0.85     | 0.98     | 1.13     | 0.33 | 1.12     | 0.75       | 0.00 |
| 은평구  | 2.79     | 1.22     | 0.75     | 0.71         | 2.73      | 0.69      | 0.32      | 0.00      | 0.38 | 0.58       | 1.49      | 0.20     | 1.08     | 0.19     | 0.62 | 0.91     | 0.45     | 0.77     | 0.67 | 0.00     | 1.53       | 0.00 |
| 종로구  | 0.32     | 0.99     | 1.45     | 0.62         | 0.60      | 0.40      | 0.86      | 1.57      | 0.51 | 0.46       | 2.14      | 0.32     | 0.83     | 0.33     | 0.24 | 0.92     | 0.25     | 0.74     | 0.28 | 0.37     | 2.80       | 0.00 |
| 중구   | 0.18     | 0.96     | 0.71     | 0.26         | 1.02      | 1.82      | 3.30      | 0.97      | 0.44 | 1.10       | 0.38      | 0.60     | 0.59     | 0.24     | 0.14 | 0.33     | 0.11     | 0.20     | 0.25 | 1.08     | 0.49       | 0.99 |
| 중랑구  | 1.16     | 1.36     | 2.06     | 3.35         | 1.06      | 0.82      | 0.16      | 0.00      | 0.21 | 0.70       | 0.71      | 0.24     | 0.78     | 0.30     | 0.10 | 0.85     | 0.47     | 0.65     | 0.54 | 0.00     | 0.71       | 0.97 |

주: 음영은 준공업지역에서 특화도 1.5이상, I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I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부록 24> 서울시 제조업 업종별 특화도-종사자

|      | 음식료<br>품 | 섬유<br>제품 | 봉제<br>의복 | 가죽·가<br>방·신발 | 목재,<br>나무 | 펄프,<br>종이 | 출판,<br>인쇄 | 코크스<br>석유 | 화학물  | 고무<br>플라스틱 | 비금속<br>광물 | 1차<br>금속 | 조립<br>금속 | 기타<br>기계 | 컴퓨터  | 가전<br>기기 | 전자<br>부품 | 의료<br>정밀 | 자동차  | 기타<br>운송 | 가구·및<br>기타 | 재생용   |
|------|----------|----------|----------|--------------|-----------|-----------|-----------|-----------|------|------------|-----------|----------|----------|----------|------|----------|----------|----------|------|----------|------------|-------|
| 강남구  | 0.60     | 0.66     | 1.00     | 0.44         | 1.04      | 1.15      | 0.57      | 2.77      | 2.01 | 0.48       | 1.68      | 2.56     | 0.49     | 0.27     | 0.81 | 0.76     | 0.74     | 0.59     | 2.72 | 2.04     | 2.91       | 0.14  |
| 강동구  | 1.77     | 1.69     | 1.48     | 1.83         | 1.89      | 0.47      | 0.30      | 0.00      | 0.53 | 0.47       | 0.62      | 0.55     | 0.49     | 0.40     | 0.52 | 0.88     | 0.39     | 1.66     | 0.06 | 0.00     | 2.18       | 0.00  |
| 강북구  | 1.43     | 2.15     | 2.23     | 2.05         | 1.01      | 0.16      | 0.26      | 0.00      | 0.05 | 0.26       | 1.22      | 0.15     | 0.76     | 0.22     | 0.32 | 0.54     | 0.57     | 0.58     | 0.00 | 0.00     | 0.85       | 0.00  |
| 강서구  | 1.66     | 0.79     | 0.51     | 1.31         | 1.22      | 0.80      | 0.45      | 0.16      | 1.03 | 1.77       | 1.10      | 0.51     | 1.23     | 1.10     | 2.01 | 2.13     | 1.75     | 1.16     | 1.02 | 0.59     | 1.07       | 0.00  |
| 관악구  | 1.33     | 1.29     | 2.18     | 1.23         | 0.46      | 0.15      | 0.47      | 0.09      | 0.58 | 0.79       | 0.31      | 0.10     | 0.43     | 0.32     | 0.26 | 1.48     | 0.47     | 1.07     | 0.06 | 0.00     | 0.78       | 0.00  |
| 광진구  | 1.14     | 2.55     | 1.78     | 1.59         | 0.55      | 0.23      | 0.31      | 0.00      | 0.34 | 0.69       | 0.59      | 0.16     | 0.89     | 0.39     | 1.05 | 0.70     | 0.27     | 1.15     | 0.09 | 1.16     | 1.30       | 0.43  |
| 구로구  | 0.52     | 0.56     | 0.44     | 0.15         | 0.50      | 0.45      | 0.43      | 0.04      | 0.69 | 1.86       | 0.39      | 1.77     | 2.27     | 3.19     | 3.04 | 1.92     | 1.41     | 2.50     | 0.90 | 1.20     | 0.71       | 0.00  |
| 금천구  | 0.19     | 0.52     | 0.80     | 0.35         | 0.27      | 1.44      | 0.55      | 0.00      | 0.40 | 2.25       | 0.29      | 1.70     | 1.01     | 2.71     | 2.08 | 1.93     | 2.25     | 2.11     | 0.42 | 1.88     | 0.34       | 0.00  |
| 노원구  | 1.88     | 2.65     | 1.12     | 0.72         | 0.71      | 0.39      | 0.12      | 0.00      | 0.37 | 0.83       | 0.61      | 0.46     | 0.77     | 0.56     | 0.29 | 1.69     | 1.17     | 1.37     | 0.33 | 0.00     | 1.51       | 0.00  |
| 도봉구  | 1.28     | 3.10     | 1.47     | 0.85         | 0.61      | 0.55      | 0.17      | 0.00      | 0.20 | 0.49       | 1.27      | 0.12     | 0.64     | 0.31     | 0.34 | 2.09     | 1.37     | 0.86     | 0.15 | 0.00     | 0.61       | 0.00  |
| 동대문구 | 1.33     | 1.91     | 2.03     | 0.73         | 0.42      | 0.63      | 0.30      | 0.00      | 0.78 | 0.52       | 0.60      | 0.68     | 1.18     | 0.74     | 0.17 | 0.89     | 0.12     | 0.86     | 0.42 | 0.14     | 0.76       | 0.14  |
| 동작구  | 2.76     | 0.51     | 0.83     | 0.38         | 0.29      | 1.55      | 0.50      | 0.40      | 3.72 | 0.72       | 0.57      | 0.01     | 0.58     | 0.13     | 0.21 | 0.79     | 0.91     | 1.48     | 0.02 | 0.32     | 0.97       | 0.00  |
| 마포구  | 0.57     | 1.42     | 0.79     | 0.65         | 1.36      | 1.46      | 2.43      | 0.94      | 0.76 | 0.78       | 0.30      | 0.15     | 0.53     | 0.38     | 0.26 | 0.80     | 0.59     | 0.64     | 0.00 | 0.00     | 0.64       | 0.51  |
| 서대문구 | 2.02     | 1.10     | 1.37     | 1.07         | 1.93      | 0.78      | 1.01      | 0.00      | 1.51 | 0.32       | 0.66      | 0.04     | 1.12     | 0.16     | 0.50 | 0.92     | 0.12     | 1.23     | 0.00 | 0.00     | 0.71       | 0.52  |
| 서초구  | 2.30     | 0.52     | 0.65     | 0.57         | 4.83      | 1.29      | 0.65      | 0.20      | 1.97 | 1.31       | 2.40      | 0.49     | 0.53     | 0.82     | 0.83 | 0.57     | 1.25     | 0.70     | 6.39 | 0.12     | 0.59       | 1.65  |
| 성동구  | 0.51     | 1.24     | 0.82     | 4.11         | 0.77      | 1.46      | 0.98      | 0.01      | 0.20 | 1.00       | 0.35      | 0.68     | 1.41     | 1.53     | 1.23 | 1.12     | 1.09     | 0.90     | 0.41 | 0.24     | 0.91       | 1.04  |
| 성북구  | 1.10     | 1.62     | 2.83     | 1.68         | 0.60      | 0.80      | 0.27      | 0.00      | 0.06 | 0.37       | 0.24      | 0.06     | 0.64     | 0.27     | 0.03 | 0.41     | 0.25     | 0.43     | 0.03 | 0.17     | 0.62       | 0.00  |
| 송파구  | 1.41     | 1.76     | 1.01     | 1.95         | 1.45      | 0.30      | 0.46      | 0.00      | 0.73 | 0.59       | 1.47      | 0.59     | 0.40     | 0.52     | 0.48 | 1.29     | 1.61     | 1.74     | 0.02 | 0.44     | 1.28       | 18.04 |
| 양천구  | 1.73     | 0.72     | 1.21     | 2.56         | 0.65      | 0.48      | 0.43      | 0.00      | 0.60 | 0.86       | 0.50      | 0.48     | 2.26     | 0.89     | 0.36 | 1.43     | 0.95     | 0.86     | 1.19 | 0.05     | 0.90       | 0.00  |
| 영등포구 | 1.19     | 0.47     | 0.36     | 0.13         | 0.40      | 0.78      | 0.66      | 2.22      | 1.60 | 1.39       | 0.61      | 1.88     | 2.77     | 1.96     | 1.94 | 0.87     | 1.79     | 0.94     | 0.78 | 0.38     | 0.60       | 0.36  |
| 용산구  | 1.19     | 0.39     | 0.88     | 0.32         | 1.39      | 0.90      | 1.55      | 0.00      | 3.29 | 0.53       | 0.46      | 0.17     | 0.52     | 0.74     | 1.14 | 1.08     | 0.37     | 0.88     | 0.59 | 0.32     | 0.41       | 0.00  |
| 은평구  | 2.87     | 1.65     | 1.43     | 1.44         | 2.91      | 0.60      | 0.38      | 0.00      | 0.16 | 0.52       | 1.28      | 0.28     | 1.12     | 0.22     | 0.62 | 1.15     | 0.42     | 0.89     | 0.32 | 0.00     | 1.10       | 0.00  |
| 종로구  | 0.98     | 0.80     | 0.80     | 0.24         | 0.48      | 1.58      | 1.71      | 8.83      | 1.13 | 0.30       | 3.36      | 0.09     | 0.69     | 0.31     | 0.79 | 0.50     | 0.16     | 0.36     | 0.11 | 0.46     | 1.82       | 0.00  |
| 중구   | 0.62     | 0.81     | 0.61     | 0.40         | 0.64      | 1.16      | 3.05      | 0.29      | 0.74 | 0.98       | 1.20      | 1.05     | 0.49     | 0.23     | 0.31 | 0.31     | 0.75     | 0.31     | 0.45 | 3.00     | 0.36       | 1.07  |
| 종로구  | 1.24     | 1.44     | 2.74     | 2.78         | 0.71      | 0.58      | 0.15      | 0.00      | 0.03 | 0.42       | 0.33      | 0.13     | 0.87     | 0.46     | 0.07 | 0.54     | 0.18     | 0.57     | 0.11 | 0.00     | 0.53       | 0.88  |

주: 음영은 준공업지역에서 특화도 1.5이상, IQ지수는 전국 대비 서울 제조업의 IQ지수임 (2005)

자료: 서울시, 사업체기초통계자료, 2005

## 부 록 II

### 서울 준공업지역의 경영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저희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가 전액 출  
연한 공공연구기관으로서, 현재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  
화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서울 준공업지역 소재 기업들의 경영실태와 애로  
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준공업지역 기업의 산업경  
쟁력 강화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설문지 취지를 널리 이해해주시고 설문지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락처]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선임연구위원, 02-2149-1221

한미량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위촉연구원, 02-2149-1202

#### ◎ 일반 현황

|                       |                                                                                                                                                                                                                                                    |                |   |
|-----------------------|----------------------------------------------------------------------------------------------------------------------------------------------------------------------------------------------------------------------------------------------------|----------------|---|
| 회사명                   |                                                                                                                                                                                                                                                    | 대표자성명          |   |
| 주 소                   | 구 동                                                                                                                                                                                                                                                | 전화번호           |   |
| 설립년도                  | 년                                                                                                                                                                                                                                                  | 현 위치로의<br>이전년도 | 년 |
| 종업원수                  | 명                                                                                                                                                                                                                                                  | 업 종            |   |
| 주요 생산품                |                                                                                                                                                                                                                                                    | 경영자연령          | 세 |
| 건물 소유형태<br>및<br>건물임대료 | <input type="checkbox"/> 소 유 :                      만 원<br><input type="checkbox"/> 전 세 :                      만 원<br><input type="checkbox"/> 월 세 : 보증금                      만 원 에 , 월 세                      만 원<br><input type="checkbox"/> 기 타 |                |   |
| 공장면적                  | ㎡ (                      평 )                                                                                                                                                                                                                       |                |   |

# I . 업체현황 및 입지여건

1. 현 위치에 입지한 귀사는 다음 중 어떤 기능을 수행하십니까?(복수응답가능)

- ① 본사기능
 ② 생산기능
 ③ 연구개발기능
- ④ 판매기능
 ⑤ 홍보기능
 ⑥ 기타 (                      )

2. 귀사의 최근 3년간 매출액과 종업원수 및 거래업체수를 적어 주십시오.

| 구분 \ 년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
| 매출액                        | 원     | 원     | 원     |
|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     | %     | %     |
| 총 종업원수                     | 명     | 명     | 명     |
| 연구인력                       | 명     | 명     | 명     |
| 거래업체수<br>(수주, 발주, 공동생산 포함) | 개     | 개     | 개     |

3. 귀사가 주문을 받는 업체(귀사의 판매업체)중 고정거래업체의 수와 거래업체들의 지역별 비중을 대략적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고정거래업체수 (                      개)
- ② 지역별 비중

| 같은 구 | 인접 구 | 기타 서울 | 지방 | 해외 | 합계   |
|------|------|-------|----|----|------|
| %    | %    | %     | %  | %  | 100% |

4. 귀사가 주문을 하는 업체(귀사의 공급업체)중 고정거래업체의 수와 거래업체들의 지역별 비중을 대략적으로 표시하여 주십시오.

- ① 고정거래업체수 (                      개)
- ② 지역별 비중

| 같은 구 | 인접 구 | 기타 서울 | 지방 | 해외 | 합계   |
|------|------|-------|----|----|------|
| %    | %    | %     | %  | %  | 100% |

5. 현 소재지에 입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중요한 것 3가지 선택)

6. 귀사가 입지한 지역에 대해 귀하께서 판단한 중요도와 현재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289

랍니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                           |
|-----------------------------|---------------------------|
| ① 임대료가 부담스러워서               | ② 인건비가 부담스러워서             |
| ③ 작업장이 좁고 도로나 주차장이 열악해서     | ④ 주변지역 주민/상인들과의 마찰 때문에    |
| ⑤ 영업과 관련된 규제가 심해서           | ⑥ 주요 거래업체와 가까운 곳에 자리잡기 위해 |
| ⑦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 ⑧ 토지소유자가 용도나 업종을 변경하여     |
| ⑨ 기타 (                    ) |                           |

## Ⅱ . 사업여건

1. 귀사의 사업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무엇인지 1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 구매거래(공급업체)               | ② 판매거래(고객업체)   | ③ 공동생산(생산연계업체) |
| ④ 금융서비스                    | ⑤ 법률·회계·컨설팅서비스 | ⑥ 연구개발·기술서비스   |
| ⑦ 기타(                    ) |                |                |

2. 주요 거래업체와의 계약수행이나 공급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주로 이용하십니까? (대략적인 비중을 표시해 주십시오)

| 직접방문·면담 | 상공회의소 등 조합이용 | 전화·팩스 | 컴퓨터(인터넷) | 기타 | 합계   |
|---------|--------------|-------|----------|----|------|
| %       | %            | %     | %        | %  | 100% |

3. 귀 지역에서 사업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별로 3가지만 적어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 |                    |                            |             |
|--------------------|----------------------------|-------------|
| ① 기술부족             | ② 임대료 상승                   | ③ 인건비 상승    |
| ④ 물류비용 상승          | ⑤ 원자재 가격 상승                | ⑥ 인력 부족     |
| ⑦ 자금 부족            | ⑧ 마케팅 능력 부족                | ⑨ 사업관련정보 부족 |
| ⑩ 금융지원 취약          | ⑪ 하도급 불공정 거래 행위            | ⑫ 경기침체      |
| ⑬ 지역내 관련기업들의 외부이탈  | ⑭ 인프라(교통·통신) 등의 여건 불리      |             |
| ⑮ 주변지역 주민/상인들과의 마찰 | ⑯ 지원산업 및 연관산업 등 관련산업의 취약   |             |
| ⑰ 업체 간 경쟁심화        | ⑱ 정부의 불필요한 규제              |             |
| ⑲ 제도적 지원체제 미흡      | ⑳ 대학, 연구소 등 지식기관 취약        |             |
| ㉑ 사업확장에 따른 용지 확보   | ㉒ 기타(                    ) |             |

4. 현재 임대료 및 기타 경영여건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십니까?

| 구분     | 매우<br>부담스럽다 | 조금<br>부담스럽다 | 보통이다 | 조금<br>부담스럽다 | 매우<br>부담스럽다 |
|--------|-------------|-------------|------|-------------|-------------|
| 임대료    |             |             |      |             |             |
| 임금     |             |             |      |             |             |
| 원자재구입비 |             |             |      |             |             |
| 기타( )  |             |             |      |             |             |

5. 귀사와 관련된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다음 항목들의 중요도와 현재의 만족도를 평가해 주십시오.

| 일반적 여건              | 중요도             |           |    |    |          | 현재 만족도   |    |    |    |          |
|---------------------|-----------------|-----------|----|----|----------|----------|----|----|----|----------|
|                     | 전혀<br>중요치<br>않음 | 중요치<br>않음 | 보통 | 중요 | 매우<br>중요 | 매우<br>불만 | 불만 | 보통 | 만족 | 매우<br>만족 |
| ① 금융 및 조세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② 경영 지원(전략, 관리 등)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③ 인력 채용 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④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⑤ 마케팅 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⑥ 교육훈련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⑦ 정보 지원(신기술정보 등)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⑧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⑨ 법률지원(특허, 지적재산권 등)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⑩ 장비 구축 및 이용지원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⑪ 대학의 관련학과과의 연계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 ⑫ 기타( )             | 1               | 2         | 3  | 4  | 5        | 1        | 2  | 3  | 4  | 5        |

6. 아래의 산업관련시설 중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

① 종합지원센터(종합경영컨설팅지원, 홈페이지 구축지원 등)

② 공용주차시설확보

③ 공동구매시스템 확립

④ 공동전시장 및 판매시설

⑤ 공동물류센터

⑥ 창업보육센터

⑦ 디자인지원센터

⑧ 필요하지 않다.

⑨ 기타( )

7. 귀사는 정부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지원이었습니까?  
(지원받은 적이 없으면 8번 문항으로)

- ① 금융·재정지원                      ② 세제지원                      ③ 인허가절차규제관련  
 ④ 업체선정·계약관련                ⑤ 전문인력지원                ⑥ 창업지원  
 ⑦ 기타(                                      )

8. 귀하께서는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이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하시는지 항목별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 목 | 매우 미흡 | 미 흡 | 보 통 | 우 수 | 매우 우수 |
|-----|-------|-----|-----|-----|-------|
| 자 금 |       |     |     |     |       |
| 법 률 |       |     |     |     |       |
| 경 영 |       |     |     |     |       |
| 기 술 |       |     |     |     |       |
| 인 력 |       |     |     |     |       |
| 정보화 |       |     |     |     |       |
| 무 역 |       |     |     |     |       |

9. 귀하께서 중소기업 지원기관(단체) 이용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2가지만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홍보미비로 지원내용 인식부족                      ②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지원 미흡  
 ③ 업무처리시간 과다 및 이용절차 복잡            ④ 기관간 또는 부서간 업무협조 미비  
 ⑤ 지점의 부족으로 이용도 저조                      ⑥ 사후관리 부족으로 지원효과 감소  
 ⑦ 별다른 어려움 없음                                  ⑧ 기타(                                      )

10. 향후 업종전환이나 다각화형태로 신규 진출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 ① 완전전환을 고려                                      ② 다각화 형태로 고려  
 ③ 고려하고 있지 않음                                  ④ 기타(                                      )

### Ⅲ. 기술 개발 및 협력관계

1. 지난 3년간 귀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납품하기 위하여 다른 업체와 공동협력제휴(합작)관계를 맺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예 (1-1, 1-2, 1-3번 문항으로)                      ② 아니오 (2번 문항으로)

1-1. 있다면, 협력(제휴나 합작 등)의 형태는?



- |         |          |            |
|---------|----------|------------|
| ① 신기술개발 | ② 신제품개발  | ③ 기존제품개선   |
| ④ 신공정개발 | ⑤ 기존공정개선 | ⑥ 인력양성(교육) |
| ⑦ 기술지도  | ⑧ 장비활용   | ⑨ 재원조달     |

1-1.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수행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기업내 산학협력관리 전담인력 부족 | ② 대학교수의 현장 지식 및 경험부족      |
| ③ 기술·노하우의 외부유출 위험성   | ④ 산학협력을 연계하는 전문지원기관·기능 미흡 |
| ⑤ 산학협력경험부족           | ⑥ 대학 보유기술과 업체의 요구기술 불일치   |
| ⑦ 기타( )              |                           |

1-2. 산학협력에 의해 개발한 성과를 사업화하면서 겪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추가적인 기술개발           | ② 개발기술의 사업화자금 부족    |
| ③ 판로개척 등 사업화의 성공 불확실성 | ④ 업체의 기술 소화·수용능력 부족 |
| ⑤ 개발기술의 구식화 등 시장조건 변화 | ⑥ 기타( )             |

2. 산학협력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면, 어떤 부문의 지원이 가장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 ① 개발연구장비 | ② 연구인력      | ③ 기술정보     |
| ④ 자금     | ⑤ 성능평가 및 인증 | ⑥ 필요성 못 느낌 |
| ⑦ 기타( )  |             |            |

3. 산학협력 지원제도 활용에 있어서의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자금지원규모가 작음 | ② 심사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움 |
| ③ 자금지원기간이 짧음 | ④ 후속연계조치 미흡       |
| ⑤ 기타( )      |                   |

4. 산학협력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                       |
|---------------------|-----------------------|
| ① 기업주의 관심과 의지       | ② 적절한 산학협력과제의 발굴      |
| ③ 기업과 대학교수간이 적절한 연계 | ④ 자금·인력·시설등의 풍부한 물적지원 |
| ⑤ 기업의 산학협력 대응능력     | ⑥ 대학교수의 적극적인 참여의지     |

**V . 기타 (건의 또는 애로사항 등)**

1. 준공업지역의 산업활성화를 위해 건의하실 내용이나 기타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그 내용을 간략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원 기재 사항**

|       |  |      |   |   |
|-------|--|------|---|---|
| 조사원성명 |  | 조사일시 | 월 | 일 |
|-------|--|------|---|---|

## 영문요약(**Abstract**)

##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t Semi-industrial Areas in Seoul**

|                       |                                                         |
|-----------------------|---------------------------------------------------------|
| <b>Project Number</b> | <b>SDI 07-R-29</b>                                      |
| <b>Research Staff</b> | <b>Chang-ho Shin (in Charge)</b><br><b>Mi-ryang Han</b> |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eoul changes rapidly as the manufacturing industry decreased and the service industry increased. As a result of the changes, heavy scale of companies and industrial facilities are moved out from the semi-industrial areas in Seoul. And haphazard land developing for residence and commerce in that areas caused the lack of industrial location.

To reorganize the industrial structure of Seoul,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should be fostered in the semi-industrial areas. To do so, new innovative policy is needed that can help to develop the areas as a new innovation cluster and to become high valued for existing industr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strategy that can develop the semi-industrial areas with high value at existing industries and foster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industrial structure in the areas, although manufacturing industries decreased generally small manufacturing companies are still working. And the service industries increased much more than the average of Seoul as a whole. Moreover, Working people decreased in Seoul as a whole but increased in semi-industrial areas between 1995 and 2005. This shows that the role of the area is important to the industry growth of Seoul.

Effective Industrial strategies are required in the semi-industrial area to get over the negative image about the area, and to improve the poor circumstance of the area for becoming a new strategical foundation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o suggest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the semi-industrial area, SWOT analysis is used with the result of survey and interview as below:

- 1) S(strength) : It is helpful to have high value added industry, since the innovative circumstance is already well established. In addition, the area is close to with huge market, and the production chain is also well formed already.
- 2) W(weakness) : It has poor physical circumstance such as weak function of R&D, high land price, and economic regulation.
- 3) O(opportunity) : It can cooperate with near integrated industry area.
- 4) T(threat) : The land development for residence can cause weak function of industry, high land price, and public complaints.

The result of the analysis provides three basic policy directions as below:

- 1) Have new policy system that fosters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and promotes the innovative and creative activity of companies in the areas.
- 2) Support the whole value chain to produce higher value added. Production function is still fine at existing companies, but the up stream of value chain such as technical innovation and management innovation is poor. And the downstream of value chain such as development of business model and marketing ability is also insufficient.
- 3) Transform the areas for conducive amenity for business.

With the three basic policy directions above, this study suggests three political strategies as below:

- 1) Fostering innovation cluster for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Strengthening existing industries and induc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in the to semi-industrial areas.
- 2) Constructing industry support platform: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rough organic network comprising variety innovators. The industry supporting center should take a role to

make a better industrial environment.

- 3) Fostering appropriate circumstance for companies to have better business activity:

Upgrading image of the areas through fostering new industries and providing various business facilities such as hotel, convention center and so on. Moreover, providing the areas for the industry support platform in which high valued companies can perform better business activities.

## Table of Contents

---

### ***Chapter I Introduction***

1. Background and Purpose
2. Scope and Method

### ***Chapter II Semi-Industrial Areas as Manufacture Industrial Clusters***

1. Semi-Industrial Areas as Innovative Milieu
2.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Semi-Industrial Areas
3. Reviews of Similar Policy Cases

### ***Chapter III A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s of Semi-Industrial Areas***

1. Industrial Structures of Seoul
2. Industrial Structures of Semi-Industrial Areas
3. A Summary

### ***Chapter IV An Analysis on the State of the Industries in Semi- industrial Areas***

1. Survey
2. Interviewing Research
3. A Summary and Suggestions

### ***Chapter V The Strategy of Strengthening Industrial Competitiveness at Semi-Industrial Areas***

1. Direction
2. Strategies
  - 1) Fostering innovation cluster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 2) Constructing industry support platform
  - 3) Developing appropriate environment for business
3. Policy
  - 1) Fostering innovation cluster of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 (1) Policy for promotion of accumulating new growth engine industries

- (2) Strengthening base of existing industries
- (3) Reviews of promotion cases
- 2) Constructing industry support platform
  - (1) Building a regional innovation system through network
  - (2) Support fo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 (3) Promotion of Industrial-University-Research institutes
- 3) Developing appropriate environment for business
  - (1) Image enhancement activities
  - (2) Considerations of the Operation of Industrial Promotion District
  - (3) Promotion of construction of the Flatted Factory Buildings
  - (4) Creation Town development by regional groups
  - (5) Urban development to provide the high quality of amenity

- ***References***

- ***Appendices***

- 1. Reference Data
- 2. Survey Questionaries

시정언 2007-R-29

## 준공업지역의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

발 행 인 정 문 건

발 행 일 2007 년 12월 31일

발 행 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37-071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391번지

전화 (02)2149-1221 팩스 (02)2149-1245

---

값12,000원 SBN 978-89-8052-533-1-933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속합니다.